

2009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먼 옛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

2009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먼 옛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



통일부 통일교육원

차례

○1 서울특별시

- 날아라 비둘기야,
할아버지 마음 신고 _ 9
- 통일의 그날이 오길 _ 12
- 우리 민족의 허리병,
이제는 치유할 때 _ 15
- 용서, 화해 그리고 통일 _ 18
- 할아버지의 기억 _ 20
-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통일 _ 22
- 우리 할아버지의 통일 노래 _ 24
- 적셔진 심장 _ 27
- 봄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튼다 _ 30

○2 부산광역시

- 남한의 남북 공동 초등학교에서 _ 35
- 지우자 휴전선을, 오랜 아픔을 _ 38
- 공존 보고서 _ 41
- 행복의 문은 곧 통일의 문 _ 44
- 북으로! 남으로! 세계로! _ 47
-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생생하게 꿈꾼다 _ 49
- 마음의 끈만 있다면 _ 52
- 통일로 가는 발걸음 _ 54
- “꼭 한번 놀러오세요.” _ 57

○3 대구광역시

- 어서 통일의 뜻을 달고서 _ 63
- 새는 그들의 고향을
밟을 수 있지만 _ 65
- 통일, 그날이 오면 _ 68
- 할멈, 잘 지내는거? _ 70
- 우리 한 겨레 한 민족 _ 73
- 포옹 _ 76
- 우리는 모두 하나 _ 78
- 할아버지의 소원 _ 80
- 한반도의 원 _ 83

○4 인천광역시

- 세상 밖으로 밀려난 새터민 _ 89
- 신뢰로 이루어진 통일 _ 91
- 너와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 _ 93
-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_ 96
- 휴전선을 뛰어넘어 통일로! _ 99
- 비극 속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 _ 102
- 이상한 나라, 그러나
꼭 통일되어야 하는 나라 _ 105
- 통일을 원하십니까 _ 107
- 우리가 사는 세상 _ 109

면 옛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

05 광주광역시

- 멀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 _ 113
- 단장의 그리움 그리고 그날 _ 115
- 휘파람 소년 _ 118
- 새터민이 두고 온 가족 _ 122
- 철망 앞에서 _ 124
- 보랏빛 통일 깃발을 꿈꾸며 _ 127
- 남가리를 옮겨 놓는 형제의 마음으로 _ 130
-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노래 _ 132
- 낡은 기억 _ 135

06 대전광역시

- 평양에 사는 동수에게 _ 141
- 통일, 그대 바로 이 맛이야 _ 144
- 사선 _ 147
- 무지개 다리 _ 150
- 고장난 신호등 _ 153
- 통일 열차는 지금 어디만치 달려오고 있는가? _ 156
- 금강산에 다녀와서 _ 159
- 호랑이의 허리를 고쳐 주세요 _ 161
- 통일의 씨앗 _ 164

07 울산광역시

- 맞잡은 사랑 _ 169
- 슬픈 진실 _ 172
- 시간에 풍화되어 가는 진실을 위하여 _ 175
-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_ 178
- 작은 관심이 통일을 이룬다 _ 181
- 춘향과 몽룡이 맞절하는 날 _ 184
- 북한 친구들에게 _ 188
- 한 여울교를 건너서 _ 190
- 못 다 부른 아리랑 _ 194

08 경기도

- 같은 민족 같은 겨레 _ 199
- 'I'm from South Korea'가 아닌 'I'm from Korea'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통일 !! _ 203
- 원앙 _ 208
- 할아버지의 눈물 _ 211
- 우리나라 최북방, 그 곳의 들꽃 _ 214
- 벽을 넘는 저 담쟁이처럼 _ 220
- 평양으로 현장학습 가던 날 _ 223
- 갈매기의 꿈 _ 226
- 꼭 피어야 할 꽃, 통일 _ 229

차례

09 강원도

- 먼 옛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_ 235
- 파아란 하늘 같은 소원 _ 238
- 3년만의 만남, 그리고 또 이별 _ 241
- 같은 하늘 아래서 _ 245
- 민족의 나무 _ 247
- 할머니의 가족사진 _ 250
-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_ 254
- 파도를 이겨낸 모래성처럼 _ 257
- 평양으로 모시겠습니다 _ 260

10 충청북도

- ‘생크림케이크’랑
‘뿌셔뿌셔’ 같이 먹을래? _ 265
- 누구보다
아름다운 통일을 꿈꾸다 _ 268
- 찢어진 신문 _ 270
- 38선 주변에 데이지 꽃씨를 _ 273
- 함께 섞일 수 있는 비 _ 276
- 할머니와 손녀 _ 279
- 할아버지는 참전 용사 _ 282
- 해금강의 소원 _ 285
- 지갑 안의 흑백사진 _ 287

11 충청남도

- 그 딸을
백 원에 팔지 마세요 _ 291
-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_ 294
- 2월 _ 297
- 통일을 기다리는 내 친구 _ 303
- 음악처럼 이루어질
화합의 마당 _ 306
- 평화통일, 100년 후 _ 310
- 평화로운 쉼터 비무장지대 _ 315
- 빛바랜 사진에 담긴
씨앗의 의미 _ 319
- 꽃동네 새터민 아줌마 _ 322

12 전라북도

- 마음의 거리를 좁혀요 _ 327
- 하나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_ 329
-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_ 332
- 관심과 배려 _ 335
-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하여 _ 338
- 우리 민족의 민들레 _ 341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_ 343
- 통일의 초석 개성공단 _ 346
-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통일 _ 348

먼 옛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

13 전라남도

- 우리 할머니 생신날 _ 353
- 명선이가 보내 준 초대장 _ 356
- 햄스터의 눈물어린 외침 _ 359
- 이산가족
하나언니 이름에 담긴 이야기 _ 362
- 마음으로 오는 통일 _ 365
- 한반도의 포효를 듣기 위해선 _ 368
- 할아버지의 한숨 _ 370
- 조금씩 조금씩 _ 373
- 남과 북, 마음의 울림 _ 377

14 경상북도

- 통일의 팝콘 꽃을 피우자 _ 383
- “하느님,
이곳 북조선에도 오소서” _ 386
- 할아버지의 노래 _ 389
- 휴전선 너머의 우리 겨레 _ 392
- 통일에의 작은 꿈 _ 394
- 대동강 너머
통일의 노래는 흐르고 _ 397
- 할아버지의 소망 _ 400
- 다시 가고픈 금강산 _ 402
- ‘통일’이란 단어를 알게 된 그 때 _ 405

15 경상남도

- 손을 마주 잡고
빛나는 미래의 길로 _ 411
- 휴전선 _ 413
- 개성 할아버지의 고향 _ 416
- 통일에 이르는 길 _ 419
- 휴전선 _ 421
- 개성을 바라보았다 _ 424
- 통일을 만드는 길 _ 427
- 휴전선 _ 429
- 초콜렛의 의미 _ 431

16 제주도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 _ 437
- 하나이기를 희망하는
내 마음속의 지우개 _ 439
- 오름 위 할아버지 _ 442
- 야, 넘어오지마! _ 444
- 선택 _ 447
- 할머니의 슬픔 _ 449
- 금강산에 매화나무를 심을래요 _ 451
-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_ 454
- 호랑이는 살아 있다 _ 456



서울특별시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날아라 비둘기야, 할아버지 마음 신고 _ 9
- 통일의 그날이 오길 _ 12
- 우리 민족의 허리병, 이제는 치유할 때 _ 15
- 용서, 화해 그리고 통일 _ 18
- 할아버지의 기억 _ 20
-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통일 _ 22
- 우리 할아버지의 통일 노래 _ 24
- 적셔진 심장 _ 27
- 봄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튼다 _ 30

날아라 비둘기야, 할아버지 마음 신고



포이초 6' 김예인

이것저것 나는 원하고, 바라는 게 많다. 하지만, 내 첫 번째 바람은 바로 이산가족이 마음껏 만나고 남북한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통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꿈꾼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는 내게 남북한 전쟁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 공부를 하고, 머리를 잘 쓰는 건장한 대학생들을 잡아 죽이고, 이리저리 피난 다녀야 했다는 것, 할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며 눈물을 글썽거리셨다.

아이를 지키려고 뒤돌아 폭탄을 맞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와 자식을 전쟁터에서 잃고 통곡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난 그 끔찍한 상황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아, 얼마나 잔인한가!

사실 그 때 난 북한을 원망했다. 전쟁을 일으킨 게 공산주의를 지닌 북한의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원망할 때가 아닌란 것을 이제 알기에, 지금 난 북한을 원망하지 않는다.

몇 달 전,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많은 비둘기를 키우는 아저씨의 사연이 방영되었다. 아침에 떼를 지어 하늘을 날다가 허공을 한 바퀴 돌고 어떤 주택 옥상으로 날아드는 비둘기들은 어김없이 아저씨의 새들이었다. 아저씨는 비둘기들을 꼭 아기 다루듯 애지중지하셨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비둘기를 키우게 되신 것일까. 바로 아저씨의 나이 드신 아버지인 할

아버지 때문이다. 6·25전쟁 때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니던 피난민들 중에는 할아버지도 계셨다. 떠밀려 고향인 북한에서 할아버지는 고작 비둘기 한 마리만 갖고 내려오셨다.

왜일까, 바로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과 언젠가 연락이라도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기르던 비둘기가 새끼를 낳고 또 낳아 어떤 무리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께서는 집 옥상에 키우셨다. 꼬부랑 할아버지, 늙은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즉 아저씨에게 비둘기들을 물려주셨다. 아저씨 또한 이제 비둘기들을 계속 키우신다. 가끔 할아버지께서 아저씨와 비둘기 한 마리를 갖고 통일전망대로 오신다. 그리고 비둘기를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신다. 혹시나, 누군가 알아보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통일을 기대하며 살고 계신다.

“통일이 되면, 죽기 전에 꼭 내 고향에 가보리다.”

통일을 바라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내 코끝을 맵게 했다. 통일이 되면, 그동안 얼굴 한번 못보고 서로를 그리워하던 이산가족들이 만나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고향에 가고 싶으시다던 할아버지도 우실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떨쳐낼 것이다.

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영원한 만남이요, 고향에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눈물이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이다!

내 첫 번째 가장 간절한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다. 우리 할머니께 북한의 땅 한번이라도 밟게 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생긴 금강산 관광객의 문제 때문에 더 냉담해지고 차가워진 남북간의 관계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얼리고 있다. 나는, 그 얼어 있는 통일이 빨리 녹아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비둘기 할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우리 할머니께서는 분명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기쁨에 겨워 목 놓아 울지 모른다. 통일이 되어 너무 기뻐서 말이다. 지금쯤 비둘기 할아버지께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또 날리고 계실지 모른다. 비록 집으로 다시 비둘기가 돌아온다해도 분명 비둘기는




할아버지의 그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뿌리고 올 것이다. 분명히!

비둘기야, 그러니까 훨훨 날아라, 우리 비둘기 할아버지와 우리 모두의 간절
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싣고서!



통일의 그날이 오길



마장중 3 | 김지연

오래 지나지 않았던 어느 해인가. “남북 열차, 반세기만에 달린다.” 라는 뉴스 제목을 접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 설레며 환호를 하였던가. 수십 년간 끊어진 철길 위, 녹슬어 있는 열차의 잔해만큼 분단의 상징이었던 열차가 달린다하였다. 철도 운행 재개가 6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열차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외침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는데, 이제 그 열차가 아니라 우리에게 통일의 간절한 염원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어 신의주를 지나 시베리아 대륙으로 이어져 유럽까지,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남과 북의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철도 개통한 지 1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남과 북의 관계는 금강산 관광 중단, 남북 철도 운행 중단, 그리고 개성 공단 문제로 인한 남북의 경협 중단……. 남과 북의 급냉각 분위기로 치닫는 최근, 북측의 로켓 발사와 핵 활동 재개 등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는 북한의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소 떼가 판문점을 넘어가고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던 그때도, 남북간에 긴장은 계속하여 야기되고 있었지만,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며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었다.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조상들이 일제에 맞서 땀 흘려 지켜낸 이 한반도와 지금껏 이루고 발전시켜 온 우수한 기술과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화해와 화합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환경과 360여 종의 지하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유용한 광물은 2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50여 년의 고통의 세월을 딛고 일어나 기술 강국으로 부흥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었을 때, 이런 두 국가가 서로의 장점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 풍부한 자본력에 진보된 기술력이 접합된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가진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교과서에서 ‘단군의 자손’이라 배워 왔다. 모습이 같았고 언어가 같았고, 비록 시간 앞에서, 많이 달라져 있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우리는 분명 한 핏줄인데…….

6·25라는 전쟁과 분단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우리민족이 남북한으로 갈라서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을 우리와 같은 단군의 자손으로 한 핏줄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1세기가 말하는 지구촌 시대에 아직도 폐쇄된 우리 동족의 아픔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 없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군대에서 10년이 넘는 소중한 세월을 보내고 아무런 자유없이 과거 서양의 농노처럼,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의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유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아가고 영상매체를 통해 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반세기간 꾸준히 변화해 왔다. 숨죽이며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시절이 있었고, 서로 웃는 얼굴로 밝은 앞날을 예측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민족이고 서로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 줄기 희망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온 가족이 판문점에 간 적이 있었다. 전쟁의 폐해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에 멋도 모르고 탄성을 내지르고 500원을 넣고 본 안개 속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마냥 신기해 했던 나는 출구에서 행사 중이었던 통일 염원 엽서 그리기를 했었다. 그 때 나는 어설피고 부족한 솜씨로 토끼가 방아 찹는 모양의 한반도를 그려 넣었다. 하지만 그 한반도에는 우리가 요즘 보는 지도에 있는 휴전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선이 없는 한반도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어린소녀의 조그마한 엽서 속 그림이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희망해 본다. 포용은 우리 측에서 많은 것을 인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확하고 까다롭고 의심 많은 상대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남북문제의 실마리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DMZ를 뚫고 열차가 다니고, 국제 경기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며, 많은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제재 없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오고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임을 믿어 본다. 어느새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들이 더 큰 이질감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성숙된 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통일의 주역이 될 우리들은 더 큰 사명감으로 통일의 그날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허리병, 이제는 치유할 때



문영여고 3' 오수지

“형,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리고 있어요. 어서 말 좀 해봐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형, 형.”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인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노인이 된 진석이 형 진태의 유골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이다. 피비린내 나는 6·25전쟁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을, 형제를 뺀아픈 그리움으로 갈라놓았다. 그리고 결국, 꼭 돌아오겠다고 진태형은 반세기가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 어떤 이는 가족을 가리켜 희망이며 행복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고도 한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 가족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그토록 소중한 가족을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에 애통해 하는 그 가족을 반세기가 넘도록 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은 얼마나 큰 한이 되었을까. 그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은, 언젠가 보았던 이산가족 상봉 장면에서도 이따금씩 하시던 농사일을 멈추고 멍하니 북녘 땅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도토리묵을 드실 때면, “그들 고모 할매가 도토리묵을 참 좋아했는데…….” 하시며 그리움에 한없이 쓸쓸해 하셨다.

그렇다. 분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아픔은 이산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어쩌면 이 아픔은 비단 이산가족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민족 모두의 아픔이며, 우리는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또한, 국력의 신장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반면, 이를 고부가가치로 창출할 기술력이 부족하며, 남한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이를 적용할 자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이 만난다면, 국력의 비약적 성장을 통해 한반도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통일이 된다면,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국방비에 투입되는 예산을 과학기술 개발 분야나 교육 분야, 경제 분야 등에 투자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자니, 3년 전 이맘때의 봄이 떠오른다. 3년 전 5월, 통일 글짓기 한마당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다. 남한을 떠나기 전, 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내가 올려다보고 있는 저 하늘은 북한에도 같은 모습으로 있겠지? 이왕이면 하늘의 색깔도 같았으면 좋겠다…….’

내 작은 소망이 그 곳에도 닿았는지, 도착한 북한에서 올려다 본 하늘도 남한의 하늘과 같은 푸름으로 드높아 있었다. 하지만, ‘이 하늘은 끊이지 않고 하나인데, 왜 이 같은 하늘아래에서 우리 민족은 서로 다른 이념과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무거운 마음을 안은 채 난 예술단의 공연을 보았고, 그 아름답던 공연이 끝날 때쯤 한 소녀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귓가에 맴돈다.

“동포 여러분, 꼭 통일이 되어 우리 다시 만납시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남한의 우리들은 소리죽인 눈물로써, 가슴으로써 대답했다. 꼭 그러자고. 꼭 그러겠노라고. 그 순간만큼은 관람석의 우리들이나 무대 위의 그 소녀나 통일을 향한 염원은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녀와의 가슴 벅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잎이 무성하고 푸른,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우리 가슴속 마음의 휴전선을 허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단일 민족, 하나의 민족이 아닌가. 남과 북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 북한말 배우기 운동, 통일 준비를 위한 날 제정 등 통일을 위해 간절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 또한 가족간에는 이기고 지는 법도 없다. 그저 사랑과 이해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희망점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년 전, 저 북녘 땅의 소녀는 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아니, 꼭 만날 것이다. 다시 만난다면, 그 소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보세요, 우리 약속 지켰죠? 통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고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용서, 화해 그리고 통일

경기초 6⁺ 김태경

얼마 전 일이었다. 심부름을 가기 위해 시장 바닥과 같이 왁자지껄한 복도를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활짝 열린 매화반 문턱에 심통이 잔뜩 난 옛날 친구와 마주치고 말았다. 작년부터 사이가 틀어졌던 터라 항상 서로 트집을 잡을 게 없나 살폈었고, 요즘 다른 반이 된 이후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꽹!” 그 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팔을 뻗어 거칠게 문을 닫았고, 나도 돌아섰다. 솔직히 작년 일은 잊고,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한 사이지만 작년에 그 친구와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5학년 첫 날, 2학년 때 친했던 연수와 윤수 등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기에 바빴다. ‘와, 너 많이 변했다! 이번에도 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손을 맞잡고 뱅뱅 돌기도 하면서, 나는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4학년 때 잠깐이지만 언제나 한 몸과도 같았던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나와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 친구는 나에게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결국 혼자가 된 친구를 보면서,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도 않고 심정을 헤아려 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친구가 답답하고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다. 나와 친했던 사이라서 나를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대로 실망을 했다.

나의 불편한 마음은 친구들에게도 전해졌다. 곧 우리 반 외톨이의 사정이 선



생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일이 커지고 말았다.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께 불려간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이유는 정확히 알려고 하시지 않고 언성만 높이셨다. 선생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내가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화해할 것을 요구하셨다.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않았지만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남은 5학년 동안 우리는 다시 선생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친한 척을 해야 했다. 하지만 6학년이 되어서 우리 사이는 다시 악화되었고, 내 마음은 불편하다.

통일에는 전쟁을 통한 통일과 평화통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바라는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지, 전쟁을 통한 강제적인 통일이 아닐 것이다. 평화통일이란 남북한이 서로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진정한 화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불신과 미움의 뿌리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하고 분열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단된 이유를 모른 채 그 친구와 나처럼 누군가에 의해 원하지도 않는 화해를 한다면, 그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화해가 될 것이고, 안 하느니만 못한 통일이 될 것이다.

만약 작년에 선생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깨달아 화해하고, 잘못을 서로 용서해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쯤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둘이 한 때 정말 친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만큼 사소한 일에 서로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남북도 마찬가지이다. 한 때 가까웠던 한 민족끼리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분명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닌 일에도 서로에게 위협을 느끼고, 쉽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한민족이고, 통일을 할 기회와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하다. 우리가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의 뿌리를 찾아 뽑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화해를 통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기억

온곡중 3¹ 추승빈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한강을 따라 자유로를 오랫동안 달렸다. 이곳에도 어제 비가 왔는지 강물은 조금 불어 있는 듯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통일전망대가 있었다. 3층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학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쪽 땅을 보고 있었다.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도 강 너머로 작은 건물들이 있는 게 바라다 보였다. 그 뒤로 산들도 어렴풋이 보였다. 강폭이 좁은 곳은 460m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그 너머는 북한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갈 수는 없다니 답답했다. 전시관에서 북한의 생활상을 둘러보니 우리와는 많이도 다르다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59년 전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니 나는 청평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올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시다.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 용감히 싸우시다 부상을 당하여 상이군인으로 제대하셨다. 전쟁이 일어난 1950년 겨울, 강원도 어은산 1,200고지에서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주인이 뒤바뀌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소총을 안고 낮은 포복으로 고지를 향해 기어가던 할아버지는 “돌격하라!”는 소대장의 외침을 들었다.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 나가려는데 적진에서 뭔가를 던졌고, 그 것은 등 뒤로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주위는 조용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다친 다리를 끌고 두 팔로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오르다가 기진맥진하여 뒤를 돌아보니 두 다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얗게 눈이 쌓인 산비탈을 적셔서 마치 기차길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할아버지는 헬기에 의해 구조되어 목숨을 건지셨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가끔씩 전쟁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로는 예전 일을 잘 기억 못하신다. 병문안을 갔을 때 내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만 흘렸었다. 할아버지는 기억을 회복하셔서 옛날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

‘북핵’이나 ‘대포동 2호 미사일’ 같은 말이 들릴 때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영화 ‘크로싱’이나 ‘천국의 구경을 없다’와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탈북자들이 죽을 고비를 술하게 넘기며 고생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런 형제자매와 동포들과 서로 총과 칼을 겨누게 된다면 그 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렇지만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아직도 큰 진전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노력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친해지기 전에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싸우다가도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면서 함께 어울려 노는 친구가 되듯이, 남한과 북한 사람들도 진정으로 친구가 된다면 싸우는 일도 생기지 않고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또래 친구들과 바로 이 자리에서 ‘통일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주제로 글짓기대회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다가오는 6월에는 청평에 가서 할아버지를 뵈어야겠다. 전에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들려 드리고 내가 쓰는 이 글도 읽어 드려야겠다. 부서지고 희미해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 나라였고 한 민족이었다. 통일이라는 것은 예전의 그 기억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통일

서문여고 2' 조진영

작년 첫 도덕 수업 때 선생님은 가장 먼저 칠판에 ‘통일은 당위의 문제’ 라고 쓰셨다. 필기를 하고 한참동안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한 학기 내내 도덕 시간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대부분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교과서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도 그것은 단지 글자 그 자체만을 이해하는 느낌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내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덕 교과서는 통일의 필요성으로 민족적 자긍심과 동질성의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뿐더러,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같은 민족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경우를 여럿 볼 수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민족은 점차 그 개념을 잃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많은 다민족 가정이 생겨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서 남북 분단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였든 아



니었던 지금 현재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세대가 바뀔수록 설득력을 잃어간다고 느꼈다.

도덕 수업 내용 중에서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남한이 추구하는 ‘통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이었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적화통일, 즉 남한을 공산화시켜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모두 헛된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통일에도 분명히 부정적 측면이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은 통일이 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다. 웬지 모르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역시, 통일 그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북한 문제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런 청소년에게 필요한 통일 교육은 무엇일까?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교육이 절실하다. 분단의 비극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기성 세대와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통일이 되어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확대되었을 때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 청소년과 교류의 장을 제공해 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 스스로의 의식 변화도 촉구된다. 분단의 문제를 과거사의 일부로만 인식한다거나 통일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 바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현실 속에서 통일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통일 노래



광운초 5¹ 박재형

“윌리엄은 잘 있을까?” 윌리엄은 통일전망대에 함께 갔던 나의 미국인 친구이다. 작년 이맘 때 나는 1년간의 미국 공부를 마치고 윌리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콜로라도보다 백배 더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민속촌,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곳을 다녔다.

“내일은 통일전망대에 간다.” 아버지께서 내일의 일정을 말씀해 주셨다.

“통일전망대요? 우와 신나다!” 윌리엄과 나는 어디든 관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차에서 장난을 치며 재밋게 놀다보니 어느새 통일전망대에 도착했다. 우리는 신나게 달려서 옥외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올라가니 가슴이 시원했고 저 멀리 북한이 보여서 너무나 신기했다. 그런데 나는 윌리엄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뚜두두 두두두, 북한 놈들 다 죽어라. 피용 피용” 윌리엄은 북한을 향해 총을 쏘는 흉내를 내었다. 그 순간 내 기분이 이상했다. 윌리엄이 북한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총을 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갑자기 우리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외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지?”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함경남도 안병군 서곡면 상남리 38번지” 라고 할아버지의 고향 주소를 줄줄 외워 드리면 이제야 안심했다는 표정을 지으신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이걸 왜 외워야 해요?” 라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할아버지께서는 “재형아, 잊으면 안돼! 그곳에는 내 동생들이 있고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건 꼭 기억해야 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 거제도도 끌려가셨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할아버지의 아픔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런데 윌리엄은 할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서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한 것 같다.

많은 미국인 친구들은 North Korea와 South Korea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 사실 나와 우리 반 친구들도 통일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박지성 선수의 축구 경기가 더 재미있고 게임에 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다. 얼마 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았다는 뉴스를 보고 몇몇 친구들은 두렵다고 하거나 북한이 나쁘다고 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통일 글짓기를 준비하면서 통일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 통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작고 강한 우리나라도 좋지만 통일을 하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인구나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가 된다. 남북은 한 팀이 되어 올림픽에 나가 더 많은 메달을 딸 것이고 고려의 기상을 볼 수 있는 평양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다. 북한의 철광석과 남한의 포항 제철의 기술이 만나 더 멋진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다. 통일을 하면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다. 북한에는 산이 많고 남한에는 평지가 많아서 북한 친구들은 식량을 얻게 되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

북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된 우리나라를 윌리엄에게 자랑하고 싶다. 우리는 슬기로운 민족이니까 어느 나라보다 멋지게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마음은 다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것 같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북한의 주소와 남겨진 가족들의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6·25전쟁과 피난 경험을 얘기해 주십니다. 요즘도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고향을 지키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였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돌아가셨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북이 하나였던 때를 잊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

는 오늘도 “함경남도 안병군 서곡면 상남리 38번지” 라고 노래를 부른다. 왜냐하면 이것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통일 노래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 나는 통일 노래를 계속 부를 것이다.





적셔진 심장



선일여중 3 | 임지혜

우리들은 알고 있을까?

강원도 고성에 다녀온 것은 바로 어제였다. 남북통일 글짓기대회 하루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던 참에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영상실로 들어갔다. 영상실의 화면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한 듯이 총소리가 거대하게 울렸다. 여러 사진이 나오고 있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시체들과 그 시체들을 아무렇지 않게 옮기는 사람들이 지나고 하나의 가족 사진이 나타난다. 3대의 가족이 실려 있는 흑백사진 속의 사람들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서 있기만 한다. 표정 없는 그들의 사진 속에서 무언가가 가슴으로 날아든다.

다시 화면을 바라본다. 나에게 날아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사진은 붉은 자국에 잠겨간다. 어린아이와 한 할머니가 통곡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언젠가 이산가족을 보았을 때가 생각한다. 그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온다. 찡하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긴다. 눈을 감자 나의 시간은 멈추고 그들의 시간이 이어진다. 서글픔과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분노가 매섭게 나의 몸을 휘감는다. 피. 그 당시에 물보다 흔하고 장미보다 붉었을 피가 발밑에 고여 나를 반긴다. 엄청난 폭음이 울리는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우고 몸이 두둥실 떠

오른다. 화들짝 놀라 눈을 뜬다. 시계는 평소처럼 빠르게 돌고 있고 주변은 고요하다. 소름이 돋아난 팔을 쓸어 본다. 공포. 단 몇 초만에 공포가 머리를 울린다. 낮에 본 사진을 떠올린다. 그 가족들은 이산가족이 되었을지 모른다. 어린아이는 갈 곳을 헤매다 죽었을지 모르고 나이 많은 할머니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지 모른다. 서글픔이 숨어 있던 가슴 한 편이 아려온다.

지나친 상상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지나치다 해도 좋고 쓸데없다 여겨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라고, 그들의 가슴과 적셔진 심장을 느껴보라고 말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많고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다음이다. 부끄러움 이전에 우리는 서글픔을 느껴야 한다. 한국인의 긍지가 무너졌다는 서글픔과 우리를 위해 독립을 이루어 낸 애국지사들의 뜻을 저버린 서글픔, 이러한 것들이 중심에 있어야 통일에 한 걸음 빨리 다가갈 수 있다.

가장 처음 내가 한 질문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나에게 묻고 싶었다. 나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 그들의 서글픔과 분노로 얼룩진 심장을, 아마 몰랐을 것이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무턱대고 통일을 외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 그들만큼의 분노와 그들만큼의 슬픔을 느끼지는 못했을 테지만 그들의 서글픔이 얼마나 컸고 그들이 바라는 통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지금의 나는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통일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쉬운 일부터 해 나가면 된다. 그들의 심장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 가득 담긴 감정을 우리의 심장으로 옮겨 담는다. 그 후에 통일을 외치고 염원하면 된다. 거짓된 마음 수십 개가 모이는 것보다 진실된 마음 하나가 부르짖는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다.

무턱대고 통일을 외치기 전에, 괜한 적대감으로 통일을 반대하기 전에 스스



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길 바란다. 이미 크게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그들을 위해 그들의 뜻이 담긴 심장을 이어받는 것, 이 정도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봄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튼다



미림여고 3¹박여울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아이 두 명이 한 손에 막대를 잡고 지렁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놀이가 끝나자 서로 지렁이를 가지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아이들은 지렁이를 막대기로 잘라 버렸다. 그 순간 지렁이는 괴로운 듯 꿈틀거렸고 나는 그때 대한민국 지도의 38선을 떠올렸다. 지렁이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강자였으리라.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 한 편이 아려왔다.

우연히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약자인 지렁이를 상대로 마음대로 허리를 끊어 놓고 고통을 주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역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고통스런 세월을 살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고조선을 시작으로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로 평화롭게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련도 견뎌낸 장한 민족이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린 것은 잠시뿐 한반도는 다시 열강 세력의 다툼의 장으로 변했다. 한반도는 이렇듯 남과 북으로 나뉘지는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이 비극은 휴전선으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다.

옛날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이런 모습을 질투한 나머지 형한테는 “네 아우가 네가 없을 때면 네 흉을 봐.”라고 하였고 아우한



테도 이와 같은 말을 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집을 반으로 잘라 버렸다. 이 때문에 형은 볼일을 밭에다 보았고, 아우는 물을 마시지 못했다. 남과 북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채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얼마 전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어느새 늙어버린 노부부는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헤어져야 하는 현실에 이내 슬퍼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장면은 나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 주었다.

요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에 반대하는 학생이 61%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안목일 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릇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많은 천연자원과 아직도 청정 지역으로 남아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산과 들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이 남한의 높은 부가가치 산업, 첨단 산업과 연계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통일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린 입버릇처럼 북한은 한 가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나는 모 학교에서 주최하는 '새터민 가족들과의 만남'이란 행사에 참여했었다. 이 날 만난 내 또래의 경원이는 남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 날 반나절이었지만 경원이와 함께 공도 차고 노래도 부르며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제서야 경원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감돌았다. 짧은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 경원이는 나에게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좀 더 친근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렇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사랑이다. 진실된 마음이다.

오늘 통일전망대에 오르며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가 통일을 진심

으로 기원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지리라. 두 노부부의 만남이 더 이상 눈물로만 끝나지 않도록, 경원이와 함께 북에서 온 새터민 가족들이 웃을 수 있도록 통일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다면 그들의 언 마음을 녹일 수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부산광역시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남한의 남북 공동 초등학교에서 _ 35
- 지우자 휴전선을, 오랜 아픔을 _ 38
- 공존 보고서 _ 41
- 행복의 문은 곧 통일의 문 _ 44
- 북으로! 남으로! 세계로! _ 47
-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생생하게 꿈꾼다 _ 49
- 마음의 끈만 있다면 _ 52
- 통일로 가는 발걸음 _ 54
- “꼭 한번 놀러오세요.” _ 57

남한의 남북 공동 초등학교에서



광안초 4¹탁현진

남한과 북한에는 남북 공동 초등학교가 있기 마련이다. 이 글은 남한의 남북 공동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다. 그리고 이 글은 남한말과 북한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했다.

나는 남한의 남북 공동 초등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4학년이다. 지금 우리 반에 북한친구는 3명이다. 봉숙이, 형식이, 그리고 혜지. 이 셋은 오래 전에 남한에 와서 이제 남한말을 잘한다. 그런데 오늘 2명의 남매 북한 친구가 우리반으로 왔다. 그들은 평양 인민소학교에서 왔다고 한다. 이름은 남주와 지은이다. 1교시가 되었다. 1교시는 수학시간이었다. 모눈종이가 필요했다. 선생님께서 남주와 지은이에게 친구들의 모눈종이를 빌리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남주가 하는 말,

“모눈인지 무눈인지 하는 종이가 뭐예요?”

그러자 봉숙이가 말했다.

“채눈종이를 말씀하시는거야. 내가 빌려 줄게.”

“고마워.”

남주가 대답하였다. 물론 우린 채눈종이가 모눈종이란 걸 금방 눈치챘다. 전에 형식이, 봉숙이, 혜지도 그랬었을 거다. 지은이는 내가 빌려주었다. 참,

그리고 형식은 지은이랑 짝지가 되었고, 봉숙이는 남주와 짝지가 되었다. 수학시간이 끝나고 국어시간이 되었다. 이번엔 중심 문장 찾기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중심 문장을 찾으라고 하시자마자 봉숙이와 형식은 즉시 남주와 지은이에게 말하였다.

“중심 문장은 중심 글토막이고, 중심 글토막을 이 이야기에서 찾아.”

봉숙이와 형식이 이렇게 말하자 즉시 남주와 지은이는 중심 문장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어시간도 끝났다. 3교시는 과학이었다. 과학은 아무 일이 없었다. 마지막 4교시는 사회였다. 원래는 사회를 공부해야 하는데 사회 진도가 다 나가서 북한말을 배웠다. 북한말을 하는 사람은 남주와 지은이였고, 동시통역사는 봉숙이, 혜지, 형식이였다. 나머지는 남한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지은이가 말했다.

“양복치마가 남조선말로 뭐야?”

그러자 혜지가 말했다.

“북한은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해.”

그러자 북한에 관심이 많은 철수가 말하였다.

“스커트. 맞지?”

봉숙이가 말했다.

“정답”

그렇게 해서 우린 블라우스가 양복적삼이란 것을 알았고, 숙소가 초대소, 소풍이 들모임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급식시간이다. 오늘은 미역국과 볶음밥이 나왔다. 급식을 받자 남주가 말하였다.

“어, 내가 좋아하는 락제국이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뭐, 락스국? 이진 미역국이야.”

그러더니 지은이가 말하였다.

“기름밥이다!”

이번엔 수호가 말하였다.


“이진 볶음밥이야.”



이렇게 해서 우린 서로의 말을 점점 알아 갔다. 일기 끝!
나의 상상 일기이다. 그런데 내 불만이 있다. 우린 한겨레인데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서야 될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생겼으
면 좋겠다.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우자 휴전선을, 오랜 아픔을



장안중 1 | 윤진영

가끔 ‘만약 내게 뭐든지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공상일 뿐이지만, 이러한 생각은 상상 속에서라도 내 부끄러운 시험 점수를 지울 수 있고, 옷에 묻은 흉한 얼룩을 없앨 수 있으며, 친구와 싸웠던 어제를 지울 수도 있다. 그럴수록 그 지우개는 나를 웃음 짓게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 공부를 하기 위해 항상 그래왔듯이 책상에 앉아 사회 과부도를 펼쳤는데, 그 날은 왠지 우리나라 전도를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한반도 호랑이의 허리 부근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휴전선 때문이었다. 평소 부끄러울 정도로 통일에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그 가는 선 한줄기를 보니 우리들의 아프고 쓰라린 과거가 떠오르는 듯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과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지우개를 들고 휴전선을 박박 지우기 시작했다. 물론 문구점에서 산 지우개로 한 뼨도 채 안되는 책 속의 휴전선을 지운다고 해서 통일이 될 리 만무하지만, 휴전선이 하얗게 지워진 우리나라 전도는 더욱 보기 좋았다.

이토록 간단하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통일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슬픈 사실이다. 왜 텔레비



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산가족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들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만 할까. 휴전선을 뛰어넘어 몇 십 년만에 상봉하는 이산가족을 보며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릴 순 없을까. 모두가 말로는 통일을 이루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서어서 이루어져야 할 통일은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로움이 부족하다보니 자꾸 미뤄지는 것도 맞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과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 부족, 서로의 적대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통일에 우호적인 태도를 바라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갈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들은 통일을 이룩하면 경제가 더 발달한 남한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입장에 처한다고 생각한다.

그도 그렇지만 통일이 된 후의 우리나라 모습은 항상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밝은 면이 더 넓을 것이다. 남한의 어린이와 북한의 어린이가 단란하게 손을 잡고 남북이 공동 주최하는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고, 몇 십 년만에 그리운 아들을 찾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남북한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달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고, 신문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매일 실리게 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이다. 이처럼 휴전선이 사라진 뒤의 우리나라는 상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몇 번의 지우개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다. 가장 먼저 남북 분단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란 걸 깨닫고, 남북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통일의 희망의 빛은 밝게 빛난다. 희망의 빛이 가장 환하게 타오를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면 어떨까. 비록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커서 나 혼자만의 힘으론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손에 통일이란 이름의 지우개를 들고, 휴전선을 비롯해

우리 마음속 상처를 조금씩 지워 나가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걸릴지라도 끝내 하얗게 지워 없어질 휴전선의 자리엔 남북한 사이의 평화로 대신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남북분단이란 병에 걸렸던 한반도 호랑이의 병을 치료해 주고, 이 산가족들이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 라는 단어를 새겨 넣은 뒤의 우리나라 지도, 상상해 보자. 근사하지 않은가.



공존 보고서



부산문화연고 2 | 박선영

“전 우주의 공존을 도모하는 의미로 우리 안드로메다에서는 ‘공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BC107호는 외부 은하인 지구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특히 힘써 주기를 바란다.”

지구의 공존에 대한 주제를 부여받은 BC107호는 지구를 조사하다 특이한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발견, 지구 공존을 위해 이 나라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것을 보고 드림.”

BC107호의 외계 생물체들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먼저 분단의 이유를 알아 보기로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이 나라는 내적으로는 민족의 분열, 외적으로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분단되었음.’

보고서를 작성하던 BC107호의 서기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인간들은 이상해. 왜 같은 민족이면서 따로 나뉘어서 사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령관이 말했다.

“그러게말이야.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어서 조사를 서두르지.”

서기는 더욱 부지런히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분단으로 인해 이 나라는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고통은 더해져 가고 있음. 또한 국제적 평화를 위협한다는 주변국들의 질타와 유일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

지나가던 사령관이 다시 서기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하려는 인간들의 노력도 조사하게나.”

서기는 속으로 ‘잔소리 대마왕’ 이라 투덜거리며 조사를 이어갔다.

‘1971년 8월 이후 일천만 이산가족찾기 운동,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0년 9월 남북 고위급 회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한쪽에서는 핵 재처리 시설과 우리농 농축 시설 등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함.’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 보며 서기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사할 내용은 통일 달성을 위해 인간들이 갖춰야 할 역할이군. 찾아볼까나?”

서기는 그레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통일 달성을 위한 인간들의 역할은 나오지 않았다.

“사령관님 통일 달성을 위해서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제3자인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령관은 화가 나 보고서를 멀리 던져 버렸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주 공간을 떠돌던 그 보고서는 남한의 18세 소녀에게 도착했다. 그 소녀는 보고서에 미처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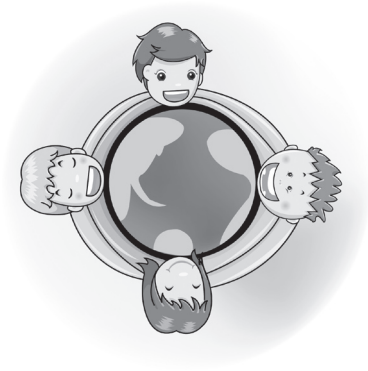
‘통일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반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으므로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한 걸음씩 의식을 개혁해 나가며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긍지 그리고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에 경제나 정치 부분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를 완성한 소녀는 빙그레 웃으며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굳게 다졌다.



10년 후 작은 소녀는 훌쩍 커 버려 성인이 되었다. 통일을 이룩한 행복한 이 땅에서 성인이 된 소녀는 종이 뭉치를 줍게 된다.

'제 2차 지구 공존 보고서, 평화로운 한반도가 눈에 띈. 다른 이상 전혀 없음.'



행복의 문은 곧 통일의 문



기장초 5¹ 정주희

일단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이유부터 알아보자. 남북한이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긴 우리나라가 독립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와서 ‘너희가 힘이 없으니 우리가 보호해 줄게.’라며 소련은 북한을 통치하고, 미국은 남한을 통치하였다. 그런데 소련은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들어 6·25전쟁을 일어나게 하였다. 그 후로 38선으로 갈라져 더욱 더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 알아 봐야 할 것은 통일이 무엇인가이다. 알다시피 지금 남한과 북한은 갈라져 있는데 이 갈라진 남한과 북한이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하여 다시 합치는 것이 통일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그들에게 물어 보면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을 위해서 남한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만약 남한사람이 힘든 일을 할 때 80만원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지만, 북한사람에게는 80만원이 큰 돈이기에 분명히 힘든 일이라도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은 더 어렵게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에 뉴스도 찾아 보았는데 거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100% 중에



서 70%라고 볼 수 있어서 나도 같이 응원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통일이 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장점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나아질 것 같고, 남북한의 힘을 합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국방력이 세질 것 같다. 그리고 단점은 북한이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하는 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크고 작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 번째, 북한 사람들에게 편지 쓰거나 북한 돕기 행사를 통해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컴퓨터, 인터넷, 뉴스 등을 이용하여 북한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남한은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생활도 많이 편리해졌다. 남북한은 예전보다 많이 편리해진 삶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했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엄마, 아빠, 지금은 남북한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편리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예전보다는 가난한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경제가 더 나아질 거라고 볼 수는 없단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북한에 대해 더욱 관심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 북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니?”

“네. 그런거 같아요.”

이제는 통일이 되어 서로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더 알아 가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과 끈기를 놓지 않았

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난 뉴스나 사회 시간에 남북한의 얘기가 나오면 눈시울이 빨개진다. 왜냐하면 이산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그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조상들이 힘들게 전쟁을 해가며 살아갔을 모습이 내 눈 앞에 스쳐 지나갈뿐더러 각자 자기들의 나라를 어렵고 힘들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키려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일이란 생각을 하면서 냄비에 비유해 보았다. 냄비를 많이 쓰면 찌그러지고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남한과 북한은 갈라져 있다. 다시 새로운 냄비가 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버텨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는 데에도 힘든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 행복의 문을 열지 않겠는가?





북으로! 남으로! 세계로!



구서여중 3¹박지윤

“엄마, 왜 우린 나라가 두 개야?”

얼마 전, 버스 안에서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곳으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꼬마아이의 엄마는 우물쭈물하다 결국 대답하지 못했다.

이 일이 있는 후 난 그 아이의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평소 소에 통일에 대해 무관심 했던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처럼 대답을 회피하기만 해서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60여 년 전 우리나라가 남,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그 후의 아픔은 아직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고통에 비해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관심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나도 처음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통일을 할 때 북한의 문화적, 종교적 등 우리 남한과 많은 것이 달라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고 북한에 관심이 많아지니 점차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

나의 생각을 바뀌게 한 제일 큰 이유는 통일을 했을 때의 좋은 점이다. 우선 통일을 하면 첫 번째, 무엇보다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 반만년 이어온 한민족

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육십년간 헤어져 살았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다. 하루만 가족이랑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데 60년 동안이나 보지 못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에 여러 가지 도로,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수많은 도로와 건축물들이 건설될 것이며 이러한 건설을 통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건축 경제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번째,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에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명성을 얻어 온 명산들이 많이 있다. 이런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한국의 문화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북한의 예술적인 면과 남한의 기술적인 면을 합치면 그 어떤 나라보다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남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등 이로운 점이 아주 많다.

그럼 이런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엔 무엇이 있을까?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나 학교에선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자꾸 하여야 하고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을 통해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한다. 통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 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얼마 있지 않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한다.

그 어떤 나라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생생하게 꿈꾼다



부산관광고 3¹구민지

작년 7월 무더운 여름날, 백두산 등정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우리의 산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지 못하여 중국을 통해 둘러가야 했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백두산 등정을 하고 두만강 보트 체험으로 이동중 조선족 가이드 아저씨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 북한의 외갓집에 갈 때는 늘 먹을 것과 생필품을 양손 가득히 싸들고 간다는 것이었다. 또 북한의 집 유리창에는 유리 대신 바람만 막아줄 몇 장의 비닐로 겨우 창문 구실을 하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해가 지면 무척 불편하다고 했다. 보트 승선장에 도착해서도 난 또 한번 놀랐다. 보트를 타기 전에 비닐 봉지에 먹을 것을 넣어 준비 한 후 북한 땅 근처로 보트가 가면 그 봉지를 던져주라는 가이드 아저씨의 말이 너무 충격이었고, 통일의 바람과 필요성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관광고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하나로 뭉친 한반도의 경제적 이익을 관광과 문화 발전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북한 자원을 좀 더 연구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 방문 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일로만 해도 우리 북한의 관광자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즉 환경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난 북한의 산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직접 갔다 온 백두산은 우리 산인데 중국은 마치 모두 자기들 것인 마냥 입장료 및 관광

객들의 모든 순이익을 빼앗아 간다. 이 사실이 난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한 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장군봉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의 성산’이라는 이름에 맞게 변화를 주고 중국을 긴장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중국에서 백두산 그 자체는 최고였지만, 안내원이나 시설에 단점이 많이 보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은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돈을 지불하여 분단의 대가로 관광으로만 치르지 말고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지로 크게 자리잡을 것이다. 또 한반도의 55%가 북한의 땅인데 그 중 76%가 산인 이곳은 관광자원을 무한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에 따라 무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위적 개발보다 자연적 볼거리를 더 좋아하며 이러한 추세로 세계는 변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묘향산 지구에 있는 단군의 유적이 있는 단군사와 북한의 중심지인 평양을 비롯하여 함흥, 개성에 문화 사적들이 편중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통일 후에도 큰 재산이 된다. 동북공정이라는 이름하에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고 있기에 그 재산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해안선 관광지를 말하고 싶다. 중서부 해안에 면하고 있는 이곳 구월산 중심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큰 항구 발달과 해안선을 끼고 있는 청진은 ‘황금의 삼각주’라고도 불리며 해안선을 포괄하는 관광지인데, 이곳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크루즈 산업을 이곳들과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한반도는 진정한 선진국행을 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대 상선의 유람선 및 쾌속선으로 이틀간 관광하는 상품이 몇 가지 있지만, 나는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 위협을 과시하는 불한당 나라로 인식되지만, 정치적으로 이면에서 관광 사업은 공산주의에 마지막 남은 북한까지 들어가 있다. 선봉지구를 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1991년 12월에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여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관광권 지정에, 1987년에는 WTO에 가입하기도 했다. 왜 북한은 현실 가능한 통일에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 장단점을 보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 우리식대로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적극적인 외교의 방법으로도 ‘관광’을 말한다. 물론, 내가 말한 것은 아주 일부이지만 조금 더 북한에 대해 알고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백두산을 베이징행이 아닌 평양행의 비행기로 등장해서 당당하게 태극기를 펼치고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생생하게 꿈꾼다.





마음의 끈만 있다면



연지초 5¹ 신예지

“북한에서 핵실험을 또 하였구나.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놓고……. 예지야! 이 기사 좀 보렴!”

어제였다. 부모님께서서는 매우 놀란 목소리로 독서를 하던 나를 부르셨다. 아빠께서는 항상 북한이라든가 통일에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시면 제일 먼저 나에게 보여주신다. 평소에는 그냥 ‘또? 북한 정부는 싸우는 것만 연구하나 봐.’ 하고 생각하였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났다. 얼마 전 다녀온 통일글짓기대회에서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나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냈는데 그에 어긋나게 더욱 강한 핵을 만들고 있다니 말이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은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상상할 수 없다. 북한의 핵 때문에 평화적 통일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을 아는 것일까, 모르는 것일까? 도대체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어제는 북한이 한 핵실험 때문에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남 북한의 통일에 가장 큰 힘이 되어야 겠다고 결심하였다.

어제 읽던 책의 이름은 ‘증기기관차 미카’였다. 4학년 때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야기였다. 누구나 한 번씩은 북한에 가 보고 싶을 때가 있었을 텐데 미카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지금은 증기기관차가 다니지 않고 철도박물관에 가야지 볼 수 있지만 증기기관차가 다니고 우



리나라가 분단국가가 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증기기관차로 압록강 너머까지 가보고 싶었다. 이제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북한!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한민족, 한겨레가 아닙니까?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헤어진 가족들이 그리워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희는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휴전선을 볼 때마다 57년간 분단국가로 살며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어서 통일을 합시다!”

통일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의 마음을 바꾸었다. 지겹기만 하던 애국조례와 묵념도 이젠 가슴이 뭉클해진다. 곧 6월이 시작되고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신 훌륭한 위인들께 분단국가가 되어 통일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다.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이산가족들의 고통

둘째, 남북한의 평화

셋째,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공동성명은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있다. 북한은 우리와 계약한 것이 있고 이산가족과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통일을 하여야한다. 이산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겠다.

‘대한민국 만세!’





통일로 가는 발걸음



덕명여중 2¹ 김영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하며 웃음을 지을 때 이산가족들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울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오래 전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일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 언어와 생활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100년, 아니 200년이 지난 후에는 한 민족이 아닌 두 민족으로 서로가 같은 밥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사실도 역사 속으로 묻혀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참혹한 미래를 막기 위해 또 북에 혹은 남에 남겨 둔 가족들 생각에 가슴에 돌 바위만한 멍을 안고 사는 이산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시급하게 또 그 어느 것보다도 신중하게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먼저,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의지가 필요하다. 대개 일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살면 되지 북한과 통일을 꼭 해야 하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남한이 북한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충분히 평화롭다고 생각하여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만 잘 먹고 잘산다면 그것은 반쪽뿐인 평화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반쪽뿐인 자유일 뿐이다. 우리는 같은 조상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자유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의 의지가 담긴 흡수 통일이 아니라 남북간의 동등한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독일은 약 19년 전에 서독과 동독간의 통일을 이루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서 배울 점도 많았지만 문제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일이 통일을 할 때 잘사는 서독에서는 가난한 동독에게 엄청난 물질적,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동독 주민들과 서독 주민들의 정신적 간격은 점차 멀어졌다. 동독 주민들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서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장은 좋았지만 나중엔 서독의 체제와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서독에서는 동독에게 무리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흡수 통일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경제적 수준을 끌어 올려 우리와 대등한 수준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동포의 사랑과 정을 쏟아야 할 이 때,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통일은 이익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두 나라의 교류 또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존심은 있다. 잘사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여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쾌한 법이다. 이처럼 우리도 북한을 돕는다고 하지만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동생이 밥을 굶으면 형의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형제의 사랑이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따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으로 북한을 타이르고 달래며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된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와 눈이 갑자기 녹으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쉽다. 또,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가 쉽다. 제 아무리 마음이 바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처럼 통일이 아무리 우리 민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해서 서두르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긴 안목으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어

른들만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어른들만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꽃의 봉오리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의 꽃이 시들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꽃을 피워 미래의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제 2의 꽃으로서 또 통일을 완수해야 할 책임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편지 주고받기와 상호 방문 등의 통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푸른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배운 희생으로 작은 것에도 자신이 먼저 희생하겠다는 정신과 행동 없이는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당위적 과제로서 이제 그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무역과 관광을 통한 물적, 인적 교류와 학자들간의 학문적 교류 등의 쉬운 작업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런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또 타이르고 달래며 진정한 동포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북한도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통일의 광장으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꼭 한번 놀러오세요.”



부산서여고 3¹이연옥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데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겁니다. 이런 흔치 않은 경험을 했으니까네 훌륭한 사람이 되야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놀러오십시오. 알겠지요?”

작년 1월에 갔던 금강산 관광때에 북측 안내원 언니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다. 이 금강산 관광은 각 학교당 한두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청에서 보내준 것이었는데, 아마도 그 취지를 알고 하는 말인 듯했다. 솔직히 그런 말을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관광지에서 들었다면 ‘여기 살면서 이런 곳 맨날 보는 이 지방 주민들은 그럼, 다 똑똑하고, 다 훌륭한가?’ 하고 토를 달았을만한 발언이었다. - 라는 것은, 그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답할 것이다. “단 며칠 동안 북한을 너무 알아버려서.” 라고…….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들 중 한 가지는 북한은 공과사를 정말 엄격히 구별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민감한 관계에 있는 남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더 그랬는지는 몰라도 관광중 접했던 대부분의 북한 분들은 사적인 대화를 꺼려 하고 업무상 필요한, 일 - 관광지 소개라던가 안내 등의 - 과 관계된 말 외에는 일절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고, 사진 촬영을 부탁해도 ‘근무 시간에는 찍을 수 없다’는 말로 단칼에 거절

하곤 했다. 그 결과 난 ‘북한사람 = 융통성 없고 딱딱함’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부심 넘치고 명랑한 목소리로 ‘또 놀러 오세요.’ 라는 옆집 이웃 배웅하듯 한 말을 들은 것이다. 정말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북한과 남한 사람들 사이에선 쉽게 오갈 수 없는, 약간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북한의 사람에게서, 이렇게나 진심이 단긴, 밝은 목소리로 듣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 때 나는 좀 오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뉴스를 통해 접해 온 남북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한이 북한에게 외사랑을 퍼붓는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어찌면, 지금 이 안내원 언니처럼 북한도 우리를 향해 손 내밀었기 때문에, 금방 틀어져도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이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정말은 누구 하나의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진, 다만 미처 전해지지 못한 잠정적으로 이뤄진 사랑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생각해 보면, 금강산 관광을 하며 만났던 북한 분들은 거의 다 무뚝뚝해서 다가가기 어렵긴 했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다.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가면, 무뚝뚝한 표정과 말투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감춘 채 시나브로 친절을 베풀어 주신 북측 분들도 많았다. 금강산 등산때 미끄럼 방지용 안전 장치를 제대로 매지 못해 찢절 매고 있을 때 대신 매주고 감사 인사도 듣지 않고 가신 분, 다른 북측 직원과 얘기하시던 중에도 사진 좀 찍어달라는 요청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들어주셨던 금강산호텔 벨 보이 아저씨, 어느 쪽에서 찍는 게 더 멋지게 나온다는 베스트 포토존(Poto-zone)을 뒤에서 넌지시 말해 주셨던 북측 관광 안내자분 등 계속 나열하다 보면 그 때 만났던 모든 북한 분들을 부르게 될지도 모를 만큼 알게 모르게 많은 친절을 받았다.

요즘 들어 금강산 관광·개성 공단 사업 중지와 북측의 핵개발, 남측 개성 공단 사업 관계자 억류 등 남북관계가 많이 악화되었다. 며칠 전엔 북한의 남북 공동사업 관계자 대다수가 실종되거나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면, 이리다가 정말 남북관계가 끝이 나는 건 아닐까 하고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결국엔 친절함과 호의를 내보인 북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 한 핏줄인 한 남북은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 다시 한 번 놀리오라던 북측 안내원 언니의 환한 미소와 다정했던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히 울리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북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는 그 날, 나는 가서 말할 것이다.

“꼭 한 번 놀러 오세요.”





대구광역시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어서 통일의 뜻을 달고서 _ 63
- 새는 그들의 고향을 밟을 수 있지만 _ 65
- 통일, 그날이 오면 _ 68
- 할멈, 잘 지내는겨? _ 70
- 우리 한 겨레 한 민족 _ 73
- 포옹 _ 76
- 우리는 모두 하나 _ 78
- 할아버지의 소원 _ 80
- 한반도의 원 _ 83

어서 통일의 뜻을 달고서



조암초 6' 김우정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하루 빨리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통일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올해 2월말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통일에 대한 내 생각은 확실히 바뀌었고,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고향이 이북 땅이시다. 6·25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오고 동생들과도 헤어졌다. 다행히 경남 삼천포에서 아버지와 남동생을 만났고, 삼천포에서 가정을 이루셨다. 그러나 두고 온 동생들과 고향집을 잊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몇 년 전 북한에 두고 온 남동생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 땅이 아닌 먼 나라 중국에서 어렵게 만나고 오셨다. 그리고 아주 잠시였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무척 기쁘셨나 보다, 어느 명절에

“얘들아, 나 동생 만나고 왔다!”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표하셨다. 우리가 자주 뵈러 가도 할아버지에게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밝은 미소를 보았다. 이때 난 “가족이란 행복이구나. 이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할아버지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그 후, 할아버지께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성공단에 다녀오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다. 할아버지의 연세로는 무리셨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8개월 동안 병과 투쟁을 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할아버지가 평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다.”

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통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졌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제일 큰 과제이다.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항상 통일을 염원하고 있어야 한다. 남과 북 우린 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쓸데없는 국방비를 줄인다면 우린 좀 더 잘살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 남한은 북한이 어려울 때 도와 줘야 한다. 도와줌으로써 남과 북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보같은 짓’, ‘아까운 돈 낭비’라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같은 형제끼리 어려울 땐 도와주고, 기쁠 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같은 형제인데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셋째, 지금부터 북한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고 동질감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60년 동안이나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난 그런 점이 걱정스럽다.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친구들과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놀리지 않아야 하고, 언제든지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하자원, 남한의 노동력과 기술력 등이 합쳐져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또 이 지구상엔 단 하나의 분단국가도 없을 것이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국력이 세져서 어느 나라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대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외할아버지가 그렇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처럼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산가족의 한을 빨리 풀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통일을 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 된 모습을 온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을 잊지 않고 우리 민족을 잊지 않아야 한다.

새는 그들의 고향을 뵈을 수 있지만



성산중 2 | 윤희민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 되어 흐르던 시냇물은 갑자기 두 갈래로 나누어진 물길을 따라 뜻하지 않게 나뉘어져 버렸다. 둘로 나뉜 시냇물은 그 상황을 그저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할 뿐, 두 갈래로 나뉜 물길을 따라 그저 흐를 뿐이었다.’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나뉜 두 물길과 그 길을 따라 뜻하지 않게 흐르는 시냇물이 꼭 무엇과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생각한다. 갑자기 두 갈래로 나뉜 물길은 한 나라 한민족을 나뉘게 한 지금의 삼팔선이요, 그 길을 따라 뜻하지 않게 흐르는 두 줄기의 시냇물은 이산가족의 눈물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 본다. 만약 두 물줄기가 서로 만나기 위해 두 갈래로 나뉜 물길을 세차게 들이받아 꺾고 꺾었더라면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물론 길을 들이받아 꺾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두 갈래로 나뉜 물줄기 중의 하나였다라면 다른 한 물줄기와의 만남을 위해 고통을 감수했을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이 몇 장 남짓한 글 속에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이 둘로 나뉘에 대한 무관심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나는 위에서 이야기한 ‘언젠가 바다에서 볼 수

있으리라는 두 시냇물의 아무런 의미 없는 막연함'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젠가 통일될 수 있다'라는 무관심한 생각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사람들의 무관심함을 위해 각종 매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산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철새들도 계절에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그들의 고향을 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산가족은 그렇지 못하다. 헤어진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정작 들리는 것은 통일을 외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목소리이고, 헤어진 가족의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듯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는 현실이다. 눈을 떠본들 보이지 않고 귀를 열어본들 들리지 않고 입으로 말해본들 전해지지 못함이 이산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만나고 싶지만 삼팔선이라는 축새가 그들의 다리를 붙들고 있다. 매일 누렇게 변해 버린 헤어진 가족의 사진을 쓰다듬고 가슴에 안아 보며 살아 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산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나 또한 이산가족이 아니기에 그 아픔을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아픔이 내 마음에 와 닿아 내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전해 준다.

지금도 금강산 관광도 가능해지고 각종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더 많기에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더 나아가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던 독일처럼 여러 가지 개방 정책과 남북간의 많은 협상, 교류를 통해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나와 같은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통일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겠지만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도 통일의 문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저 철새들이 이산가족, 그들의 마음을 헤어진 가족에게 전해줄 뿐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헤어



져 있던 동안에 지쳐 있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끝마친다.



통일, 그날이 오면



경북고 3¹ 이재원

남북 통일이 우리 집안에서는 작게나마 이루어진 듯합니다.

사업차 왕래하시던 큰아버지께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오갈 곳 없던 탈북 청년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후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그 탈북 청년을 양자로 삼으셔서 그 청년은 이제 저의 사촌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촌형에게 비참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듣고 대화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 장거리 로켓 발사, 폐연료봉 재처리 그리고 개성공단의 남북한 계약을 무효화하자는 등 국제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보살피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무능력하고 자기중심적인 가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된다면 과연 북한을 포용해주고 이해해 줄지 의문이 듭니다. 저에게 북한은 적대적 관계도 아니고 무조건 헌신적인 짝사랑을 퍼부을 존재도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 대하여 이원론적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정부는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고 이성적이고 원칙적으로 북한을 대하여야 합니다. 한민족으로서 잘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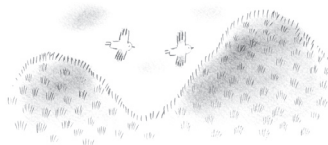
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와 기업은 정치색을 띠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간단체와 기업은 장기간 보관이 되지 않는 식료품,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기업은 또한 재투자가 필요 없으며 군사적으로는 사용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와 풍력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탈북자 수는 일만 오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단순 노동직에 근무하는 분의 기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새터민에게 단순 노동직이 아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북한에서 군사 훈련만 받은 군인 출신이지만 현재 연세대학교 토목학과를 다니는 우리 사촌형처럼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결연 가족을 맺어 주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좋은 대우와 좋은 교육을 받은 새터민들에게 반세기 동안 단절된 남북한의 문화를 잇는 통합의 중간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도하 훈련을 받은 북한군인 출신인 사촌형과 낙동강가를 걸으며 ‘어찌면 통일이 가까이 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우리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일이 올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할머니 잘 지내는게?



계성초 6 | 최소훈

‘할배, 나 봉녀입네다, 할배 마누라!’ 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립소. 아프고 고통스럽다. 봉녀야. 아니야.” 앵? 오늘은 조금 이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라니요? 몇 분 지나서. 그제야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는 이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할매, 나는 네 야무지고 쉰, 친근한 목소리를 듣고 싶단 말여!” 계속 ‘아니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답니다.’ 평생 할아버지랑 있어서 고생만 하다 북녘 땅으로 훌쩍 가버린 할매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는요, 정말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대요. 할매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사는거래요. 갈라지는 아픔을 느끼기 전에는 할매의 소중함을 모르고 만날 모질게 굴었대요. 그걸 또 받아들인 할매도 좀 이상하다 생각되었지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5년마다 우리 집은 전쟁이랍니다. 텔레비전 서로 보겠다고 말이죠.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올해부터 텔레비전을 3대나 들여놓았을까요? 아빠, 엄마는 골프 채널, 나는 영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말이죠, 남북 정상 회담을 녹화하여 계속 계속 보신답니다. 저도 저번에 할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눈이 아프고, 어지러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할아버지는 할매를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시겠대요. 심지어, 영혼, 즉 목숨까지



지 내놓을 수도 있으시대요.

할아버지께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왜 통일을 바로 못하는 걸까?’ 저번에 한번은 엄마께 이렇게 말했다가 잔소리만 들었어요. 생각을 좀 깊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통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의 소박한 희망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인걸요. 저는 할배, 할매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이렇게 항상 우울하게 지내다가 밝아지면 제 마음도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오늘도 역시 할매 사진을 뻘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할매 얼굴은 아주 고운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할매 이야기 중에서 저는 화장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훈아, 할매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했다카이. 얼굴에 분도 분꽃 씨앗을 깨뜨려 손수 만든 것을 사용하고, 립스틱도 사서 꽃즙과 함께 발랐다 아이가.” 이런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심 기쁘기도 했구요.


“어! 이게 뭐꼬?” 하는 소리와 함께 저도 같이 놀랍니다. 할배의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요, 눈은 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금강산에서의 사진입니다. 거기를 보니 할매와 할배는 두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라는 말에 저도 슬퍼져서 같이 얼굴에 눈물을 적셨습니다. 그래도 바로 닦고 밝게 웃으며 사진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니 태어났을 때, 니 죽도록 이뻐했데이, 그 왜 그카는지 아나? 니가 할매를 많이 닳았그당.” ‘할배, 많이 듣는 소리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기분은 아주 짱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저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통일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작대로 할아버지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가기 전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시지 못합니다. 밤새 뒤척이다 날이 다 밝아왔습니다. 기차를 타신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잘 갔다 오겠다구요, 기차가 드디어 출발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

을 가라앉히고 할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봉녀야, 봉녀야!’ 그리고 몇 분 지나서 ‘잘 지내지? 내가 간다. 쯤만 기다려래이 봉녀야!’
오늘따라 더욱 더 빗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옵니다.



우린 한 겨레 한 민족



공산중 3 | 윤예슬

“점심 먹고 놀지 말고 다들 강당으로 와, 알겠지?”

선생님의 말씀에 우린 모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4교시 시작 전에 태준이와 재범이가 한바탕 싸웠기에 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우리들에게 강당으로 오시라는 걸까?

“시내야,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얼른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런데 강산에 너는 선생님이 왜 우리에게 강당으로 오라고 하셨을 것 같아?”

“글쎄…… 아, 배고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빨리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강산이의 식욕은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어쨌든 나도 점심을 먹으면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강당으로 부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점심을 먹은 후에 강당에 들어서니 강당 한 가운데에 긴 선이 그려져 있었다. 빨간 그 선은 강당의 무대부터 출입문까지 죽 이어져 있었다. 강산이와 내가 제일 먼저 왔는지 아직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산이와 나는 강당 바닥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어제 뉴스에서 그러는데 새로운 국기를 만들거래.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전도 한다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 볼까?”

“그래, 그거 재밌겠다.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통일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묘사해야 한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제 한 나라라는 걸 잘 알리기 위해서 말야.”

“음 …… 통일된 우리나라라……”

강산이와 내가 정신없이 얘기하는 동안 반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오셨다. 태준이와 재범이는 아직도 화해를 안했는지 서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자, 모두 모였지? 중간에 빨간 선이 보일 텐데 지금부터 각자 그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에 서 봐.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 원하는 데로 가 보렴.”

다들 어리둥절하게 선생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강산이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섰다. 신기한건 우리반 친구들의 딱 절반이 오른쪽에, 다른 절반은 왼쪽에 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한 말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세요. 그 친구가 나와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닌가요?”

“아니요!”

반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나와 강산이도 서로 얼굴을 보고 씩 웃었다. 어,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나빠 보였던 재범이도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굴 보며 웃는거지?’

나는 내 주위를 숙 돌아보았다. 혹시 태준이를 보고? 그렇다. 재범이는 빨간 선의 오른쪽에, 태준이는 왼쪽에 섰지만, 방금 전까지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서로를 보며 가장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다 같은 친구들은 선 하나로 갈라놓는다고 달라질건 없죠, 아직도 친구니까요. 더 이상 선생님이 설명 안해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왜 즐거운지 충분히 알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났다. 그래 한 민족을 휴전선이라는 철조망으로 갈라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걸 증명해 보이듯 이렇게 통일을 이루어 내지 않았는가. 강산이도, 재범이도



원래 평양에 살았었지만 지금은 나와 범준이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가. 비록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금세 서로를 보며 큰 소리를 웃으니 그 누구도 이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시내야. 같이 가.”

“응, 너랑 같이 가려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

“새로운 국기 만들 거는 생각해 봤어?”

“당연하지.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만들자. 나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





포옹



구암고 2 | 양아림

“아림아, 너 살까기 좀 해야 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충정이를 우두커니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 “살까기?”라고 되물었더니 “몸무게를 줄여야겠단 말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제서야 남북한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2007년 4월 5일, 남북 적십자사에서 주최한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당시의 일화 중 하나이다. 그해 4월 3일부터 3박 4일간 나는 대구 청소년 적십자 중등부 회장의 자격으로 금강산을 방문했다. 38선, 군사경계선을 넘기 전 우리는 서울 본부에 모여 북한 청소년 적십자, 그곳에 가서 유의해야 할 언어 등에 대하여 교육받았고 여러 차례 주의사항도 전달받았다. 북한, 남한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말과 다르니 상대의 나라를 칭할 때는 남쪽, 북쪽이라고 해야 했으며 우리가 만나게 될 아이들은 평범한 북한 주민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은 정치당 간부의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교육을 마쳤을 때, 내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이 설레임 때문인지 약간의 두려움 때문인지 알기도 힘들었다. 북한은 내게 그런 존재였다.

부모님 세대어나 입을 법한 교복으로 복장을 통일한 아이들이 대거 만찬 장



소로 들어왔다.

두근두근 눈이 마주쳤다. 충정이, 설경이, 혜성이... 잊지 못할 아이들의 이름이다. 그들은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를 환영한다는 마음이 표정에서부터 느껴지도록 행동하고 있었다,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3박 4일 길게만 보였던 일정은 금방 지나가 버렸고 마지막 날 해금강에서 우리는 목놓아 껴끼어 울어댔다. 충정이가 나를 다독거리며 안아주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통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서럽고 슬픈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렸던 사람이 아니라면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라서도 버스는 10분이 넘도록 그리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통일을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다. 북한도 겉으로만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했고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될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너무나 슬프게 이별을 받아들였다. 가족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만난,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는 3박 4일간의 친구였다. 12시간도 얼굴을 바로 본적이 없었는데... 눈물이 흘렀다. 정말 슬퍼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상황을 내가 겪었다. 이산가족은 어떻겠는가? 혈연의 정을 누가 끊을 수 있다는 건가. 38선으로 가로막힌 이 상황은 정말 아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라고 개개인이 자존심만 센 것도 아니다. 사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 많은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가 밭을 가는 모습도 보고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가졌을지언정 밝고 환하게 웃을 줄도 아는 북한을 보아야 한다. 보고, 느끼고, 그들을 겪어야 이해할 수 있다. 통일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져 물어 이해타산을 측정하지 말자. 가족이, 혈연이, 그리고 민족이 만나는 일이 통일이다. 만나야 한다.

이제 나의 차례다. 그리고 우리의 차례다. 충정이가 날 다독거리려 주었듯이 북한을 다독여 주는 것은 어떨까? 더 이상 힘들어하며 울지 말라고 통일 후에 만나자고 따뜻하게 안아 줄 순 없을까?



우리는 모두 하나



방촌초 6 | 김강진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다. 이름은 바로 ‘통일해’이었다. 웃긴 이름을 보고 반 아이들이 모두 웃었다. 그리고 말의 억양과 말투가 다른 것을 놀려대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선생님께서 통일 발표대회가 있다고 하셨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누가 발표를 하나, 아니면 누구를 시키실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통일해가 번쩍 손을 들었다. 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 떠지고 일해는 단상으로 가 발표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동무 여러분, 저 통일해입니다. 제 말투나 억양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터민 중 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평양에서 왔습네다. 그곳에는 항상 정해진 일정이나 직업이 있어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불평을 하시던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같이 온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저나 그 가족의 경우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게 살 필요도 없고 헤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일해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유일한 분단국가예요,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두 갈래로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또 통일을 하면



서로의 장점을 단점에 강화시켜 좀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통일이에게 “그동안 놀린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한민족 한겨레인 친구를 놀리지 않고 지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며 우리 반 앞에서 선포했다. 그날 수업을 마친 후 통일해와 따로 만나서 이름이 왜 그런지 물어보았다.

“내 이름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산가족의 아픔, 하나 된 문화를 만드는 길인 통일을 이루라고 한 거야. 독일 베를린의 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휴전선, 38선도 끊어버리라고...”

그날 밤, 나는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다짐을 하였다. 통일을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이루리라고...





할아버지 소원



와룡중 2 | 이혜성

“흑흑... 형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이뻐던 숙자야... 흑...”

휴~ 요새 할아버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다. 칠순을 맞으신 후 계속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시나 보다. 한 번도 뵈 적 없는 큰할아버지들과 고모할머니들의 성함들을 부쩍 자주 듣는다. 도대체 왜 할아버지는 자신의 형제들을 만날 수 없으실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큰할아버지들과 고모할머니들과 가까이 사시지 않으세요?”

철없던 내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다. 그 순간 간만에 친척끼리 다 모여 웃놀이를 하며 무르익은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다. 무거운 침묵 속 ‘나중에 네가 더 크면 말해주마.’ 라고 하신 어두운 할아버지 목소리는 괜히 나에게 죄책감만 주었다.

지난 6학년 겨울방학, 외가 친척들과 DMZ, 판문점, 제3땅굴 근처에 갔다 왔었다. 도라산역에서 찍은 사진과 저 멀리 보이는 북한의 인공기와 우리나라 태극기 등 찍어온 사진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쉬시던 할아버지... 과연 할아버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날 부모님과 동생은 어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할아버지댁에 나만 맡겨 놓고 갔었다. 늘 할아버지의 과거가 궁금했던 탓에 할아버지께 어리광을



부리며 할아버지 어린 시절 얘기를 해 달라고 했었다.

“이 할아버지는 말이다. 사실 고향이 평양이란단다. 어린시절, 다섯분의 형님들과 두 명의 여동생들과 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전쟁이 터졌단다. 한국 전쟁이 뭘지 알지? 6·25 전쟁말이다. 갑작스런 전쟁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오다가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잃었지. 그 뒤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다 마침 이 곳으로 오게 되었지. 그러다 너희 할머니를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과 손자·손녀들만 바라보며 살았단다. 이제 너도 많이 컸구나. 내 얘기도 듣고…”

순간 눈물이 글썽 거렸다. “아, 할아버지는 그런 어려운 과거가 있으셨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마음 한 쪽이 쓰라려 왔다.

“이제 나는 아무 욕심도 없다. 다만 죽기 전에 내 고향땅 한번 밟고 싶을 뿐이야. 고향의 흙 한줌만이라도 내게는… 무덤도 제대로 못 만들어 드린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 시신이라도… 북쪽에서 우리 조카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네가 큰 인물이 되어서 금강산이나 북녘 땅에 갔다 오면 그 흙을 잘 간직해 놔다 나 가져든 내 무덤에 같이 좀 넣어 주려무나.”

지금 내게는 꿈이 있다. 모두가 하나되어 이루어야 할 작은 진주같이 예쁜 꿈, 더 이상 목숨을 건 탈출이 있지 않아도 될 ‘통! 일! 종이를 접어 ‘통일 하나 된 우리’ 라고 쓴 뒤 종이비행기를 날려 본다. 지나가던 비둘기가 깜짝 놀라 날아오른다.

“비둘기야, 혹시 우리 할아버지 형제들 소식 들으면 어서어서 우리 할아버지께 전해주렴.”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금강산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고향땅에 가보진 못해도, ‘핑 대신 닭’ 이라시며 금강산 관광으로라도 대리 만족을 느끼시려 한다. 한평생 자신의 고향을 잊지 못하시며 고향 흙 한줌마저 그리워하신 할아버지. 이토록 그리워하신 고향땅도 젊던 얼굴, 쪼글쪼글하신 얼굴로 가셔야 한다니….

더 이상 제2의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으시면 안될 것 같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북한 돕기 성금도 보내 보자. 어느 누가 자신의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작은 나의 사랑

과 관심이 쌓이고 쌓이면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통일이라는 한 그루 아름다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통일에 대한 실천을. 그럼 Let's go for it !!!





한반도의 원



제일고 2기나영

지금 열여덟인 우리들에게 조차 케케묵은 논제가 되어 버린 통일. 조금의 진보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통일이기에 현대인들은 통일이란 말에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는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통일을 받아들이게 될까? 어째서 그토록 원하던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형세가 되어 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讖을 그리며 우리들에게 통일의 의지를 넘겨주셨던 조상님들께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뵈 면목이 있을까 싶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우연히 북한 금강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도 통일글짓기로 입상했던 터라 통일에 관해, 북한에 관해 관심이 상당히 많을 때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지금은 가는 통로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통과하는 심사대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소모했고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북한 땅을 밟기도 전에 압수되었다. 이 순간을 평생 남기기 위해 가져간 카메라도 지정된 곳에서만 허용되어서 같이 갔던 백여 명의 사람들의 필름에 같은 모습의 북한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도 길가에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 때문에 북한에 대한 첫인상은 굉장히 살벌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직접 만난 북한 사람은 우리와 같은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북한 서커스 공연단만 해도 그들의 끼에도 박수가 나왔지만

같은 민족인 우리를 위해 공연하는 그들의 열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때 느꼈다.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우려하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조금의 교육만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금강산에 드디어 오르던 날, 그 날도 역시나 곳곳에 감시대가 있었다. 금강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상팔담의 절경이 아직도 눈에 훤히 하다. 사실 다시 온다고 확신할 수 없던 등산이어서인지 그 공기의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담고 싶었다. 꼭 가족과 다시 오리라는 다짐을 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계속 비석에 손을 대거나 물병에 물을 채워 넣고 있었다. 역시나 감시원들의 제지로 물러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같이 갔던 우리 교장선생님과 북측의 감시원들과 금강산의 절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우리는 사실 금강산을 만난 것 보다 가족같은 당신들을 만나서 더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처음에는 냉정한 그들의 태도에 서운하기도 했는데 말문을 트고 어느새 술잔을 건네받는 모습에서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랑 똑같은 그들의 소탈함에 가슴이 먹먹했다. 정말 그 상황은 잊을 수가 없다. 꼭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데 눈물이 났다.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과 한 시간도 안되는 만남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 이게 한 민족이구나. 나는 그 해 여름에 큰 희망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는 항상 통일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만 지나치게 우려한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것저것 걸림돌 앞에서 주저한다면 결국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통일이 되서 북한에 대비해 투자한 국방비 절감과, 경제 강국이라는 인식, 그리고 외교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과 함께 외국의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또 자원, 철도, 토지, 인력을 활용해서 우려하던 경제적 순이익을 얻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없이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이를 앞에 두고 과연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계 어느 민족보다 근성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



통일 문제를 잇분들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비난할 권리가 없다. 통일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기초한다. 그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심을 담아 염원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렇게 모두의 믿음이 모일 때 완성되지 못해 닿을 수 없던 동그라미가 완전한 원으로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세상 밖으로 밀려난 새터민 _ 89
- 신뢰로 이루어진 통일 _ 91
- 너와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 _ 93
-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_ 96
- 휴전선을 뛰어넘어 통일로! _ 99
- 비극 속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 _ 102
- 이상한 나라,
그러나 꼭 통일되어야 하는 나라 _ 105
- 통일을 원하십니까 _ 107
- 우리가 사는 세상 _ 109

세상 밖으로 밀려난 새터민



연수초 6 | 김현규

난 북한에서 온 새터민이다. 아주 다른 환경에서 자란, 말투도 웃기고 두메산골 촌놈같이 어리버리한 그런 아이다.

2년전 11살 때 가족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북한을 탈출하였다. 현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엿한 대한민국 학생이다. 우리 반 친구들은 내가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빨갱이’, ‘거지’, ‘촌놈’이라며 늘 놀린다. 때로는 “야! 북한 촌놈, 북한말 좀 해 봐.” “동무, 부끄럽습니까? 히히”라며 참기 힘든 말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

‘왜 몸도 건강하고 장애가 있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나를 아이들은 왜 놀릴까? 북한 친구들이 그렇다.’ 같은 민족인데 새터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상하게 보고 모자라는 아이 취급하는 학교 친구들이 정말 싫었다.

어느 날,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교내 통일글짓기 대회가 있어요.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반 대표로 누가 나가면 좋을까요?”라며 대회 안내를 해주셨다.

“빨갱이요!”

교실 뒤쪽의 한 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현규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래, 현규가 좋을 것 같구나. 나가 볼래?”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말았다.

처음으로 참가해 보는 대회, 그것도 내가 반대표로 나가게 되다니...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북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시키신 거라 부담이 되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분식집에서 일하시는 엄마께 달려갔다. 그 곳에 우리집이 있기 때문이다.

“어무이, 어무이, 통일글짓기 대회에 우리 반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메다.”

“그래, 장하구나. 우리 아들.”

다음날 나는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랄 만큼 좋은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나에게서는 통일에 대해 쓰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웠다. 북한 사정과 남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주제는 ‘세상 밖으로 밀려난 새터민’이다. 내가 직접 겪은 차별 대우를 썼다. 글을 쓰며 많은 생각을 했다. 새터민도 같은 인간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새터민의 인권을 존중해 주며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희망한다. 아니 정말 소원한다. 북한인에 대해 이해하고 옆에 있어 준다면 북한인과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정도가 아닌 통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며칠 후, 남한에서의 생활 중 제일 기쁜 일이 생겼다.

“여러분, 현규가 최우수상을 탔어요! 모두가 축하해 줍시다.”


여기저기서 친구들의 축하의 말이 들렸다.

“현규야, 축하해.”

그동안 빨갱이라고 놀렸던 친구였다.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반 친구들로 인해 힘들었던 것이 봄 눈 녹듯 사르르 녹아 버렸다.

“동무들아, 고맙습메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내 동무들을 소개해 주겠습메다. 우리 그때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하고 싶습메다.”

신뢰로 이루어진 통일



논현중 3 | 박혜원

우리 아버지는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신다. 그래서 저녁식사때면 아버지께서 종종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곤 한다. 며칠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합기도를 배우겠다고 찾아 온 가짜 17살 고등학생 얘기를 해주셨다. 2006년에 부모님과 함께 탈북한 12살 꼬맹이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데, 그 녀석이 어떤 형을 데리고 왔단다. 그 형이란 사람도 작년에 탈북한 탈북자였다. 체구가 작은 그는 아직 북한의 억양이 배어 있는 말투로 자신이 북에서는 20살이지만 탈북하면서 17살의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했다. 이유인즉, 북한과 남한의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적응 기간을 갖고 아는 것이 없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란다. 순간 나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생활 차이가 20년 가까이 난다는 신문 기사를 떠올리며 그 학생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사실 통일을 하면 이런 수준 차이로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남한이 통일을 함으로서 물질적 비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연 물질적 비용이 통일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통일 비용이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를 넓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중요한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단 국

가였던 독일을 보면 서독과 동독 주민 사이의 이질감과 갈등 현상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만 보아도 북한 주민과의 이질감을 잘 알 수 있다. 작년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 탈북자 가정 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탈북자인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었다. 만약 그 가족이 평범한 남한 사람이었으면 살인이라는 죄만 가지고 말을 할텐데 탈북자라는 이유로 더욱 과대 해석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북한의 모습은 아님을 알면서도 말이다. 훗날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을 적대적인 상대로 인식하거나 북한의 부정적 측면만을 노출시켜 강조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간 신뢰와 화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에 탈북 학생을 도운 우리학교 선생님이 소개된 적이 있다. 김향희 선생님이신데 모든 것에 낯설어하고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학생들을 위해 집으로 불러 피자도 사주시고, 북한에서는 구충제가 귀해 기생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에 새터민 학생들에게 구충제를 선물로 주신 적도 있다고 하신다. 이 행동이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지만 나는 선생님의 이러한 노력과 사랑의 태도를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티끌모아 태산이라 하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모이고 모이면 누구 하나 거부감 없고 신뢰로 뚝뚝 뭉친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통일이 된 후의 갈등 문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피상적으로 통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탈북자를 대하는 마음이 될 것이며 그 마음이 곧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예비하는, 이룩하는 데에 기반이 될 것이다.

너와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



상정고 1 | 남성현

중간고사가 끝나고 컴퓨터를 하고 있던 나에게 대학 신문사에 있는 사촌 누나가 새터민 취재 동행을 제안했다. 평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던 나는 취재에 동행하면 일만원권 도서상품권을 주겠다는 누나의 말에 귀가 솔깃해 따라 나서긴 했지만 솔직히 새터민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다. 새터민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내 주변 친척으로 새터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낯설고 나오는 상관없는 먼 나라 사람들의 일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스크 등을 통해 늘 말하는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말들이 나에게겐 그저 안이하게 그리고 피상적으로 힘들었겠다 정도로만 느껴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구사일생 탈북 체험에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거라고 여겼었다. 그리고 가난한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적 도움만을 늘 바라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되었다. 취재가 시작되고 탈북자 형은 여러 이야기를 조심스레 하다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해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압록강 주변에서 먹을 것이 없어 뼈만 남은 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쌀 한주먹에 어린 딸을 파는 아버지, 탈북하다 잡히면 가차없이 개, 돼지처럼 취급되는 북한의 현실 사회가 뼈가 깎이는 아픔으로 가슴을 늘 짓누른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탈북하여 잘 지내고 있는 자신이 미안하고 죄스럽게

느껴진다면 울먹였다. 지금도 북한 내 적어도 6개 이상의 수용소가 있고 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곳에 갇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도 이런 곳이 있을까 놀랍기도 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북한의 현실에 공포감마저 들면서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알파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했던 내 태도가 창피하고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통일 이후 가난한 그들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면 통일을 꺼렸던 내 자신을 반성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 이해타산적 잣대만을 겨누느라 동족의 고통과 신음을 무시하는, 아니 신경쓰려고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은 언젠가 그 고통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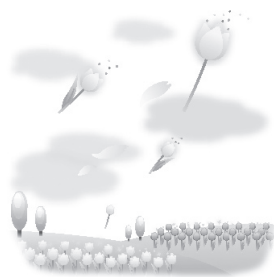
새터민 취재 이후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조금씩 통일 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던 ‘북한 자유 주간 행사’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북한 사람들의 인권 유린을 막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기아로 생계형 탈북을 선택한 여배우 출신 방미선씨의 탈북 과정이었다. 인신 매매, 강제 결혼, 고문, 폭행 등 말로선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한 사연과 함께 여자로서의 부끄러움도 잊은 채 북한 수용소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마치 칼로 베어낸 듯 움푹 파인 상처투성이 허벅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그녀 개인의 삶이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한 끔찍하고 부당한 인권 유린 상황들을 짐작하게 했다. 또한 방미선씨는 소똥에 묻어 나온 옥수수를 씹는 날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을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생각해 달라면서 눈물지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강제 결혼과 감금 그리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받게 되는 고문과 성적 착취,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탈북 여성들의 참상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절규하던 그녀의 눈물로 얼룩진 사진이 아직도 나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



가 있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독재정권의 인권 유린 만행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며 무관심했던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더 심해지고 있음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가족끼리 싸우고 화해를 안한 채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는 파탄났다고 한다. 6·25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이 상황이 파탄난 가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파탄난 가정을 회복하려면 가족끼리 화해하고 아껴주며 헌신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아직도 예전의 어리석은 나처럼 탈북자와 북한 주민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리된 나라가 아니다. 하나의 나라요, 남과 북이 아닌 우리의 나라다. 이념과 사상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우리 개개인이 조금씩만 새터민과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통일은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동명초 6 | 조수연

‘통일’과 ‘이산가족’, 나에게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다. 나의 일이 아닌 다른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하지만 나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산가족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외할아버지는 지금의 내 나이 때 한국전쟁을 겪으셨다고 한다. 그 전쟁에서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린시절 많은 아픔 속에서 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더욱이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면서 사촌형제들 중 일부는 남한으로 못 돌아오고 북한에 남게 되셨다고 한다. 갑자기 발생한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헤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될 때 많이 슬퍼한다. 하지만 먼 곳에 있어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만날 때의 기쁨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가까운 곳에 보고 싶은 가족들이 있어도 볼 수 없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

몇 년 전,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외할아버지에 게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통해 북한에 계신 사촌누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외할아버지의 기분과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때 외할아버지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즐거워하셨을 모습도 어렵지 않게 떠오른다.

외할아버지는 서울의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리고 사촌누님은 북한의 평양에서 화상통화로 만나셨다. 어릴 때 헤어졌어도 사촌누님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외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외할아버지는 한국에 계셨던 사촌누님의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에 사촌누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많이도 우셨다고 한다.

그 때의 짧은 만남을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사촌누님을 다시 못 만나고 계신다. 가끔 외할아버지는 사촌누님이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살아계실까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숨을 지으신다.

이산가족이 나의 가족의 일이 된 이후, 나는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면 외할아버지가 그리워하는 사촌누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요즘같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산가족의 문제보다도 우리나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 계신 그리운 형제분들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평화적이어야 되고, 서로 교류하고 왕래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믿고 아끼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 등도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려운 정치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시 만나고 교류도 이루어져야 외할아버지 생전에, 아니 모든 이산가족들의 생전에 평화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가족은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강화도에 있는 통일 전

망대에 다녀왔다.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의 주민들과 집들, 심지어 강아지까지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나도 이렇게 속으로 느끼고 있는데 외할아버지 심정은 어떠실까?’ 나는 욕심 없는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휴전선을 뛰어넘어 통일로!



성리중 3 | 오현경

‘통일’ 우리에게서는 생소하고 막연한 단어이다. 통일이란 ‘지금 우리 한 반도가 분단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쉬우면서도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 남북한의 분단 현실을 여기에 비유한다면 손뼉을 한 손으로 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우리와 비교되던 독일도 통일이 된지 18년이 흘렀다.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되었던 독일은 통일 되던 날 베를린 장벽을 국민 스스로 무너뜨렸다. 분단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통일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한 사람이라면, 통일을 바랄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하다.

2002년 남북정상회담에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게 되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아빠께서는 쌀 지원 업무를 맡으셔서 직접 쌀을 배에 싣고 북한 해주로 지원하러 가 해주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에서 묵으셨는데 제법 쌀쌀한 초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수도에서 찬물이 나오고 전기도 밤새 몇 번씩이나 나갔다고 한다. 아빠는 북한의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 60년대와 같은 수준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 빨리 핵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으로 식량 지원이 재개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통일이 되면 북측 주민과의 평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희생해야 할 부분도 많고 오랫동안 단절되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등이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변해 있어 하나로 통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남한이나 북한의 관광지를 오고갈 수 있으며, 남북이 힘을 합쳐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어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 이모할아버지께서도 6·25전쟁 때 가족을 모두 북에 두고 홀로 내려 오셔서 지금도 명절때면 가족들을 그리워하신다. 북한에 살아 계실지 모르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당첨이 되어서 지난 추석 때 금강산에서 북한에 계신 가족들을 만났다.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동생 네 분만 보셨다고 한다. 동생들이 왜 막내 여동생은 상봉 가족 명단에 넣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이모할아버지께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후에 부모님이 막내 여동생을 낳아서 여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이모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알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다.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때 찍었던 가족사진을 쳐다보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전에 통일이 되어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늘 말씀하신다. 이산가족의 슬픔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와 역사가 같은 한민족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만일 무력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과 남한 양측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평화 통일을 하려면 첫째,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한다. 경제적 교류와 민간인의 동행, 우편 및 전화의 교환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민족적 신뢰를 키워야 한다. 체육, 문화, 과학,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 협력을 통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



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심할 경우 안정된 사회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남북으로 떨어진 이산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모할아버지도 그리워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비극 속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



부평여고 3¹이보람

“야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떠올릴 것이다. 이 대사는 북측 병사인 오경필이 남측 병사 이수혁의 그림자가 북측으로 넘어오자 한 말이었다. 영화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였지만 이 한 마디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림자조차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남북한의 분단 현실. 너무나 큰 벽이 존재하는 남한과 북한. 하지만 나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새터민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남을 한 집안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나를 바꿔놓은 것은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였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남북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을 때, 진한 정과 의리를 나누었다. 사상도 다르고 그동안 지내온 환경도 다른 그들의 정신적인 교감이었다. 결국 이 영화는 비극으로 끝이 났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통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비극 속에 담은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 개성공단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이런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는 서로의 체제에 대한 대립보다 이해가 나타난다. 수혁이 처음 북한 초소에 갔을 때, 우진은 그동안 교육 받아온 환영의 말을 웅변한다.



수혁은 놀라지만, 그것은 사상이 다름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한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북한과 우리의 사상적 대립이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핏줄이라는 이름의 끈끈한 정이 있다. 분명 우리는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한 민족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체제라는 비극 속의 작은 희망인 것이다. 북한과 우리의 사상은 서로 '다른' 것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이처럼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가능성은 현실로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은 도깨비처럼 무섭게 생겼다고 배우셨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도 배우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마음가짐도 배운다.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는 것이다.

혹자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크고, 사상적 대립이 커서 통일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85년에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내었고, 그 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6·15 남북공동성명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지속적인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발판이 되었다. 지금은 잠깐의 고비일 뿐이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이다. 6·25전쟁 후 6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휴전상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이 있다. 북한과 남한은 일제 강점기라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었고, 독립운동도 같이했다. 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을 하기도 하였다. 사용하는 언어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하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이것은 모두 한 민족이라는 불변의 진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현재 상황은 분단이라는 비극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처럼 인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이 곧 다가올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속의 네 주인공들처럼 인간으로서 정을 통할 날이 올 것이다. 한 조상의 뿌리를 가진 우리들은 그 마지막도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비극에 갇혀 있기보다는 하나 됨을 목표로 삼아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한다.

희망이 비극에 갇히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극 속에 담긴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어 통일로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상한 나라, 그러나 꼭 통일되어야 하는 나라



심곡초 5 | 김근영

언젠가 아빠가 보시던 신문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우리나라 사진을 보았다. 남한은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주변은 백합꽃처럼 새하얗고, 북한은 온통 새까맣다.

“아빠, 왜 남한은 하얗고, 북한은 까만거예요?”

“그건 북한의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란다.”

“전기를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필요하고,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원유가 있어야 하며,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단다.”

“북한이 전기를 못 만들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줄 몰랐어요.”

“그렇지! 지금 북한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럼 내 또래 친구들도 나처럼 예쁜 옷들도 못 입고 지내겠네요.”

“그래, 예쁜 옷은 커녕,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결핍이 생기고 또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아파도 제대로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해 죽는 경우도 있단다.”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탈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 오래전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김만철씨가 있었어. 요즘에도 중국으로 가서 몰래 밀항을 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단다. 또 탈북자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탈북하게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이란다.”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핵개발, 미사일 개발 등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빠께서는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다. 6·25전쟁 때 헤어진 부모자식, 형제자매들이 지금까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한이 맺힌 채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고 계신다고 하셨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통일을 위해서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들은 가정에 충실하면서 회사원,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회사,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하여 국가경제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전쟁을 억제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함박중 2' 김예중

작년 여름 방학에 다녀온 호주 여행은 배낭 하나 메고 지도 들고 내가 직접 새로운 세상에 도전해 본 기쁨과 더불어 어려운 숙제 하나가 생긴 여행이었다.

외국인들과 함께 한 여행에서 그들이 내게 던진 질문은 나를 꿀 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

“Do you want reunification?”

‘통일을 원하느냐고?’ 외국인들조차 궁금해 하는 것을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통일이 저절로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행 후 찾아 본 자료들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평화통일 방법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중 내 관심을 끈 방법은 흡수적인 평화통일과 상호 공존하는 통일 방법이었다.

첫째, 흡수적인 평화통일 방법은 독일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경우는 북한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자신들의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통일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방법이다.

둘째, 상호 공존하는 통일 방법은 50여 년을 다른 체제에서 지내왔고 이미 많은 문화적 차이를 가진 상황에서 단숨에 하나로 통일을 서두르기 보단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간격을 좁혀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완

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교류하다 보면 마치 한 식구처럼 믿음과 사랑이 생겨 나중에는 단 하나의 나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개성공단이나 단일 축구팀, 이산가족상봉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뼈격거리고 중단되기 일쑤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인류 평화의 상징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상징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은 남북이 힘을 합쳐 해야 한다. 현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만 독자적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약하다. 혼자 세우는 평화탑이나 평화공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업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지 상상해 보았다.

첫 번째 상상은 비무장지대에 '유엔개발계획본부(UNDP)'를 이전시켜 이미 진행 중인 '두만강 개발계획'을 비롯해 선진국의 기술과 후진국의 가능성을 연결시켜 전 세계가 고루 풍요한 시대를 맞이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무장지대에 가장 적합한 유엔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상상은 국제공항인 인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철도와 동북아시아의 물류 이송을 담당할 국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에 힘을 기울여 세계 물류 이송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상상은 위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져 많이 이주해 올 외국인들과 유엔 가입국 중에서 희망하는 나라의 국민에게 비무장지대를 분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사관과 별개로 미니어처 건물들이 아닌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세계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계 평화 지킴이'라 불리울 이 도시는 우리의 통일을 실현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내가 상상한 이 방법들이 현실이 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통일을 원하냐는 질문에 통일은 꼭 할 것이며,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남고 3¹ 박해영

통일을 꼭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자신의 얇은 지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든지 통일은 불필요하다든지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북한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는 작년 여름 북한 개성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녀왔다. 사람들은 알까? 남한과 북한이 콘크리트 바닥에 검은 레일을 그어놓고 남한, 북한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관광 가이드가 “이 선을 넘으면 북한입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제주도보다 가기 어렵지 않고 시골 내려가는 것 같아서 허무했다. 마치 어린 애들이 땅따먹기로 선을 그어놓고 니땅, 내땅 하는 것 같았다. 선을 넘어 지나자마자 하나 같이 북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마을, 옥수수 밭에서 있었다. 그리고 보니 입국소에서 많은 북한 군인들이 우리를 철저히 감시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비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의 군인들을 보니 북한은 우리의 2배 이상으로 국방비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 예산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북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진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옛날 간판들과 같은 남한이 발전하기 전 모습이 펼쳐졌다.

낮설지 않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어 개성 한 식당에서 13첩 반상을 먹었는데 계란말이, 고사리, 무우국, 밥이 조금 질었던 것만 빼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았다. 또 파란 치마와 하얀 남방을 입은 북한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북한에 다녀온 걸 생각하면 또 하나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뛰어난 자연 경관이었다. 박연 폭포에 갔는데 에메랄드 빛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마치 신선의 세계에 방문한 느낌이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우리가 빨리 통일되어 북한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광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북한을 몸소 체험하고 나니 처음 북한이 해외보다 더 멀게 느껴졌던 마음이 바뀌었다. 식당에서 물을 더 달라고 하고, 폭포 주위에서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억양만 다를 뿐 생김새나 사는 모습은 우리와 같았다. 이런 점을 보고 '우리는 역시 한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물론 통일을 함으로써 처음에 정치, 경제 모든 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김새, 식생활, 언어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땅따먹기처럼 그은 선 하나를 지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통일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멀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 _ 113
- 단장의 그리움 그리고 그날 _ 115
- 휘파람 소년 _ 118
- 새터민이 두고 온 가족 _ 122
- 철망 앞에서 _ 124
- 보랏빛 통일 깃발을 꿈꾸며 _ 127
- 날가리를 옮겨 놓는 형제의 마음으로 _ 130
-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노래 _ 132
- 남은 기억 _ 135

멀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



연제초 6 | 박하연

북한 친구야 안녕? 난 남한에 살고 있는 6학년 박하연이라고 해.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나는 얼마 전에 통일에 대한 책을 읽었어. 우리 남한에 살고 계시던 한 할머니께서 북한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과 손자 녀석들을 생각하며 매일 눈물로 지내시다가 결국 병이 들어 돌아가시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6·25전쟁에 대해 알아봤어. 북한 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며... 나는 6·25전쟁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올랐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을 키워 북한과 싸워 이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마음이 들었어.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 핏줄인 사람들인데도 서로 나누어져 산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슬픈 마음. 내가 살고 있는 남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노래를 부르고 교과서에서도 항상 통일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필사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남북한의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도 하고, 교류도 하고, 관광도 하지만 아직 통일이 되기엔 한참 멀게만 느껴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말이야. 아직 우리는 서로를 좋게 바라보기 보다는 경계하는 마음

이 더 큰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등의 차이가 많지만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다 보면 차이점들은 더욱더 많아질테고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공통점이 되겠지. 나는 정말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 친구들과 학교 생활도 해보고 싶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보고 싶어.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언어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쯤은 서로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고 배워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최근에 독일 역사에 대한 책을 읽었어. 독일도 우리 남 북한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통일 시위를 제압했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같이 두 나라를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을 허문거야. 그래서 지금은 서로 문화적, 경제적 등의 차이가 많이 났지만 조금씩 맞춰 가면서 한나라 독일로 잘 살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독일처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란 타오르는 동포애, 통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현실 문제로 서두르거나 감정에 휘말려 선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해. 지금 우리 남북한의 상황은 잔뜩 영킨 실타래와도 같아. 이 실타래를 단칼에 베어 버리면 우리 남북한은 무너지기가 쉽고 복잡하게 돼 버릴 거야. 그러니 이 영킨 실타래를 한올한올 조심스럽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해. 이것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니깐 말이야. 나는 이렇게 우리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주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던 우리의 조상님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 남북한이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나,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한발한발 내딛는다면 현재 우리의 소원으로만 여겨지는 통일이 미래에는 현실이 되어있겠지?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 변치 말고, 조금씩 나아가 만나도록 하자. 그때에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같이 만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안녕~!

2009년 5월 16일
남한에 사는 친구 하연이가

단장의 그리움 그리고 그날



서강중 2' 정태빈

평화통일은 예전에도 사람들의 숙제였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숙제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화통일을 원하기만 하고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말하고 싶다.

평화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언어의 이질감은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래 우리나라는 전국의 색다른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땅이 갈라지면서 언어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외래어, 외국어를 받아들여 심하다 할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외래어나 외국어를 자신들만의 언어로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다. 먼 훗날 설사 통일이 되었다 치더라도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의 필요성이다. 특히 남북 두 나라의 천문학적인 국방비는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볼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 국방비 소요는 무려 99조원이며, 또 북한은 2002년 기준으로 50억 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하였다. 실업자가 판치는 마당에 국방비 99조원이 웬 말이며,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 국방

비 50억 달러라니 정말 말도 안된다. 통일이 되더라도 국방비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남은 돈이 남북 양쪽의 소외 받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면 얼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겠는가! 또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물적, 인적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가져오는 시너지이다. 한국은 자원이 나지 않아 부족한 양만큼 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해 오고 높은 인건비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싼 노동력은 많으나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효과적인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일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다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남북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은 약간 뼈꺼거리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그 시험대로서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듯하다. 경제적 과실을 취하기 위한 양 당국의 노력은 비단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쟁 불안감도 사라지게 하는 심리적, 적대감 완충 작용도 부수적인 과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산가족의 문제이다. 6·25가 끝난 뒤 갑자기 생이별을 한 가족들이 아직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여 그러한 고통을 없애 줄 수 있다. 나에게 6·25라는 전쟁은 그렇게 확 와 닿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읽은 '내가 겪은 6·25'라는 책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산가족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산가족의 아픔을 들은 바 있다. 아버지는 HID(북파공작원) 부대 출신으로 국가유공자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의 선배님들 중 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임무 중에 북에서 사살되거나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 지금까지도 북에 억류되어 계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직도 유해를 모셔 오지 못한 유족들, 그리고 당시 포로로 잡혀 억류되어 있는 분들의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도 통일의 그 날을 애타게 기다리신다. 6·25로 인해 희생되고 수십년째 남북으로 찢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은 더 말하면 무엇하랴.

문제는 시간이 너무나 흘러 이산가족이나 유족들도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




로하셔서 대부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가다. 어쩌면 빠른 평화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경제적 가치보다도 가족간의 애끓는 그리움, 상봉과 같은 인간으로 너무나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전쟁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요즘 세대는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겠지만 고사성어 '세설신어' 출면편에 나오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의 단장(斷腸)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찾아 보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다.

이렇듯 단장의 그리움은 그것이 부모자식이든, 형제든, 연인간이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픈 이별의 아픔을 나타낸다. 그날이 빨리 와야 하는 이유다. 평화통일이...



후파람 소년



동아여고 2¹ 김진수

뽀릴릴릴리 뽀릴릴릴리~

“어보세요?”

“석훈아, 엄마야.”

“엄마?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지금 어디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석훈이 네가 할머니한테 좀 가보면 안 될까? 부탁할게.”

“지금요?”

“응. 엄마가 좀 급해서. 그리고 할머니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너도 할머니 얼굴 보면 좋잖니. 적적하지 않게 해드려, 알았지?”

“..... 알았어요”

“으이구, 착하다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 끊을게.”

“휴...”

한참 통일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중이었던 나는 엄마의 부탁에 쓰던 문서를 저장시키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사실 나는 할머니를 뵈러 병원에 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유는 병원의 냄새 때문이었다. 병원의 그 약품 냄새는 건강한 사람마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어색하게 문을 열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아유, 우리 손주 왔네?”

“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석훈이 보니까 할미 이제 다 나은것 같아.”

내가 온 게 정말 좋으신지 활짝 웃으시는 할머니를 보니 그동안 자주 찾아보지 못한 게 죄송스러웠다. 할머니의 어깨는 그새 더 작고 마르신 듯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해 어색하게 앉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집에서 쓰다 온 리포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고향이 황해도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할머니 혹시 고향 생각나세요?”

“으응? 할미 고향?”

“네. 황해도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기래.”

“그래도 할머니 어렸을 적 추억은 있을 거 아니예요.”

할머니는 내 말에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생각났다는 듯 웃으셨다.

“황해도는 눈이 많이 왔어. 겨울이 되면 거의 허리까지 차서 눈 치우느라 어른들이 고생 참 많이 했다. 하지만 어린 할미는 속없이 겨울마다 눈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단다. 그런데 할미가 기다린 건 비단 눈만은 아니었어. 바로 눈을 몰고 오는 휘파람 소년이었지.”

할머니는 회상에 잠겨 눈을 가늘게 뜨곤 말을 이으셨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렇듯 휘파람 소년이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휘파람 소년이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 모두 나와 소년 뒤를 쫓아 같이 뛰어다니곤 했단다. 휘파람 소년이 먼저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뛰어가면, 소년이 만든 좁은 길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신기한 소년이네요. 눈 올 때만 나타나고.”

“기리터. 그런데 사실 말이 소년이지. 그 사람은 죽히 서른은 됐었거든. 어른들은 휘파람 소년을 바보에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아이들은 소년을

참 좋아했단다. 소년의 휘파람 소리가 겨울을 알려줬으니까.”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른과 소년, 그 말도 안되는 조합이 신기하게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할머니는 이제 됐으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다. 나는 계속 있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됐다며 나를 돌려보내셨다.

집으로 돌아온 난 아까 작성하다 만 리포트를 켜고 내가 썼던 내용을 다시 읽어 보았다. 나는 통일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통일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연계 되는 이익과 손해를 제시해 놓은 상태였다.

갑자기 나는 갈 곳을 잊어버린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평화통일’이라는 글자를 써 보았다. 그런데 그때,

떨릴릴리 떨릴릴리~

“... 여보세요?”

“이연복씨 님이죠? 지금 할머니께서 위독하세요!”

“네? 하, 할머니께서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온 줄도 모르게 난 정신없이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방금 전까지 나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할머니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할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어 있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코에 꽂아 놓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로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계셨다. 모두 다 내 탓 같았다. 내가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가지만 않았어도... 나는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 괜...찮다, 아가... 울지 말어...”

“하, 할머니... 죄송해요.”

눈물 때문에 제대로 말조차 못하는 나를 보며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 석훈아, 내래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

할머니는 힘겹게 힘겹게 말을 이으셨다.

“..... 휘파람이, 되고 싶단다.

그래서, 그래서 고향에 ... 겨울을 알...려.....”

“할머니!! 하, 할머니!!!”



할머니는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엄마, 아빠께서 뒤늦게 오셔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시는 동안 나는 잠시 집으로 보내졌다. 집엔 여전히 내 컴퓨터가 켜진 채 놓여있었다.

‘평화통일’

나는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너무 놀라 굳어버렸던 나의 사고가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글을 모두 지워버렸다.

나는 통일을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틀렸다. 통일은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를 나눠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진 후 통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 새하얀 휘파람 소년을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분단이 되면서 잃어버린 황해도의 그 시린 아름다움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눈을 감아보았다. 감은 눈 속 까만 세상에서 눈이 내리고, 언제나 그랬듯 휘파람 소년이 온 동네를 뛰어다닌다. 소년이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불면 아이들은 그런 소년의 뒤를 쫓아 눈 속을 뛰어다니고, 아득한 휘파람 소리가 천진한 아이들의 얼굴을 스친 뒤 눈꽃 핀 산과 마을을 스쳐 지나간다.

할머니, 고향의 겨울은 어떠세요?



새터민이 두고 온 가족



태봉초 6 | 김보선

통일글짓기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다 새터민에 대한 글을 읽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먼저 새터민이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 온 탈북자를 말하는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산가족은 6·25전쟁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터민이 탈북할 때 가족 모두가 올 수 없어서도 생긴다. 나는 내 주변에서 새터민 가족을 만난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새터민은 약 1만 5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3명 중의 한명인 이애란 박사의 인터뷰를 읽어 보았다. 탈북을 결심한다는 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북한에 남아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 가슴이 너무나 아픈 선택이라고 한다. 이애란 박사는 북한에서 탈북할 때 남편은 두고 백일된 아들을 업고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혹시 발각되어 감옥에 잡혀갈까 쥐약을 품고 아슬아슬하게 강행군을 하던 새벽에 보위부에 발각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당직을 서고 있는 아는 사람이 참고 표시를 하더니 ‘석 달된 아기가 있음’이라고 기록해 주었다고 한다. 북한도 산모나 임신한 여성에게는 관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덕분에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드디어 남한 땅으로 오게 되었다. 위험한 모험 끝에 발을 내디딘 남한의 생활은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탈북 여성에 대한 논문을 쓰는 학생을 만나게 되고 일이 잘 풀려 장학금도 받고 학교에 다



니게 되었다. 7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그녀는 ‘1990년 전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 변화’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좋은 기회가 모든 탈북자에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애란 박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마침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박사도 되고, 백일된 아들에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탈북할 때 북한에 남편을 두고 와서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가 되었고, 외삼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얼어 죽었다고 한다. 만약 이애란 박사가 탈북하는 과정을 영화로 제작하여 보게 된다면 가슴이 너무나 콩닥거릴 것 같다. 북한에서의 가난하고 힘든 생활, 탈북 과정에서의 긴장감, 가족과 헤어지는 눈물나는 이별, 남한에서의 고생과 성공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보인다. 나는 이애란 박사처럼 탈북자 가족이 남한에 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면 좋겠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헤어진 가족과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새터민 아이들은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다. 나는 만약에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탈북자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이웃집에 이사 온 사람이 탈북자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친구를 잘 도와주고 친하게 지낼 것이다.



철망 앞에서

문흥중 2¹ 서보경

‘먼나라 이웃나라’ 작가가 아직까지 북한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태만에 직무 유기라는 말을 듣고 폭소한 적이 있다. 이만큼 북한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 치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도 채 안 걸릴 조잡한 철조망으로 갈라져 있을 뿐이지만 그와 동시에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나라다. 북한의 이런 이중적인 특성은 우리를 헛갈리게 한다. 우리가 과연 한 나라인가? 아직도 닿아있기는 한 건가? 북한과 우리 사이의 동질성을 의심하는 물음들은 이런 식으로 끝을 맺고는 한다. 통일, 그래 통일, 그런데 그거 꼭 해야 하나?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통일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말한다. 독일 휘청거리는 것 좀 봐. 통일되던 순간 베를린 장벽을 부수며 환성을 질러댔지. 하지만 과연 이 경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진정 행복해하고 있을까? 엄청난 양의 지원이 불러 온 부담은 세 금으로써 떠넘겨졌고 도움을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의 낙인은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게 만들고 있어. 우리는 물론 한 나라이며, 같은 민족이지만 지갑 사정이 곧 행복지수야. 정신적인 기쁨만으로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에 기반을 둔 말들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결국 생활의 기초는 물질적인 것이다. 어떠한 사안이 환영받느냐 홀대받느냐는 항상 살림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이것뿐일까?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것은 물질이지만 우리를 존엄하게 하는 것은 도덕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들을 보고 저들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듯, 사기로 몇 천억을 모은 사람을 보고 우리 모두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듯,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사실 정신적인 것이다. 돈과 도덕의 갈림길에 선 우리는 스스로 갈등할지언정, 돈을 고른 사람을 정당하다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도덕을 좇는 것을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한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에 대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내가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통까지 가는 노력의 양과 그냥 옆에 버렸을 때 피해의 양을 견주어 보면 내가 양심을 지키는 게 오히려 낭비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며 박수쳐 주는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무슨 말이나는 일같이 절로 나오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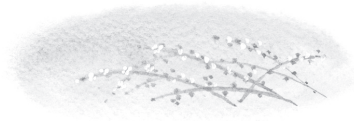
그래. 통일은 원래 당연한 일이다.

한 가족이고 타의에 의해 갈렸으며 손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서 있다. 품으려고 두 팔을 벌리는 게 왜 이상한가? 잃은 것들 보다 잃을 것들을 더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가? 어떤 이는 가족을 잃고 어떤 이는 고향을 잃었다. 우리나라 국민 수만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런데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슬쩍 선을 그으려 드는 게 떳떳하다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놀라울만큼 간단하다. 잠깐 생각 좀 해보라며 현실의 담요를 덮어주려는 사람들에게 나 안 춥다고 반문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계산이 끼어들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손해를 비교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이걸 머리보다 가슴에 더 가까운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집 나간 자식이 몇 억 빚을 지고 팔려가게 생겼다는 말을 들은 부모가 자식의 가치와 돈을 저울질하며 고민해 볼 리 없듯이 우리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통일을 말해야 한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살아간다. 무단횡단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며 그밖에 무수한 범법 행위를 실 틈 없이 저지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절대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통일 역시 가치관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귀찮다 여기더라도 경찰은 절대 음주운전 단속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체의 노출, 캠페인 등으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나가는 동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이유는 이미 증명되었다. 통일의 기반이 되어 줄 사회적 뒷받침은 결국 너무도 간단하고 당연한 인식과 깨달음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보랏빛 통일 깃발을 꿈꾸며



광주중앙여고 3¹ 임연진

우리가족은 이산가족이다. 일과 학업 때문에 아버지와 언니는 서울에, 엄마와 나는 광주에서 생활한다. 벌써 아버지와는 10년째, 언니와는 3년째 떨어져 살고 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헤어질 때마다 울곤 했었는데, 누가 그랬던가. 인간은 길들여진다고. 이것 또한 차츰 익숙해지니 어떨 땐 집에 온 언니와 아버지가 낯설어 보이고 엄마와 나 단둘만의 공기에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었다. 그러던 지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 첫째 날, 갑작스레 걸려 온 한통의 전화에 그간의 모든 평화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아무래도 혼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보니 불규칙한 식사, 무질서한 생활 습관 등으로 아버지의 건강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일주일을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고 가는 동안 나는 피를 말리며 기말고사를 치러야 했다. 가족이 모여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오늘 정치 시간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간 언론 매체를 통해 보았던 실항민, 새터민, 납북자 가족 등이 바로 떠올랐다. 서울과 광주, 기차로 2시간 50분이면 만나 볼 수 있는 곳에 살며,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이 멀다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도 ‘헤어져 있

음'이 만들어 낸 생사를 오갈 정도의 문제가 이리 산적해 있는데, 하물며 분단 50여년을 하루같이 견디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이 소식을 듣고서 또 다시 그들의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 얼마나 무참히 끊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 왔다.

이렇듯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난 남과 북으로 나뉜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내 또래 친구들은 분단, 냉전 체제에 이미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버린 것 같다.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의 이질적인 모습, 낯선 친구들, 독특한 그들의 말씨 등을 보고 듣고 하면서 마치 개그 프로를 보듯 웃어대고, '그들의 고통'을 통일이 되면 마치 우리세대가 떠맡아야 할 '짐'으로 여기는 친구도 보았다.

물론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구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부터 시작된 남북 분단은 6·25를 겪으면서 더욱 냉전 체제를 공고히시켜 통일이 그리 쉽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 문제가 우리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변국가와의 협조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 또한 우리의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복병임을 우리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단계 한단계 서서히 밟아 가며 통일을 이룰 초석을 닦아야 할 것이다. 우리집도 아버지의 발병 이후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며 새로운 삶의 패턴을 찾고 있는 중이다.

우선 기숙사에 있던 언니가 기숙사를 나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섭생에 힘을 쓰고 엄마가 전보다 자주 서울을 오르내리신다. 남과 북도 그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 제도, 다른 통치 체계 등을 쉽게 하나로 뭉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완벽한 통일'을 꿈꾸기 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통일이 몇% 달성되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발전 단계로 파악하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서로 떨어져 살다보니 문제점도 있지만 또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다. 서울과 광주 두 지역의 문화를 동시에 맞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심은 물론 자아성



장의 계기 또한 마련되었다. 남북 분단도 모든 면을 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가 연구해 보면 분명 분단국이 아니고선 결코 얻어 낼 수 없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을 통해 지리적으로 하나가 됨은 물론, 정치적으로 대립된 제도에서 서로의 장점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킬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 주민 모두가 '우리는 단일민족,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양쪽의 다양성에 기초한 삶의 방식과 정신 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문득 어릴적 미술학원에서 즐겨 했던 물감 놀이가 생각난다. '태극기' 그리기 시간이었을 것이다. 실제 태극 무늬는 우주의 음양의 이치를 뜻한다고 배웠으나 그 당시 어린 아이의 눈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선명히 구분된 태극 문양은 분명 둘로 나뉜 남과 북으로 밖에는 비치질 않았다. 특히나 그 경계선을 완만한 곡선을 따라 그리기에는 어린 아이에겐 아직 무리였었다. 미숙한 손놀림 때문에 빨강 물감과 파랑 물감은 자연스레 경계선을 따라 합쳐지며 그 둘은 하나가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기적같은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둥근 원이 하나가 되자 너무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보랏빛이 탄생한 것이다.

통일도 아마 이 물감 놀이와 같지 않을까. 서로 너무 다른 이질적인 빛깔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스미기엔 너무 아프지만, 그 아픔만큼 아름답고 새로운 빛깔을 만들어 낼 수 있듯, 남과 북의 그간의 아픈 상처, 분단의 그 기나긴 시간들, 서로 너무 다른 여러 체제들을 하나로 잘 섞여 낸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체제와 문화를 창조해 내지 않을까 싶다.

진정으로 통일이 이뤄지는 그 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힘껏 흔들 새로운 한반도기를 상상해 본다. 빨강과 파랑으로 나뉜 태극 문양 대신 그 두 빛깔을 합친 오묘하고 신비한 보랏빛 문양으로 가득 찬, 힘차게 하늘 가득 펄럭일 새로운 통일의 깃발을.



남가리를 옮겨 놓는 형제의 마음으로



광주남초 6 | 김명신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 지구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한반도, 우리 민족은 5천년 세월동안 우수한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아직껏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고려를 집어삼킨 몽골족보다도 36년 동안 굴욕을 준 일본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민족, 그것은 바로 한민족 우리 스스로이다.

어버이날 텔레비전 화면 가득 슬픈 사람들의 얼굴이 잡혔다. 그들은 북한에 자식, 형제자매, 부모를 두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통일이 될 날만을 기다리며 늙지도 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버이날 모여 서로가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모습이 마치 붉게 멎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같아 보였다.

분단 60여 년, 그 세월동안 세상은 몰라볼 만큼 변했고 사람들 또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가 가족인지 알 수 없게 변했다. 내 자식, 내 부모를 몇 시간 거리에 두고도 이토록 처절하게 헤어여 살아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은 일일생활권으로 변했다. 교통 발달과 최첨단 정보통신 발달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이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60년을 소식조차 모른 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비극이다. 또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곳이 북한 땅이다. 중국 스촨성에 중장비와 소방관을 보내 지진 복구를 도왔고,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양부모가 되어 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굶주려 죽어가도 직접 도울 수 없고 그들이 홍수로 집을 잃어도 중장비를 보낼 수 없다. 이러한 가슴 무너지는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길이 막힌 것도 아니고 민족이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종교적인 갈등도 아니다. 어떤 이유가 애가 타서 죽어가고 있는 이산가족의 피 끓는 고통보다 더 중요해서 통일을 못하게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북녘 땅을 밟고 싶어한다. 역사가 같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음이 열매를 맺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다. 실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남쪽에서 팔리고 있다. 이런 노력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그 길이 막히려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6·25의 상처이다. 자기 가족을 총칼로 죽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었고 그 결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원한이 아직도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서로에게 미움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미움은 60년이 흐르면서 많이 씻겨 나갔고 우리는 60년 전보다 훨씬 통일에 가까워졌다.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 통일이 멀어져 가는 듯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다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가난한 아우를 위해 밤에 몰래 난가리를 옮겨 놓는 형의 마음이나 식구가 많은 형을 위해 제 난가리를 덜어 옮겨 놓는 아우의 마음이나 그 속에는 오로지 사랑만 있었다.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동생이 얼마나 이득보는지를 재지 않았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복잡한 여러 상황을 떠나 서로를 위해 보살펴 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노래



금당중 1 | 김소은

경험이라는 것 그래서 안다는 것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책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몇 년 전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 갔었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도 담담히 전시물들을 관람하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오메, 여그도 이랬는갑소. 우리 전라도도 힘들었는디.”

하시면서 그 당시를 아프게 회상하시는걸 보았다.

그 후 학교숙제를 위해 5·18묘지를 갔었을 때에 동생과 나는 이런저런 숙제할 거리를 찾으며 전시물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공감할 수 없었는데, 그 시대 그 장에 계셨었다는 엄마는 전시물들과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끝내 눈물까지 흘리셨다.

이렇게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6·25의 비극을 아시고 부모님께서도 또 다시 사건의 아픔을 아시지만 나는 모른다.

즐겁지 않은 사건을 모르고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6·25를 겪어본 적이 없는 나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픔을 직접 느껴보지 못해서 통일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외할머니



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보시면 너무 풍부하고 편해서 아까운 줄도 감사함도 적다시면서 할머니의 어릴적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신다.

“할머니가 저번에 6·25 전쟁때 말했드나?”

“글쎄요. 무슨 내용인데요?”

“6·25전쟁때 내가 12살이었다고 말 안했드나? 내가 12살때 6·25전쟁이 났는데 북한군, 중국군이 남한까지 쳐들어 온 것 너 알제? 그래서 나는 중국군 이랑 북한군 피해서 거제도로 피난을 안 갔드나, 에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까다. 총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은 사정없이 내려오니깐 얼마나 겁이 났든지! 거제도도 가서도 밥 한 끼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열심히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내게 얘기해 주셨다. 이전에도 몇 번 6·25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몰라서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배우다 보니 이젠 외할머니의 말씀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견학을 통해 보았던 장면들이 새롭게 기억되어졌다.

또한 초등학생때 읽었던 ‘통일의 싹이 자라는 숲’이라는 책을 기억했다.

비무장지대와 우리나라의 통일이란 주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많은 야생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남한과 북한을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다는 의미로 휴전선이 세워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놀랐다. 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지면서 언어와 생활의 차이가 생기고 사고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남북이 금방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많이 이해하지 못해 넘을 수 없는 사고의 차이가 많다고 한다.

분단된 지 50년이 넘어가지만 남북한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조심스럽다.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서일까, 우리사회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산가족과 새터민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가끔씩 TV를 통해 이산가족의 모습을 본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존재하듯이 이산가족은 가족인데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산가족의 문제는 청소년인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터민에 관한 문제는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목숨을 걸고 갖은 고생과 시련을 이겨내고 북한을 나와서 남한에 온 많은 새터민들은 분단 50년동안의 차이로 생긴 불신과 거부감으로 인한 무관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한다. 나는 전쟁도 모르지만 이 새터민들이 고민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곳에서 그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다.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청소년 새터민들의 고민과 성공과 실패를 볼 수 있었고, 가까운 곳에서 새터민들의 힘든 삶을 들었다. 우리는 새터민들을 나와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하지만 어릴적부터 학습되어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탈북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를 그들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 아직 어린 우리들이 통일에 관해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곁에서 상처를 안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새터민들의 삶에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낡은 기억



동아여고 1 | 이주희

한반도에 하얀 눈이 뒤덮였다. 낡은 기억도 눈과 함께 뒤덮여 고요히 잠들었던 추운 겨울밤, 어린 나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게삼아 몸을 누였다. 두툼한 솜이불로 온 몸을 감싸고 잘 준비를 마쳤지만 눈은 잘 감기지 않는다.

“주희야, 얼른 자야지.”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다. 겨울이면 늘 내 키의 절반만큼 쌓여 눈이라면 지겨울 만도 하지만 어린 나에게 눈 소식은 언제나 반가웠다. 들뜬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으면 늘 그랬듯이, 결국 할머니께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 달라 조르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어제 했던 도깨비 이야기?”

옛날이야기는 늘 같은 레퍼토리였지만 흥미진진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달랐다. 등장하기만 하면 못하는 게 없는 도깨비였지만 어린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도깨비에 싫증이 난 나는 오늘만은 할머니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랐다.

할머니의 이야기 주머니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내가 눈에 뒤덮여 잠들어 버린 낡은 기억을 깨운 것이다. 첫 분위기부터 여느 옛날이야기와는 사뭇 달랐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 왔어. 급히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서둘러 짐을 싸야 한다고 하셨지. 한반도는 북쪽부터 점차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던 때였어.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남을 향해 가야 한다는 소리에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이 마을이 내일이면 폐허가 될 것이라니. 아쉬워 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우리 가족은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단다.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도 걷는 것을 멈추지는 못했어.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짐 위에 들쳐 업고, 어머니는 힘들다는 소리 하나 없이 무작정 아버지를 따르셨어.”

“무서웠겠어요. 할아버지께서도 힘드셨겠네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속으로 들어갔단다. 산 속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에 휩싸인 상태였고, 순간, 세상이 날아갈 것 같은 대포 소리에 모두가 가던 길을 멈췄어. 대포 소리는 마을에서 울렸는데, 무서움에 울음이 터져 나왔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 그 마을이, 내가 살던 마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나봐.”

“저도 아마 겁에 질려 울었을 걸요?”

“한참동안 야산을 헤매다 제법 평화로운 낯선 마을로 내려왔어. 모두가 지쳐 있었던 터라 아버지는 빈 집을 찾아 하루 묵고 내일 일찍 일어나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지. 우리 가족은 곧 잠이 들었어. 낯선 곳이었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안되었으니까.”

옛날이야기를 해주시던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나는 조금 놀랐다. 그러나 처음 듣는 이야기에 신기했고, 어린 나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또 다시 무서운 소리가 시작되었어.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였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 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해 아버지와 안전한 곳으로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지. 그런데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사라진 어머니를 볼 수 없었어. ‘엄마!’ 그 짧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을 거야. 애타게 몇 번을 부르고 아버지에게 매달려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던단다.”

내 눈에도,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할머니의 눈물을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어린 날의 회상 속에 아픔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만큼 늙어버린 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이름이 있기만을 바라고 무작정 상봉 장소로 갔어.”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얼굴이 기억이 나셨나요?”

“물론, 얼굴이 까마득했지. 그렇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과 늘 배어 있던 특유의 향기를 잊지 않고 살아왔단다. 떨리는 가슴을 간신히 부여잡고 명단을 읽어 내려갔어. ‘윤. 대. 덕.’ 놀랍게도 그 명단에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만 졸였어. 정말 어머니일까, 내 어머니가 맞을까, 혹시 동명이인은 아닐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힘들었던다. 초조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 기다림 끝에 나는 어머니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어. 낯선 얼굴과 마주했는데, 보면 볼수록 옛 기억 속의 어머니의 실루엣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 다가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향기가 낮아. 가슴이 멎을 것 같았지.”

“눈이 마주쳤어. ‘엄마, 저 기억하세요? 엄마……’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 놀라는 어머니의 모습에 난 그만 주저앉아 버렸지.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내가 부끄러웠지. 어머니께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지. 이 못난 딸을 매일 같이 그리고 살았을 나의 어머니. 50년만의 만남이었지만 그 이후로 만날 길이 없었던다. 서로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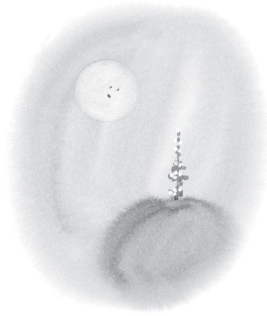
어린 날, 할머니께서 내게 들려주신 슬픈 사연으로 인해 늘 나는 통일을 바래 왔다. 나는 휴전선 근처,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자주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녘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이, 그토록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나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 그리움에 대하여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위의 모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다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길으로는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나의 눈에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소박했지만 평화로웠고 행복했던 그 옛날의 한반도처럼 다시 하나가 되어
우리민족 모두의 상처가 깨끗이 씻겨 나가기를, 그리고 상처 위에 새 살 돋듯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름다운 무궁화가 피어나기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와 헤어지시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셨다.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 된 한반도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때
까지 부디 건강히 계세요……”






대전광역시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평양에 사는 동수에게 _ 141
- 통일, 그래 바로 이 맛이야! _ 144
- 사천 _ 147
- 무지개 다리 _ 150
- 고장난 신호등 _ 153
- 통일 열차는
지금 어디만치 달려오고 있는가? _ 156
- 금강산에 다녀와서 _ 159
- 호랑이의 허리를 고쳐 주세요 _ 161
- 통일의 씨앗 _ 164

평양양에 사는 동수에게



대전배울초 6¹곽민규

안녕, 동수야. 나는 남한의 대전에 사는 민규란다. 너와는 13살 동갑이야. 너희 북한은 인민학교가 4년제이니 너는 고등중학교 2학년이겠구나. 맞지?

여기 대전은 벌써 초여름 날씨가야. 네가 사는 평양은 북쪽이니까 그리 덥지는 않지? 우리는 5월이 1년 중 가장 신나.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부모님께 선물도 받고 놀이공원에도 가, 너희 북한은 6월 1일이 국제아동절이고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일로 어린이날과 비슷하다며? 너희들도 선물을 받고 놀이공원에도 가니? 나는 어린이날에 부모님께 멋진 야구 글러브를 선물로 받았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쓰는 아주 좋은 거야. 그리고 이맘때에는 학교마다 운동회도 해. 나는 달리기, 공 던지기 등을 하며 재미있게 보냈어. 그런데 너희 북한의 인민학교 운동회에서는 ‘탱크 까부수기’, ‘포탄 상자 나르기’같은 것을 한다던데 정말이니? 나는 그런 놀이는 해 본 적도 없고 말만 들어도 무서워. 통일 이 되면 전쟁 훈련은 필요가 없으니 남북한 어린이 모두가 평화적인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

동수야, 나는 얼마 전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역 전광판에 ‘도라산행’이라고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있어. 한 번도 못 들어본 곳이라 “엄마, 도라산이 어디예요?” 라고 여쭙어 보았어. 그래서 엄마는 “응, 도라산은 우리나라 아니, 남한의 최북단 기차역이야. 너 경의선이라는 철도 들어 봤

어? 도라산은 경의선 철도의 현재 마지막 역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 나는 그때 도라산이 서울에서 50km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도라산에서 200km정도만 달리면 네가 사는 평양이 있다는 것도. 서울에서 평양까지 약 250km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KTX같은 고속 철도로는 한 시간이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평양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가기 어려운, 머나먼 곳이라고만 생각했었어. 동수 너도 서울이나 대전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정말 안타깝다. 한 핏줄을 가진 한 민족이 넓지도 않은 땅에서들로 갈라져 서로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말이야.

동수야. 너는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니? 나는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면 우리 민족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서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도 약 170만의 군대가 휴전선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어. 여기에 쓰이는 막대한 군사 비용을 나라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 군사적 대립과 전쟁의 위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희망, 적성과는 관계없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만 해. 또, 이산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을 만나 어린아이처럼 영영 우는 모습을 동수 너도 TV로 보았을 거야.

통일이 되면 주변 강대국인 일본, 중국과도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아빠가 언젠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들 역사로 포함시키려고 동북공정을 내세운 것을 너도 알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져서 감히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리 남한의 선진 기술력이 합해지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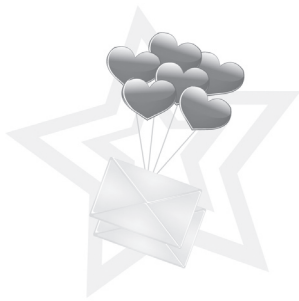
동수야, 너 혹시 ‘연리지 나무’라고 들어 보았니? 연리지 나무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합쳐져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을 말해. ‘연리지나무’가 되면 물과 햇빛, 양분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각각의 나무일 때보다 훨씬 효율적 이야. 통일도 ‘연리지 나무’가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이야. 남한과 북한으로, 따




로따로 서 있다가 통일이 되면 더 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물, 햇빛, 양분을 함께 받을 수 있잖아?

동수야, 통일이 되면 반가운 얼굴로 서로 만나자. 네가 사는 평양에서 시원한 평양 냉면을 먹자. 그리고 네가 대전에 오면 과학관과 놀이동산에 함께 가보자. 너의 답장을 기다릴게.

통일을 기다리며, 2009년 5월 23일, 대전에서 너의 친구 민규



통일,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전민중 2 | 장운유

“운유야, 일어나라. 학교에 가야지.”

난 아직도 아빠가 아침마다 내 방문을 열고 나를 깨우는 모습이 어색하다. 올 2월까지만 해도 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를 듣고 잠을 깬었다. 알람이 아니라 아침마다 아빠가 서산에서 날 깨우기 위해 걸어 주시는 핸드폰 벨소리 말이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3년 전, 아빠는 서산으로 발령이 나서 그 때부터 주중에는 서산에서 혼자 지내시다 주말에만 대전에 오는 ‘주말 아빠’로 바뀌었다.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 나에게 대한 아빠의 사랑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한동안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아빠가 서산에 가시고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따금씩 아빠가 넥타이를 풀면서 “운유야, 육조에 물 좀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실 것만 같았다. 정말이지 아빠가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내가 자고 있는 월요일 새벽에 와이셔츠 다섯 장을 챙겨서 서산으로 도망치듯 떠나시는 아빠가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7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아빠의 ‘모닝콜’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걸려오는 집전화도 점차 익숙해졌다. 어떤 때는 내가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조금은 서글퍼지기도 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



을 알까봐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2년을 살고 나니 요즘도 이따금씩 “우리 딸, 학교 잘 갔다 와.” 라고 말씀하시며 현관 앞까지 따라 나오는 아빠의 모습이 어색하다. 물론, 아빠가 대전에 다시 오시니까 좋은 것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우선, 모닝콜 벨소리를 못 들을까 봐 핸드폰을 꼭 꺼안고 자지 않아도 되고, 노트라도 빠뜨리고 등교한 날이면 멋진 모습으로 노트를 배달해 주신다. 어디 그 뿐인가? 배드민턴 수행평가를 위해 나보다도 운동을 못하는 엄마를 붙들고 연습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졌고, 학원 갈 때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야 하는 고통도 사라졌다. 그야말로 매 순간 아빠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 바로 이 맛이었어!

나는 문득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2년을 떠올리며 통일은 과연 어떤 맛일까 생각해 본다.

아마 맨 처음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내가 아빠와 맨 처음 떨어져 살아야 할 때 느꼈던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갈라져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처음 분단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꼭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혹시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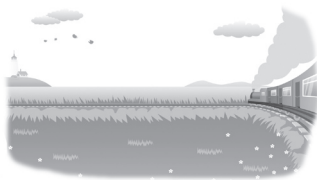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한국 최초로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운영하였던 명의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그 분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지내시다 1950년 12월에 아내와 다섯 남매를 북한에 남겨 둔 채 둘째 아들만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 분의 평생 소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죽음을 몇 년 앞두고 누군가로부터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편지,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받게 된다. 테이프에는 그의 아내가 직접 부른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라는 노래가 들어 있었는데 장기려 박사는 그 노래를 들으시며 끝도 없이 우셨다. 지독히도 고통스런 이산의 아픔이 뼈 속까지 느껴졌다.

나는 분단을 처음부터 겪은 것도 아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아직 어려서 솔직히 통일이 어떤 맛일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빠와 2년동안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맛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찌면 처음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그리워할 필요도 없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장기려 박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바로 그 통일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그런데 내가 아빠와 2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는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김없이 들려주시는 아빠의 자상한 목소리 덕분이었을 것이다. ‘주말 아빠’가 ‘매일 아빠’로 다시 바뀔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통일의 감격스런 맛을 느끼려면 북한과 부드럽고 자상한 대화를 해야 한다. 주말마다 돌아오는 아빠처럼 서로 교류를 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 반드시 통일이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통일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무르익는 냄새가 봄을 타고 휴전선을 훌쩍훌쩍 넘어왔으면 좋겠다.





최우수상

사선



대전송촌고 1 | 조은솔

너희에게 묻겠노라.

“제일 이루고픈 소망은 무엇이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묻노라. 그리고 너희의 대답이 같아지는 순간까지 묻겠노라. 그리고 대답이 같아지면 십구문 반인 아버지가 되어 쌓여진 세월이 되라 말하고 싶단다.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야. 아니 강아지들아. 차가운 서해와 동해의 파랑을 맞는데에 우린 지칠대로 지쳤었지. 그래서 멍쳐진 어깨를 주물러 주고 싶었어. 하지만 어느새 돌로 나뉜 너희를 보며 나는 오늘도 깊다란 한숨을 토해내. 한쪽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며, 한쪽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 그래서 눈을 가진 아가는 걸을 수 없고, 팔을 가진 아가는 볼 수가 없어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의 이목구비가 되고 살육이 되고 싶은 아버비의 마음은 빠르게 타들어간다. 보아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는 느껴라. 보이는 자는 아버비의 그리움과 눈물어린 누린 눈동자가 보여지매. 느끼는 자는 어미의 한 섞인 숨결이 느껴질테지.

윗방 갑순이는 커다란 땅 덩어리로 몸을 돌렸고 아래에 있는 갑돌이는 모란꽃이 만발하는 숲으로 들어갔지. 갑돌아, 갑순아. 내가 너희를 이리 부른다만, 황무지와 낯선 노스텔지어가 무슨 소용이더냐. 황무지엔 꽃이 있느냐 물이 있

더냐. 보이는 것은 그저 땅이다. 그리고 꽃이 아름답다고 한들 그 향기만으로 살 수 있더냐. 내가 맡아야 할 향기는 윗방 갑순이의 방 냄새다. 너의 오누이던 갑순이의 흔적이 담긴 방 냄새다. 헌데 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이따금씩 갈 곳 잃은 팔, 다리가 매일밤 내 꿈속을 드나든다. 그리고 낡은 기타, 줄 없는 기타를 손에 쥐고 애국가를 연주하지. 그 손을 잡으면 깨어나는 눈동자로 나는 밤안개 덮힌 아침을 시작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너희 방 낡은 문소리가 내 등을 돌리게 만드느구나. 너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슬픔을 헤아릴 수 없어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어. 그저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 외로운 거리를 거닐으니 모든 것이 실감나더라. 그 때부터 한 두방울 떨어지는 망울에 애꽃은 먼지 타령만 해댔고, 지금도 툭하면 그러기에 바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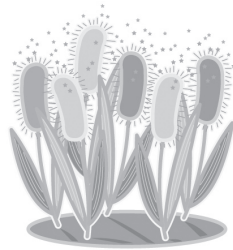
나의 자식들아. 너희는 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할 것이야. 그러나 하나는 천상에서 끌어 올리고 하나는 천지에서 잡아 당기니 마치 견우와 직녀같구나. 그들의 모습과 언젠가 집에 들렀던 너희의 모습이 붉게 물든 노을 속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라. 그 때가 되면 갑순이의 눈과 귀가 생기고 갑돌이의 팔과 다리가 생기는 것을 보았느냐. 비록 지금은 서로 헤어져 있을지라도 오작교를 건너는 너희의 모습이 아버지는 아직도 생생히 느껴진다. 다만 너희의 오장육부 가운데 그어진 사선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래, 그저 너무나 어리석었던 나를 인정할게. 오로지 너희들을 기다리며 50년동안 세월의 무게를 살찌웠으니,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될거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를 위해 돌아와다오. 아침 잠을 매일 나의 품에서 깨어다오. 가끔은 장난기어린 표정으로 입을 맞춰다오. 나의 희망은 오직 그 뿐이야. 아가들아, 너희는 어디로 무얼하고 있느냐. 헛된 시간은 그저 흐르지만 할 뿐이란걸 명심해다오. 나는 비록 세월의 무게로 고개를 들 순 없지만 갑돌아, 갑순아. 그리고 너희가 잃어버린 신체는 그 강을 거스르려는 연어야. 올라가기엔 너무나 높고 추락하면 끝도 없이 내려가는 노력의 결정체, 그것이 너희의 몸에 자리잡은 사선이지. 곧 메마른 강처럼 굳어 버릴지도 모르겠구나.

아아, 차라리 내 마음이 황무지요, 모란의 천국이자 별들이 있는 우주였다면 좋으련만. 그러기엔 지구가 커져 버리고 빨라졌단다. 나와 네 어머니는 그저



후회어린 추억 속에서 잠들어 있겠노라. 너희가 다시 오작교에서 만날 때, 보고 듣는 기쁨과 잡고 걷는 기쁨을 느껴다오.

훗날 너희가 무궁화꽃으로 가득한 들판에서 놀다 오다가 어느새 배어버린 그 냄새로 초인종을 두드리면, 우리는 천상으로 오를 것이야. 그 곳에서 집도 짓고 도로도 지으며 나 그렇게 살아가리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리라……





무지개 다리



백운초 6¹ 서명원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햇빛과 공기 중의 물방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무지개는 흔히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무지개다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남한과 북한을 이어줄, 한민족이라는 신념과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남한과 북한의 무지개다리를 보고 싶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뻗어나가는 무지개다리를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무지개를 보기는 쉽지 않듯이 남북통일도 쉽지 않겠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무지개는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색이 필요합니다. 빨강은 열정입니다. 북한에 대해 좀 더 열정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주황은 온화이며 노랑은 평화입니다. 전쟁을 하고나서야 이루어지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평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초록, 파랑은 믿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남색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한민족이지만 서로 으르렁거려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라는 희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읽



기 교과서에 나오는 ‘무지개’라는 글은 한 소년이 무지개를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무지개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에는 포기하여 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이 소년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할 것이니까요.

지난 달 일요일, 저는 운 좋게도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토끼들에게 밥을 주다가 보게 된 것이지요. 저는 무지개를 좀 더 마음 놓고 구경하기 위해 토끼들을 풀어놓고 무지개를 구경했습니다. 무지개가 사라진 후, 저는 다시 토끼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토끼장에 따로따로 갇혀 축 늘어져 있던 토끼들은 돌이어서 어우러져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다시 따로따로 놓으려 해도 토끼들은 발버둥만 치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 토끼들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한, 북한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통일한다면 서로 어우러져 최강의 국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토끼들은 무지개 덕분에 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되어 무지개가 다리가 되어 준 셈입니다.

‘꽃제비’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름이 예뻐서 읽어본 책이지만 알고 보니 꽃제비가 북한말로 거지라는 뜻이더군요. 이 이야기는 나이 어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쓴 이야기입니다. 12살, 13살의 나이로 자기 나라를 탈출하려 하다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몇 번씩이나 껌껌 놀랐습니다. 제가 말한 무지개다리가 생겨 남한과 북한을 돕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이야길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없어질 북한이탈주민인데, 아무래도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도 조금 더 이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인기 스타 누구누구가 무슨무슨 곡으로 몇 등을 했다는 건 입이 아플 정도로 떠들어대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걸까요? 삼국 통일과 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교과서며 문제집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면서 지금 이루어져야 할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

일까요?

제 주위의 친구들은 모두 현대 기업의 회장님이셨던 정주영 회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처럼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몇몇 있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가 아닌, 유명해서도 아닌,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제 2의 정주영 회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셨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경의선 철도를 남한까지 이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명언을 소개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라는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책이 다시 발간되겠지요. 그리고 맨 첫째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곧 무지개다리를 세울 것이며 평화통일을 이룰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너무 급하게 따먹은 열매는 그 맛이 뉘듯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은 꼭 찾아오리라 믿으면서 말합니다.





고장난 신호등



충남여중 1 | 이인선

한반도 허리 부분에는 고장 난 신호등이 서 있다.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신호등은 6·25전쟁의 충격으로 고장나버린 신호등이다. 그 신호등은 사람들의 왕래와 정과 사랑을 끊어버렸다. 그 신호등은 미움과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아픔을 품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신호등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대개 사람들은 그 신호등을 잊어버리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고치는 것에 대해 반대도 한다. 사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통일을 하면 가난한 북한을 등에 업고 가는 짐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영화 ‘크로싱’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영화 크로싱은 북한의 현실과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등장인물 중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돈 벌러 나간 아버지를 찾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아들의 모습에 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나는 영화관을 나오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저게 북한의 모습인가?”

“그렇단다. 저게 북한의 현실이야.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난 말을 더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난 또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저건 북한의 일부분일 뿐이야. 실제 북한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자료는 엄청났다. 제일 인상깊었던 사진은 어떤 여자가 못 먹어서 뼈가 드러나게 말랐는데 너무

말라 여자의 젖가슴까지 말라서 젖을 먹어야 할 갓난아기가 못 먹고 여자의 품에서 우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앙앙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사진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 난 울화통이 터졌다. 우리가 보내는 소와 쌀, 생필품들을 고위급 간부들이 빼돌린다는 것이었다. 화가 났다. 안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배고파하고 아파하는 어린아이들이 수도룩한데 그들에게 주어야 할 소와 쌀들을 잘 먹고 잘사는 고위급 간부들이 빼돌린다니, ‘약탈’과 다름없는 짓이다. 난 정말 통일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통일을 하면 정확히 무엇이 좋을까?

첫 번째, 통일을 하면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 남한에는 뛰어난 기술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원은 많지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 모자란다. 그리고 북한은 무역의 길이 뚫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통일을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의 기아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은 순 기사사진들이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통일이 되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산가족들은 통일이 되면 국가에서 ‘가족 찾기 캠페인’같은 것을 열어 가족을 찾게 해주면 된다. 약 60년간 내 목숨과도 같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는데 얼마나 그리웠겠는가. 나도 얼마 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단 며칠이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혼났다. 그런데 이산가족들은 약 60년을 그리움을 억누르며 참았다. 얼마나 그립고 슬프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 문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북한에는 백두산, 금강산 등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특히 고구려의 유적이 많다고 들었다. 직접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제주도나 울릉도같은 관광지가 많으며 맛있는 제철 음식이 많이 난다. 서로 왕래를 한다면 문화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위와 같이 고장 난 신호등을 고쳐 통일을 이루면 얼마나 이로운 점이 많은지 알아 보았다. 우리는 지금 당장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훗날, 같은 교실에서 같은 말과 과목을 배울 우리의 인재들을 생각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분단국가라는 설움을 받으며 끓어 씩어가는 가슴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장 난 신호등을 고쳐 한반도 호랑이의 위엄을 담긴 포효를 들을 것인가!



통일 열차는 지금 어디만치 달려오고 있는가?

대전둔산여고 1¹이다영

요즘 우리 외할머니의 기력이 부쩍 쇠하여져 가족들의 걱정이 큼니다. 임술생 88세, 외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나 연세보다 10년 정도는 젊게 볼 만큼 정정하셨습니다. 재작년 온가족이 해외 여행을 다녀올 때만 해도 손주들에게 조차 뒤지지 않는 기력이셨는데……. 이제는 보조기구에 의지하여야 다니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외할머니는 평북 태천이 고향이신 외할아버지와 결혼하여 광복 바로 전 해, 그 곳에서 큰 외삼촌을 낳으셨습니다. 민족 광복의 감격도 잠시뿐, 눈물로 시댁 식구들과 작별하고 먼저 남쪽으로 오셨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를 뵈지 못했지만 외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자주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는 혼자만이라도 가물가물 떠오르는 기억을 따라 고향에 살아계실 사촌 형제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신문과 TV를 보시며 깊어가는 시름에 자꾸 한숨을 쉬십니다. 기력은 점점 쇠하여 지는데 들려오는 북녘 소식은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외갓집 명절 음식은 이북식 만두와 녹두전, 감자떡, 수수떡 등 북에서 시어머니께 배우신 대로 외할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을까 외할머니를 보는 제 마음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번 어버날에도 엄마와 같이 외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그때도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라며 편치 않은 몸으로 정성껏 만들어 주셨지만 외할머니의 표정에서 통일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분명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2000년과 2007. 10·4선언 등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는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상호체제 인정, 남북 경제협력 등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은 사라졌다고 확신했었습니다. 더욱이 재작년 5월 17일 경의선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개성까지 운행되었던 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짙은 안개속에 묻혀 있는 기관차는 무겁게 철로 위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남북 열차 운행과 개성관광 중단을 통보했고, 최근 들어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6자회담 연기, 개성공단, 금강산 폐쇄 등 남북 관계는 크게 악화되어 현재 남북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후계자 승계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폐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그들의 기술력이 아직 위협적이지 못한 확정하는 사건이었다고는 하지만 지난달 5일 발사한 인공위성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 대북제재 논의 등 나라 안팎으로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남북문제가 더욱 불안하여 북한의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일방 선언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계실 외할머니의 절망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곳에서 낳은 첫째 아들, 큰 외삼촌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개성을 지나고 평양을 거쳐 외할아버지 고향, 아름다운 신혼의 추억이 가득한 평북 태천까지…… 그날을 그리며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이제 기력은 자꾸 쇠하여지고 희망의 줄을 완전히 놓아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통일 열차는 지금 어디만치 달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나는 외할머니 무릎에 누워 떠나 온 북녘 고향 이야기와 외할머니 부르시는 통일 노래를 듣습니다.

봄바람 고운 햇살 물오르는 나무들,
울타리마다 개나리 영변 진달래,
지리산 금강산에 폭포는 부서지고,
소년의 젊음처럼 푸르른 봄.

불붙은 듯 태양은 청년의 가슴처럼, 산과 바다는 하나되어 수려한 강산되고 부서지는 파도가 신난다.

서해 만리포 동해 명사십리,
뜨겁고 힘찬 정열의 이름.

형형색색 수놓은 듯 고운 단풍,
논과 밭엔 오곡백과 춤추고,

영산강 대동상 물주기 따라 씨 뿌린 논밭마다 추수의 기쁨,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가을.

하얀 세상은 눈이 시리다.

새해는 소망으로 다가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흰 눈은 보석처럼 빛나고 백두대간 정기가 솟구치는 겨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름다운 한반도 사계(四季)

6월이 오면 나는 나라와 민족을 더욱 생각합니다.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민족의 내일, 우리 외할머니의 소망. 코리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통일 한국, 우리의 사명 한민족의 과제입니다.

지금 나는 통일 한국을 그리며 외할머니 가슴에 또 다시 희망의 꽃이 만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다녀오서



대전태평초 6 | 최효은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한 내 마음처럼 비가 내렸다. 가족 여행 장소로 금강산이 결정되었을 때 나는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며칠동안 악몽까지 꾸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장소는 많은데 왜 하필 그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 가는 것일까? 그렇게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나에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강원도 화진포 휴게소까지 가는 차안에서는 곳은 날씨와 길까지 막혀서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화진포 아산 휴게소에서 우리는 금강산 관람 티켓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남측 출입사무소를 지났다. 그 다음에는 군사분계선 그리고 북측 출입사무소까지 지나서 드디어 북한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비가 그쳤던 것인지 하늘은 맑고 길가에 꽃들과 눈발에 자라는 곡식들이 꼭 우리나라 시골 풍경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우리에게 손까지 흔들어 주셨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강산 여행에 조금씩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금강산 호텔이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은 없었지만 소박하고 깨끗한 곳이었다. 그런데 호텔 밖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을 보자 금방이라도 우리 뒤를 쫓아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 이튿날은 금강산 관광길에 올랐다. 금강산을 올

라가는 산길에서는 아줌마들이 산나물들을 팔고 계셨다. 엄마께서는 말린 고사리를 사며 아줌마들과 이야기도 하셨고 안내원 아저씨는 내가 힘들어 하자 내 손도 잡아주셨다. 휴식 시간에는 안내원 언니가 노래도 불러주었다. 이런 풍경들은 우리나라 관광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차로 이동하면서 바라본 북한은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다. 총을 든 군인들을 길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큰 걸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또 지나가는 아이들의 차림새는 초라하고 기운이 없어서 지금 우리들의 활기찬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북한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즉 우리와 같은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 그날 저녁에는 서커스 공연을 보았다. 묘기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스릴이 있고 재미있었다. 공연을 마치자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아리랑을 불렀다. 배우들도 울고 관람하는 우리들도 함께 울었다. 내 가슴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나는 북한이 귀찮게 느껴졌었다. 차라리 영영 분단이 되어서 각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우리는 한 민족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단군왕검의 후손으로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이겨낸 훌륭한 한민족인 것이었다.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후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나는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 통일이 되면 많은 혼란도 있겠지만 나는 믿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나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내 작은 힘을 많이 보태고 싶다. 비록 지금 나는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의 작은 힘이 훗날 통일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호랑이의 허리를 고쳐 주세요



대전봉산중 2¹ 배수정

“언니, 이걸 아니야!” 내 사촌동생 재희가 말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호랑이로 그린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호랑이를 너무 못생기게 그렸나? 별별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재희는 크레파스를 들더니 용맹한 호랑이의 눈을 눈물이 고여 있는 슬픈 눈으로 고쳤고, 그리고 호랑이의 허리에 검은 줄을 긋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재희에게 물었다.

“재희야 호랑이는 왜 울고 있고 허리에 줄은 왜 그은 거야?” 재희는 큰 눈으로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호랑이는 지금 아파서 우는 거야. 호랑이의 허리가 끊어졌으니까……”

재희는 오늘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배웠나 보다. 재희는 나에게 통일이 되려면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었다.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평소에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통일을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다. 학교 수업을 통한 무조건적인 관심보다는 재미있는 책이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 또는 TV나 매스컴을 통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마음으로도 힘든 북한을 우리들 힘으로 돕는 것이다. 어른들처럼 크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따뜻한 마

음과 정성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 주거나 빵을 팔아 돈을 모으거나 사이버상에 쌓인 포인트를 기부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북한을 돕는다면 우리들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북한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들을 버리는 것이다. 최근 TV나 매스컴에 비춰지는 북한, 특히 뉴스에 보도되는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북한을 한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북한을 좋지 않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어른들과 달리 학생들만이라도 북한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먼저 다가가려 해야 한다.

‘북한 아이들은 어떤 음악을 듣지?’

‘북한 아이들은 뭘 배울까?’

‘북한 아이들도 연예인을 좋아할까?’

이렇게 북한의 또래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가서려 한다면 북한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네 번째로는 UCC를 만들어 통일을 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과 매스컴을 활용하면 어른들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도와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평소에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부끄러워졌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 나는 호랑이의 그림을 얼른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호랑이의 눈을 다시 웃고 있는 행복한 눈으로 고쳐주고 호랑이의 허리에 붓대를 감아 주었다. 재희가 나에게 물었다.

“언니, 왜 호랑이가 붓대를 감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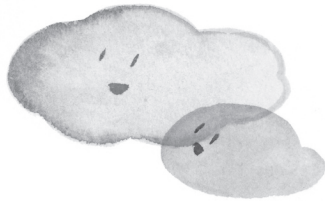
나는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호랑이의 허리가 나으라고 붓대를 감아 준거야. 호랑이의 허리는 영영 끊어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금방 나올거야. 호랑이의 허리는 우리가 고쳐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다시 나올거야.”

하지만 호랑이의 허리가 나으려면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나는 항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들이 계속 노력한다면 금방 호랑이의 허리는 낫지 않을까?





통일의 씨앗



대전복수고 1⁺ 김가현

따뜻한 봄날, 한 마리의 비둘기를 보며 문득 생각이 났다.

중학교 때 일이다.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 내셔널지오그래픽 TV 방송에서 방영했었던 북한 다큐멘터리 ‘인사이트 노스코리아’를 보여주셨다. 방송 속 북한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

북한은 영양실조로 노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7살짜리 어린이들도 백내장에 걸렸다. 이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온 루이트 박사는 하루에 백여 명의 환자들의 개안수술을 하였다. 개안수술이 성공한 북한 주민들은 루이트 박사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에 감사 인사를 하며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사진 앞에 절을 하고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어느 북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그 사람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나니 머릿 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나?’ 방송을 보고 난 뒤 아이들은 일제히 통일을 하기 싫다고 하며 북한의 우상 숭배와 처참한 인권 실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며칠 후 도덕 시간에 통일에 대해 공부하던 중 도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실은 선생님도 이산가족이란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순간 시끄럽게 떠들



던 아이들도 조용해졌다. “6·25때 선생님 누님은 북쪽에 있었고 나는 남쪽에 있었지. 그뎨 이렇게 분단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단다. 우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과 다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했다. 내 주변에 이산가족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선생님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그리고 교과서로만 배운 북한의 모습과 방송에서 보여준 극히 일부분의 모습만을 보고 북한 전체를 판단하여 비판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솔직히 17년을 살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 교육을 받은 건 교과서적인 내용뿐이었고 이런 글짓기대회 때나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전부여서 북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과 고정관념으로 쉽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500원짜리 성형’, 내가 북한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북한에 성형 기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같은 여자로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느새 컴퓨터에 앉아 북한의 모습을 검색해 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마음속의 닫힌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지어 남북간 마음의 문이 멀어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로 칭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가 사회주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와 다른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다른 것을 말할 것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조그만 관심과 진심어린 사랑일 것이다.

한 뿌리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순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한 민족 한 겨레가 한 곳에서 웃으며 살 그날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도 통일을 꿈꾼다.



울산광역시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맞잡은 사랑 _ 169
- 슬픈 진실 _ 172
- 시간에 풍화되어 가는 진실을 위하여 _ 175
-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_ 178
- 작은 관심이 통일을 이룬다 _ 181
- 춘향과 몽룡이 맞절하는 날 _ 184
- 북한 친구들에게 _ 188
- 한 여울교를 건너서 _ 190
- 못 다 부른 아리랑 _ 194

맛잡은 사랑



구영초 6 | 천재원

1+1은 무엇인가요? 2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1+1이 1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더해지면 더 큰 하나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와 또 다른 하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따로 살아 와 언어, 학문, 경제, 풍습 등이 다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가 되는 데 큰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1+1=1이 될 때에는 경제도 2배, 학문도 2배, 영토도 2배나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학문도, 경제도, 기쁨도, 영토도 2배로 누리고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깨진 하트로 볼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은 우리에게 사랑, 희망, 우정, 따뜻함 등 여러 좋은 인상을 심어 줍니다. 하지만 깨어진 하트를 한 번 살펴봅시다. 배신, 이별, 미움, 상처, 끝 등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줍니다. 같은 색, 같은 모양에 줄 하나로 나뉘어 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예쁜 하트로 보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베트남과 독일처럼 한때 분단되었으나 지금은 통일을 이룬 나라들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 방법을 살펴보고, 본받을 것은

본받고 고칠 것은 고쳐 보았습니다. 베트남은 전쟁과 무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쪽의 풍습, 언어, 학문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도 자연스레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잘 아는 우리가 고작 풍습, 언어, 학문, 경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을 행사해야 할까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통일하는 것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기쁨과 환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독일의 통일은 축제였습니다. 국민들 모두 망치로 베를린 장벽을 깨고 서로 웃으며 얼싸안았습니다. 이 경우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최고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38선을 없애기 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쁨과 희망 속에서 더 큰 하나가 된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요. 이렇게 저는 축제와 같은 통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통일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면 경제도 학문도 모두 2배,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산가족들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는 아픔에 울부짖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비무장지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비무장지대를 모두 함께 개발하여 높은 관광 수입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통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으나 이제는 많이 다른 둘이 되어 버린 한반도. 그러나 이대로 영원히 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까지 많이 부딪히고 많은 갈등을 겪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시소 놀이를 할 때처럼 서로 맞추어도 주고, 양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달라져 버린 언어, 따로 발전한 학문, 크게 차이가 나는 경제 규모, 비슷한 듯 다른 풍습들이 우리를 당황케도 하고 힘들게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의 핏줄이라는 자부심과 가족과 형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주고 무엇이든 용서를 해주는 사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맞춰 주고 아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제가,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원하는 통일이 아닐까요?



슬픈 진실



달천중 1 | 남신영

커다란 스크린에서는 제작진의 이름들이 올라가고 있고, 어두웠던 주변이 환해졌다. 영화가 끝난 것이다. 나는 행여 누가 볼새라 고개 숙인 채로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그날 영화를 보고나서야 가까운 곳에서 내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 영화 주인공 중 한명인 준이는 사막에서 죽었다.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아름다운 하늘아래 차갑게 식어갔다.

“아빠 다른 거 보자니까! 나 저 영화 보고 싶었는데…….”

영화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나의 모습이다. 오랜만에 영화관에 온 우리 가족. 뭔가 재미있고 통쾌한 영화를 원했던 나와 달리 아빠는 참 재미없어 보이는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자고 했다.

‘다른 영화가 더 재미있어 보이는데…….’

내가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크로싱’을 보기로 했다. 내가 원했던 영화가 아니라서 뽀로통해진 나는 괜히 입을 삐죽 내밀고는 좌석으로 향했다. ‘헛, 이 영화 재미없으면 두고 보자.’

내 뜻을 따라주지 않은 아빠가 괜히 미워서 아빠가 앉아 있는 좌석을 향해 눈을 흘기고는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영화는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로 너무 슬펐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영화를 보고 난 뒤 얻은 것이 많았다.



영화는 비참한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흙바닥에 떨어진 면 한 가닥을 잡고 배시시 웃는 아이. 약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일만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죄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 살기 위해 도망쳤다는 것. 그 죄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북한을 탈출하려다 잡힌 사람들을 잡아서 폭력을 가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는 노동을 해야 했다.

우리와는 다른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밥을 굶어본 적도 없다. 먹을 것이 없어 울어본 적도 없다.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부모님을 눈앞에서 떠나보낸 적도 없다. 나는 그저 받기만 했다. 돈, 옷, 음식, 따뜻한 가족들과 우리 집……. 나는 그랬다. 늘 받기만 하는 아이였다.

마지막에 죽어가는 주인공을 보면서 뭔가 가슴속이 허전하고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저 아이처럼 죽어갔을까?

영화가 끝나고 아빠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거리와 대조되는 화려한 거리를 보니 기분이 묘했다.

“영화 어땠어?”

아빠는 내가 영화를 보고 말이 없자 내가 아까 일 때문에 화난 줄 아나 보다.

“좋은 영화였어.”

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자, 아빠도 빙그레 웃는다.

“느낀 점이 많을 거야.”

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슬프게도 내 친구들 가운데에는 통일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고개를 젓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통일은 간단히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합치는 일이 아니다. 갈라진 두 민족이 다시 만나고 화해하여 잘사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

이 달라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자니 답답해진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에는 내 친구들, 북한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웃어보고 싶다. 나와 친구들은 한국 이야기를 해주고 북한 친구들은 북한 이야기를 해주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가깝지만 먼 곳에 있는 내 친구들아, 언젠가 우리가 만난다면 웃으면서 함께 뛰어 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항상 건강해야 해.”

문득 쳐다본 창 밖에는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 있던 태양이 저 언덕 너머로 내려가고 벌써 보름달이 올라와 환하게 빛나고 있다. 캄캄한 밤인데도 바깥이 밝다. 보름달 때문인가 보다. 분명 북한에서도 내가 보고 있는 같은 보름달을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조그만 웃음이 나왔다.

부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반쪽짜리 호랑이가 아닌 보름달처럼 꽉 채워진 하나의 멋진 호랑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시간에 풍화되어 가는 진실을 위하여



남창고 2 | 이현주

흰 눈으로 뒤덮인 길다랗고 넓은 밭은 옥수수를 심는 곳이라 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식량 기근에 시달리는 그들의 현실을 익히 들어온 나였다.
‘저 땅에 무엇이 자라긴 자라는 걸까?’
안타깝게 바라보는 와중에 어느 주민과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팬스레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다정하게 웃어보였다.
하지만 건조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던 주민은 이내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눈 덮인 창 밖 풍경만큼이나 시리고 시린 모습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간간히 그 때를 떠올리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다 문득 그 때 그 아주머니를 떠올리면 못내 서운한 마음에 고개를 세차게 가로젓고 회상을 멈춘다. 또 하나의 우리민족에 대한 생각을 멈춘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북한’이 아닌 ‘북측’이라던 그 곳에서의 추억이 어느새 희미해져간다.

이러한 무관심은 비단 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대다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인 적대감과 이질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40% 이상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무관심했으며, 그들의 57%가 6·25전쟁이 언제 일

어났는지조차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입시 준비로 바쁜 현실?’ 그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당장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국, 영, 수’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세월에 거듭되는 역사 문제를 외면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원인은 분단 세대로부터 멀어져가는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무관심’이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월에 세월을 거듭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으로서의 ‘주인 의식’, 분단 1세대들과의 ‘공감대 형성 의지’는 결여된 지 오래이다.

민족 통일을 외치던 분단 1세대의 대부분이 한 줌의 재로 흩어졌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해졌다. 그 방안에는 우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안중근 평화사상과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동양 평화론자인 안중근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로 ‘평화주의’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는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된 통일 방안은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북 청년 학생 통일 세미나’, ‘청소년 평화 통일 기자단’ 활동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효과가 활동 학생들뿐만 아니라 횡적으로 그들의 친구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청소년 통일 문화 한마당’은 청소년들이 직접 온몸으로 분단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또 다른 자극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참여를 더욱 격려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학예 행사를 개최하거나 통일 교육원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열기도 하고, 단체로 새터민 봉사활동을 가는 학교들을 많이 보았다. 이러한 학교차원의 격려는 학생들의 ‘통일’ 활동에 더욱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올바른 교육의 길라잡이



이로서 학교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 학교의 적극적인 권유를 바탕으로 주체자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계기로 앞서 언급한 ‘해결 의지’, ‘주인 의식’, ‘공감대 형성 의지’를 갖추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하여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서 자격을 갖추어나가는 것이다.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 학교, 청소년,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함께 다녀왔던 친구를 며칠 전에 만났었다. 북한을 여행할 때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왔기에 보고 있는데 한 사진에 내 시선이 머물렀다.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모퉁이에 북측 가이드분이 찍혀 있었다. 규정상 함께 사진을 찍어줄 수 없다는 말에 서운해 하는 우리를 향해 시조 한 수를 읊어 주셨던 그 분. 비유가 멋졌던 그 시조가 정철의 ‘관동별곡’의 한 구절임을 후에 알았는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 분의 마지막 말이었다.

“우리 언젠가 통일이 되면 손에 손잡고 다시 이곳에 와서 수영도 하고, 조개도 구워 먹고 그렇게 밤새며 이야기하는 겁네다. 꼭 그렇게 하는 겁네다.”

왜 나는 그 동안 날 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던 그 아주머니만 기억했던 것일까? 이렇게 모두를 눈물짓게 한, 가슴 찡한 그리움을 남긴 순박했던 가이드분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

세월이 때로는 진실을 풍화시키는 듯하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격동초 6 | 최유림

‘한 핏줄의 아픔마저 모른 척 눈감아야 했던, (중략) 한 민족의 사랑마저 모른 척 귀 막아야 했던, (중략)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누고 (중략)’

작년 음악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노래이다. 제목은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이다. 정말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와 닿는 노래였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 부끄럽기도 하고 말하기 창피하기도 한, 그다지 예쁜 수식어는 아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노랫말, ‘가장 멋진 통일로’는 우리들의 희망 사항이자 꼭 이뤄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전쟁을 치루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닌,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으며 이루어지는 평화적 통일! 모든 남북한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일 것이다.

통일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아버지께 통일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외로 아버지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열망!’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대답, “그럼 너는 왜 통일을 하고 싶냐?” 라고 하셨다. 나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반격에 놀라서 우물쭈물 하다가, “뭘, 북한 아이들도 궁금하고, 우리나라가 힘도 더 세질 것이고.” 라고 말했다. 내가 생각해도 뭔가 부족했다.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다. 우리들이 그토록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



고 다니던 통일,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뽀족한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이득같은 것도 거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요즘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재미 있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지금 조선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북한의 모든 지역도 지도에 나온다. 그렇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결국 하나의 민족이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함께해 온 하나의 민족인 것이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어찌 보면 한 가족이 집안에 절반으로 죽 금 그어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렇게 헤어져 살아가는 가족이 금을 없애고 다시 만나서 살아야 하는 데에는 필요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져 있었던 나라가 있었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1990년 10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어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경제력의 차이, 정치 체제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 일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고, 나 또한 별 생각이 없었으니 말이다.

얼마 전, 네이버 검색창에 '북한 미사일'이 인기 검색어로 올랐다. 나는 그 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뉴스와 인터넷 검색어부터 찾아봤다. 다행히 미사일로 추정되었던 광명성 2호는 발사는 되었지만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 때 조마조마했던 마음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가, 잠시 전쟁은 멈추고 싶다는 '휴전' 상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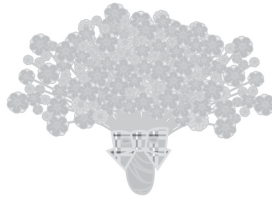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의 전투명령 제 1호로 발발했던 전쟁, 한반도의 허리에 '주옥!' 하고 비극의 금을 그은 비참한 전쟁 6.25 전쟁!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다면,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

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60년 가까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면 말이다.

작년 음악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바보같은 지난 날을 털어내고 우린 이제 함께 갈 거예요.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한 데 모을 때 누구도 우릴 막지 못하죠.’

하루라도 빨리, 가까이 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함께 만나 하나가 될 그날을 기대해 본다. 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작은 관심이 통일을 이룬다

울산서여중 3 | 정유정

오늘도 역시 공부한다. 어제보다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잠시 공부에서 벗어나 보고자 먼 산을 바라보다 몇 년 전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한참 그 때 일을 회상하였다.

초등학생 때 몇 달 간 뉴질랜드 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 당시 북핵문제로 전세계적으로 떠들썩한 때였다. 그 때문인지 외국 아이들은 우리 한국인에게 북한에서 왔는지 남한에서 왔는지 물어왔다. 그 때마다 나는 남한 사람이라고 대답해 줬지만 내가 내 입으로 '남한'이라고 말하는 게 불편했다. 외국 친구들이 우리를 남한, 북한으로 구분하는 그 자체가 거슬리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닌 그냥 한국인이고 싶었는데…… 외국 친구들에게는 내가 남한인으로 보였나 보다. 이후 나는 통일에 대한 절실함을 마음 깊이 품게 되었다. 지구 위에는 200여 개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중 딱 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두 나라로 분단되었다는 사실과 서울에서 평양까지 209km인데 몇 배나 먼 뉴질랜드는 갈 수 있는데 한 민족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지 못하는 상황의 안타까움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절실히 만들었다.

얼마 후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학생들에게까지 말이 올랐던 때, 친구들과 진지하게 통일에 대해 얘기해 보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친구가 얼마 없지 않은가? 통일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는 어이가 없어 반대의 이유를 물었다. 그 이유는 조만간 통일이 되게 된다면 고생해야 할 세대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잠시 말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멀리 봐서 통일이라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꿈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겪게 될 일은 고생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를 만든 일원으로 영광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나같이 생각하는 친구들보다 내 친구들과 같은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물론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통일이라는 단원에서 북한에 대해 배운다. 하지만 통일은 끝단원이라서 아이들이 그 단원을 무시한다. 설명 공부를 하더라도 통일에 관한 정보를 맹목적으로 점수를 높이기 위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에서 통일에다가야 한다고 답을 적지만 시험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어버린다.

통일을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두 덩어리로 나뉘게 된 쓰라린 민족의 아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산가족의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학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을 느껴서 우리나라에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는 학생은 또 얼마나 될까? 나는 내가 느끼는 이 간절한 마음들을 친구들과 같이 느끼고 싶다.

6·25 전쟁 때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강도 흐르고 산도 그대로인데 지금 우리와 북한과의 이질감은 날로 더해 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하면서 서로에게 긴장감만 커지고 있다. 눈앞에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것 같았던 통일은 또 멀리 도망가 버렸다.

서로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나이는 자꾸 늘어간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가족들을 학수고대하며 오매불망하는 이산가족을 보면 내 가슴이 미어져 온다. 그런데도 자꾸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젠 무관심에 가깝다. 서로 마음을 열어서 조금만 서로를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면 금방 찾아올 통일인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 그러니 한 나라인데 자유롭게 왕래하



지 못하고 충분히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빚어냈다고 생각한다. 그 안타까움이 통일을 더욱 더 간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오늘도 서로의 무관심 때문에 삭막하게 사회가 변화되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좋고 담을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통일도 관심을 조금씩 받게 되면 쉽게 길이 보일 것 같다.

이젠, 다시 공부해야겠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외국인 친구가 출신을 묻게 되면 당당하게 앞에 남한을 붙이지 않고 한국인이라고 말할 날이 오길 상상하며 공부할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더 이상 후손들에게 통일이란 큰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들, 60여 년 가까이 되는 세월동안 분단된 민족적 안타까움의 문제는 내가 오늘 하루의 작은 관심에서 해결된다고 믿는다. 오늘도 파이팅!





춘향과 몽룡이 맞절하는 날



무거고 3 | 최유리

북한에는 판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전 북한에서 탈북하고 막 사회적응훈련을 마친 련이는 판소리를 참 잘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아매도 내 사랑이야.”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깊어가는 대목에서 진양조, 중중모리가 교차하는 동시에 엮이는 련이의 간드러진 목소리는 내겐 가히 명창이라 꼽을 수 있습니다.

련이를 만난 계기는 새터민들을 위한 한 인터넷 사이트였습니다. 사회보장법에 대하여 공부하던 도중, 과제의 도움을 얻고자 새터민들을 상대로 몇몇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때 ‘Thor소리’라는 필명을 가진 한 새터민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로 열아홉 살 동갑내기인 련이였습니다.

련이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남동생과 할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부모님의 이혼에, 보안원실에서 심문을 받는 등 갖가지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넘어 한국의 하나센터에서 보살핌을 받기까지 꼬박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련이는 힘들 때마다 남한에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고 어떤 고난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처음으로 밟는 남한의 땅에 눈물이 눈앞을 가렸고 오랜 시간동안 떨어져 지낸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 다리에 힘이 쭉 풀렸다고 합니다. 또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도 태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숨이불처럼 따뜻한 남한 동무들의 배려에 한시름 놓았다고 합니다. 3개월의 적지 않은 사회 적응 훈련동안 련이는 식기 세정제를 치약으로 착각해 큰 일 날뻔한 적도 있었고 병원에서 진료 절차를 잊어서 헤맨 적도 있었답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우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련이는 계약 문서 작성, 버스카드 사용,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 이용법 등을 빨리 깨우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의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폐휴지나 작고 큰 유리병들을 모으러 다니셨고, 남동생은 근처 어린이 방을 다녔답니다. 련이는 난생 처음 보는 컴퓨터에 차차 흥미를 갖게 되어 하나센터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을 염두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생활 보조금에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련이는 인터넷 새터민들을 위한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네, 가네. 인자는 참 갔구나. 아이고 내일을 어찌여. 집으로 가자하니 우리 도련님 안고 눕고 노든디와 오르내리며 신 벗든디 생각나 어찌살거나…”

19년동안 다른 문화, 다른 이데올로기에서 자라왔지만 시원한 냉면을 좋아하며 멋진 배우들을 보고 설레는 몇 가지 공통점으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는 <춘향가>를 즐겨 부른다는 련이의 말에 저도 들려 달라고 조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의 조명에 언니만큼은 목소리가 곱지 않다며 내뺐지만 컴퓨터 책을 겨드랑이에 끼워 놓고 판소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제일 좋아한다네. 암행어사가 출두하고 연회는 아수라장이 되는구먼, 그러면 몽룡이 나타나 춘향의 손을 잡는다네.” 흥겨운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련이의 어깨도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응, 얼마나 슬플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그때, 련이의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애써 울음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탈북한 할머니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련이는 수소문으로 할머니를 찾

아보기도 했으나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춘향가>도 오래전 할머니가 늘 불러 주신 판소리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북한에서도 유명했던 명창 김소희씨를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는 젊은 여성이 고운 목소리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노래하는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판소리는 부초같은 처지가 되었고 ‘씩소리’라는 판소리를 폄하하는 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소리를 즐기지 못하고 다들 눈치를 보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열정은 고스란히 련이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련이는 앞으로도 낮설고 어려운 이곳에서 그저 도움만 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한 민족으로서 이쪽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길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이 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가서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때 센터에서 먼저 제공하는 판소리 교실 자격증을 따서 근처 주민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합니다.

“어사또 꺾꺾 웃으며 과연 열, 열녀로구나! 여보아라 행수, 춘향에게 금낭의 옥지환 내주며 대상을 살피라렸다. 춘향, 이별지환이 맞구나. 대상을 보니 어젯밤 옥문 밖에 걸인으로 왔든 서방님이로구나.”

북한에는 판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련이의 가슴 속안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련이는 판소리라는 우리 민족의 동질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낮설기만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서려 합니다. 련이와의 완전한 동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쩌면 좌절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련이의 눈물겨운 노력에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 온 그들과 우리는 다를 리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련이를 비롯한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전에 남북한의 잦은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과 낯설음을 덜어야 합니다. 왕래와 대화가 있다면 새로운 문화에도 새터민들과 우리들은 능동적으로 잘 적응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주민들이 직접 새터민들에게 생활 방식을 일러주고 관심을 표현한다면 그들은 유연하게 이 곳 관습을 이해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의 자세입니다. 며칠 전, 어린이 집을 다니던 련이의 남동생이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련이 남동생의 말투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념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 하루 아침에 교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화, 넓게 보자면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잠시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조와 절개를 지켰고 몽룡은 장원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차림으로 무시받으면서까지 춘향을 구하러 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은 한쪽에서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향과 몽룡의 맞절 그날까지 련이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뒷푸리까지, 어사도 이골저골 다니시며 출도하매, 국가의 충신이-라. 한림 복지주왈 남원 춘향 열녀로 표향하고 남원골 백성들 천천만세를 누리노라. 그 뒤야 뉘 알소냐, 더질더질.”





북한 친구들에게



남산초 6 | 백경금

애들아! 안녕? 서로 말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쉽게 말이 트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린 한민족이기 때문이야. 너는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니? 나는 통일을 원해. 단지 우리나라가 넓어진다는 이유만이 아니야. 통일이 되면 첫째,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어. 우리도 너희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아. 그래서 '북한 동포를 도움시다.'라는 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어. 너희는 땅에 묻혀 있는 자원이, 우린 그 자원을 캐 수 있는 도구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 남한의 도구로 너희 땅에 있는 자원을 캐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나는 확신해. 둘째, 올림픽이나 각종 경기에서 힘을 합쳐서 이길 수 있어. 옛 속담에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셋째,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야. 그러나 그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산가족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국경선엔 항상 울음소리가 퍼지지. 이 안타까운 울음소리를 넌 들어 보았니? 듣는 사람마저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그런데 통일이 되면 국경선엔 서로 만난 이산가족들의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거야. 통일 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 이쯤 이야기 한 가



지 더 들려줄까? 옛날에 숫자 0이 살고 있었어. 0은 언제나 외롭고 초라했지.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친구도 없었지. 2, 3을 만나 보고 다른 숫자들도 만나 보았으나 매번 허탕이었지. 그러나 0과 마찬가지로 신세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 바로 1이지. 1은 친구를 찾아 헤매었지만 다른 친구에게 업신여김만 당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0과 1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달라고 요구했으며 둘 다 기쁜 마음으로 친한 친구가 되었지. 그러자 다른 숫자들은 그들을 10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슬픔도 기쁨도 함께 했지. 이 이야기가 별로 아닌 것 같이 보이지? 그래도 난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꼭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이 0과 1이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챘니? 바로 남한과 북한이야. 우리도 힘을 합치면 10이란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올림픽 1위 같은 거지. 너희 북한에도 남한의 김연아, 박태환, 이승엽과 같은 인재들이 많을 것이라 믿어. 베트남,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다 통일을 이루었지만 세계에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허리 잘린 호랑이가 웬 말이겠니?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사실이 있어, 바로 남한, 북한처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같은 한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하지? 조금 불만스러워. 얼마 전에 너희하고 외국이 축구 경기를 했었잖아. 그 때 나는 북한을 응원했어. 왜냐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린 한민족이니까. 한 마디로 우린 하나니까! 힘을 길러 북한 공산당을 무찔러야 한다는 친구도 있지만 난 그 반대라고 생각해. 싸움 없이 평화적으로 끝내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위에서 했던 숫자 0과 1처럼 우리 남북한도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

- 너의 친구 경금이가 ♡~-





한 여울교를 건너서



신정중 1^{학년} 박채린

“채린아, 태화강변에 운동 가자.”

“에이, 엄마. 시험 기간인데 무슨!”

“공부는 빨리 갔다가 와서 더 열심히 하렴. 체력이 곧 국력이자 진정한 마지막 승리라고 했지?”

지난 토요일 아침, 곧 시험이라 공부한답시고 방에서 톱 나올 생각을 않는 나를 위해 엄마께서 태화강변을 한 시간 정도만 걷고 오자며 밖으로 이끄셨다.

우리 가족은 강의 북쪽 울산 중구에 살다가 얼마 전 강의 남쪽인 울주군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남구 쪽의 강변이 어색했다. 하지만 시원한 태화강을 옆으로 하고 십리대밭에서 들려오는 온갖 새 소리를 들으며 걷자니 우리의 걸음은 어느 새 점점 더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동생 인서가 “엄마! 물고기가 뛰어요.” 하고 소리치는 소리에 태화강에서 퐁퐁거리며 놀고 있는 물고기 찾기 놀이를 시작했다. 곧 이어 “저기!!” 또 “저기도 있다.” 시끌시끌한 우리 가족의 소리에 혼자 운동하러 나오신 아저씨가 힐끔 우리를 쳐다보시기도 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 새 저 맞은편에서 우뚝이 서있는 예전 집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와우!!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 저기서 10년이 넘게 살았더니 정이 많이 들었구나. 새 주인이 잘 살아 주었으면 좋겠네.” 하는 엄마



의 말씀을 뒤로하고 좀 더 건다 보니 얼마 전 울산의 상징으로 새로 만든 멋진 갈매기 모양의 십리대밭교가 보였다. 이 다리는 차는 못 다니게 만든 울산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인도교다. 갑자기 난 옛 집 근처에 같이 살던 내 친구 지원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래서 빨리 전화를 했다. “지원아, 나 십리대밭교에 있어.” “그래? 미리 말하고 오지 그랬어. 우리 지금 문수산에 와 있는걸.” “그럼 할 수 없지. 다음에 꼭 연락하고 올테니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굳은 약속을 뒤로하고 다리를 건너 이번엔 건너편 쪽으로 다시 우리의 주말 운동이 시작 되었다.

아마도 강이 많은 우리나라의 모든 강들에는 이런 다리들이 있어서 보고 싶은 이들을 만나게 해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강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엄마의 추천으로 읽었던 이미륵의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이미륵이란 주인공을 못 잊어서 압록강의 이쪽과 저쪽에서 이 강을 건너갔던 주인공을 그리워하던 두 여인의 모습이 생각났다. 마치 중구와 남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지원이와 나처럼.

‘그 두 여인들에게도 이런 어여쁜 다리를 놓아 준다면 두 분이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운 남편과 스승의 모습을 잠시라도 서로 나누면서 슬픔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강은 무슨 강일까? 바로바로 너무도 쓴 아픔과 헤어짐의 사연을 듬뿍 담고 있는 한탄강이다. 한 민족인 우리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38선뿐만 아니라, ‘한탄강’이라고 불리는 강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름의 강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한탄강’이라는 이름에는 대략 네 가지의 유래가 있다. 첫 번째, 옛날 후고구려의 궁예가 왕좌를 빼앗기고 쫓기며 이 강을 보고 한탄했다고 해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흔히 말하는 ‘폭군’이었던 궁예는, 백성들과 여러 대신들에 의해 왕건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궁예를 알아본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당시에 강 앞에 서서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두 번째, 3·1 운동 때 애국지사들이 일제를 피해 피신하다가 그렇게 불렀

다는 설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일깨워 주었던 3·1 운동에서 무기를 마구 휘두르는 일본군에 쫓겨 다다른 강이 한탄강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세 번째, 한탄강은 역사적 흐름에 의해 조국의 슬픈 운명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했는데,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분단에 의해 민족의 한이 서린 38선이 한탄강을 경계로 그어지게 되자 북으로는 공산주의, 남으로는 민주주의가 되어 한반도의 경계선이자 아픔이 되었다. 이로 인해 밤이면 수많은 월남민이 북쪽의 공산주의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헤어진 가족과 만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한탄강을 몰래 건너다가 한 맺힌 최후를 마친 피 맺힌 사례가 흔했다. 또한 6·25때는 이 강이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하여 남과 북, 양쪽 병사의 시체와 붉은 피가 인근의 강과 산을 뒤덮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한(恨)”이 서린 강이라고 해서 “恨歎江(한탄강)”이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이렇듯 너무나도 슬픈 분단의 상황이 한탄강에 맺혀 있다. ‘한민족’으로서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편지도 주고받기 힘들뿐더러, 심지어는 세 문장 이상의 대화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들어 본 북한 말이라고 해도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 도시락은 곶밥 등 아주 간단한 것들 뿐이다. 하지만, 한탄강에는 눈물만이 아니라 한민족의 웃음 소리도 분명 함께 맺혀 있을 것이다.

한탄강은 처음엔 “한 여울” 즉, “큰 여울”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가끔 옛 이름 그대로 “한 여울”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도의 명칭에서도 “한 여울”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다. 한 여울의 “한”자와 “여울”은 순수한 우리말로써 “한”자는 “한 아름”, “한껏”, “한밭(大田)”등과 같이 “크다”는 의미와 그 모양이 마치 하늘의 “은하수”같이 아름답고 넓고 깊다고 해서 “은하수 한”자의 “漢”자로 표기했으며, 그 모양새가 계곡과 절벽을 굽이쳐 흐르는 “여울”이라 하여 “여울 탄”자인 “灘”자를 써서 오늘날의 한탄강(漢灘江)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토록 아름답고 넓고 깊게 굽이쳐 흐르는 강에 아주 멋진 다리까지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탄강의 이쪽 강변에서 운동하다가 저쪽 강변 친구 불러내서 만나 놀기도 하고 엄마들은 호호거리면서 수다도 떨고



아빠들은 운동 기구 사용하면서 서로 힘자랑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그림을 좀 그리니까 어여쁘면서 우리민족의 정서가 듬뿍 담긴 다리를 설계해 볼까? 그러면 이번에 과학 상상 만들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내 동생 인서가 그 도면을 바탕으로 멋진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거 같다. 다리의 이름은 바로 “한 여울교!!”, 한 민족의 하나 된 마음이 이 “큰 여울 다리” 위에서 마음 모아 힘 모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쪽의 친구들아, 우리 한 여울교에서 만나서 신나게 놀자.”





못 다 부른 아리랑



함월고 3¹장민지

나는 어릴 적부터 1년에 한 번씩 외할아버지를 따라 ‘이북도민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갔었다. 그것이 무슨 행사인지도 모른 채 행사 끝에 주는 선물을 받는 게 좋아서 따라가곤 한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통일은 필요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배워 왔다. 그런 인식을 학교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해왔지만, 솔직히 나는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한 안에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끊일 날이 없는데 50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북이 합쳐진다면 더 잦은 다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통일은 안하는 게 낫다는 게 솔직한 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다.

그 날도 나는 으레 다이어리, 학용품 세트 같은 선물을 받을 욕심에 그 행사에 따라갔다. 오전 행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지루하기만 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로 시작된 행사는 오전 내내 ‘누구누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이어졌고, 알 수 없는 시상식 후 묵념으로 오전 행사는 끝이 났다. 지루함을 못 이겨 계속 행사장 밖을 돌아다니며 놀던 나는 오전 행사가 끝나고 점심 도시락을 먹을 시각에 다시 행사장으로 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오후 행사를 기다렸다.



오후 행사에는 민속놀이,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이 있었다. 민속놀이를 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윷놀이도 하시고 투호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 그 흥은 노래자랑으로 이어져서 다들 어우러져 춤도 추시고 흥겹게 보내고 계셨다. 노래자랑 마지막 순서에 새터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한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여느 할머니들과 다름없이 반백의 머리에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셨다. 구성지게 아리랑 노래를 시작하신 할머니는 얼마되지 않아서 목 소리에 울음이 묻어나는가 싶더니 곧 눈물을 흘리셨고 결국엔 노래를 다 부르시지 못하고 흐느끼셨다. 그 날 할머니의 아리랑은 미완으로 끝이 났다.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구경을 하고 있던 나는 아무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의 우는 모습이 참 안돼 보인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자리에 앉아 가끔 손뼉을 치기도 하면서 말없이 노래자랑을 구경하고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도 울고 계셨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외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노래자랑이 끝난 뒤 항상 그랬듯이 ‘제 *회 이북도민행사’라는 문구가 찍힌 다이어리를 받아 들고 행사장을 나오는데 내 머릿속은 온통 그 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북도민회’가 뭔지 그 할머니는 왜 우셨는지,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왜 우셨는지를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몇 년째 그 행사에 따라다녔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은 그제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남쪽으로 내려오신 지 얼마 안된 새터민이신데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더욱 간절한 통일에 대한 소망들 때문에 우셨고 또 비슷한 아픔을 가진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셨던 것 같다.

그 이후로 학교 생활도 바빠졌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북도민행사에 더는 갈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그 할머니를 뵈는 적도 외할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언제나 무뚝뚝하니 말쑥이 없으신 외할아버지께서 북한

에 관한 방송을 녹화한 비디오를 훑어져라 보고 계신 것을 볼 때면 그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속에서 배우는 형식적인 통일의 필요성이 아닌, 경제적·민족적 손익을 따져 보는 통일이 아닌,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아픔이 외치는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 얼마나 그리울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가 마지막으로 갔었던 그날의 행사 이후로 나는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단둥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되면 무조건 모든 게 다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십 년 넘게 헤어져 지내왔기에 사상적인 싸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화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와 다름을 조정하면서 우리 민족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그 할머니의 눈물, 외할아버지의 눈물, 그 자리에 모인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이젠 닦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전쟁이나 힘을 앞세운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아픔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분단 유지 비용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다시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같은 민족끼리 피 흘려 싸우면서 민족의 하나 됨을 외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이며, 또 다른 슬한 ‘그 할머니’를 만들 수밖에 없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이제는 외할아버지와 끝내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셨던 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할머니의 아리랑은 지금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지금 나는 그 두 분이 통일된 나라에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외할아버지도 그 할머니도 오래 기다리실 시간이 없으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나의 바람은 더욱 간절하다.



경기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같은 민족 같은 겨레 _ 199
- 'I'm from South Korea'가 아닌
'I'm from Korea'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통일 !! _ 203
- 원앙 _ 208
- 할아버지의 눈물 _ 211
- 우리나라 최북방, 그 곳의 들꽃 _ 214
- 벽을 넘는 저 담쟁이처럼 _ 220
- 평양으로 현장학습 가던 날 _ 223
- 갈매기의 꿈 _ 226
- 꼭 피어야 할 꽃, 통일 _ 229

같은 민족 같은 겨레



개정초 4차오름

“어떻게 하지? 오늘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 날은 바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묵는 날이었습니다.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 보니, 정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집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께서 와 계셨습니다. 모두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중국어 선생님을 닮아서 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가방만 내려 놓고 곧장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저녁도 굶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께서 오셔서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계란찜 냄새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름아, 인사는 드렸니?”

“아니요…….”

“어서 인사드리렴. 북한에서 오셨단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아주머니들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있었니?”

저는 그 때 그 아주머니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아주머니를 처음 보는데 아주머니는 왜 나보고 잘 지내고 있었니? 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무서운 북한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왔지?’

저는 밥만 깨작깨작 먹고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니 별들과 달이 춤추는 듯했습니다.

웬지 모르게 슬퍼진 저는 눈물이 물이 있는 웅덩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웅덩이에 비친 달과 별들이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한참동안 울고 있었을 때, 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급히 눈물을 닦고 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빠께서 서 계셨습니다.

‘아빠께서 나를 혼내러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빠는 다른 일로 인해 혼내시는 것은 파리채를 깃털로 맞는 것처럼 살짝 때리시는데, 예의에 대한 일이면 공기도 얼어붙을 만큼 무섭습니다. 저는 그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빠께서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때, 얼마나 무섭고도 놀랐는지…… 안도의 한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께서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름아.”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무섭니?”

“네”

아빠께서 제 마음 속을 너무 깊이 파헤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그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고, 사람이야, 그런데 왜?”

“북한 사람이잖아요.”

“오름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북한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같은 핏줄, 같은 나라야. 단지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경계하며 둘로 나뉘어져 살고 있는 것이지. 이제 들어가자.”



“네…….”

저는 아빠에게 끌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아주머니에게 여쭙어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그러자 한 아주머니께서

“그래, 네가 오름이지? 오름아, 북한은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살기가 어렵단다. 나는 북한에서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거리에 나가면 굶어죽은 시체가 널려 있고 입을 것 먹을 것이 부족하여 아이 둘을 비롯한 우리 네 식구가 살아가기는 너무 힘이 들었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만이라도 북한을 탈출해 돈을 벌어서 못 먹어 죽어가는 우리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탈출했단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올 수 있었나요?”

“바로 탈출한 것이 아니고 먼저 중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과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올 수 있었단다. 그런데 탈출하면서 당한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단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니까. 지금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단다.”

“그럼,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남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렇게 오름이네 집에 오게 되었어. 이렇게 초대해 준 오름이의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

‘아, 그렇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 보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잠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는 가정을 신청받아 그 가정에서 며칠 지내도록 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원에서 북

한 사람들이 가정 체험할 수 있는 가정을 구한다고 하기에 신청을 했다. 북한도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인데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니?”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에는 두 번씩 모두 네 분의 북한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이틀동안씩 우리 집에서 지내시다 가셨습니다. 먼저 오신 두 분은 가족들을 모두 북한에 두고 오셨고 나중에 오신 두 분은 다행히도 가족들이 함께 북한을 탈출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두고 온 북한 아주머니들은 가족들 생각이 나시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부모님과 떨어져서 산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부모님과 같이 밥일도 하시고 안성 시장에 가서서 카드를 가지고 물건도 사 보고 버스를 타 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오셨다 간 뒤로 저는 조금씩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통일이 되려면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하지만, 북한도 우리와 같이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들이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일들도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m from South Korea'가
아닌 'I'm from Korea'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통일 !!



발안중 3 | 박가영

중학교 1학년 때, 교육청 후원으로 3주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캐나다의 밴쿠버로 어학 연수를 가게 되었다.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보는 것이라 몹시 설레고 떨렸다. 내 생의 첫 해외 진출이었던 것이다. '비행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 '캐나다란 곳은 어떤 곳이며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가서 말은 통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서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 중 한 명이지만, 캐나다에 가면 나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엄연히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에 가는 것이니,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곳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약 18시간에 걸친 긴 비행 끝에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캐나다에 도착했다. 낯설고 두려운 마음도 잠시 마중 나온 홈스테이 가족들을 만나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다.

머리가 노란 서양인들 틈에 까만 머리의 동양인은 매우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더욱 나는 "Where are you from?"이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하루는 혼자 영어도 연습해 볼 겸 한 마트에 갔었다. 나는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 놓았다. 그러자 계산원이 물었다.

“Where are you from?”

나는 때는 이때다 싶어 자랑스럽게 말했다.

“I’m from Korea!”

그런데 계산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당황했다. 내 발음이 잘못되어서 말을 못 알아 듣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무언가 말실수를 했나 싶기도 해 머뭇대고 있는데 계산원의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South, or North?”

순간 나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당황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에게 남한과 북한은 다른 나라였던 것이다. ‘한국이면 다 같은 한국인이지, 남한인지 북한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하는 생각에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대답은 해야 했기에 주섬주섬 전자사전을 꺼내 단어를 찾았다. 사실 남쪽은 ‘South’이고 북쪽은 ‘North’라는 단어라는 것은 요즘 초등학교들도 알만한 쉬운 단어이지만,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남한과 북한에 적용되니 순간 머릿속에 헛갈리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힘없이 “South”라고 대답하고 매장을 나왔다. 외국인들에게 이미 ‘Korea’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분단된 두개의 국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 셈이 된 것 같아 정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또한 내가 머물렀던 밴쿠버는 미국의 국경선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던 곳인데 그 사실도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에 대해 생각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경선과 가까운 탓에 홈스테이 아주머니는 자주 미국으로 쇼핑을 가곤 하셨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국경선을 넘나들다니……. 50년 넘는 세월동안 같은 민족끼리 국경선을 그어 놓고 그 땅은 물론이고 국경선 근처조차 가 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에 정말 속상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북한, 분단, 통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다. 그런데 먼 캐나다 땅에 가서 나는 더욱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왔다. 한민족, 그리고 분열.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실이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국기가 다르고 올림픽이 되면 따로 대표 선수를 뽑아 서로를 상대로 해 게임을 벌인다. 회담에서도 다른 나라로 대한다. 또한 핵무기로 인한 신경전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미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통일은 조상님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숙제이며 후손들에 대한 선조로서의 책임인 것이다. 캐나다에서의 일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분명 통일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더 이상의 상처와 희생자를 내지 않도록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예전에 TV에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잔인하고도 슬펐다. '만약에 내가 그들이었다면? 우리 부모님과 갑자기 헤어져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보지 못한다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났다. 이산가족들은 아파하고 있다. 가족을 볼 수도 없으며, 심지어 가족의 생사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 하나로 살고 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득 겁이 나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남북간의 분열을 당연시 여기고 인정해 버릴까봐 말이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외국인들의 시각처럼 북한을 아예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같은 조상을 두었고 피도 같으며 같은 역사와 언어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는 김치가 있고 전통 의상으로는 한복을 입는 따뜻하고 정 많은 나라이다. 또한 임진왜란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 왜를 무찌르기도 했다. 통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모두 뜻을 모아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대통령이 하는 것도, 정치인이 하는 것도, 군인이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간절히 희망하며 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따라 인터넷에 자신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올리고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적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는 분단되어 있었으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해해야 한다. 간혹 북한과의 사소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증오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을 이루어낸 나라로는 독일과 베트남이 있다. 이 나라들 또한 통일의 과정동안 많은 노력을 들였다. 이들을 본받아 우리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서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사회로서 국민들에게 개인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되, 그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데 반해,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로서 국민들에게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고 정당화한다. 이렇게 서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하여 잘 알면, 통일을 해 나아가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할 것이다.

네 번째로 북한의 문화 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덕시간, 인터넷 공간, 방송이나 책 등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익히고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말을 찾아 우리말과 비교해 보면서 배워 본다든가 또는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 터전을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다든가, 북한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읽어 본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통일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다섯 번째로 미래의 통일 주역인 우리는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가 학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서 통일은 다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치, 경제적 발전을 통한 부국강병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차근차근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라 이름이 두 개가 아닌 'Korea'라는 통일된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주제로 한 글짓기 대회가 없어지는 그런 날 말이다. 통일 한국은 국기도 하나이고 국가대표 선수도 같이 뽑고 한나라로서 서로 같은 팀을 응원하며 같은 일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회담에서 다른 나라로서 대면할 수 없는, 핵문제로 싸울 일도 없는, 국경선은 없어지고 한반도 곳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평화로워지고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나는 간절히 바란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다시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이라고 질문하면, 'I'm from South Korea.'가 아니라, 자신있고 당당하게, 멋있게, 자랑스럽게 아주 큰 목소리로 'I'm from Korea.'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한다.

“Where are you from?” → “I'm from Korea.”



원앙



정발고 2 | 김남경

내 어머니의 할머니는 이북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네는 총 들고 시뻘건 두건을 두른 채 군가를 부르던 빨갱이도 아니요, 사람을 잡아먹고 머리에 뿔이 달린 도깨비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네는 그저 곱디고운 처녀였을 뿐이다.

일제 치하, 그 불안하고 음울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 중에서는 드물게 연애 결혼에 성공한 부부는 그렇게 금실이 좋았다고 했다. 복사꽃 흩날리고 맑은 물 흐르는 그 먼 옛날 고향 땅만큼이나 어여쁜 사랑을 했었다고들 했다. 혼례 식날 받은 목각 원앙이 허연 눈 희번덕거리며 시샘할 만큼이나 깊은 애정을 과시했다고들 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 배는 굶어도 사랑은 굶아 본 적이 없었던 것이 할머니의 주된 우스갯소리였노라 어머니는 말해 주었다.

그 사랑에 철조망이 선 것은 한반도가 반으로 갈리었을 때였다. 곧 돌아오겠노라 말하던 할아버지는 목덜미에 파란 명주실이 매인 원앙 한 마리만 남긴 채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홀몸으로 아이를 넷이나 키워내며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전쟁통에 무너진 한강 철교를 건너면서도 품고 내려온 원앙이 한 쌍이 되는 일은 없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두 갑절의 시간이 흘러도 목덜미에 빨간 명주실을 비끄러맨 원앙은 돌아오지 않았다.

배꽃같은 얼굴이 세월에 삭아들어 점점이 검버섯이 피어날 때 즈음, 남북 정



상이 악수를 하는 사진이 실렸다. 할머니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사진이라도 되는 양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셨다. 그리고 마당의 배나무가 하얀 눈물을 흘 뿌리던 이듬해 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반들반들 손 때 탄 원앙 하나를 꼭 쥐신 채였다.

몇 년 뒤 중학교에 들어가 도덕시간이 되었다. 통일에 대해 배우던 그 시간, 선생님은 우리에게 토론을 시키셨다. 나는 통일에 찬성하는 쪽에 섰다.

상대편의 주장은 간단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였다. 그들은 굳이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으며 혹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비용을 대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될 것이라 하였다. 나는 그에 맞서 이산가족에 대해 설명했다. 공허한 외침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슬픔보다는 좀 더 커다란 것, 이를테면 정치나 경제, 군사적인 분야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이산가족에 대해 말한 나에게는 우리 편 아이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제적인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반박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이들의 관심은 곧 경의선을 연결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넘어갔다.

이산가족 문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쪽에 선 우리 편 아이들도 선생님도, 심지어 교과서조차도 꼭 여섯 글자의 무게로만 이 문제를 대하였다. 막대한 세금, 군사비 절감과 같은 돈 문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같은 이념 문제가 그들에겐 그지없이 무거웠다.

할머니의 무덤 속, 눈물을 받아먹고 묵직해진 원앙의 무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너무 무거워서 힘에 부친 할머니가 저승길에도 데려가지 못한 원앙의 무게는, 나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던 그 눈물의 무게를, 저승사자마저 차마 끌고 가지 못한 그 사무치는 그 리움을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통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열렬히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전자는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통일에 반대하는 이요, 후자는 여러 이유들로 미루어 통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혹은 옳다고-생각한 이일 것이다. 모두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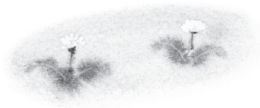
경제 전문가가, 혹은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터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아직 고등학생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어른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하는 의견과 근거들을 따라잡을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이 말하는 ‘경제적 이익’ 이나 ‘정치적 갈등’ 같은 것은 고등학생인 나에게겐 굉장히 먼 이야기이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는 중학교 도덕시간에도, 사회시간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중학생은 없는 것처럼. 나 역시 그런 돈 문제보다는 할머니의 눈물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

통일은 물론 아주 커다란 변혁이다. 경의선이 연결되고 정부 관료 체제가 바뀌고 두 동강 났던 국토가 다시 하나가 되는 힘든 일이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할 것이다. 장차 들어갈 국방비 및 외교 관계에서의 불이익과 통일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은 통일이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경제적인 통일이나 정치적인 통일도 좋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TV에 등장한 한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는 하얀 서리가 앉은 머리칼을 한 아들의 손을 꼭 잡은 노쇠한 어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새어나와 세월이 파놓은 깊은 고랑을 따라 흘러 내려가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본래 우리는 하나였다.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보다 마음 한 켠에 자리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할머니의 원앙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할아버지의 눈물



청평초 5 | 조해언

지난 봄방학 때의 일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언아, 할아버지랑 같이 어디 좀 가자.”

“할아버지 어디를 가는데요? 저 친구들과 롯데월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에이, 싫은데…….”

그때, 엄마께서는 저의 옆구리를 쿡 찌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랑 다녀와. 네가 얼마 전부터 갖고 싶어 하는 새로 나온 게임 CD 엄마가 사줄게.”

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 할아버지랑 함께 다녀오기로 하고 친구들에겐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를 연락했습니다. 엄마의 배움을 받으며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런 날, 롯데월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언아, 작은할아버지와 고모할머니 성함이 뭐지 아니?”

나는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질문에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담.’

하는 생각으로 투명스럽게

“몰라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너희 작은할아버지 성함은 조석표, 고모할머니 성함은 조순옥이란다. 잘 알아두도록 하여라.”

하시며 성함을 또박또박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지루하고도 먼 여행길,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금쯤 롯데월드에서 바이킹, 회전목마, 펌프카 등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타며 신나고 즐겁게 놀고 있을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드디어 도착한 곳은 임진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주스와 과자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으로 북녘 땅을 바라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왜 우시지?’

하는 생각에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그곳은 북한의 국기가 높게 펄럭이고 있고 낮은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과 들의 모습은 우리 마을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궁금했던 것을 할아버지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왜 그렇게 우셨어요?”

“저 북녘 땅에 있을 내 동생들이 너무도 보고 싶더구나!”

나는 그제야 할아버지께서 그리워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바라보이는 땅이지만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여행길이 피곤하였던지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꿈 속에서



나는 가족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자 저 편에서도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서 너무 기쁜 나는 엄마와 아빠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높은 철조망이 나와 부모님 사이를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다가가려고 해도 엄마와 아빠는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울면서 목 놓아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해인아, 다 왔다. 네가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잠꼬대를 다하고…….”

하시며 나를 깨우셨습니다.

‘어휴, 꿈이었잖아. 정말 다행이다.’

나는 꿈을 꾸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참 힘들고 슬픈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되어 할아버지께서 동생들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날이 와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금강산 피살 사건 이후 남북한의 사이는 나빠져 여행길도 중단되고 북한은 6자 회담도 거부하고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 남한은 식량과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 같은 경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평화적인 교류를 힘써 오고 있는데 냉담한 북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우리 주변 국가들도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기에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할 일에 힘쓰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여행길은 소중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방, 그 곳의 들꽃

칠보중 2'이다원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어쩌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이유를 손에 꼽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소박하게 한자리에 조용히 피어있는 들꽃에서 통일의 이유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심장의 아련함을, 우리는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왠지 무거워야 할 것 같은 주제를 가진 이 글에 얼마 전에 즐겁게 다녀온 수학여행 중, 통일전망대에 갔을 때 생각한 것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여행 때 통일전망대라는 곳에 난생 처음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 가장 북방, 그곳에서 저는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것은 그 곳에서 보여준 영상물도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아닌, 무장을 한 군인과 상반되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들꽃들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와 보는 그곳에서 분단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곳에 핀 들꽃과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녀쿨을 보고 상상과 판이하게 다른 평화로운 모습에 놀랐으며, 이곳 또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이며 이 너머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북방’이라 하면, 굉장히 삭막한 모습의 곳을 상상했습니



다. 마을도 없고, 그저 군인들만이 있으며 풀 한포기 나지 않는 모습어요. 그러나 막상 가본 그곳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소박한 마을과 조그마한 학교, 그리고 정겨운 모양으로 빨랫줄에 널려 춤을 추는 빨래들. 그리고 그 위로 조금 더 차를 타고 올라가면 담장을 타고 올라가 손을 흔드는 넝쿨들까지. 그 곳은 여느 마을과 다름없는 한적하며, 아름다운,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차를 타고 올라가자, 버스에 무장을 한 어느 군인 아저씨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선 처음으로 무장을 한 군인 아저씨의 모습에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무장을 한 군인 아저씨에 탄성을 터뜨리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 아저씨를 바라보다 문득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이인 저 너머의 군인도, 같은 외모에 같은 말을 쓰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외모를 가진 우리의 민족에게 어쩌서 총을 겨눠야 할까요? 서로 손을 잡고 맑게 웃을 수는 왜 없는 걸까요. 우리는 형제에게 총을 겨누고, 같은 핏줄의 피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남자가 후에 군대에 간다는 것’은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는 이유가 같은 민족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 현실을 무관심한 눈빛으로 보고 있을까요?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것이 전시중인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눈앞의 현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을까요? 같은 한 민족의 목에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동시에 너무나 아픈 사실을 모른 척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한민족을 경계하며,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있는 것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서로 같은 형제가 서로에게 그렇게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커버린 지금, 우리는 그것의 모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깨끗한 어린 날처럼 ‘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마져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것을 못하고 아니 발견하지 않고 있

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친척 분들은 종종 가족들이 모이면 6·25때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주시곤 하십니다. 비행기 소리에 놀라 집안으로 뛰어 들어간 이야기라든가, 당시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전쟁이 먼 과거에 셀 수도 없이 윗대의 조상들이 겪었으리라 막연히 생각했던 전쟁이 지금 제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실을 깨닫고는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에 '휴전중'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합니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을 잘 못느끼고는 합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도 '왜 통일을 해야 해?'라며 저나 선생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난 통일 반대야.'라며 각종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듣고 있으면 '북한은 경제적 상황도 안좋고, 통일을 해봐야 좋을 것도 없어'라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뿐일까요? 물론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은 다른 이유도 아닌, 그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임을 말하려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제가 국방비가 절약된다고 하는 어려운 이유를 들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민족으로서의 향수, 그리움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민족으로써의 향수, 그리움의 대표적인 예로 이산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본 이산가족의 상봉은 코끝이 찡해질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TV로 본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하물며 당사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 전날, 전날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 왔을까요? 현재 1세대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약 5,000명 정도의 이산가족이 그토록 그리던 자신의 혈육의 손을 목소리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적 헤어져 분단의 고통을 심장으로 뼈로 느끼시다 결국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분단 60년의 긴 시간이 불러온 결과이며, 아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통일이 지체되고 느려진다면, 이런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러 70년, 80년으로 늘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에 호소할 이유는 단 이산가족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물 한잔, 빵 한 조각’에 허덕이며 어린 나이에 흐린 하늘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 역시 우리가 통일해야 할 어렵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속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무감정한 우리의 태도에 오늘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은 한없이 밀려오는 갈증과 배고픔을 억누르며 잠들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은 먼 60년 전의 전쟁 때문에 나무껍질조차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 한잔을 건네는 것도 아니고 빵을 한쪽 나누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단 강하게 통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하여 이 아이들을 보듬어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실은 아이들의 굶주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을 목숨을 걸고 사지를 탈출하는 탈북자, 그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복송되어 겪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죽음을 포함한 끔찍한 형벌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고향에서 뛰쳐나온 그들에게 안겨지는 육체적, 정신적 아픔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들이 굳이 목숨을 걸고 비오는 날 밤 국경선을 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강제 복송으로 인하여 끔찍한 형벌을 받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짧은 글을 보고 코끝이 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힘들다고 투정부리던 날이 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저 먼 땅에 사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내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주 조금 뒤틀려 손을 뻗어 맞잡을 수 없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감정에 호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도 통일을 할 이유를 어려운 이유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가슴이 아련히 아파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통일에 무감각한 감정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통일’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시려야 합니다. ‘북한은 가난하니까, 통일하기 싫어’ 라는 말이 가슴의 아픔에 가로막혀야 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통일’에 대하여 ‘어른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 이라거나, ‘언젠가는 될 일’ 로 생각하거나 혹은 아예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나라를 이끌고 갈 우리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악순환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통일은 한 세기가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랜 시간 굶주림에 지쳐 영원한 잠을 청하는 것을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서 또래의 아이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지요. ‘통일 글짓기’가 어쩌서 지루한 것이 되는지요. 그것이 누구의 탓이며, 우리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요.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만으로는 안됩니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통일이 되지 않듯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 따분한 생각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단의 아픔은 오랜 시간 씻어지지 않을 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통일이 언제까지고 지체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이 아픈 분단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먼 옛날 조상들이 함께 돌보았던 이 한반도를 우리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찢어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서로 떨어뜨려 놓고 너무나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다시 우리의 땅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민족이 한 데 모여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학여행 때 제가 본 바다는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 북쪽 바다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 너머 보이는 땅도 우리의 땅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북쪽의 땅도 우리나라 모두 ‘금수강산’이었으며, 저 너머 하늘도 이쪽의 하늘도 푸르렀습니다.

제가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 어떤 다른 이유에서도 아닙니다. 다른 이득을 취하자는 이성적인 이유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통일을 못한 국가는 대



한민국 뿐'이라는 그 어떤 슬픈 소설책 한 권보다 슬픈 이 한마디와,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 어떤 슬픈 영화보다 슬픈 이 장면이 지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수학여행 때에 본 들꽃이, 풀 한 포기과 넝쿨이 저 북쪽에 핀 한 송이 들꽃, 풀 한 포기가 서로 다른 모습일까요? 노란 민들레가 북쪽으로 가면 노랗지 않을까요? 그 아름답고 하얀 씨앗은 새파란 봄 하늘을 수놓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북쪽에 핀 들꽃과 이곳에 핀 들꽃이 같듯, 그 씨앗이 아름답듯, 우리와 그들은 또한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소하며 작은 들꽃을 보고 가슴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작은 들꽃에서 통일의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벽을 넘는 저 담쟁이처럼



서원고 1 | 최유진

언젠가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굶어죽는 상황에 놓인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게 되었다. 배고파서 바닥에 있는 음식들을 주워 먹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통해 쉽게 고칠 수 있는 결핵이란 병까지도 어떻게 손쓸 도리도 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에 대한 정보를 영화를 통해 만난다는 것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북한의 실상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나라,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가까운 예로 독일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었다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통일을 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 양쪽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면서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한 부작용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성공적인 통일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것일까?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을 원하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46%라는 놀라운 숫자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실 전쟁과 분



단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나 또한 솔직히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 또는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확실하게 ‘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저 주변 어른들로부터 간간히 전쟁에 대한 경험담을 듣는 것과 그들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 TV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약간 찡한 정도의 통일만이 내게 외닿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같은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한 변화도 좋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한 변화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지간에 국민들의 진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성, 국방비의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는 경제적인 측면, 국력 강화를 위함이라는 정치적인 측면, 이 모든 사실에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통일을 진정 원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이다.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정부의 몫이다. 그 몫을 어떻게 다하는가에 따라 통일에 대한 한반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에 나오는 절망의 벽을 넘는 저 담쟁이처럼, 여럿이 손을 꼭 잡고 기어이 벽을 넘고야 마는 저 담쟁이처럼, 몇 십 년 떨어져 지내온 분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지와 다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만 있다면 분단에 관한 그 어떤 문제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낮은 벽에 불과할 것이다. 벽을 뛰어넘으려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다면, 통일이란 글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지 않을까?





평양으로 현장학습 가던 날



상탄초 5¹이채원

평양으로 현장학습을 온 것은 재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곳 평양은 새로운 신도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학교나 빌딩들도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고 있다.

평양으로 현장학습을 오게 된 것은 우리 반에 새로 전학을 온 광철이 덕분이 아닐까 한다. 광철이는 통일이 되자마자 북한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전학 1호 학생이다. 광철이가 전학을 온 후 약 30명 정도의 북한 출신 어린이가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다. 처음에 전학을 온 광철이의 말투나 행동이 우리에게 정말 신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평양으로 현장학습을 오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학교가 북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있지 않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더 쉽게 올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얼마 가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북한 땅이 가까운 임진각이나 통일동산으로 부모님과 함께 여러 번 현장학습을 다녀 온 친구들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북한 땅을 광철이를 보고 더 궁금하게 생각하여 가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평양이 고향인 광철이는 통일이 된 지 3년쯤 되는 지금, 고향 생각에 잠도 못 이루었다고 한다. 통일이 되었지만 평양을 다녀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아직 통일 초기이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조사 항목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 탐방이나 교육적 목적인 수학여행으로 평양이나 개성, 그리고 금강산, 묘향산을 갈 수는 있어도 아직 자유로운 출입은 조금 힘든 것 같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남과 북을 왕래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된다. 드디어 확실하게 통일 한국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평양으로 현장학습을 갔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평양도 서울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었다. 높은 빌딩과 수많은 자동차는 내가 살고 있는 고양시와 흡사했다. 북한도 그동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것 같다.

통일이 되어 좋아진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매우 부자이면서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곧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일은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 모두 정말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은 모두 무섭게 생겼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북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나저나 광철이와 같은 모듬인 우리는 술래잡기에서 광철이를 찾지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광철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도 군사 훈련을 받아서 이 정도의 술래잡기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얘기했다.

우리는 1박 2일의 평양 현장학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우리 학교에는 어느덧 북한에서 전학을 온 친구들이 꽤 많이 늘어서 이제는 한반에 서너 명의 북한 출신 친구들이 전학을 와 있는 상태다. 북한 사투리가 심한 친구들의 말은 정말 알아듣기 힘들 정도다. 우리나라에도 지방 사투리가 많지만 북한의 사투리는 억양이 너무 세서 정말 알아듣기 힘든 것 같다. 억양이 강해서인지 북한 출신 사람들은 거칠어 보인다. 그리고 보니 북한에서 전학 온 친구들의 이름은 모두 강렬하다. 광철이만해도 그렇지만 광숙이나 철민이, 철진이는 정말 이름이 강렬하다는 생각이 든다.

광철이가 전학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내년부터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서 할아버지 고향인 평양북도 삭주군에 있는 증조할아버지 묘소에 아빠와 우리가족 모두 첫 성묘를 갈 예정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소만



보고 찾아가야 하지만 반드시 할아버지의 고향집에 찾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말씀하셨다. 우리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산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모두들 고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광철이의 할아버지도 남한에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광철이네는 통일이 되자마자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라고 했다.

남과 북이 왜 일찍 통일을 하지 않았는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찍 통일이 되었더라면,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 있는 고향집과 고향의 식구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 필요도 없는데,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통일이 된 한국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길 기도해야겠다. 내년부터는 남과 북을 잇는 고속도로와 전철도 새로 개통된다고 하니 참 다행인 일이다. 내년에는 광철이도 이 전철을 타고 광철이의 고향을 다녀올 수 있겠지? 6학년 오빠들은 내가 사진으로만 본 백두산으로 여행을 떠난다는데 얼마나 좋을까? 정말 멋진 우리 민족의 백두산에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는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 통일 대한민국 만세! 파이팅!





갈매기의 꿈



송우중 3 | 조화연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다는 내용이였다. 아버지께서는 이러다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 같다고 하시며 걱정을 하셨다. 남한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데, 북한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도 지구촌의 공동체 대열에 함께 참여하여 평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거짓됨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언젠가 가족 여행을 하면서 통일전망대에 갔을 때의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하얀 한복을 입고 북한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

왜 하필이면 하얀 한복을 입으셨는지 나는 지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포같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모습으로 할머니는 하염없이 북녘 땅을 바라보고 계셨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걸 수도 없었다.

망원경으로 북한을 구경하고 가족사진을 다 찍고 난 후에도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동상처럼 서 계셨다. 그리고 어느 새 두 눈에서 빗줄기 같은 눈물이



주룩 흐르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너무 아팠다. 어머니께서는

“화연아, 할머니의 고향이 북녘 땅인가 보구나. 6·25전쟁때 헤어져서 고향이 그리워서 저렇게 하염없이 우시는 것 같구나.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북녘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야 할 텐데…….”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

할머니를 뒤로 하고 차를 타려는데 할머니께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다.

“어디까지 가시누? 같은 방향이면 나 좀 데려다 주지 않겠수?”

그 말을 듣고 나는 얼른 “경기도 포천이요!”라고 대답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와 같은 방향이라고 하시며 태워 줄 것을 부탁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정성껏 차에 태워 주셨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가 왜 우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이라고 하셨다. 동해 바닷가와 접해 있고 강원도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시며, 어머니 말씀처럼 6·25전쟁때 남편과 큰 아들이 북녘 땅에 남고, 작은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하셨다. 북녘 땅에 두고 온 아들은 유난히 바닷가를 좋아했고 갈매기들을 친구처럼 좋아해서 남편이 잡은 고기를 몰래몰래 던져 주기도 했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해마다 강원도 바닷가에 가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갈매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시곤 했다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나빠져서 강원도 바닷가를 갈 수 없고 갈매기들도 볼 수 없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눈에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할머니께서 왜 하얀 한복을 입으셨는지 조금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께서는 갈매기가 되고 싶으셨던 것 같다. 통일이라는 편지를 물고 훨훨 날아 북녘 땅에 있는 남편과 자식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이다.

아직도 남한과 북한에는 할머니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산가족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마음을 꼭꼭 닫은 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하얀 갈매기가 통일이라는 편지를 물고 그 머나먼 바다를 건너 문을 두

드리고 있는데 북한은 외면하며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갈매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죽을 각오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할머니의 눈물과 이산가족의 아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비극을 이겨내는 것이다.





꼭 피어야 할 꽃, 통일



안산여자정보고 2' 전누리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통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은, 우리는 이 작은 한반도의 허리가 땡강 잘라져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잊고 지낸다. 왜일까? 아마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일 것이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입시 준비하기에 바쁘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다른 잊어버린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잊힌 노다지 더미의 가운데 통일이 있다.

“너는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다. 친구들의 의견은 반반이었다. 물론 찬성쪽이 좀 더 많았지만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찬성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다. ‘왜?’ 싫다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를 빼자 꽤 겹치는 이유들이 있었다.

한 친구의 대답은 이랬다. ‘겨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살게 됐는데 통일이 되면 다시 가난해질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더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친구는 한숨을 푹 쉬고 대답했다. ‘너무 먼 일이야.’

그 밖의 다른 이유도 있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범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언뜻 들으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꽤 심각했다. 옛날 독일이 서독과 동독간의 격차가 발생했던 것처럼 격차가 벌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불만이 쌓인 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의기소침해졌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투표도 할 수 있는 성인이 될 텐데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조금 두렵기도 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을 써야 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민하다가 결국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선생님은 통일이 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 우선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것에서 낭비되는 국방비 문제 등등. 확실히 주한 미군 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들이 통일로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고민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난 좀 더 망설이다가 친구가 말한 범죄율 문제를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대답을 해주셨다.

“그런 안 좋은 영향은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끼칠 것 같은데? 땅 투기나 차별같은 것 말이야.”

확실히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왜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만 안 좋은 영향이 끼치리라고 생각했을까? 또 어째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지 ‘내가’ 잘살기 위함만이 아니다. 분명히 남북한은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테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결코 우리가 손해를 입는 것도, 퇴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2009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2020년, 2030년, 더 나아가 22, 23세기를 지난 대한



민국도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우리의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고로 대한민국의 통일은 결코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조상에게서 태어난 이들에게 총을 겨누라고 가르쳐야 할까? 통일은 멀고 먼 이야기라고 가르치면서, 다시 한 번 그 끔찍했던 6·25전쟁이 되풀이되도록 방관해 두어야만 할까? 이대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또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물려주려 하셨던 온전한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멀고 먼 옛날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비겁함을 몇몇 가당치 않은 이유로 덮어두어야만 할까? 그게 옳은 것일까?

나는 가끔 느낀다. 현재 남한과 북한을 ‘우리나라’로 한 데 묶어둘 수 없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완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건 남한도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체제는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만 제외하면 양쪽 모두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문제점을 통일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통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친구들이 말한 통일의 여러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남북통일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니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극복해내면 그만이다. 때로 너무 먼 일로 느껴지더라도 어차피 수십 년간의 골이 남은 이상 통일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지금 우리나라는 온전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아직 제 모든 빛깔과 향기를 내놓지 못한 꽃봉오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는 통일해야만 한다. 전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되돌려 받아야 할 우리의 것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고, 한반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역량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나라로 피어나야만 한다.



강원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먼 옛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_ 235
- 파아란 하늘 같은 소원 _ 238
- 3년만의 만남, 그리고 또 이별 _ 241
- 같은 하늘 아래서 _ 245
- 민족의 나무 _ 247
- 할머니의 가족사진 _ 250
-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_ 254
- 파도를 이겨낸 모래성처럼 _ 257
- 평양으로 모시겠습니다 _ 260

먼 옛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도……



속초중앙초 6 | 김다영

4월의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하던 날의 실과 시간. 우리는 나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침엽수와 활엽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는 우리에게 퀴즈 하나를 내셨지요.

“은행나무는 침엽수일까요, 활엽수일까요?”

우리는 자신있게 “활엽수요”라고 대답했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침엽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잎이 넓적하면 활엽수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우리의 의문에 선생님께서는 “은행나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 매우 오래된 것으로, 그 먼 옛날에는 손바닥을 펼친 것처럼 잎이 여러 개로 갈라진 모양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뾰족뾰족한 모습으로 있다가 오랜 세월을 거쳐 갈라진 잎들이 합쳐져 오늘의 부채꼴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는 모두 굉장히 신기해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직은 푸른 잎인 은행나무를 만났습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부채꼴 모양의 은행잎인데, 옛날엔 뾰족한 모양으로 갈라져 있었다고?’ 계속 나무를 바라보다 갑자기 문득,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도덕 시간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들보단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바늘을 잔뜩 세운 모습같았지요. 그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 마음에도 바늘을 품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남한과 북한은 전쟁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였던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였던 가족이 갈라지고, 하나였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바늘같은 감정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따윈 하나씩 접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싫다 하여도, 아무리 밉다하여도 이것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행복도, 아픔과 슬픔도 함께 나누던 한 민족이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이 저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구본에 아주 작게 그려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이 작은 땅에 왜 선을 긋고 살고 있을까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국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다시 화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저도 매년 글짓기대회를 통해 통일 글짓기를 할 때나, 통일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 보통 때에는 통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헌데 이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남북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38선이 사라지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 더욱 좋아진 통일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우리 어린이들은 더 이상 통일을 바라는 글짓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도덕 교과서에는 ‘평화 통일의 길’이라는 제목 대신 ‘한 민족이 된 우리나라’라고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계 속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부끄러운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통일!

상상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편을 갈라 자기네의 이익



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통일의 길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도덕 교과서에서 보았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 이야기에는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뻐하던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과, 점점 허물어지던 장벽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될 수는 없을까요? 헤어졌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을까요? 이산가족들은 서로를 못 보아 온 오랜 시간동안 서로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비록 이산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산가족도 아니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통일이 되기만을 저는 끝까지 바라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품었던 악한 감정과 미운 마음을 버리고 바라보면 분명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다가갑시다. 우리를 막았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손잡을 날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통일! 그것은 더 이상 높은 벽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은행나무 잎처럼 하나가 될 거라고 오늘도 바랍니다. 빼죽빼죽 솟아 있었던 바늘같은 감정을 버리고, 서로에게 푸른 나무 한 그루를 심어줍시다.



파아란 하늘 같은 소원

양구중 3 | 김기석

겨울방학을 맞아 그간 별려 왔던 신문배달 일을 할 때이다. 부족한 잠과 부담스럽기만 하던 새벽 추위 속에서 그럭저럭 배달 일에도 익숙해져 있을 즈음, 어느 날과 다름없이 신문을 실은 자전거 페달을 부지런히 밟다 보니 어느새 산 너머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조용한 거리를 밟아나가는 신문을 가득 실은 자전거의 체인 소리가 힘겹게 귓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거리를 울리는 자전거 체인 소리가 유난히 신경이 쓰여 자전거를 세우고 체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생각났다. 우리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자전거가 북한의 아이들에게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기사였다. 북한 땅 내 또래의 아이들이 그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가라는 생각에 왠지 조금은 서글퍼지기까지 했다. 어슴프레하게 날이 밝아오는 시각, 저 산 너머에 있을 반쪽의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됐던 한 때였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간 산행길에서 주워왔던 탄피 한 개가 생각한다. 사방이 조용한 산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우연히 아버지께서 녹이슨 탄피 한 개를 발견하셨다. 남쪽 최북단에 속하는 이곳에선 탄피 정도는 흔히 발견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가 주워 준 그 탄피는 어느 탄피보다도 배 이상 큰 크기도 크기였지만, 크기 이외에도 어쩐지 나의 마음을 가져가는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6·25전쟁으로 남북한이 서로 싸우던 시기, 이곳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지금 내가 쥐고 있는 탄피 안에서 튀어 나간 그 날의 총알이 우리 동포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를 거란 사실이다. 마음 한 편이 서서히 불편해 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작스레 들려오는 우레와 같은 대포 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포병 부대의 훈련이 한창이었다. 한발 한발 들리는 대포 소리가 다시금 아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생각나게 하였다. 집 앞을 지나다니는 거대한 탱크, 매일 들려오는 포병 부대의 훈련 소리는 남한과 북한의 거리감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런 훈련을 보며 담담히 일을 하고 있었다.

한번은 내가 주운 탄피를 내 친구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야! 나 탄피 주웠다. 한번 봐.”

하고 말을 하자 내 친구는

“야, 이런 게 뭐가 신기하다고 보여 주냐? 산에 널린 게 탄피다.”

라고 대답했다.

당시는 내가 도시에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랬기에 그러려니 듣고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쩐지 어색한 기분이 든다. 전쟁의 흔적을 그렇게 담담히 넘길 수 있었던 그 때의 친구와 내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양구는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이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북 땅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그런 곳도 있다. 그래서인지 휴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는 지금, 이런 훈련을 당연하다는 듯 여기는 마을 사람들과 내가 주운 탄피 한 개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친구의 시선들이 이상하게만 느껴진다. 마치 이 땅 위의 전쟁과 서로의 적대감을 당연하다는 듯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돌아오는 길, 그동안 북한을 대했던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우리는 북한과의 분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휴전선에 가로막혀 서로를 만나지 못한 지 60여 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반만년 가까이를 함께 지내던 남북은 서로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


어느덧 봄도 지나 자전거 위엔 신문 대신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내

가 있다. 남북한이 나뉘진지도 어언 60여 년, 시간은 지나가지만 남북의 관계는 아직 그리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의 절실함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다. 흐릿해져 가는 절실함만큼이나 점차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이 되어도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논의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와는 상관없이 한 민족으로서, 우선선조로부터 함께 이어받은 같은 핏줄로서 통일을 이룩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 자전거를 세우고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우리 한민족의 피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와도 언젠가는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임을. 이제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덮어두고 모두의 소원이 통일이 되는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밝아오는 파란 하늘처럼 남북한의 관계 또한 밝아오기를 소망해 본다.



3년만의 만남, 그리고 또 이별



춘천여고 2¹이 령

2008년 7월 6일, 새벽 3시경, 어머니의 짐 챙기시는 소리에 선잠이 깼다. 이날은 우리 가족이 당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하는 날이다. 나는 졸음이 덕지덕지 붙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휴전선 너머 ‘그리운 금강산’을 향하고 있었다. 그 때, 어머니가 금강산 산행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배낭 깊숙이 챙기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금강산 가는데 ‘생리대’를 왜 챙겨요? 엄마는 필요도 없잖아요?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통씩이나…….”

어머니는 궁금해하는 나의 물음을 귓전으로 들으시며, 생리대 꾸러미를 여러 개로 나누고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비닐 봉지에 싸 등산 배낭에 넣으셨다. 우리 가족은 출발을 서둘러 아산 휴게소를 향해 새벽길을 달렸다. 아산 휴게소에서 우리 일행을 북한까지 안내할 관광 조장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관광증과 간단한 교육을 받고, 남측 출입사무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야 비로소 어머니는 나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다.

“3년 전에 약속했어. 다시 올 때, 꼭, 함께 찍은 사진을 갖다 주기로……. 그 때, 같이 기념 촬영을 해 준 북한 안내원들이 그러더라. 같이 사진 찍으면, 갖다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대.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약속을 지키려고…….”

어머니의 표정은 이유를 말하는 내내 차창 오른쪽으로 그림같이 흘러가는 동해의 푸른 물빛보다도 더 싱싱하고 기대에 차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생리대를 챙겨 온 이야기도 해주셨다. 우리가 약국이나 동네 슈퍼에서 손쉽게 사서 쓸 수 있는 생리대가 북한 여성들에게는 무척 귀한 물건이라고 하셨다. 버스는 두 번째 금강산을 방문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첫걸음인 나의 호기심을 싣고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북한 군인들의 딱딱한 표정을 인사로 맞으며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목적지인 온정리에서 짐을 풀었다.

온정리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도 올랐던 금강산 구룡연 코스를 선택하셨다. 부모님께서서는 당시 구룡연 코스에서 만났던 북측 안내원들을 만날 계획이셨다. 구룡연 코스의 입구인 온정각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관광을 뒀던 인듯하셨다. 당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름을 교환했던 사진 속 인물들을 찾기 위해 애를 쓰셨다. 수소문 끝에 북한 안내원들로부터 사진에 등장하는 북한 안내원 네 명 중 남성 한 명만 구룡연 코스에 남아 있고, 여성 세 명은 이곳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년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던 어머니는 서운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는 남성 안내원을 만나기 위해 구룡폭포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금강문으로 급하게 발길을 옮겼다. 삼록수 약수터를 지나갈 때 아버지께서 먼저 3년 전 함께 사진을 찍었던 북한 남성 안내원을 알아보셨다.

“최철진 선생님!”

가쁜 숨결과 반가움 섞인 아버지의 부름에 갈색 안경을 쓴 ‘최철진’이라는 북한 안내원은 순간,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3년 전 약속을 이야기하며 준비해 간 사진을 전해 주셨다. 그제서야 그 북한안내원은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반가움을 표했다. 삼록수 약수터 앞 넓은 바위에 앉아 3년 전,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덧 부모님과 북한 안내원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실 그 북한 남성 안내원이 부모님을 어느 정도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모습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금강산에서 평범한 남과 북의 어른들이 이념을 떠나 같은 민족으로 나누는 정



담(情談)은, 나에게서는 천하절경 봉래산의 경치보다도 더 감동적이었다.

북한 안내원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구룡폭포를 지나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깃든 상팔담까지 다녀왔다. 오는 길에 어머니는 감시하듯 함께 있는 남성 안내원의 눈길을 피해 북한 여성안내원에게 귓속말을 하며 준비해 간 ‘검은 비닐봉지에 싼 물건’을 하나씩 손에 쥐어 주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번뜩이는 안내원의 눈길에 나는 안절부절 몸 둘 바를 몰랐다. 어머니와 여성안내원의 대화는 길어지는 듯하는데, 나의 마음은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아득해졌다. 그런데 얼마 후 북한 남성 안내원의 시선은 무심하고 무덤덤했다. 순간 나의 경계심이 지나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부끄러워졌다. 어찌면 그는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한 이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들에 대해 경직된 시선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놀랐다. 이러한 시각은 대상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눈 아래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더 내려가야 할 많은 계단만큼 나의 생각도 깊이를 더해갔다.

그날, 돌아오면서 차창 밖 북녘의 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온정리를 등지고 남강다리를 건널 무렵 근처 논밭에서 일을 하던 북한 농부들과 남강 독길을 걷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서 숨길 수 없는 가난과 궁핍의 모습을 쉽게 읽어낼 수 있었다. 점점 눈에 들어오는 초라한 농가의 모습은 천하명산 금강산을 보았다는 기쁨을 내게서 빼앗아갔다. 그들의 모습은 휴전선이 가까워 갈수록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내 떨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은 내게 <통일>의 당위성을 생각하게 했다. 더욱이 붉은 깃발을 든 북한 경비병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는 오빠 또래의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당면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절실하게 느꼈다. 휴전선을 경계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통일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자유의 실현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빛나는 도약을 가져올 발판이 될 것이다.

3년간 기다림 끝에 사진을 전해준 정 많은 ‘우리 엄마’의 표정은 더 없이 홀가분해 보였다. 그러나 금강산을 다녀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2008년 7

월 11일,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로 금강산은 또다시 '그리운 금강산'으로 남게 되었다. 짧은 하루동안 3년만의 만남을 이루었지만,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아! 언제나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는 오는 것일까?

금강산에서 보았던 울울창창했던 금강송! 나는 그 푸른 기상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통일에 대한 나의 확고한 신념의 상징이 되어 나의 가슴속에서 힘차게 자랄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서



단관초 6 | 임예린

“휘잉, 휘잉”

저 머나먼 북쪽을 향해 바람이 살살 불었다. 동생과 나는 헬륨 풍선을 들고 팔랑팔랑거리며 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내가 실수로 풍선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풍선은 계속 떠올라 위로 올라갔고, 북쪽 하늘로 사라졌다. 내가 속상해서 풀이 죽어 있자, 내 동생도 풍선을 하늘 위로 보내고 말았다.

북쪽 하늘 위로 멀어지는 풍선을 보고 내 동생이 말했다.

“분명히 저 풍선은 불쌍하고 가난한 북한 아이들에게 날아가 희망을 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 풍선을 꼭 가져오자. 응?”

나는 뽀로통한 말투로 말하였다.

“칫,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가니?”

“갈 수 있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지금은 잠깐 서로서로 빠져 있는 것뿐이야. 우리처럼 말이야. 만약 그래도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새가 되어 날아가자.”

이 어른스럽고 순진한 말에 할 말을 잃은 나였다. 금지되지 않은 푸른 하늘, 누구도 금 그을 수 없는 파란 하늘.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같은 흙과 같은 민족을 가진 땅, 그 땅을 밟고, 그 하늘을 만질 수 없다.

특히, 지난번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로 더욱 더 떨어진 남북간의

관계는 차가운 얼음판과 같았다. 그리고 작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따로따로 입장한 남과 북. 과연 이제 북한에 ‘남북통일’이라는 단어가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남북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수록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서로 등만 돌리고 있다. 게다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언어 사용에 혼란이 생길 것이며,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데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두 가지 민족이 섞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비록 장애나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남과 북 이렇게 이해와 배려를 가진다면 오히려 더욱 멋지고 전통적인 우리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에 읽었던 ‘탈무드’에서 ‘두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보았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다. 이 두 머리는 서로 무척 다르게 행동하였다고 한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한 사람인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해 현명한 왕을 찾아갔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한 쪽 머리를 세계 때려 보아라. 때린 머리가 아픔을 호소하면 두 사람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픔을 호소하면 한 사람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남북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본은 같으나, 두 개의 모습을 가지면 그 점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과연 그 아이는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두 사람이었을까? 그건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우리들은 꼭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 저기 하늘에 우리의 풍선을 보고 활짝 웃는 북한의 한 가난한 소녀가 아른거린다. 북쪽에서 내려온 비둘기의 파닥임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전해오는 듯하다. 철조망이 걷히고 통일의 다리가 놓이면, 그 때 나와 내 동생은 우리의 하늘색 풍선, 높이높이 날아가던 그 풍선을 가슴속에 포근히 품어 한 마리의 자유로운 새가 될 것이다.



민족의 나무



봉의여중 3 | 정미리

피보나치 수열을 아는가? 1, 1, 2, 3, 5, ...로 진행되는 이 수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주는 기본적인 수열로서 앞 수 두 개의 합이 다음 수가 되는 수열이다. 피보나치 수열은 소라의 껍질, 꽃잎의 갯수, 해바라기 씨의 수 등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나무가 가지를 뻗을 때 이 수열을 사용한다.

흔히 한 민족을 나무에 비유해봄을 생각할 때 한(韓)민족, 즉 우리 겨레가 자연스럽게 그지없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뉠 수 없다는 생각은 오류라고 칭함이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가 아닌 열강이라고 불리는 정원사에 의해 서로를 가지치기해내어 커다란 원줄기와 뿌리를 잃은 두 갈래의 나뭇가지가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이다.

역사라는 이름의 뿌리는 동북공정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거대한 해충과 그 외의 잡다한 해충에 갇아 먹혀 통일과 단합, 한민족 정신이라는 이름의 영양분은 흡수되지 못하고 가지들은 살기 위한 공여지책으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라는 해로운 영양분들을 섭취했다. 그 영양분이 탈이 나 한반도는 분단의 폐해라는 병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정원사도 이를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명어를 쓰고 현재의 뼈아픈 신세로 살아갈 것이다. 비록 많은 곳에서 국가의 위상을 함양하

고 있다곤 하지만 타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라는 생각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무를 살리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생존 본능, 즉 자연스러운 일로서 마땅히 택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세대를 거쳐 우리들의 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요즘 들어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손해는 남한이 모두 짊어져야 하며 북한의 자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미미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든다. 이는 통일의 반급 효과에 대한 오해이다.

분단 현실로 인한 서로의 경쟁적인 국방비를 낮춰 그 부분을 경제적인 발전에 쓰이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대국들의 압력에 좌우되는 일도 적어질 것임을 볼 때 그 정도의 손해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 왜곡에 대해 북방과 남방에 있는 문화재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라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비단 이런 딱딱하고 합리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TV에서 가끔 방영되는 이산가족의 상봉 모습을 바라볼 때면 눈물이 핑도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인간적인 도리 역시 통일의 이유에 포함되니, 통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가치를 접붙이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인 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며 그들과의 교섭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또한 무조건적인 강요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 우리들로서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멀고 먼 옛날의 이야기와 같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또한 전쟁에 참가한 노인들은 북한을 ‘빨갱이’라고 부르며 적의를 불태우기도 한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과 북한 학생들의 교류와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하여 양국간의 미움을 누그러뜨리고 아직 분단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그야말로 잠깐 형제 다툼을 한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통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회담을 지속적으로 열며 어렵겠지만 아주



조금씩 양보하게 되면 평화통일의 길은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이다. 각국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정신이 양국에 요구된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데, 이 방법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먹는 일이다. 북한을 가난한 나라, 휴전중인 나라, 사회주의 국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못하고 억지로 갈라서게 되었던 쌍둥이 국가, 연리지나무로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 연리지가 서로를 찾아가듯 북한과 남한은 서로를 찾아가야 한다.

자, 이제는 평화통일의 나무, 민족의 나무를 가꿔야 하는 시기이다.



할머니의 가족사진

철원김화고 2¹지재영

주인 잃은 방문이 스르륵 열리자 중강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바람 소리가 횡 하고 스쳐지나갔다. 바람 소리와 함께 삼촌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들더니 베란다로 갔다.

끼익끼익 살며시 움직이며 빼그덕거렸다. 방안으로 들어섰다.

방안에 들어서자, 며칠 전 임종하신 할머니가 인자한 웃음으로 나를 반기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방안에서 부모님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물건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면서 그 물건의 사연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다.

그 무엇보다 할머니의 탁상이 나에게 가장 눈에 띄었다. 탁상 위 빛바랜 흑백 사진이 끼어져 있는 액자가 가장 나의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사진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단지 오래된 의미없는 사진이라고 속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 빛바랜 사진은 할머니가 평생동안 간직해온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 물론 할머니와 그 사진의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일지라도 - 사진이다.

빛바랜 사진은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사진이다.

똑 똑

할머니의 방안 곳곳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었다. 그래



서 어릴적 난 할머니의 방안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끼이익 삐걱거리는 문을 살며시 열고, 머리만 살짝 내민 채로 “할머니, 들어 가도 되요?”라고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는 항상 빙그레 고개를 끄덕이셨다.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사진 속 인물을 가리켰다.

내가 가리켰던 인물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어릴적 찍어둔 가족 사진이었다고 할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진을 계속해서 응시하던 할머니는 짧게 한숨을 내뿜어쉬더니,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소리로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그건, 할머니 가족사진이야. 할머니가 딱 너만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지. 그렇게 할머니는 우리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한 거야. 할머니의 부모님은 칠남매나 되는 어린자식들을 챙기느라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셨지. 우리가족은 친척네로 여기저기 흩어졌단다. 할머니는 철원에 있는 고모님 댁에 맡겨졌지.”

“그럼, 다른 가족들은요.”

“북쪽 고모님 댁으로 갔지.”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열렸다. 눈물을 닦아내시고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어린 애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냐. 이리 오련.”

하시며 나를 끌어안으셨다.

며칠 전 할머니의 병세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나는 어린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얘기했다.

“할머니, 어서 일어나셔야 북쪽 가족들도 보시죠.”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남북의 안 좋은 소식들뿐이더라. 이념 대립이 어째서 이 어릴적 할머니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걸까. 어서 통일이 되어 전쟁으로 생긴 상처를 가진 사람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구나.”

난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사진을 들고 나와 할머니 병실 옆에 세워 두었다.

할머니는 액자를 한번 들더니

“이 사진은 말이다. 내가 가족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란다.”

하시며 사진을 천천히 한번 어루만지셨다.

어머니는 사진을 상자 속에 담으셨다. 담으시면서

“평생 그리워하시더니, 그곳에서는 가족들을 만나시겠지…….”

어머니의 짧은 말이 내 귓가에 박혔다.

말로 표현을 안하셨지만, 언제나 할머니는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할 때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셨다고 한다.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은 막연하게 통일을 이롭시다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등.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이유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속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 몇이나 더 있을까. 아마 수천 수십만 명은 할머니와 같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었다. 우리들의 통일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전쟁 피해자인 이산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50년.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50년이란 시간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우리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에 5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렇지만 50년이란 세월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시간으로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다. 그 수많은 나날들이 펼쳐져 있는데 고작 50년 떨어진 이 이유로 영원히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할머니와 함께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남북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할머니는 안좋은 안색으로 다수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유감을 표현하신 적이 있다.

통일은 무력으로든 경제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통일은 금세 무너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작지만 가장 큰 일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
중강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바람소리가 횡-하고 나를 스쳐 지나간다.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춘천중앙초 4¹ 김성현

지난 봄 아버지를 따라 삼악산에 오른 적이 있다. 연두빛으로 반짝이는 어린 소나무와 노란 생강나무, 꽃눈을 틔우기 시작한 진달래들이 내 마음을 한껏 설레게 했고 지저귀는 새들은 꼭 나를 보고 반갑다고 인사해 주는 것 같았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는 삼악산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웠다. 나는 산의 이곳저곳을 열심히 둘러보며 열심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산을 올랐다.

그렇게 한 삼십 분쯤 지났을까, 나는 슬슬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다리가 아프니까 신기해 보이던 것들도 그저 평범한 나무와 풀로 보이고 어디 앉아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특히 '깔딱고개'라는 곳을 지날 때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등산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아버지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깔딱고개를 지나 산 중턱쯤에 쉬어가는 곳이 나왔다. 아버지와 나는 야트막한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잠시 쉬었다.

“성현아, 여기 좀 보렴.”

아버지께서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내가 사는 도시 춘천이 한눈에 보였다. 아버지께서는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셨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 춘천의 모습을 내려다보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산에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빠, 이제 우리 내려가는 거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이 정도면 운동도 되었고 나무와 풀 구경도 충분히 했고, 멋진 풍경도 감상했으니 더 이상은 힘들게 산을 오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대로 내려갈 수 없다고 하셨다. 삼악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정상에 가까워 올수록 숨도 더 가빠지고 다리도 더 아파왔다. 등은 온통 땀으로 젖었다.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 올라서니 바람은 더욱 시원하게 느껴졌고, 발아래 펼쳐진 풍경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넓고 멋있었다.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고, 춘천을 훨씬 벗어나 멀리, 아주 멀리까지 보여 내 눈과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통일을 생각하는 지금 지난 봄 등산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은 통일도 등산처럼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진지 60년이 되어가고 또 그 동안 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북한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에 공장을 세워 북한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올림픽같은 국제 경기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응원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남과 북이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지금은 서로를 힘들 때 도와주어야 할 이웃이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통일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남과 북이 가까워진 것으로 충분하다. 꼭 통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알미운 행동을 하니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간에서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꼭 말해 주고 싶다. 통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통일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일 거라고 말이다. 이 정도 북한과 가까워진 것에 만족하고 노력

을 그만 둔다면 북한과 남한은 또 언제 사이가 멀어질 지도 모르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더 커지는 것이라고, 남과 북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기울인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꼭 말해주고 싶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삼악산 정상에서 보았던 멋진 풍경이 떠오른다. 백두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더욱 멋지겠지. 우리나라가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씩씩한 기상을 전 세계로 쪽쪽 뻗어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산 정상에서 느꼈던 상쾌한 바람이 내 마음 속에 솔솔 불어오는 것 같다.





파도를 이겨낸 모래성처럼



여량중 3¹ 변미진

2009년 3월 9일 -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한 개성공단
출입 통제

2009년 4월 1일 -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한국과 북한의 경기 1:0으로 남한의 승리, 경기 후 경기
일정과 심판 판정에 대한 북한의 이의 제기

2009년 4월 5일 - 온 세계를 긴장에 떨게 했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15일 -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

이것들은 내가 지난 3개월동안 텔레비전을 통해 접해 온 뉴스들이다. 내가 어렸을 때 남북정상이 서로 환하게 웃음지으며 두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우리가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정상의 만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털어버리고,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경의선 철도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휴전선 너머의 땅 개성에는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세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에는 남한의 대통령이 대립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다녀오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노력들은 바다에 있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

린 느낌이다. 남한과 북한이 냉전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며 저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다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영영 통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성공단이나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협력과 격려의 장이 되어야 할 축구 경기조차도 싸움의 씨앗이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긴박하게 돌아가는 남북관계를 보며 내 친구는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냐고 말했다. 왜 항상 남한은 얻는 것도 없으면서 북한에게 퍼주기만 하느냐고, 우리도 북한에게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 산가족 문제, 경제적 성장, 군사비 절감, 강대국 건설 등을 이유로 꼽아보았지만 결국 나는 친구에게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라고 말해 버렸다.

그렇다. 우리는 한민족이기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루한 싸움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출입 통제와 같은 어려움을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만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은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할 존재, 또는 강경하게 대해야 할 존재라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 북한도 역시 남한과 세계의 여러 나라에게 억지를 부리며 위협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것이 가족이듯이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때야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 한국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나는 나의 어린시절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어릴 적 나는 여름이면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가곤 했었다. 한 여름의 내리쬐는 햇볕 아래 파도타기도 하고, 모래성을 쌓기도 했다. 내가 열심히 지어 놓은 모래성은 파도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멋진 성을 짓기 위해 모래성을 쌓고 또 쌓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성을 쌓았을 때의 기쁨을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모습은 내 어린 시절의 모래성과도 같다. 우리가 조심스레 쌓아올리던 모래성이 수많은 파도들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린시절의 내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가장 멋지고 튼튼한 성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무너진 모래성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평양으로 모시겠습니다



황성여고 3 | 최진화

2030년 5월 29일, 오늘은 나의 40번째 생일이다. 분명 20살 꽃다운 나이에 대학 생활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던 날들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40번째라니! 믿을 수 없다! 오늘 하루만큼은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날이지만 나의 직업이 스튜어디스이니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비행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세웠다.

나는 정신없이 씻고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팀 회의실로 들어가 비행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북한으로 퀵턴이 있는 날이다. 내가 입사한 지 5년만에 북한 비행 노선이 새로 생겼다. 아직 통일이 된 건 아니지만 노선까지 생긴 걸로 봐선 점점 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나와 같이 할 비행팀 그리고 기장님과 함께 비행기로 향했다. 인천에서 평양까지 비행기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나는 오늘 인천으로 시작해서 평양까지 그리고 다시 인천, 평양, 인천을 왕복할 예정이다.

팀원과 함께 기내에 올라 서비스를 모두 준비한 나는 비행기가 뜨길 기다렸다. 비행기가 뜨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카트를 끌며 승객분들에게 서비스를 했다.

매번 다른 승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특히나 평양으로 가는 노선 비행은 웬지 더 신경쓰게 된다. 왜냐하면 기내에 승객분



들이 관광만을 목적으로 평양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평양에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기내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 10대, 20대들도 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친척이나 지인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0대나 20대들은 북한을 관광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가 많으신 승객분들과 10대, 20대 승객분들의 수를 비교하면 10대와 20대들의 승객 수가 훨씬 많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이 통일의 대상으로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휴양지로 생각하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선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탈북자, 이산가족에 한에서만 표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북한도 여행의 한 나라로 되어졌다.

평양에 거의 도착했다. 나와 팀원들은 모든 서비스를 멈추고 좌석에 앉아 착륙을 기다렸다. 승객들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일제히 기내를 빠져나갔다.

공항엔 스튜어디스들만 모여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팀원과 함께 인천으로 가기 전 1시간 여유가 남아 사무실로 몸을 향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평양 항공 회사의 스튜어디스들이 잠시 쉬고 있었다.

평양의 스튜어디스들은 보기만 해도 정이 간다. 무엇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된다. 이런 기분이 한민족이라는 생각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난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평양 항공의 한 스튜어디스에게 오늘 무슨 나라를 비행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영국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몇 마디 주고 받고 나니 연락처도 자연스럽게 오갔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 이야기나 서로의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비슷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녀는 비행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에게 얼른 통일이 되어 같이 일하면 좋겠다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 또한 너무나 아쉬웠다.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나는 같은 한 민족이 분단이라는 이유로 동질성보단 이질성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남과 북은 하나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이질성은 서로 보완하고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하늘을 나는 직업으로 평양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금강산을 지나 백두산까지 가는 날을 항상 상상하기 때문이다. 모든지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어느 덧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나는 평양에서 다시 인천으로 가야 한다. 나의 생일인 오늘! 북한의 스튜어디스를 통해 잠시 잊고 살았던 남한과 북한의 현재를 생각해 보게 되어 기쁘다.

언젠간 인천과 평양을 남한과 북한의 노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인천, 한국의 평양으로 부를 날을 기다린다.






충청북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생크림케이크’랑
‘부셔부셔’ 같이 먹을래? _ 265
- 누구보다 아름다운 통일을 꿈꾸다 _ 268
- 찢어진 신문 _ 270
- 38선 주변에 데이지 꽃씨를 _ 273
- 함께 섞일 수 있는 비 _ 276
- 할머니와 손녀 _ 279
- 할아버지는 참전 용사 _ 282
- 해금강의 소원 _ 285
- 지갑 안의 흑백사진 _ 287

‘생크림케이크’랑 ‘뿌셔뿌셔’ 같이 먹을래?



서현초 3¹이선호

“선호야? 5월 22일에 통일글짓기대회가 있는데 참가해 볼래?”

“네.”

선생님 말씀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 ‘통일’이라는 주제가 나에겐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걱정이 되었다.

저녁에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선호야, 우리나라가 왜 분단국이 되었는지 아니?”

“네 6·25전쟁때문 아닌가요?”

“그럼, 네가 알고 있는 6·25전쟁에 대해 얘기해 보렴?”

“북한이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새벽에 탱크를 앞장세우고 우리나라에 쳐들어 와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우리나라는 미국이 도와주어 전쟁을 하다가 휴전선이 생기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 선호도 6·25전쟁에 대해 약간은 알고 있구나. 하지만 선호가 통일에 대한 글을 쓰려면 더 자세히 알아야겠구나. 아빠랑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다녀오자.”

“전쟁기념관이에요?”

“그래 전쟁기념관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 땅을 지켜온 대외 항쟁사를 비

못하여 6·25전쟁에 대한 많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네가 직접 보고 체험도 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알 수 있고 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토요일에 아빠와 함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게 되었다.

‘전쟁기념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다.

도착했을 때 탑승기와 헬리콥터, 소형 대포 등 6·25전쟁에 사용했던 무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직접 운전해 보고 싶었지만 그 무기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다.

6·25 전쟁실에서는 6·25 전쟁 때 종군기자가 찍어놓은 비디오를 보았는데 특히, 바다에서도 뜰 수 있는 전차가 열리면서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많은 군인들이 몸을 낮추며 총을 들고 “착륙, 착륙”을 외치며 내리는 인천 상륙 작전을 볼 때는 나도 군인이 된 듯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군인들까지 죽거나 다쳤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감사했다.

전시 생활실에서는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전쟁중 가족을 잃어 버려 50년동안이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만나기 더 힘들어 나이가 너무 많아져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몇 시간동안 전쟁기념관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아빠가 물으셨다.

“선호야, 이제 우리나라가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 것 같니?”

“제일 먼저 통일이 되어 헤어진 가족들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는 하루만 만나지 못해도 보고 싶은데 50년동안이나 만나지 못하면 많이 보고 싶겠지.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힘쓰신 많은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지!”

“얼마 전 북한과의 축구 경기를 볼 때 북한이 반칙하거나 골을 넣을 뻔하면 선호도 야유를 보냈었지?”



“네,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 하지만 북한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잖아!”

아빠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북한을 경쟁자로 생각했다.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너무 작아 찾기도 힘든 우리나라. 또 그 작은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 친구들과 함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와 ‘뿌셔뿌셔’를 먹으면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북한 친구들을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북한말도 배우고 북한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신문에 나오는 북한 기사나 책도 많이 읽어야겠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통일을 꿈꾸다



가경중 1 | 이지은

우리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의견으로 최근에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다녀왔다.

개성공단, 북한의 문화 등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설명들과 북한, 통일에 관한 것뿐이라 마치 북한에 온 기분이었다. 신기했지만 낯설었다. 평소에 통일에 관심이 없던 나를 반성했다.

계단을 올라 더 높이 올라가니 전망대의 큰 창문이 잔잔히 흐르는 임진강과 또 가로질러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보다 정말 가까웠다.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지붕의 형태가 거의 없는 사각형 모양의 집들, 그리고 밭, 산이 보였다. 웬지 고요해 보이기도 했다. 기분이 묘했다.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져 다가갈 수 없는 먼 존재로만 여겼던 북한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이상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우연히 어린 북한 아이들이 고아여서 잠도 못자고 쓰레기를 주워 먹는 영상을 보았다. 전에 북한을 배경으로 한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때 북한의 힘든 현실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 죽어가고 자유를 위해 탈북을 한단 사실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났다. 그 어린아이의 슬픈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날, 북한에 대한 나의 이해와 통일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자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통일, 솔직히 이 사회의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일부의 어른들에게까지도 멀게 느껴지고 시큰둥한 문제이다. 내 친구들 중 “통일을 해봤자 뭐해. 지금도 우리 잘 살고 있고 해서 이득 되는 것도 없잖아”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고,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인터넷 기사가 떠도 북한에 대한 비난 글, 악성 댓글이 줄을 잇는다. 많은 정치적 교류와 통일에 대한 이론을 늘어놓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부터라도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인식을 가져 한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을 한 뒤 문화 차이, 여러 가지 변화로 혼란을 겪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은 방학이 되면 백두산에 오르며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출장도 가고 하루가 다르게 될 우리나라의 위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된 한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한민족끼리 경계하며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불안해 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더 강력해진 한국의 힘이 한국을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휴전선 부근은 세계적인 천연자연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가족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던 이산가족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서로를 못 본 몇 십 년 동안 얼마나 아파했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힘쓰고 있다. 통일은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합치는 것이 아닌 잃어버렸던 한 민족을 제자리로 되찾는 일이다. 그 만큼 무엇보다 사람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갔던 통일전망대에 외국인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빨리 통일이 되어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었던 나라가 아닌 어느 나라보다 서로 이해하며 화해의 통일을 한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이해와 교류를 통하여 얼마 뒤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더 밝게 웃고 있는 한민족을 되찾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꼭.

찢어진 신문



중산외고 2¹ 김기선

“이런 빨갱이들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짹하고 울렸다. 라디오에서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알리는 뉴스가 되풀이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 손에는 신문, 귀에는 보청기, 두 눈에는 돋보기를 끼고서, 할아버지는 북한을 욕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계셨다.

“미친놈들이 아니냐! 아범아. 저 놈들이 글썄 우리나라 무고한 국민 목숨을 인질로 잡아 놓고 안 놔준단다. 원, 미친놈들 같으니.”

할아버지는 통일에 관련된 신문 기사만 나와도 화를 내며 종이를 북북 찢어 버리셨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 방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 들여다봤더니, 북한과 관련된 기사를 몽땅 태우고 있기도 하셨다. 북한을 비판하거나 통일을 반대하는 신문 기사를 모아 스크랩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요 즐거움이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북한을 이토록 싫어하는 데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6·25전쟁 중 서울로 건너오실 때 겨우 열 몇 살이셨던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북한의 탓으로 돌리셨고, 그 생각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게 뿌리를 박아내리고 할아버지의 증오를 양분 삼아 꾸준히 자라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올라간 서울 집에서, 할아버지는 인사도 받는등 마는등하시고 또



다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셨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지, 아범아? 돈 없어서 자기네 국민 굶어 죽는 건 생각도 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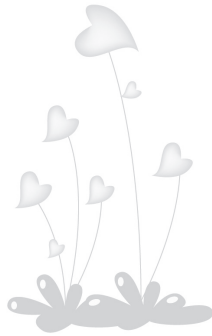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북한을 안줏거리 삼아 소주 몇 잔을 계속 들이키셨다.

“아버지, 그러니까 충주로 내려오시라니까요. 공기도 여기랑은 비교가 안되게 깨끗하고, 북한에 대해선 신경을 끊고 사시면 되잖아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이라도 꺼낼라 치면, 할아버지는 “북한 놈들이랑 가까워지잖느냐!” 하며 별척 화를 내셨다. 할아버지의 미움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쉽사리 없어질성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방의 불빛을 보게 되었다. 문득 궁금해져 살짝 엿보니, 할아버지가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그 양손에 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시기만 하실 뿐 그 밖에 행동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다. 20여분이나 자났을까?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루해져서, 이만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언가 할아버지의 물건 위로 툭,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눈물은, 마치 흘러넘치는 냄비 속처럼 할아버지의 주름진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 다음날, 나는 할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 할아버지의 방을 무엇에 쫓기듯 급히 들어갔다. 봐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뭔가를 몰래 훑쳐 본 기분이어서,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이윽고 나는, 내가 찾던 물건을 발견했다. 비밀스럽게 꼭꼭 숨겨져 있던 그것은 두꺼운 스크랩북이었다. 아주 오래된 듯한, 그 낡은 스크랩북을 넘기면서, 나는 가슴속에서부터 울컥 치받아오는 무언가를 참을 수 없었다. 그 스크랩북 안에는, 거의 다 조금씩 어딘가가 그을렸거나, 찢어진 것을 다시 이어 붙이 듯한 신문 기사들이 틈 하나 없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간, 아무도 몰래 이 스크랩북을 혼자 만들어 오신 것이다. 낮에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척 신문을 찢고, 밤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그것을 조심스레 이어 붙이시면서, 신문 기사들에는 저마다 각기 다른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내게는 그 것이 모두 같은 두 글자로

보였다. ‘통일’이라는 두 글자로, 아마도 그것은, ‘통일’이라는 글씨마다 정성스레 덧붙여진 할아버지의 글씨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 스크랩에서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뜨겁게 포옹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사진이었다. 울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내게는 꼭 할아버지의 얼굴처럼 보였다.



38선 주변에 데이지 꽃씨를

한솔초 4¹ 신지혜

반갑습니다. 동무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나? 아니야, 그냥 안녕이라고 해야겠다. 안녕? 나는 신지혜라고 해. 만나서 인사를 못하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요즘 우리 학교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알록달록하게 활짝 피었다. 그 중에서도 데이지 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왜냐하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랑과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야.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데이지 꽃을 한 아름 꼭 선물해 주고 싶어.

그리고 꽃 주변에는 벌들이 왕왕거리며 꿀을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 내가 만약 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날아 갈 수 있잖아. 벌이 되어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 상상을 해 보았어.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거든. 하지만 벌이 되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에게 날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니?

요즘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세계 여러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세상인데, 너희들이 있는 곳은 가까운데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단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주인공들이 중국 연변으로 백두산을 가길래 “아버지, 왜 가까운 길을 두고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을 가야 하나요?” 라고 여쭙어 봤더니 아버지께서 “지금은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단다. 빨리 통일이 되면 중국을 거쳐 백두산을 가지 않고 북한으로 백두산을 갈 수 있어 좋단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TV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속상했어. 통일이라는 말이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평소에는 통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생각했는데……

한 나라이면서 두 동강이가 난 우리나라를 보면 외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 한국은 38선으로 나누어져 있어 불안하다고……

그 동안 한 민족이었던 우리가 서로간의 자존심때문에 철문을 굳게 닫고 감시를 하면서 그 문을 넘어 오면 총을 겨누는 사이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할만도 하지. 연필로 잘못 그은 선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38선이라는 선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된 실수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 만약 내 생각에 찬성한다면 너희들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어른이 되어서 통일부장관이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만날 수 있어. 그때는 우리들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데이지 꽃씨를 줄게. 데이지 꽃의 꽃말처럼 우리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 기쁘게 이 꽃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38선 주변에 데이지 꽃씨를 뿌린다면 전쟁과 위험은 없어지고 평화와 사랑이 찾아올 거야. 북한 친구들아, 우리가 38선 주변에 보기 흉한 철조망을 걷어내고 데이지 꽃씨를 심어 보자. 그러면 38선 주변은 데이지 꽃으로 만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었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을거야. 이 편지를 읽으면 꼭 약속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만세 삼창을 해 보자.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며 일창, 하나가 되는 우리를 위해 이창, 세계 무대의 주인이 되는 우리를 위해 삼창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함께 외쳐보자 이렇게, “만세, 만세, 만세”

우리가 만날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통일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랄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우리를 생각하며, 남한에서 지혜가 보내는 편지를 잘 읽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만 줄일게, 건강하게 지내.

2009. 5. 22일
남한에서 지혜가



함께 섞일 수 있는 비



충북여중 3 | 연홍미

나는 작년에 동생과 이모가 계시는 중국에 놀러갔었다. 처음 가는 외국여행이라 생각하니 신나고 행복했다.

첫째 날 이모부께서는 처음 온 여행이니 한턱 쓰겠다며 우리를 한 식당으로 데려가셨다. 예쁜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걸어왔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중국에서 북한사람들을 만나다니, 알고 보니 북한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남북한 만남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었다. 여러 공연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다고 이모께서 말씀하셨다.

조금 지나자, 한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 공연을 시작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노래였다.

“목매여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끓어 오르는 무언가를 느꼈고 아직도 그 때를 잊을 수 없다.

집에 오자마자 생각했다. 우리는 같은 형제인데, 왜 한반도가 아닌 타국에서 만나야 하는지……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 나의 마음을 친구들에게도 전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떡 우려할 일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북한의 의상, 생활 차이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들이 나의 형제임을 알고, 그들의 가난함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통로를 열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나도 현재 북한 친구와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 다른 나라 친구들과는 대화도 하면서, 나의 가족과 메일을 주고받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들과의 만남을 실천해야 한다. 또, 북한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도 한때,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이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빈민국을 도와주는데 같은 국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실시하는 북한 쌀 모으기 운동, 북한 돕기 캠페인 등 여러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인 도움이야말로 지금의 현실에 맞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일 것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걸쳐 분단의 상태에 처했는지도 모르면서 경제적 타격을 구실로 통일에 반대하는 친구도 적지 않아 있다. 우리가 함께 해 온 역사를 알고, 함께 나눈 슬픔을 깨닫게 되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엉터리처럼 거짓으로 꾸며진 역사가 아닌 깨끗한 우리의 역사 말이다. 북한 동포를 적이 아닌 한 민족으로 인식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도덕 시간에 통일에 관해 배우면 친구들이 “그냥 무력으로 통일해서 회복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무력으로 인한 통일에 있어서의 경제적 손실은 둘째치고, 이는 우리의 아픈 역사에 칼을 꽂는 행위이다. 한민족은 커녕, 서로에 대한 원만만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지님으로써 아름다운 통일에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어울려 섞이게 된다. 바로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섞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인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이 현실을 알고 통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청소년이고, 아름다운 한국인이고, 아름다운 세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와 손녀

봉명고 3 | 이지선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서성거린다. 어린 손녀는 대체 왜 매년 방학이면 할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거기에 가는지 알지 못했다.

“할머니이~ 이제 가자, 나 출다아~.”

할머니는 어린 손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계속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가엔 별빛이 비쳤다. 할머니의 눈이 참 맑아 보여서 손녀는 더 이상 양탈을 부리지 못했다.

“후유…… 저기에 그 어릴적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살었던 말이여.”

손녀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저기에 왜 할머니의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친구가 저기에 있다고 해도 전화를 하면 만나서 놀 수 있지 않은가? 많이 궁금했지만 손녀는 묻지 않았다. 자신의 눈앞에 채 100 걸음도 안되어 보이는 곳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엔 왠지 모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키에 몇 배에 달하는 철조망은 그 추운 철원의 겨울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쳐져 있었다. 오랫동안 그 자리는 자기 자리였다는 듯,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쳐져 있었다.

몇 년동안 할머니와 손녀는 계속 그 곳을 찾았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다. 손녀의 키가 자라서 철조망이 약간 낮아 보인다는 것과 할머니의 친구가 왜 저기 있는지 손녀가 알게 된 것 외에는 차갑던 철조망도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철

원에 있는 외숙할머니댁에 갈 때마다 당연히 가는 곳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 헤어짐이라는 느낌을 어설프게 알았을 때 비로소 할머니의 마음과 조금은 같은 마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크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곳은 정말 가까웠다. 추웠고, 서늘했다. 군인들도 많이 지나 다니고 한국전쟁때 전사한 분들을 기리는 공원 비슷한 곳도 있었다. 그런 곳을 다니면서 난 학교에서 배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몸소 체험했다.

할머니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피난민이었다. 지금의 내 나이와 같은 19살이었던 당시, 할머니는 그 무서운 전쟁을 겪었다.

“니 외숙할아버지도 여기 내려온 담에 수소문해서 찾은거지. 그 때 엄마, 그니까 니 증조할머니지... 엄마도 죽었고, 내 작은엄마가 우리 집 와서 나 데리고 나갈라는데 인민군 온단 소리 듣고서니 나랑 작은엄마가 같이 숨었던 말이여.”

“그래서요?”

“작은아버지가 여긴 아무도 없다고 가라고 하니께, 아직 도망 안갔당서 무슨 당이니 하매 창살로 찢려 죽었어.”

창살이라는 것을 보지도 못한 나는 너무 끔찍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할머니의 작은엄마는 피난 내려왔다. 자기의 남편이 눈앞에 죽어 있었지만 슬퍼할 시간 없이 조카의 손을 잡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자기 전에 할머니 옆에서 듣는 옛날 얘기는 자장가였지만, 전쟁 얘기는 달랐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셨고, 내 심장도 떨렸다. 뭔가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고 와 닿았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밖에 나가지 못한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셨다.

해가 바뀌면서 그 곳에 서 있는 내 생각도 달라졌다. 우리 할머니가 친구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분을 만나 뵙고 싶었다. 할머니의 뜨거운 마음은 나와 공유되고 있었다.

어느덧 많이 큰 손녀는 여전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섰다. 이제 그곳은 낯설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눈앞에 철조망은 가라고 손사래 쳤다.



하늘에 새가 지나간다. 이쪽과 저쪽의 하늘은 똑같았다. 할머니와 마음이
자란 손녀는 그 새를 보았다. 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참전 용사



산남초 5¹ 김현정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시골 농사일을 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께서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주신다.

나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왜 불편한지 아빠께 여쭙어 보았다. 아빠께서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했다.

나는 가끔 학교 수업시간에만 듣던 6·25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께서 총을 메고 직접 싸우시는 장면을 생각하며 말했다.

“와! 우리 할아버지 진짜 멋있네요!”

라고 말했다가 엄마께 꾸지람을 들었다.

“현정아, 6·25 전쟁을 게임처럼 재밌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엄마의 말씀에 아무 생각없이 말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시골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6·25 전쟁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 할아버지께서는 도착하자마자 6·25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 내 모습을 보고 껄껄 웃으시더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잠시 먼 산을 한참 바라보셨다.

할아버지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전쟁터에 나가셨고, 여러 싸움터에



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다리만 다쳤지만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고 한다. 옛날 일을 회상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왜 같은 형제이고 같은 민족인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 6·25 전쟁이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전쟁이라는 것을 느꼈다. 집에서는 오빠와 내가 싸우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데 이렇게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한 6·25 전쟁이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끔 TV를 보면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터에서 고아가 된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폭탄으로 무너진 건물과 죽은 사람과 크게 다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다보니 전쟁이라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경험을 말씀하시다가 통장을 하나 보여 주셨다. 통장에는 매달 한번씩 ‘참전용사비’라고 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참전용사비’가 무엇이냐고 여쭙어 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게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매달 받는 ‘참전용사비’를 북한과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성금을 조금씩 보내신다고 하셨다.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보내신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용돈을 모아 할아버지처럼 성금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허허 웃으시며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훨씬 앞당길 거라며 칭찬해 주셨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서로 헤어져 슬프게 지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께서는 통일이 되면 아픈 다리도 금방 날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불편한 할아버지의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드리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가슴 속 깊이 기도했다.





해금강의 소원



수곡중 3¹이유진

얼마 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기 때문이다. 한적한 일요일 오전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로 내 마음은 안타까웠고, 북한의 저의를 알고자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작년 이맘때 수학여행으로 통일전망대에 갔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난 책꽂이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앨범에서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았다. 통일전망대에서 친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보니 금강산 자락이 눈에 들어 왔다. 손에 닿을 듯 푸르른 해금강도 보였다.

통일전망대는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통일 교육을 받으면서 난생 처음 북한 땅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통일전망대에 오르고 나니 아까의 들뜬 마음과는 달리, 북한 땅을 자유로이 밟아 보지 못하고 그저 전망대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다. 망원경 너머 저 멀리 금강산 북한 초소에는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북한 군인들이 보였다. 난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슬픔을 보았다. 한 민족끼리 철책선을 그어놓고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에서 고단한 역사의 아픔을 보았다. 금강산 자락을 휘돌아드는 해금강만이 아픈 역사를 달래주는 듯 평화로웠다. 경치가 금강산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어여쁜 이름, 해금강은 아름다웠다. 해안선을 따라 질푸른 바다가 보이고 그 위로 보이는 기암괴석들이 한 폭의 그림같았다. 유유

히 흐르는 해금강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땐 이 할머니 나이가 아홉 살이었어.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구나. 머리 위로 전투기가 지나다니고 땅에는 지뢰가 묻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괴로워했어. 전쟁통에 할머니는 작은 오빠를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또 외삼촌은 의용군으로 붙잡혀 가서 감감무소식이었는데 그 때 같이 붙잡혀 간 동네사람 말로는 전쟁통에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구나. 외삼촌이 참 잘해주셨는데…”

할머니의 눈물 젖은 이야기를 저 강물은 알고 있을까? 강물은 저리도 자유로이 흐르는데, 할머니처럼 가족을 찾아 오갈 수 없게 한 전쟁이 아속했다.

언제쯤이면 강물처럼, 바람처럼 해금강변을 자유로이 거닐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온다면 이산가족의 눈물은 기쁨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힘센 국가가 될 것이다. 북한은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은 IT 기술이 발달했으니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는 세계 속에 우뚝 선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찹냥쿨처럼 얽히고 설켜서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평화 통일을 한걸음 또 한걸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에 긴장감을 줄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시는 한반도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한과 북한은 평화로운 통일 정책을 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높은 담장처럼 뛰어넘기 힘든 문화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로 다가올 것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할머니처럼 가족을 잃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달래주고 통일전망대 뒤로 아름답게 펼쳐진 해금강에도 가족들과 자유롭게 놀러가고싶다.



지갑 안의 흑백사진



중산외고 2¹ 이유민

“어, 할아버지, 되게 오래된 사진이네요, 언제 찍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을 때 내가 할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던 것이다. 그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싱긋 웃으시고는 사진을 지갑 속에 다시 꽂으셨다. 아무 말 없이 가시는 할아버지의 태도로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난 할머니께 가서 그 지갑 속의 의문을 풀었다.

“그거? 저 영감 어렸을 때 사진이야. 뭐, 북한에서 왔으니 가족 사진은 저것 밖에 없겠지.”

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올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시골 길을 걸으며 어렸을적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조금씩 웃으셨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회상에 젖어 그 시절로 돌아가신 듯했다.

얼마 전에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하늘을 쳐다보시며 눈물을 흘려내시는 것을 보았다. 난 할아버지께 달려가 인사를 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아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 다음날 엄마께 그 이유를 여쭙어 보니 어제가 할아버지의 친누님의 생신이셨다고 한다. 전쟁 이후 남북으로 헤어져 있어서 생일 한 번 챙기지 못해 드려서 우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산가족상봉 프로그램을 통해 헤어진 가족들을 보려고 하

셨으나 사정이 좋지 않으셔서 번번이 실패하셨다고 하신다.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흑백사진을 가지고 계신다. 저번 설날에 용돈을 주시려고 지갑을 열으셨을 때, 그 흑백사진은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자 괜스리 마음이 아파왔다. 내가 과연 이 용돈을 받아도 될까? 하고 고민을 해보았다. 결국 나는 그 돈을 할아버지께 돌려드렸다.

또 저번 할아버지 생신때 온가족이 함께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드렸다. 할아버지께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라고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몇 초간 눈을 감으시고 촛불을 끄셨다.

잔치가 끝나고 할아버지께서 밥일을 하러 나가시자 나도 따라 나섰다.

“할아버지, 아까 소원 빌 때,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묻자 할아버지께서는 “내 지갑에 흑백사진이 컬러사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사람은 늙어 가는데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늙어 가는지 모르겠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뭔가 내 마음 속 깊이 무엇인가 슬프게 우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께서는 다시금 지갑을 꺼내 그 흑백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셨다. 난 그때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 난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할아버지 지갑 안에 있는 흑백의 가족사진이 컬러로 된 새로운 가족사진으로 교체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대부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 할아버지는 흑백사진을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실 것이다. 아니 이제는 사진을 많이 만지셔서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들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그 흑백사진이 컬러사진으로 바뀌길 바라시고 계신다.

“사람들은 늙어 가는데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늙어가는지 모르겠구나……”



충청남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그 딸을 백 원에 팔지 마세요 _ 291
-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_ 294
- 2월 _ 297
- 통일을 기다리는 내 친구 _ 303
- 음악처럼 이루어질 화합의 마당 _ 306
- 평화통일, 100년 후 _ 310
- 평화로운 십터 비무장지대 _ 315
- 빛바랜 사진에 담긴 씨앗의 의미 _ 319
- 꽃동네 새터민 아줌마 _ 322



최우수상

그 딸을 백 원에 팔지 마세요



그는 초췌했다

-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병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터지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장곡초 5 | 광의영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백 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빵 사 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선생님이 들려준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란 시 한편에 우리 반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조용히 하라는 선생님의 커다란 외침 소리에도 쉽사리 조용해지지 않던 우리 반이 시 한 편에 찬물이라도 맞은 듯 조용해졌다. 그저 시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매운 고추라도 먹은 것처럼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생님께서서는 그 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어느 시인이 탈북하여 쓴 시라고 하셨다. 그 시인은 북한에서 귀족이었다는데 비록 자신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북한의 체제 아래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용기를 냈다고 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들었다. 북한에서 그냥 있으면 자신은 배부르고 편안했을 텐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저런 시를 쓴 시인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 북한에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란 생각이 들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원조 물품을 보내는 것을 보았었다. 솔직히 그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것을 북한에 나눠주니까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선생님께 시를 듣고 나니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만약 자식을 백 원에 판다는 종이를 목에 건 저 여자가 우리 엄마였다면?'



‘사람들이 자식을 판다고 욕설을 할 때 엄마가 죽을병이 걸렸다고 저기서 우는 아이가 나왔다면?’

‘엄마와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엄마가 나를 판 돈으로 산 밀가루빵을 넣어 주는 거라면!’

시에 나오는 어떤 부분이라도 내게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다.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을 판다고까지 하는데도 나는 집에서는 엄마가 해 주신 음식 맛없다고 투정부리고 학교에서는 급식 시간에 안 좋아하는 음식 나왔다고 남겨서 버린 적이 많으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나는 북한에서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음식 투정을 하거나 남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되어 그들이 우리 옆집 살아서 배고파한다면 당장이라도 먹을 것을 나눠 줄 수 있을 텐데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 남한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나누어 줄 수 없고, 그들의 배고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걸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길은 우리나라가 어서 통일이 되는 길일 것이다. 그래야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서 통일이 되어서 북한 사람들과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을 백 원에 파는 일도, 백 원에 딸이 팔려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울면서 엄마가 딸 입에만 밀가루빵을 넣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한 식탁에서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웃으로 어울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날이 오길 소원한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금호중 1 | 주수빈

“다들 빨리 빨리 움직여, 강당으로!”

작년 이맘때 즈음, 하늘에서는 여름을 알리는 빗방울이 거세게 떨어졌고, 우리에게도 강연이 있다며 빨리 움직이라는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이 진짜 비도 오는데 초청 강연은 무슨, 또 졸리겠다.”

우리 모두는 투덜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1회 새터민 초청 강연’

새터민? 자리를 잡고 앉아 도통 뜻 모를 단어를 주목했다. 그 때 긴 머리에 예쁜 치마를 하늘거리며 무대로 올라가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곧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게 온 줄 아세요?”

우리를 만나러 왔다는 말이 웬지 장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새터민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강당은 두런두런 아이들의 이야기로 약간은 소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고도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북한에서의 어린시절을 굶주린 거지처럼 살며 일명 ‘꽃제비’로 살아왔던 이야기부터 플라스틱 병에 옷가지를 넣고 그 힘



한 압록강을 건너 온 이야기까지……. 지루할거라며 투정을 부리던 아이들은 어느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처음 들어 보는 낯선 북한 말에 간혹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가벼웠던 강연 분위기와는 다르게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 곳에 두고 온 내 가족들을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날 이후로 나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버릇이 생겼다. 단지 가족들 얼굴 한번 보겠다는 것뿐인데 왜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걸까,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한편으로는 한 여자가 겪기에 너무나 컸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측은함과 함께 내 마음 한 구석을 울리곤 했다. 가끔은 대중매체를 통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매번 내가 찾는 해답과는 거리가 멀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끝나지 않은 전쟁만이 이 문제의 원인일까? 어느 날, 그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던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만기에게 필요한 것은 단짝친구입니다. 낯설고 어렵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단짝친구 강만기’라는 책을 아는가? 나는 이 책을 통해 또 한명의 꽃제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북한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만기네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을 결정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지 하루가 되는 날, 그의 어머니는 인신 매매범에게 납치가 되고 말았다.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얻게 된 슬픔은 나까지도 가슴 아프게 했다. 만기는 상처와 고통의 심터로 남한에 오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차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기는 힘든 노동과 구박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희망을 바라보며 무기력해져 가고 있었다. 그 때 축 처진 어깨를 어루만지며 따뜻한 손을 내민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선생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왜 귀화식물을 좋아하는지 아니? 그건 자생력이 강해. 아무리 척박하

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빨리 적응하고 스스로 잘살아가. 그게 내가 귀화식물을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이유야. 그리고 귀화식물은 곤충이나 새의 먹이가 되어 주기도 하고 제자리가 아니면 비켜주기도 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자신을 잘 지키지.”

선생님의 한마디에 만기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나 또한 북한이 우리와 하나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까지를 두루두루 생각하게끔 해주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 앞에, 둘로 나뉜 설움에 그저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일지라도 곳곳이 ‘우린 하나다’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귀화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 우리도 어렵고 힘든 장벽을 극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돌이 없는 평탄한 시냇가는 소리 없는 잔잔함만이 흐를 뿐이다, 돌 많은 거친 시냇가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흘러간다.’

힘든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며 스스로 성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도 훗날 우리 한반도에 찬란하고 아름답게 울려퍼질 교향곡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앞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맞이하자!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야 할 돌도 없는 단짝. 그리고 떨어지지 못할 내 혈육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 될 이유는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주며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새터민 언니에게 감사를 전한다.

‘언니 힘내세요! 언니의 아픔은 곧 우리 모두의 아픔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강의 기적 그리고 월드컵 4강의 신화, 극적으로 이루어 낸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 가족 만들기, 그것도 더 이상 불가능은 아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2월



청양정산고 1 | 이휘희

입하가 지났다. 나무와 풀들이 파릇해지고, 꽃들은 색동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춤을 춰댄다. 얼마 전에는 겨울옷들을 빨아서 옷장 속에 정리해 놓았다. 이번 겨울에 산 밤색 니트가 눈에 띄었다. 작년 겨울이 생각났다. 2월이었다.

작년 2월의 중순은 아직 겨울의 찬바람이 가시질 않아 몹시 추웠다. 담임선생님께서 부르셔서 교무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후에 교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약간은 불투명한 창문 뒤로 바깥 풍경이 보였다. 추위에 떠는 나무들, 텅 빈 운동장, 차가운 바람의 비명 소리……. 마음속으로 ‘어서 따뜻하고 파릇파릇한 봄이 왔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멍해 있을 때,

“아, 참. 휘희야, 너한테 말해줄 게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흰 종이 몇 장을 꺼내셨다.

“이번에 각 학교에서 한 명씩 금강산 체험학습 가는 게 있는데 우리학교에선 네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네? 금강산이요? 그 금강산이요?”

“그래, 얘는……. 이런 기회 절대 흔치 않을 걸. 2박 3일이야, 잘 생각해 봐.”

“……네…….”

이렇게 선생님은 단 몇 분만에 내 뺨을 꺼내시고는 미리 저어멀리 금강산으

로 보내 버리셨다.

‘금강산? 그럼 내가 북한에 가는 건가?’

가슴 속에 있던 설렘과 긴장감의 싹이 텃다. 바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학교에서 금강산 보내준다는데 가도 돼?”

아빠는 걱정하는 기색으로 허락하셨다. 나는 선생님께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들뜨고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교무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금강산행은 두 달도 넘게 남았었는데 말이다. 인터넷으로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들에 관한 글과 사진을 찾아보면서 어서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여행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 상태는 마치 금방이라도 피어날 듯한 꽃봉오리의 마음처럼 답답하고도 긴장되었다.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북녘으로 날아가 버릴 듯한 느낌을 느꼈을 때 즈음, 그러니까 금강산행이 닷새 정도 남았을 때에는 여행 준비를 모두 마쳤다. 등산복과 등산화를 사고, 두꺼운 외투를 장만했다. 카메라와 수첩, 필기구 등과 함께 들뜬 마음까지 챙겨왔다.

당일. 해가 잠에서 깨질 않아 어두컴컴한 새벽에 버스에 올랐다. 낮선 얼굴들이 보였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 똑같이 보였다. 금강산, 아니 북쪽에 대한 설렘, 기대감, 긴장감 등. 나는 특히 이 녀석들때문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옆에 탄 친구에게 어디 아픈 게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

북녘에 가는 데는 버스로 무려 6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남측/북측 출입국 사무소를 순서대로 지나서 이제 통행 검사는 끝이겠구나 싶을 때 또 다시 어느 천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자주 사용하면서도 관리하지 않아 누렇게 때가 낀 자국이 있는 큼지막한 천막 안에서 통행 검사가 또 이루어졌다. 이곳에선 모두들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한 군인들이 직접 1회용 관광증에 도장을 찍고 얼굴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같이 온 친구들과 속삭였다.

“야, 저 아저씨들 표정 좀 봐. 진짜 무서워.”

“방금 저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나 찌려본 거 같애.”

솔직히 말해서 그럴 만했다. 총처럼 보이는 기다란 것이 아저씨들의 왼쪽 어깨 너머마다 보였고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 때문인지 표정에는 즐거움이 없었



다.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들어가는 식이었기 때문에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번호대로 정리하자 내가 우리 조 첫 번째 타자였다. 나는 절망했다. 맨 앞에서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의 관광증에 도장이 찍힐 때마다 들리는 쿵 소리는 마치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 느낌이 들게 했다. 군인 아저씨들과 더 가까워졌다. 왼쪽으로 50cm쯤 떨어져서 군인 아저씨 한 분이 지켜 서 계셨고, 뒤에 도장을 찍는 아저씨가 계셨다. 도장을 찍는 군인 아저씨의 뒤로 선풍기 모양의 온풍기가 보였다. 풀색 군복과는 다르게 붉은 빛깔을 띠었다. 그 곳에서 만난 승호라는 여자친구에게 조그맣게 얘기했다.

“애, 저러면 머리만 뜨겁지 않을까? 저 모자도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

“저러면 마음도 따뜻해진다니? 얼굴 좀 피셨으면 좋겠다.”

우리 얘길 들으셨나 보다. 왼쪽에 계시던 아저씨가 쳐다보셨다. 가이드 언니는 북에서 말할 땐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 해주었다. 그 때는 우릴 끌고 나가서 뒤에 있는 총으로 쏘 죽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절도있다, 박력있다는 생각을 넘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차례가 왔다. 특별한 종교도 없는 나는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모든 신께 살아서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꽤 당당한 걸음걸이로 군인 아저씨 앞에 섰다.

‘얌전히 서 있기만 하면 돼. 사진을 보고 도장을 찍어 주시면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통행 검사 순서는 대략 이렇다. 카메라와 mp3플레이어, 휴대전화는 검사기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어 검사대 위에 올려놓는다. 군인 아저씨에게 도장을 받은 다음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 앞에 말한 세 가지는 검사대에 놓으면 경고음이 나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으로 일반 통행 검사와 다를 게 없다. 단지 검사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북쪽 사람들일 뿐. 하지만 그 사실이 모든 같은 것들을 다른 것처럼 만들고는 한다.

도장을 찍는 아저씨는 키도 작고 얼굴도 작았다. 얼굴과 손에 있는 주름을 보니 40대 중반에서 50초반 사이로 보였다. 표정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무

표정. 그리고 바로 뒤에는 아까 보았던 바알간 온풍기가 켜져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조금 뜬눈을 들어신다. 다른 사람들은 10초 정도면 모든 게 끝나던데. 슬쩍 보니 내 사진을 쳐다보고 계셨다.

‘이런, 2년된 증명사진을 넣었더니 못 알아보시나?’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 왔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뭘 일인가. 갑자기 아저씨께서

“동무는 이름이 뭐냐? 이, 히, 히? 이름 참 특이하구만. 허허허허”

내 이름을 보시고는 꺄꺄꺄 웃으시는 것이다. 이마와 입가에 주름이 있다. 꼭 동네 아저씨가 재밌는 얘기를 들으시고 웃으실 때처럼. 그 때 느낀 것 같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똑같이 웃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똑같이 웃어서 하마터면 그 자리가 어떤 모임이라도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것을.

“아, 그, 그건…….”

“여기 좀 보게나, 이 동무 이름 참 특이하네.”

“이름이 뭘데 그러냐?”

다른 군인 아저씨들도 내 이름을 물으며 주변에 다가오셨다. 이름을 한 번 보시고 나서는 입모양으로 읽어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셨다. 내 이름이 처음부터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기해하실 줄이야. 여기저기서 휘파람을 부는 듯한,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동무, 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건가? 가족? 친척?”

“아, 아, 아버지랑 할아버지께서…….”

“허허, 그렇구면.”

방그레 웃으시면서 다음 장을 넘겨 도장을 찍, 찍어주셨다. 언제부터 그 곳이 재판장이었던가. 아, 맞는 것 같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법한 그런 재미있고 특이한 재판장. 나는 앨리스가 되어 처음 맛보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다. 도장을 찍어 주시고, 내가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오는 와중에도 아저씨는 방긋방긋 웃고 계셨다.

여기서 나는 너무나 어안이 병병해서 검사기 위에 올려놔던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를 깜빡하고 가방만 쏙 들고 빠져나왔다. “어이, 학생, 저거 가져가야지.”



이번엔 지키고 있던 남쪽 아저씨가 말해주셨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마 여드름이 난 얼굴이 빨개졌으니 꼭 딸기같았을 것이다. 손에 물건을 든 채로 검사 기계를 빠져나갔더니 빼-하는 경고음이 났다. 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이번엔 입까지 벌리고 소리내어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뒤에서 묵묵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군인 아저씨들도 미소를 지으셨다. 내 자신이 아주 많이 부끄럽고 바보같기는 했지만 웬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했다. 북쪽 사람들의 마음도 그 온풍기 색깔처럼 빠알강구나 싶었다.

나는 왜 북쪽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적대시하게 되었을까? 아니, 왜 모든 남한의 사람들이 북한의 사람들을 공산주의라는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로 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을까? 본래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겪었을 때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

북쪽으로 가기 위해선 당연히 휴전선을 넘어야 한다. 마치 장미 가시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휴전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가이드 언니가

“자, 우리가 방금 휴전선을 넘었어요.”

하는 것이다.

“네? 네? 어디요, 어디?”

다들 어리둥절했다. 아직 그 철조망은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휴전선을 넘었다고 한다.

“자, 저기 저 말뚝 비슷하게 생긴 나무토막 보이죠? 저게 휴전선입니다.”

쳐다봤다. 믿을 수가 없었다. 다 낚아빠진 나무토막 한 조각을 지나친 게 휴전선을 넘은 거라니…….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마음의 벽이 그토록 높고 위험한 철조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 왔던 것일까? 나에게 군인 아저씨의 그 미소 한 번은 그냥 미소 한 번이 아니었다. 남한 사람들과 같은, 아니 때로는 오히려 이웃 아저씨보다도 더 다정한 모습에 코끝이 찡했다.

조금 전까지 타고 왔던 버스와는 다른 버스에 타게 되었고, 이동하는 동안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었다. 북쪽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벌거벗은 붉은 산’. 아빠가 전에 말씀하신 게 생각났다. 산은 아주 낮았고 나무는 몇 그루 되질 않았다. 옷이 없어 부끄러워하는 붉은빛 산들의 아래쪽에 까맣게 보이는 구멍이 보였다. 탱크가 있던 곳이란다. 인간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살까지 도려내어 버렸다. 어디 나무와 흙뿐이던가, 전쟁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증발시켜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잔인한 전쟁도 우리가 똑같은 웃음을 보이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민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앗아갈 수 없었던 것 아닐까?

이동하는 도중에 북녘의 마을과 사람들이 보였다. 이곳저곳의 덧댄 밤색 옷을 입고 지나가는 어린 소년……. 나는 이제 그들을 볼 때면 머릿속에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기에 앞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아리는 듯한 동포애가 되살아난다. ‘금강산 여행’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다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직접 가봤을 때에는 친한 친구네 집에서 며칠 자고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통일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진실한 마음 없는 경제적 원조가 통일의 지름길일까? 먼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조금은 일찍 느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어서 북녘의 사람들과 남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바란다.





통일을 기다리는 내 친구



입장초 5 | 정민호

“뭐라구?”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구요? 무슨 일이 있었냐구요? 사실 제 친구 1명이 저희 반에 있는데 원래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내 또래로만 알았던 친구, 이름은 연대복이지요. 출생지는 중국!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다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대복이와 싸웠거든요.

“야, 연대복 재 뭐야? 맨 날 자기 멋대로야. 정말 짜증나 죽겠어.”

혼자 멋대로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대복이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는 자주 싸우곤 합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는 저와 두 달째 짝꿍을 맺어 주셨습니다. 늘 만나기만하면 티격태격하는 우리! 그래서 저와 대복이는 반 친구들이 톱과 제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대복이가 원래 나이로 치면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으니, ‘내가 형한테 까불었다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복이를 “형~”이라 불러야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대복이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자, 출발!

대복이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갔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쓰러져가는 초가집

에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초가집은 본적이 없습니다. 아! 작년 온양민속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갔을 때 본 기억이 전부입니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초가집에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끼니는 맛도 없는 콩밥과 냉이국으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콩밥”이라면 펄쩍펄쩍 뿜 정도로 싫어하지요. 급식 시간에 하얀 쌀밥에 검정콩이라도 섞인 날이면 선생님 몰래 콩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딱 걸리는 날이면 눈물을 머금고 입에 밀어넣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복이는 자신이 힘을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콩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학교생활도 남한만큼 재미없었고 점심밥도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급식으로 나오는데 만약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학생은 밥을 굶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북한 어린이들이 무척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복이는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국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결심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가기로 한 것입니다. 대복이의 아버지께서는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남한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복이는 어렵게 어머니와 함께 다시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봅니다. 60년만에 만난 자식을 안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우리 또래인 대복이는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참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니 대복이가 형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복이를 북한 사람이라고 가끔씩 놀리곤 합니다. 북한은 가난하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보다 잘 살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공부를 못하는 대복이를 가끔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라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대복이가 그토록 자기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을까 짜증을 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것을 스스로 챙기던 습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전학만 가도 환경에 적응이 안되고 친구들 또한 동물원 구경이나 하



듯이 자꾸 쳐다보는데 대복이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더 친구들의 관심을 살 수밖에 없죠. 대복이는 북한과 남한이 빨리 통일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딴 나라에서 온 신기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탈북자 이야기의 책을 빌려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 목숨을 내놓고 강을 건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중국까지 건너갔어도 중국에서도 숨어다녀야 하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니 대복이가 용감하고 씩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곳곳이 버텨 준 대복이가 참 멋지단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대복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로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대복이가 우리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대복이를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겠지요. 우리나라도 통일된다면 우리들과 대복인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른들은 총을 겨누고 싸웠을지라도, 한반도 한가운데 찍~하고 그은 선 따위는 치워버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금강산도 가고 싶습니다. 옛날만 해도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역사였던 우리 남한과 북한!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대복이의 마음에도 이런 희망과 생각이 싹트고 있겠지요? 통일을 기다리는 내 친구 대복이! 그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음악처럼 이루어질 화합의 마당

성남중 2 | 안성환

1. 들어가는 글 : 뉴욕 필의 평양 공연

2008년 3월 26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 연주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뉴욕 필하모닉의 공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공연이지만 당시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주가 열린 곳, 그곳이 평양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의 관심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산체제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공산체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였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한 북한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미국은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과시해 온 시장체제의 강대국입니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해도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 테러국가로 지정하여 대해 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나라가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평양에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지켜본 수많은 외신 중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공연을 계기



로 미국과 북한이 신속 외교로 관계 회복을 꾀할 것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우리나라도 이 화합의 자리에 같이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날의 공연을 위해 여러모로 물밑에서 참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하나되어야 할 국가이니까요. 하나되는 수많은 방법 중에 음악을 통해 서로 하나되는 것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2. 아리랑의 힘으로

한편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화해하는 길은 전쟁 아니면 국력을 쌓아 우리나라가 전 지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방법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통일하게 된다면 이 국토에 사는 남북한 국민은 물론,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야 할 것입니다. 국토는 전쟁을 통해 파괴되고 생활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굶주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더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하고 마치 강제로 빼앗듯이 이루는 무력에 의한 통일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지 못하는 통일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 의해 통일이 주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는 우리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통일이 역사적인 사명이고 우리 민족 모두의 소원이라면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우리의 손으로 이루지는 자주적인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평양 대극장에서 아리랑을 연주하는 것을 TV중계를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우리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로 모두가 한마음

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악으로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저절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화 통일의 길이 될 것입니다.

3. 우리가 걸어가야 할 통일의 삼차로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통일의 길은 어떤 길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통일로 가는 삼차로의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일차로는 문화적 교류로 시작되는 평화의 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분단되어 살아온 지 오래되어, 문화, 생활방식, 언어 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음악이나 공연같은 경우는 서로 마음의 벽을 더 쉽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공연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고 교류를 통해 서로 더욱 쉽게 이해한다면 통일 앞에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날 남과 북의 대립 시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문화 교류를 통한 일차로 곧 평화 통일의 길입니다.

두 번째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좋지 못한 선입견들을 버리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서로 혈통고 좋지 못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동생과 형이 서로를 욕하며 싸우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통일을 이루기 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이해하려는 방법으로 대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대화하려면 적극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루어 가는 통일 이것이 이차로 곧 민주 통일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통일을 하고 싶어 해도 우리나라의 위치가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전에 먼저 통일을 한 나라의 조인 등,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늦고 어려운 통일을 하게 되며 통일을 한 후에도 편치 못한 대외 관계를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차로 곧 자주 통일의 길입니다.

4. 나가는 글 : 음악의 감동처럼 이루어질 통일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서로 총구를 겨누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통일은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갖는 과정의 문제이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가까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의 띠를 끊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뉴욕 필하모닉가 아리랑을 연주했을 때의 감동보다 이제는 남과 북, 그리고 세계가 함께 판문점, 38도선 비무장 지대, 임진각에 모여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연주하는 한 편의 교향악과 같은 통일을 이루는 순간 세계에서 분단의 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질 통일은 이렇듯 세계를 감동시킬 한반도 아리랑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만 악기는 감동을 주고 화합을 이루어냅니다. 화합의 교향악을 연주하도록 그리고 통일 아리랑을 연주하고 부를 수 있도록 저마다의 악기를 들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평화통일, 100년 후



조치원고 3 | 경동훈

남북이 평화통일이 된 지도 벌써 100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던 시절은 어느새 역사책의 한 면에 기록될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다. 100년 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한 노력은 말로 할 수 없이 많았다. 결국엔 이렇게 통일이 될 것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였는지 모르겠다.

“훈아!”

남교길, 뒤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목소리에, 목소리 주인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며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정확히 내가 예상한 인물이 손을 흔들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어? 유리아, 집에 가?”

“아니, 용돈이 남아서 찻집 좀 들렀다가 배움터로 좀 가려고”

“음……. 배움터에? 같은 방향이지? 같이 가자!”

“그래!”

유리와 나는 찻집으로 들어갔다. 찻집은 과거와는 달리 분식과 과일즙, 요깃거리를 다 같이 파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곳으로 뽑힌 것이 바로 찻집이다. 유리와 나는 자리에 앉아 식단 목록을 보면서 잠시지만 무엇을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난 떡볶이!”

우리가 식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હે~ 전통음식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난 개구리 튀김!”

옛날에는 ‘개구리 튀김’이란 소리를 들으면 ‘깍 징그러’ 소리가 튀어나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녹색발전을 통해 개구리뿐만 아니라 가재, 참게, 미꾸라지 등
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때 개구리를 잡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이 이제는
풀리면서 개구리 튀김은 다시 인기있는 간식이 되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란…….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100년 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가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던지시 말을 건넸다.

“아무래도 서로의 진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갑갑하지 않았을까?”

“하긴…….아무리 다가서려고 해도 군사적으로는 서로 적이었으니…….”

“나는 좁은 나라 땅덩어리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싸웠다는 게
더 한심해. 그때 잘했으면 지금의 발전이 더 빨리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텐
데…….”

우리는 과일즙에 콧한 빨대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개인과 집단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심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는 찻집의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도로에는 단체 자전거가 쌍쌍 달
리고 있었다. 자동차 바퀴 위에 자전거 몇 십대를 이어붙인 듯한 이상한 기계
위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발을 굴리고 있었다. 각자의 앞에 달린 디지털 화면
에는 자신이 굴리는 힘과 남이 굴리는 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
사람이 화면을 건드리자 단체 자전거는 곧 멈췄고 그 사람이 내리고 다른 사람
이 탔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운전수의 신호에 맞춰 다시 발을 구르기 시
작했다.

“그래도 통일이라는 자각이 사라지기 전에 통일을 해서 다행이야. 50년만
늦어도 후손들은 영문도 모르고 북한과 남한을 적으로 맞이해야 했을걸?”

나는 개구리 뒷다리를 물었다. 다릿살이 입에 감기듯 식도로 녹아들었다.

우리가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끄덕였다.

“맞아. 만약 우리 세대까지 통일이 안됐으면 여전히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고 국방비에 세금도 만만치 않았을 테니까. 그것뿐이냐? 서로 안 좋은 인식이 깊게 패여 양금이 되어 썩어 갔을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사람 대 사람이 아닌, 남과 북이라는 원하지도 않는 집단에 묶여서 적대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

“헤~ 통일을 평화롭게 이룩해 준 조상님들께 감사해야 겠는걸?”

우리는 마지막 남은 떡볶이를 쇠꼬챙이로 집으며 말했다.

“훈아! 우리 할아버지 한번 만나 볼래?”

나는 당황했다.

“응? 할아버지는 갑자기 왜?”

“그 시대를 살았던 산 증인이거든.”

“우와! 그렇다면 100세를 넘기셨어?”

우리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현대 의학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와 나는 계산을 마치고 유리네 집을 향해 걸어갔다.

- 삐죽 삐죽

“너네집 초인종 소리 되게 특이하다.”

“그치?”

-달각, “누구세요?”

“저예요. 유리, 친구도 같이 왔어요”

- “들어와”

현관문이 열리고 유리와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유리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셨다.

“안녕하세요?”

“어머~ 유리야 남자친구니?”

“응! 남자 친구야. 킁킁”

“잘생겼는데?”



유리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누가 왔니?”

“할아버지~”

“오! 유리 왔구나? 친구도 왔네? 오냐오냐, 날 보러 왔다고? 자리에 앉거라.”
한눈에 봐도 친근감이 넘치는 할아버지. 웃음 주름이 보는 사람마저 즐겁게 해 주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해서 왔니?”

“네, 통일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전쟁 이후에 통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시대가 갈수록 그 감정은 잊혀져 갔지. 통일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통일이라는 말이 나와야 아, 그것? 이라는 생각만 했지, 절실하게 와 닿지는 않았단다. “

“왜요?”

유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세월이라는 망각의 약이 효력을 발휘한 게지. 세대를 거칠수록 통일이라는 말은 자신과 멀어져만 갔어. 또, 대부분이 통일은 하나만이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퍼져나갔지.”

“그런데 어떻게 통일을 했어요?”

나는 할아버지께 물어보았다.

그때 유리네 어머니가 과일즙을 그릇에 담아 가져오셨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할아버지의 말씀을 공손히 들었다.

“다 서로간의 노력 덕이지. 그런 사상이 비록 퍼져 있긴 했지만 평화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더 노력했단다. 한반도가 완벽한 호랑이가 되는 그 날을 꿈꾸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했거든.”

“듣기로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컸는데요?”

“그것 또한 평화통일 이룩 후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였단다. 하지만 세월의 힘이라는 건 역시 무시할 수 없지. 처음엔 어색했던 말들도 서로 어울리

고 부딪히다 보니 사투리의 하나처럼 여겨지게 됐단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된 말들을 우리말로 되살리는 운동을 했지.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단다.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신선한 느낌과 순수한 느낌을 받았거든.”

“카페, 주스, 메뉴, 포크 등이 찻집, 과일즙, 식단목록, 쇠꼬챙이 등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국어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거야. 처음 시작 때만 해도 그것이 어색하기 그지없었어. 한국어는 유치하다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무엇보다 순수하고 민중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게 한글인데 말이야. 너희들은 안그러지?”

“찻집, 쇠꼬챙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뭘…….”

우리가 과일즙을 마시며 말했다.

“아무튼 저는 통일이 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아니 왜?”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보았다.

그래서 난 대답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예쁜 유리를 만나지 못했을거 아니에요!”

“뭘어~?”

우리네 가족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휩싸였다.

오직 유리만이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평화로운 심터 비무장지대



삼성초 4¹ 권영찬

며칠 전, 홍성에 사는 이모 댁에 갔다. 집에서 멀지 않아 자주 들르는 곳이지만, 나는 이모 댁에 가는 날은 꼭 소풍이라도 가는 것 같아 늘 설렌다. 그 날도 수업이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운동장에는 항상 방과 후에 같이 축구를 하던 친구들이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만, 그 날만큼은 친구도 축구도 다음으로 미뤄 두기로 했다.

엄마 차를 타고, 홍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참 시원하다. 넓은 바다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내 코를 타고, 눈을 타고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 나까지 바다가 되는 것만 같다. 그렇게 40분쯤을 달려 드디어 기다리던 이모 댁에 도착했다. 엄마가 내리시기도 전에 나는 쏜살같이 차 문을 열고, 나를 귀여워해주는 친척 형 이름을 부르며 달려 이모 댁 현관문을 열었다.

“멍! 멍!”

여전히 나를 먼저 반기는 것은 이모가 키우시는 애완견 뽀미다. 너무 자주 와서 나를 자기 가족이라 여기는지 연신 꼬리를 흔들며 대며 반긴다. 그리고 이어서 방에서 친척 형이 나왔다. 그런데 친척 형의 두 손에는 무언가 꿈틀대는 하이얀 것이 들려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고물고물한 귀여운 강아지였다.

“와~ 귀엽다~!”

나는 너무 귀여워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얼마 전, 뽀미가 낳은 새끼강아지라고 했다.

“형아, 나 한 번 안아 봐도 돼?”

내 손안에 쏘옥 들어온 강아지는 너무 작아서 잘 못 만졌다가는 부러질 것만 같았다. 여린 강아지를 품에 꼬옥 안아 보았다. 따스한 체온이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나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의 매력에 푹 빠져가고 있었다.

이모 댁에 있던 주말 내내 나는 강아지와 함께 먹고, 놀고, 자기까지 했다. 엄마께서는 강아지가 힘들 것 같다며 걱정하셨지만, 나는 강아지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강아지가 나는 너무 좋았다.

어느덧 집에 돌아가야 하는 날이 돌아왔고, 나는 강아지와와의 이별이 너무 아쉬워 눈물이 맺혔다. 나는 마치 여섯 살, 유치원생처럼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떼를 써 댔다. 예상했던 대로 엄마한테 혼썰이 나고 나는 눈이 텅텅 부은 채 엄마 차에 몸을 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토록 멋져보이던 바다는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이던 내게 엄마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산가족이라도 되는 것 같구나.”

나는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훌쩍... 그... 그게 뭐예요?”

“이산가족? 아, 이산가족이라는 건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을 말해.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지 않니. 그래서 원치 않게 떨어져 사는 가족이 생기게 되었단다. 50년이 넘도록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단다. 생각해 보렴,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고 말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생각해 보았다. 머릿속에 강아지가 스쳐지나갔고, 혼자 남겨진 내가 등장했다. 엄마도 아빠도 없고, 혼자 있는 나는 매일 슬픔에 잠겨 울보가 되었을 것이다. 잠깐 만난 강아지와와의 이별도 이렇게 아쉽고 싫은데, 나를 키워주시고 함께 생활해 온 가족과의 이별은 정말 견디



기 힘들 것 같았다.

그렇게 깊은 아픔을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또다시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몽클해졌다. 문득 강아지와 헤어짐때문에 울고 난리를 부린 내가 부끄러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등을 돌리고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아빠께 여쭙어 보았다. 아빠께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 힘든 시기도 잘 견디고선 정작 해방이 된 후 서로 다른 사상을 내세우다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해 결국 전쟁이 일어난 거란다. 그 전쟁때문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니? 더욱이 가슴 아픈 건 헤어진 가족들이 이제는 대부분 노인이 되었다는 거야. 한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아빠는 가슴이 아프더구나.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통일이라…….’

나는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얼마 전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 때, 친구들은 곧 전쟁이 날거라며 소란을 피웠었다.

‘정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서로 충을 겨누면서 느꼈던 증오심과 미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싸운 친구와 화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전쟁이지 않았던가. 또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을 해 나가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위를 깨뜨리듯이 한사람, 두 사람의 마음이 모여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마음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한 핏줄임을 절대 잊지 말고, 통일의 소망을 늘 품어야 한다. 나 역시 이산가족의 슬픔을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통일에 대한 별다른 생

각이 없었지만, 이산가족을 떠올려 보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이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제 나에게 통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끔가다 듣는 ‘나와 거리가 먼’ 단어라 여겼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북한은 가난하고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생각도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나라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 있는 휴전선. 그리고 그 곳의 비무장지대는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사람의 손과 발길이 닿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그곳을 오가는 하늘의 저 새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갈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곳을 새들은 유유히 지날 것이 아닌가.

아름답지만 두려운 그 비무장지대가 새들만이 아닌 남북한의 어린이, 어른, 노인들이 평화로이 만나 설 수 있는 쉼터가 될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빛바랜 사진에 담긴 씨앗의 의미



천안신방중 3¹곽미현

“이게 뭐지?”

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성경 책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사진이었다. 얼룩지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짓고 있는 한 소년과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는 청년 그리고 그 사이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의 웃고 있는 소년들은 할머니의 오빠들로 나의 큰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이시다.

할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사진을 보며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사과 꽃이 만발한 봄날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보다 문득 할머니와 함께 앞마당에 심었던 작은 씨앗이 생각났다.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 오신 씨앗이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씨앗이에요?”

“이거? 사과란다.”

사과나무는 보통 묘목을 사서 심기 마련인데 할머니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사과 씨앗이었다.

“그 조그만 씨앗이 언제 커서 사과나무가 되요?”

“기다림이란 원래 지루한 법이지.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나의 투정에 웃음을 지으시며 사과 씨앗을 땅 속에 심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났다.

할머니와 형제분들이 헤어지기 전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가 항상 웃다가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아마도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큰할아버지는 북쪽에 살아계시다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며 사진을 한참이나 쓰다듬으시며 눈물지으셨다. 그리고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땅에 손을 올려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전히 쓸쓸함과 그리움이 남아있는 웃음으로 씨앗을 심은 곳을 보살피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난 그 동안 할머니의 오랜 기다림과 외로움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할머니는 5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 그 동안 형제들의 소식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살아만 있다면’ 이라는 소망을 안고 5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림으로만 지내시다 돌아가셨다.

사과나무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선 씨앗에서 싹이 나야 하고 그 싹이 자라서 묘목이 되어야 하고 묘목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아직도 땅 속에 있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 씨앗이 싹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태두리를 벗어나야 통일의 싹이 될 수 있다. 싹이 묘목으로 자라기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준비이다. 통일을 선불리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일 후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한 우려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남한과 북한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통일에 대한 필요성도 생긴다. 또 통일의 필요성을 남한 측, 우리만이 가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사는 우리의 민족도 통일을 바라는 마음. 즉 남한 북한 국민들이 통일을 간절하게 바랄 때 그 순간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는 어린 씨앗에 불과하다. 싹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할머니는 싹이 나오지 않은 씨앗을 보며 말씀하셨다.

“아직 씨앗에서 싹이 트지 않았구나. 싹이 트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과 적당한 온도,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싹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야.”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서로 이해하고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다. 씨앗에서 싹이 트기 위해서는 무엇 하나 빠지면 안되듯 통일을 위해서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작은 소녀의 모습인 할머니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우리에게도 아직은 기다림이 필요한가 보구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싹은 저절로 자라게 될 거야.”

나는 할머니의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당에 심은 사과나무의 씨앗이 트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싹이 트일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봄볕은 작은 씨앗을 향해 따뜻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꽃동네 새터민 아줌마



서산여고 1 | 최가현

작년 8월의 몫시 더운 어느 날 중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의 여유를 빈둥빈둥 뒹굴며 즐기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꽃동네에 봉사 활동을 가자고 하셨다. 나는 봉사 시간도 채울 겸 진짜 봉사다운 봉사를 해볼 겸 꽃동네에 가기로 했다.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꽃동네. 넓고 조용한 가운데 먼저 도착한 많은 봉사자들이 배정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노인 요양병원에 봉사 배정을 받았다.

그곳에는 단체에서 온 듯한 여성 두 분이 미리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굶은 일을 하였다.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는 대학생 봉사자들과는 너무 달랐다. 나도 눈치가 보여 덩달아 열심히 봉사를 하였다. 그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첫인상이 나이 차가 많아서 친목 단체에서 온 모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탈북한 새터민 교육생들이었다. 놀랍게도 51세와 29세의 두 분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각각 7년, 8년동안 숨어 살았다고 했다.

어렵게 남한에 온 그들은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약 한 달간 교육을 받으며 여러 가지 남한의 생활에 대해 경험한다고 했다. 이런 봉사활동, 견학, 가정생활 등을 체험한다고 한다. 조금 친해지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 한 분이 엄마에게 물었다. “남편이 사장님입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인지 어리둥절한 엄마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럼 아주 부자입니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활동하기 편한 허름한 추리닝과 간단한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의식주가 큰 문제인 그들에게 일하러 가야 할 시간에 여유롭게 봉사 활동을 나온 포동포동한 우리가 사치스런 부자로 보였던 것이다.

담소를 나누며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북한의 주민들이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할 줄 알았던 내 무관심은 사치스런 착각이었다. 굶어 죽은 자의 옷을 벗겨 입는 절박한 가난, 배고픈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국수 몇 가닥을 혼자 삶아 먹은 뒤 며느리와 다투는데 아들마저 “어째 혼자 먹었습네?”하고 책망했다는 일화, 그 곳의 굶주린 청년들이 우리네보다 키가 작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으며 난 정말 충격을 받았다.

오후 봉사 시간에 좀 더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서는 밥도 못 드시는 할머니들께 목욕을 시켜드린 후 옷을 입혀 드리고 얼굴에 크림을 발라주면서 새터민 아줌마는 슬프게 웃었다. 그리고는 “아주마이들 호강하십니다.” 하셨다. 나는 꽃동네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실까 당황하는데 새터민 아줌마는 반문 하셨다.

“아 젊은이들도 먹을 것 없어 굶어죽는데 때 되면 먹여주고 닦아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호강아닙니까? 이런 호강스런 이불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의 이불은 할머니들께는 어울리지 않는 백설공주가 프린트된 거친 이불이었는데도 그들에게는 고급 이불이었던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꽃동네의 식사를 불평할 때 그들은 간소한 생활 도구들을 부러워했다.

새터민 아줌마를 만난 뒤 북한은 내게 점점 더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어갔다. 통일은 필요없다며 작은 성금도 아끼웠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만은 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로 앵무새처럼 노래하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되 보였다. 가끔 새터민 아주머니와 언니를 생각하면 못된 업주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작은 정착금으로 낯선 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이산가족의 슬픔은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이지만 우리세대는 잘 모른다.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을 모르고, 무관심하였기에 우리만 잘 먹고 잘살면 되는데 독일처럼 혼란해질 이유가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세

대의 무관심으로 통일은 저 멀리 끝없는 하늘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생긴다.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굵은 끈으로 연결된 것일까? 스포츠 경기를 보며 열렬히 북한을 응원하는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 민족이다. 휴전선을 그어 놓고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며 마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기다리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단되었던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날렵한 호랑이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그날이 꼭 올 것이다.

나는 생각해 본다. 북한 또래 친구들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수학여행을 같이 떠나는 그 날을...





전라북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마음의 거리를 좁혀요 _ 327
- 하나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_ 329
-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_ 332
- 관심과 배려 _ 335
-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하여 _ 338
- 우리 민족의 민들레 _ 341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_ 343
- 통일의 초석 개성공단 _ 346
-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통일 _ 348

마음의 거리를 좁혀요



부귀초 5 | 이현화

작년 10월에 우리학교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개성으로 현장학습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사실 개성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언니 오빠들이 부럽기보다는 걱정되는 마음과 놀라움이 아주 컸다. 내가 언니들이라면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길 것 같았다. 그런데 언니들은 무사히 북한을 잘 다녀왔고 나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북한 사람들의 모습, 개성의 모습, 음식, 말투 등 책이나 TV로 한 번씩 접할 때보다 개성을 직접 다녀온 언니들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고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개성 여행을 할 때 북한의 안내원 2명이 버스에 함께 타며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통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행을 다닐 정도로 서로가 친해져 있는데 왜 아직도 자유롭게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언니들이 해 준 말들 중에 가슴이 아픈 말들이 많았다. 북한의 큰 도시라는 개성의 모습이 우리가 TV에서 보는 70~80년대 어려웠던 시절의 드라마 세트장같다고 하였고, 사람들의 옷과 말투도 우리와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북한의 아이들이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직접 개성을 다녀온 언니들이 개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니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사는 모습이 얼

마나 다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거리는 가깝지만,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거리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다. 나 또한 사실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다. 아니, 사실 통일에 대해 평소 생각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지 않고 호랑이의 모양을 갖춘 하나의 완벽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내가 어른이 될 때면 우리나라의 힘이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북한의 습은 자원들과 관광지,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론 당장 통일을 하면 우리 남한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면 손해가 아닌 하나의 저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군대, 무기 이런 것들을 위한 쓸데없는 돈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 총을 겨누며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북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작년에 언니들이 개성을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북한 친구들도 만나 보고 싶고 나도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데 아직은 북한이라는 곳이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두려움도 느껴진다. 만나 보면 우리 옆집 할머니처럼, 아저씨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북한이 너무나 먼 나라로만 느껴진다. 언젠쯤 이 거리감이 없어질까? 우리나라의 통일이 과연 언젠쯤 이루어질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꼭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또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다가간다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분단국가 아닌 하나의 통일국가로 완성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자유롭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언젠가는 서울과 개성의 거리만큼 우리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왕궁중 3 | 임범환

나는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서 북한의 개성공단에서는 근로자들 사이에 ‘초코파이계’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보았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아침·점심 식사 시간 사이에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초코파이를 받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모아주는 계를 말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들으면 “하~”하고 코웃음을 치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 또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잘 지으셔서 우리나라 대표로 몇 년 전에 농업기술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생긴 일을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컵라면을 가져가셨는데 북한 사람들이 점심을 따로 마련해 주자 컵라면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다음날 그 사람들은 ‘정말 맛있었다’며 ‘또 있냐고 물어 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우리들처럼 자주 라면을 먹을 수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하였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간식이나 식사를 간단히 할 때 라면을 먹지만 북한에서는 라면이 굉장한 외식 음식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는 말을 듣고 코끝이 찡했다. 이렇게 북한과 남한은 많은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무턱대고 ‘통일, 통일’ 외쳐 보아야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통일의 목적은 무엇이고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국가가 채택한 사회주의 사상도 공산주의 경제 체제도 모두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다.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인 것 같다. 아직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사회시간에 선생님 말씀으로는 탈북한 새터민 여성이 9년간 군인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모두 굶어죽어 믿었던 국가로부터의 배신감으로 탈북을 결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다. 얼굴도 생김새도 말도 글도 모두 같은 한민족으로 그들도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되며 이것만으로도 통일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의 문화와 지식을 배워야 한다. 60여 년 동안 분단되어 살아온 남한과 북한은 많은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화의 차이, 사상의 차이, 배경 지식의 차이. 하지만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대학에서 북한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곳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만약 통일이 되는 날이 왔을 때, 우리들이 북한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혼란의 장이 될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물론 북한도 우리를 알아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북한이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가 먼저 한 발 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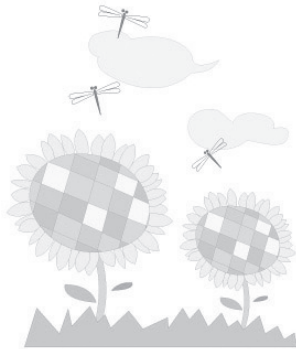
경제적 교류를 통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경제적 교류를 위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신의주 철도가 완성되었다는데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근로자를 억류한다는 등의 북한 태도를 보면 화가 나지만 참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의 다양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혹시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재미있다는 평을 받아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 역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교류의 산물이다. 만화뿐 아니라 캐릭



터 상품 판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를 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가 발전할 수 있고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들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싸움을 형제의 어리석은 싸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지금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싸울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오점을 바로잡고 통일을 이룩한다면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나, 고통받는 이산가족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전일교 2 | 문선호

남북 이산가족이 헤어진 지 50여 년만에 상봉하던 장면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는데, 아직도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4 후퇴 당시 친척집에 여동생만 남겨둔 채 피난길에 올랐다가 평생의 한을 품고 살고 계신다는 이종근 할아버지와 2년째 이산가족 상봉 계획도 없고 금강산 관광까지 막혀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는 김병국 할아버지.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떠난 죄책감 때문에 한평생을 그리다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최근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그것은 인공위성이든 핵무기이든 국제 사회는 물론 남북한의 관계를 더욱 긴장하게 하는 엄연한 도발 행위이다. 그것도 모자라 온 나라가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비통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지대공 미사일 두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남북한의 진정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길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까? 그 이유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거두고 한을 풀어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산



가족 찾기 12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해 있는 8만여 명 가운데 약 76%가 70대 이상의 고령자라고 한다. 하루 1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은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 때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어진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도 상봉에 대한 추가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산가족의 한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하나로 통일된 한반도에서 서로 만나서 고향을 찾아야 하는 절실함이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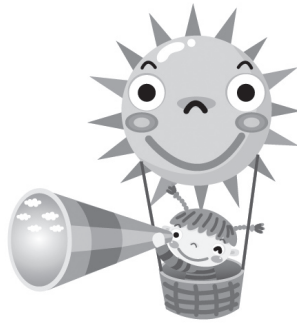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분단된 현실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적어도 80년대초부터 북한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써 왔다. 2006년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비는 246억 달러이다. 같은 해 북한의 국민총소득 256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이 해 북한의 실질 군사비는 국민총소득 30%인 8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군사비를 통일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통일 후 우리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 국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권의 사각 지대인 북한에서 주민들을 더 이상 짐승처럼 참혹하게 살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탈북 여성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다. 탈북 여성 방미선 씨는 치마를 걷고 상처난 허벅지를 보여 주었다. 수용소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여러 군데가 마치 칼로 베어낸 듯이 움푹 파여 있었으며 걸음도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회견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한다. 비단 이쁜만이 아니다. 탈북하다가 잡히거나 중국 공안에게 잡히는 경우에도 짐승처럼 팔려 다니거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 북한 주민들을 인간답게 살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고립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사

일을 발사함으로써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키고 말았다. 이는 현재의 남북한 대결 구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 하나가 되는 통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써 보았다. 우리는 원래 단일민족이다.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민간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초를 다지며 준비한다면 통일은 요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에서 공장의 기계 움직임이 활발하게 된다면 하나가 되는 소망도 더 이상 꿈은 아닐 것이다. 오늘도 나는 저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손을 내민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관심과 배려

전주문학초 4 | 양지초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이 나에게서 참 낯설게 느껴진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장 가까운 북한에 관한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소식은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북한은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일까 싶어서 찾아 보았지만 최근 소식을 알 수는 없었다. 북한말도 3학년 때 도덕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단어 몇 개가 전부이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너무 다른 언어라 많이 헷갈렸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일까? 나는 통일보다는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께 북한에 대해 여쭙 보니 북한은 세계 기구인 유엔으로부터는 구호물자를 지원받으면서도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구호물자는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민족이기보다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현재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고맙게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아니다보다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를 많이 볼 수 있다. 나도 가끔 기부를 할 때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을 느낀다. 왜냐하면 내가 기부한 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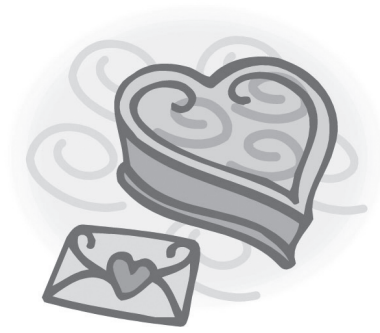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조금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을 도와줄 때도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구호물자를 보내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민족이 굶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조건 없이 순수하게 보냈다면 북한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지 않았을까? 처음엔 민심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북한에서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주 오랜 시간동안 헤어져 사는 이산 가족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해 ‘사랑의 빵’도 모으는데 한 민족을 위한 기부도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못 느끼고 점점 더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일본은 독도 문제도 있고 역사에서도 안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소식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북한보다도 우호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견 잘못된 것 같다. 원인은 자주 소식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친구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만남은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건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북한과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에는 함께 축하해 주는 의좋은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야 할 것 같다. 가진 게 없고 힘든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다툼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듯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어쩌면 정말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학급 토론에서도 ‘통일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대의 의견으로만 토론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토론을 하다 보니 막막했다. 관심도 없었고 필요성도 못 느꼈던 주제라 그랬던 것 같다.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내고 해결할 수도 있다.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관심만 가진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하여



김제중앙중 3 | 조영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종식이 아닌 휴전이기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냉전시대의 낡은 흔적인 휴전선 근방은 아직도 긴장의 연속이다. 이 걱정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한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단 하나의 해결책은 바로 남북한의 7,200만 주민이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 바로 통일이다.

통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어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남긴 채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이 가져오는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통일은 이 끊임없는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으며, 나라 안팎으로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 또, 독도 영유권 문제같은 국가간의 갈등 해결에 힘을 쏟을 수 있으므로 민생 안정에 여러모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의 지형은 대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므로 그 곳을 개발하면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비싸게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북의 노동력과 남의 기술력을 조합함으로써 인한 경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경제난에 직면해있는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 누구보다도 '이산가족' 문제에서 절실한 필요성으로 다가온다. 1950년부터 3년간의 전쟁은 이들에게서 가족을 비롯한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 전쟁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이별로 인해 가족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낚은 사진 속 가족을 바라보며, 죽기 전에 헤어진 가족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둘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하지 않는가? 만약 통일을 감정에 치우쳐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밟아야 할 순차는 무엇이며, 왜 서두르면 화를 입는다는 것일까?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던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독일과 베트남을 들 수 있고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해낸 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독일의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이다. 흡수통일이란 말 그대로 경제력이 강한 서독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한 것이다. 그래서 동구권 몰락과 함께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서독은 빠른 통일을 맞이한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동독의 재건 및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낸 '통일세금'이 바로 그것이다. 서독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었기에 실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었지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원조를 했으니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빠른 통일을 위해 무작정 통일을 시행한다면 불 보듯 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제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은 먼저 남과 북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서로 신뢰를 쌓아서 군비를 축소하고 그 돈으로 북한은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남한은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원조를 해 주어 경제 문제를 차츰 해결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념 대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통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고 난 후에 통일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재차 언급하지만, ‘불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곧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을 굳이 걸을 필요가 있을까?

경제, 사상, 언어, 생활방식 등 통일을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간 우리가 느꼈던 이질감들을 ‘완전한 통일’을 통해 동질감으로 변화시켜 ‘통일이 된 나라’가 아닌 ‘원래의 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우리 민족의 민들레

정주교 1 | 하연휘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가입한 봉사 단체에서 새터민 강사분이 강의를 한다고 했다. 직접 그들의 삶을 내 귀로 전해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냉큼 부모님을 따라 나섰다. 강의를 시작되고 ‘새터민은 북한에서 왔으니까 인상이 무섭게 생겼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새터민 강사분은 오랫동안 보아 온 푸근한 이웃사촌같았다. 새터민 강사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눈물겨운 고통을 겪은 이야기들이었다. 탈북은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거나, 또는 임진강을 넘어 탈북하게 된다. 그런데 탈북은 배고픔과 불안함과 긴장감을 참고 견디면서 생명을 건 모험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군인에게 잡히기라도 하면 그들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고문을 받는다고 한다. 나와 비슷한 또래는 물론이고,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는 말에 나는 몸서리칠 정도로 마음이 아팠었다. 그들이 당했던 고통은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껏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 불평만 해왔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오직 자유만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륙을 지나고 강을 건넌 것인데... 어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하게만 여겨져 소중하게 느끼지 못한 자유를 그들은 이별과 생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이 현실이

내 볼에 뜨거운 눈물 한줄기를 흐르게 하였다.

초등학교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학교에 대한 적응력 때문에 힘든 점이 무척 많았는데, 국경을 넘어 온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당했을까? 이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새터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자리도 부족한 이 시기에 새터민들까지 받아주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는 등 불평하면서 심지어 북한을 탈출해서 온 그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다 받아 주냐는 식으로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새터민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 행복과 자유만을 찾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말을 하는 한민족이지 않은가?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받아줄 것인가? 우리가 보듬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새터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새터민들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신상 정보를 조사하고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단일 민족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같은 하늘아래 같은 뿌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에 지속된 분단으로 인해서 한반도 어느 곳에서도 항상 눈물 흘리는 이산가족을 볼 수 있다. 북한에 두고 온 이산가족들과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향수를 그리워하며 통일이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새터민들이 뼈저린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힘들게 탈북하지 않아도 되고, 탈북이라는 단어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날, 세계 지도에는 South Korea와 North Korea가 아닌 Korea로 기록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 사람들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38선이 사라져 우리 마음의 장벽과 탈북의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 꼭 오리라 기도한다. 그리하여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면서 당당하게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처럼 우리민족의 민들레가 되어 통일의 꽃을 피우기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대세와 박지성이 하나의 국가대표로 뛰는 날



김제백석초 6 | 박상화

나는 요즘 축구에 푹 빠졌다. 다음 주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는데 박지성이 그라운드에서 뒹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흥분이 된다. 선생님께서 체육시간에 배구랑 농구를 가르쳐 주셔도 나는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축구 마니아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 우리나라가 A매치 축구경기를 하는데, 태극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준비되어서 애국가를 못 부르고 경기를 시작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세계에는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사실 이란과 이라크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나라였다면 앞에서 말한 그런 해프닝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정대세라는 뛰어난 선수가 일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꼭 우리나라와 A매치를 할 때면 북한 선수로 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의 대표로 우리와 싸운다. 그럴 때면 만약 하나의 나라로 뛴다면 우리의 피파 랭킹은 정말 많이 오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정대세와 박지성이 하나의 국가대표로 뛰면서 서로 얼싸안고 골 세레모니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하나의 국가를 부르며 우리의 뜨거운 응원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나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요즘 사회시간에 역사를 배우는데,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고려로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하나인 나라가 두 나라나 세 나라로 갈라졌다가도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꼭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 특히,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10여 년 전에는 하나의 팀으로 경기에 출전한 적도 있고 올림픽 때에는 동시 입장도 했다고 하니 스포츠 외교관이 되어서 축구부터 하나의 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그리고 거의 모든 종목을 하나의 팀으로 뛰다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 통일도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스포츠라는 분야에서부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문학가들과 음악가들, 그리고 미술가들이 공동으로 작품교류도 하고 함께 역사 연구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얼마 전 고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그 주변에 문화 유적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 그 곳으로 현장학습을 간다면 책에서 보았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더욱 이해도 잘 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하니까, 통일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텔레비전에서 북한과 남한 어린이가 함께 골든벨 문제를 풀고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TV에서 공동드라마도 제작하고 남한과 북한 어린이가 같이 문제를 맞히는 것도 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류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박지성 선수는 맨유에서 테베즈와 에브라와 나라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지만 같은 팀으로 뛰고 있다. 그러면서 둘도 없는 단짝이라고 한다. 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 팀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멋진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축구도 즐기면서 말이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팀이 되면 축구 유니폼 로고와 디자인은 내 여자 친구인 요나에게 부탁해야지……. 요나야 잘 부탁해!





통일의 초석 개성공단

익산부천중 2¹ 박민과



북한이 5월 15일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북측은 일방적으로 토지임대료와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남측 기업은 공단을 떠나도 좋다며 사실상 개성 공단의 폐쇄를 경고하였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여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측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목적은 북한의 개성 지역을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설립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체가 얻는 경제적 이점은 북한의 저임금을 통한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과, 동일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노동자 교육이 용이한 점, 그리고 원자재와 생산품의 이송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점은 개성공단 근로 북한 노동자 36,000여 명이 받는 경제 이익과 북한 노동시장의 기술 향상이 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성 공단의 폐쇄는 남북한 교류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쏟은 노력에 대한 부정과도 같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시설을 더 늘려서 북한의 경제력을 상향시켜 통일을 할 때에도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다. 즉, 통일 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한 예로,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아직까지도 엄청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돈은 다름이 아니라 서독 주민들의 세금 인상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당시 서독은 유럽 제일의 강국 중 하나였고 동독도 당시 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부유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통일했을 때의 통일 비용과 그에 비례하여 세금 인상률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통일을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시장의 기술을 높여 북한 경제 향상과 통일 후 남측 기업에의 고용에도 대비하고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즘 북한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너무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개성 공단은 경제적 이득 외에도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입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그조차 위태해져 버렸다. 실패로 끝난 지난 광명성 2호 발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알기로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돈을 주민 경제에 돌렸다면 북한 주민 전체가 10년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북한은 외국과의 협상 카드를 만들기보다는 북한 스스로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남과 싸울 칼을 사기보다는 스스로 먹을 식량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이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뜻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결코 옳지 않다고 본다. 정말로 북한 주민의 미래를 위한다면 세계 정치·경제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남한과 협의해 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위해 남북한이 같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통일



군산여고 2¹번나영

요즘, 세계는 북한과의 냉전 구도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세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국제적 고립, 경제위기의 심화, 체제의 불안정 등 총체적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우리 민족은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에 함께 살면서 희로애락을 나누던 같은 핏줄을 가진 한민족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쳐 점차 우리민족이 좌익과 우익 세력으로 나뉘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급기야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각자의 나라를 꾸려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산가족 문제나 새터민의 증가에 따른 문제들로 인해 전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떨어져 살다보니 서로의 말이나 문화가 마치 남의 나라에게서 느끼는 문화충격으로까지 다가오게 되었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그리 간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심지어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남북한은 한 가족이며 조상이 같은 한민족이



라는 사실을 말이다. 친구끼리도 서로 도우면서 사는데 하물며 우리와 피가 섞인 가족과 같은 북한을 우리가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통해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때 만일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를 통해 중국과 교류를 하려는 국가들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중국과 육지로 이어진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새터민, 북한인권, 남북자문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비용으로 쓰게 되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드는 한해 국방비는 남한 210억 달러, 북한 50억 달러(2002년 기준)로 250억 달러가 넘게 된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다. 만일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남는 돈은 다른 기술 발전 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북한의 통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겠고, 둘째,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말로만 하는 통일이 아닌 정말 마음으로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서로를 가족과 같이 여겨 아껴 주고 사랑한다면 통일은 더 빨리 올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지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을 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하루

아침에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파악하는 자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해 주변국과의 관계나 세계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는 정말 통일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력이 아닌 남북한 모두가 힘을 합쳐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이란 숙제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라남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우리 할머니 생신날 _ 353
- 명선이가 보내준 초대장 _ 356
- 햄스터의 눈물어린 외침 _ 359
- 이산가족
하나언니 이름에 담긴 이야기 _ 362
- 마음으로 오는 통일 _ 365
- 한반도의 포효를 듣기 위해선 _ 368
- 할아버지의 한숨 _ 370
- 조금씩 조금씩 _ 373
- 남과 북, 마음의 울림 _ 377

우리 할머니 생신날



화순동명초 5¹박예슬

지난 4월 19일은 우리 할머니의 생신이셨습니다. 광양에 계신 아버지, 광주에 사신 고모. 가족이 모두 모이니 조용하고 한적했던 오성동 산골 마을 우리 집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은 일 년에 서너 번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우리가족 통일을 이루는 날이 됩니다.

난 이렇게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살기를 바라지만, 하룻밤이 훌쩍 지나고 또 다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나 모두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릉부릉’ 떠나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 식구는 한 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할머니는 무척 바쁩니다. 파란 완두콩은 자라서 하얀색꽃을 피웠습니다. 2~3주만 지나면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밭에 나가 독을 치고 비닐을 덮고 구멍을 뚫어 막대를 꽂아 놓았습니다.

“오메, 고추는 또 언제 심는다냐?”

하시면서, 굽어진 허리를 뒤로 젖혀 펴시지만 여전히 기억자로 굽어지신지 몇 년째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할머니, 힘들면 그만 하세요!”

“쫓쫓, 넌 속도 없냐!”

하시면서 고추 값이라도 들지 않게 하려고 힘들지만 고추농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아빠께서 계셔서 도와주시면 할머니께서 덜 힘들텐데 생각하니 ‘뚝’ 눈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도 우리 아빠와 엄마와 통일이 되어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6학년까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난 일년에 몇 번씩이라도 만나는데 이산가족들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

이산가족들이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휴. ‘참배나무에 참배 나고 돌배나무에 돌배 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면 언젠간 통일이 되겠지?”

그저께 고추와 완두콩을 심어 놓은 발두둑이 잘 정리되어 나란히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성을 들이시니까 올 가을에도 마당 가득히 고추를 빨갱게 말릴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무조건 좋은 것을 골라서 고모께, 작은 집에 택배로 부치시거나 왔다 갈 때마다 가득 가득 실어 보내십니다.

“다 우리 새끼들 우애있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일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국어시간에 태극기에 담긴 뜻을 배웠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빨강색은 음의 기운을, 파랑색은 우주 만물과 양의 기운을 그리고 검은 색 4괘는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을 배우면서 백두산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의 합성과 통일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지난 4월 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 나라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려고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주면서 함께 잘살 수 있게 돕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된다면 두렵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워 눈물 흘리는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들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군사 비용이 줄어들고 외국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하여 미국처럼 잘살게 되며 국력도 막강하게 커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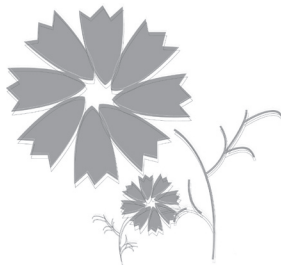
우리 가족도 통일을 이루어 살고 싶습니다. 오빠를 혼자 키우시는 아빠의 건강을 위해 함께 모여 살기를 위해 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6학년까지는 할머니 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도 있고 무엇보다 아빠께서 철없는 두 남매를 키우시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참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하시면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자라주는 고추를 정성을 다해 가꿉니다.

우리 할머니가 가족들을 위해 보내는 사랑처럼 북한에서도 우리들의 정성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남한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먼저 부족한 사랑과 정성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집 통일이 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힘차게 생활합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 오래 사세요. 손녀 딸 예술이가 할머니께 효도 할게요”.



명선이가 보내 준 초대장

장성황룡중 3 | 윤정현



윤홍길 선생님의 소설 <기억 속의 들꽃>엔 주인공 명선이가 나온다. 6·25라는 살육의 총탄과 포성 소리에 남으로 남으로 쫓겨 내려온 명선. 인민군의 비행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피난 인파에 휩쓸려 떠밀려오다 큰 다리가 있는 어느 마을에 잠시 머문다. 또래 친구를 만나 무작정 그 집에서 붙어 지내다 어느 날 폭격으로 부서진 위험한 다리로 놀러 나간다. 부모를 잃게 한 비행기 굉음은 명선에겐 죽음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 굉음을 부서진 철로 위에서 다시 듣는다. 놀라 자지러지며 중심을 잃은 명선은 끝내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 되어 떨어지고 만다.

“우리에겐 이렇게 명선이를 죽게 한 전쟁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수많은 명선이가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 한의 상처가 있다. 그 한을 위로하고 끊어진 철로를 이어 상처를 치유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수많은 명선이의 영혼을 위로할 처방, 단 하나의 치료제는 무엇일까?”

“통일이요, 통일.”

선생님의 떨리는 말씀에 우리들 모두 뭔가 비장한 마음이 되어 목청껏 소리쳤던 기억이 새롭다.

다시 6월이다. 그리고 다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식물도감에도 없는 노란 쥐바라송꽃이 시퍼런 강물 위에 흔적도 없이 떨어지고 난 이후 시간은 멈추



지 않고 달려왔다. 그러나 나의 통일은 수업 시간이 끝나면 교과서 안에 있는 이야기일 뿐 교과서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명선이의 영혼을 위로할 단 하나의 치료제가 통일임은 너무나 쉬운 정답이었고 나 혼자 풀고 고민해야 할 어려운 숙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교과서 안에서 만났을 뿐 마음속 깊숙한 만남을 바라는 명선이의 초대장에 진정으로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여태까지 우리 집은 전쟁의 상처와는 관련이 없는 집인 줄만 알았다. 그건 분명 부모님께서 나에게 과거의 이야기는 잘 해주지 않으신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은 나의 무관심 탓도 있다. 만약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통일에 대해 좀 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일이다. TV에서 6·25 전쟁에 나가 부상당한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다. 전쟁의 끔찍한 기억들이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을까? 골골이 패인 주름을 더 찡그리시며 전쟁터에서 전우들을 다 잃고 혼자 살아남으셨다 한다. 지금까지 살아 온 시간은 내 것이 아닌 전우들의 목숨 값으로 살아온 세월이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이고 그래도 저 양반은 어찌니 해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이지,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리 가서 영영이니.”

TV를 함께 보시던 엄마께서 조용히 하신 말씀이다. 엄마의 작은 아버지니 나에게겐 작은 외할아버지인데 얼굴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께서 6·25전쟁에 나가 전사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다시 되물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6.25하고 우리 집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집에도 전쟁의 아픈 그늘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와는 먼 일이었던 전쟁의 아픔이 엄마의 마음에 오래도록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고 안타까웠다. 지금까지 나에게서는 그다지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던 통일도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아무 것도 몰랐던 내 자신이 한심하여 부끄럽기까지 했다.

아마도 나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통일이기에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절실할 것도 없는, 그래서 밋밋하고 심심하게 통일이라는 낱말만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차리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는 지금의 나같은 사람도 많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엄마의 말없는 상처가 내 마음 속으로 아프게 들어왔듯이 명선이의 아픔이 나의 마음속에 슬며시 비집고 들어온다.

“이제 나의 아픔을 너와 진정 나눌 수 있을까?”

명선이가 나에게 묻는 말이었다.

“왜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지? 멈췄던 철로 위를 기차가 왜 다시 달려야만 하는지?”

떨리는 명선이의 목소리였다. 바로 귓가에서 질책하듯이 묻는 명선이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다.

눈을 감았다. 노란 쥐바라승꽃 명선이가 느꼈을 아스라한 추락을 보듬어줄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은 오직 하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을 보태고 열망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힘주어 적어 넣었다. 명선이가 보내 준 초대장에 이제야 진정한 만남의 약속을 한 것이다.



햄스터의 눈물 어린 외침



장흥실고 2 | 문지혜

모른다. ‘남북분단’,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산가족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 가득히 피투성이로 얼룩졌을 상처들의 깊이를. 작은 상처 하나에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온 집안을 뒤져서 기어이 약을 찾아내 바르고야 마는 내가, 감히 그들의 마음을 안다 쉬이 말할 수는 없다. 반평생 넘게 지워지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처는 내가 살아온 18년동안, 아니 내 평생의 아픔을 모두 합쳐도 다 덮기에 무리일 테니까. 그러나 비록 그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만은 분명하다.

얼마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한창 개구쟁이 같았던 나의 어린시절. 동물을 무척 좋아하시는 아빠 덕분에 어려서부터 강아지, 돼지, 거위, 닭, 토끼 등을 많이 키웠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손에 들린 작고 귀여운 녀석들을 보았다. 아빠 주먹만한 놈부터 내 주먹만한 놈까지 생김새가 우리 가족마냥 서로를 꼭 닮은 판박이였다. ‘햄스터’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녀석들은 해바라기씨를 가장 좋아했고, 엄청 맛있게 먹어댔다. 녀석들의 앙증맞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마침내 아빠를 졸라서 제일 작고 귀여운 햄스터 한 마리를 내 방에 가져다 두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철이 없는 나머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하게 될 줄도 모른 채 말

이다. 그날 저녁, 나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폭신한 보금자리도 마련해 주고, 물도 새로 갈아 주었지만 무슨 일인지 도통 놀지도 먹지도 않은 채 밤새 칭얼거렸던 것이다. 그렇게도 좋아하던 해바라기씨를 줘도 마다한 채 날이 새도록 안절부절 어쩔줄을 모르며, 몹시 불안해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하루도 안되어 함께 있었던 햄스터들에게 돌려보내 주었는데,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즐거이 어울리며 잘 뛰어노는 것이었다.

‘아, 어쩌면 녀석의 부모, 형제일지도 모르는데, 단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심하고 녀석에게 부끄러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왜 다시 가져다 놓았느냐”는 아빠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아빠에게 나의 그릇된 행동을 털어놓으니, 빙긋이 웃으면서,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그 말 한마디가 내 머리 깊숙이 들어와 오래도록 메아리를 쳤고,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밤새도록 가족을 찾아 헤매던 녀석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하물며 동물이 이럴진대 사람은 오죽하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원망조차 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은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을 어떻게 지낸 걸까? 기나긴 시간과 외롭게 싸우며 힘들었을 그들은 그동안 불평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의 혈고 혈어서 문드러졌을 마음에 난 상처를 위해 한번쯤 뒤돌아 봐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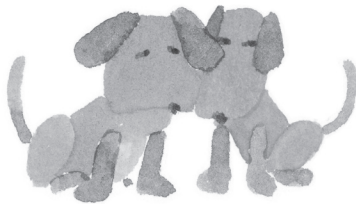
솔직히, 내 눈에는 남북통일을 놓고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띄어만스럽게도 비친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요즘 현대인들의 또 다른 이면을 보는 것 같고,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떼어 놓았던 햄스터가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이념을 떠나서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사실 하나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드물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갈라졌을 뿐 한 뿌리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TV와 같은 방송매체를 통해 남북한간 스포츠 대결을 볼 때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보다 모두에



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기아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들었다.

바라건대, 한반도 전체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으면 한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간에 뭉친 불신과 의심을 풀고, 하루빨리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날의 과오를 씻듯이, 각 골통한했을 이산가족들의 마음까지도 깨끗이 씻을 수 있길….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밤새도록 울부짖던 햄스터의 뜨거운 외침이.



이산가족 하나언니 이름에 담긴 이야기

곡성중앙초 6 | 조화진

요즘 친구들 대부분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편이다. 나 역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다. 남북통일 그리고 이산가족의 뉴스 등을 들으면서 나오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그 생각이 크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4월 19일 일요일 제주도에 사는 노총각 외삼촌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외갓집에 갔다가 외삼촌 하나언니와의 대화 도중에 언니 아빠인 서울 큰 이모부가 개성이 고향인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큰 이모부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이후에 개성에서 부모님 품에 안겨 서울로 오셨다고 한다. 그때 이모부 가족들은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다고 한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모부의 부모님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서울에 넘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날 수 없는 북에 계시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평생 눈물을 흘리시는 이산가족인 서울 큰 이모부의 어머니께서는 ‘가족이 헤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이모와 이모부에게도 자녀를 하나만 낳을 것을 강요하고 그 하나만 낳은 손녀딸의 이름도 “하나”라고 지었다고 하셨다.



하나언니의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슴을 울리는 묘한 감정과 설움이 복합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그동안 이러한 사연을 알지 못하였을까? 나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살고 있고 하나언니는 서울에서 지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하나언니의 미니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서 자주 대화를 했었는데……”

내 자신이 그만큼 이산가족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와 개성에서 여고를 졸업하신 멧쟁이 할머니와 아빠의 이산가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고생들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하나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후회가 되고 내가 미워졌다. 설마 언니가족이 북에서 내려온 이산가족이었을 줄이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였다. “항상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언니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있게 들어주었다면…….

결혼식을 끝내고 월요일 아침 완도로 돌아오는 한일 카페리호에서 아빠와 엄마께 하나언니 가족에 대한 사연을 여쭙어 보니 두 분은 모두 알고 계셨다.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는 원망섞인 질문에 아빠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화진이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하나언니 가족은 북한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날 떡국 대신 만두를 먹고, 차레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각 휴전선 앞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해주었는데” 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기 자신처럼 가족끼리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손녀의 이름을 짓는 하나언니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가슴 아프다. 북한의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손녀딸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으셨을까?

이산가족인 할머니의 이러한 고통이 손녀까지 내려와 나이 어린 외사촌 동생에게까지 외로움을 호소하는 언니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언니 가족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산가족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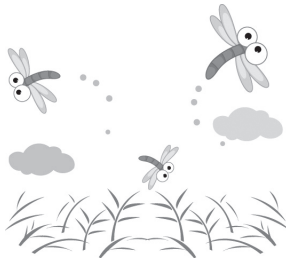
하나언니를 통해 귀찮게만 여겨졌던 3명의 동생들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언니와 가족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국민들이 이산가족들의 현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하나언니 할머니같이

나이 드신 어른들의 고향 방문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나와 같은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이 좋게 지내며 열심히 공부한다. 둘째, 물건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셋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대하여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평화 통일에 한 발자국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언니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그분들의 고향인 개성에 가서 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어린 장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동네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할머니와 이모부, 이모 그리고 하나언니의 활짝 핀 웃음이 담긴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오는 통일



순천왕의중 2¹이연서

“아아, 조심하라우. 그림자 넘어왔어.”

대립과 긴장의 연속인 분단의 아픔이 가장 잘 와 닿는 곳. 한 핏줄의 형제끼리 중무장을 하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분단의 상징적인 공간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동경비구역(JSA)’ 중 긴장된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고 친근하게 바꿔주는 인민군 역할 배우의 재치있는 대사이다. 579만 5천 820명, 약 580만 명이라는 놀라운 인파를 극장으로 끌어들이었던 이 영화,

이 영화가 이토록 놀라운 흥행 기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한 배우들의 출연? 어마어마한 제작비?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 ‘공동경비구역 (JSA)’ 이라는 영화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 남북분단이라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특수한 환경과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표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갈망은 이 영화 외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면에서 나타나는데, 남북분단 현실을 그린 영화의 잇단 흥행과 김구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의 만년 베스트셀러 등극, 끊임없이 개최되는 통일관련 행사와 책 출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통일을 바라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

까? 또,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나?’ 즉, 통일의 필요성을 물어본다면, 단일민족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커녕 ‘통일반대’라는 어처구니없고도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통일 논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국민 모두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일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은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한 민족, 한 뿌리, 한 겨레로서의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며, 다가오는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통일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며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을 염려하는데, 이는 통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비용을 걱정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분단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며, 통일이 되면 통일로 인한 이익들이 많다는 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투입할 수 있고,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대륙과 연결되어 생활 영역이 넓어져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잘사는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 이득보다도 함께 살던 형제가 헤어졌으면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통일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맞이해야 할까? 앞에서 예로 들었던 독일 통일사례는 통일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해야 통일 이후에 후유증이 적다는 교훈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통일보다는 마음의 통일을 먼저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자세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위해 가져야 할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자세란 무엇일까?



첫째, 한반도는 물론 이 세상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통일에 다가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익명성으로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통일이라는 어려운 문제까지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세계는 지금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통일 문제는 결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국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의 변화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무조건 외세라 하여 적대시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이 우리의 통일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단 기간동안의 이질성을 서로 인정하고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 심혈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 속에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남북통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별적인 생각은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식량난을 비롯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물자의 나눔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을 통해 민족간 화해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

이처럼 우리들은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을 바로 알며, 이해와 화해 그리고 나눔의 정신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완벽한 제도의 통일보다 마음의 통일을 먼저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의 변화를 도와 가며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풍경이 있으면 맑은 소리 울려나고, 궁노루가 있으면 향내가 풍겨난다.’는 북한의 속담이 있다. 원인이나 필요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의 아픔도,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통일을 향한 사회 전반의 불같은 염원이 타오른다면 ‘통일국가’라는 꿈같은 현실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포효를 듣기 위해선



순천고 3 | 임세호

지금이라도 한반도의 지도를 펴놓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토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두 앞발을 들고 송곳니를 위협적으로 드러낸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용맹한 호랑이의 포효는 우리 스스로, 호랑이의 허리에 칭칭 감긴 쇠사슬을 풀지 못하면 듣지 못한다. 이 고독한 호랑이가 대륙을 날고 바다를 달리기 위해선, 오직 우리 스스로 인내와 용기로서, 통일을 이룩해야만 한다.

통일은 우리가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는 최근 경제 성장의 벽을 느끼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이 고구려, 발해, 심지어는 고조선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고, 일본은 끈질기게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고 있다. 통일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것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통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통일 의식 함양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위정자들만의 노력과 협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의 학생들은 미래에 통일을 추진할 주축이 될 것이다. 어쩌면 통일 후유증을 감당해야 할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와 반드시 올 그날에 대해 어느 정도 정신적, 지식적 준비가 되었는가? 북한



의 정세를 정확히 알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갖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갖기 위해선 제대로 된 통일의식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서로 남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가 될, 너와 내가 아닌 나와 나임을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 개개인은 통일의 객체가 아니라 한명 한명 모두 통일을 이룩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통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근시안적, 이기적인 태도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학생들 중에선 통일은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고, 근시안적 태도로 지금 당장의 손해와 어려움을 생각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시안적 태도는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맺게 된다. 개인적 안위와 부강에 대한 욕심으로, 통일의 후유증만 생각한다면, 한반도는 수많은 기회를 잃게 되고, 개개인이 부강으로 가는 활로 또한 스스로 없애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의 비상을 알리는 축제가 될 것이다. 큰 축제이니만큼 준비 또한 길고 철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바로 회의감과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 또 통일에 대한 주체성 부족 때문에 우리 학생은 통일 준비에 소홀하다. 통일을 하기 위해선 북한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심지어 약간의 관심과 열정도 준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 준비는 시급하다. 이러한 축제 준비도 없이, 통일이 된 후에야 허겁지겁 준비를 한다면, 앞서 말한 부강은 물거품이 되고, 무질서와 혼돈과 수많은 상처의 후유증으로 우리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식을 함양한 채,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한다. 차근차근히 북한을 알아 가야, 비로소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쇠사슬에 묶인 호랑이이고, 이 쇠사슬을 끊어야 우리는 서릿발 치는 대륙을 날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강력한 힘을 얻는다. 우리 개개인은 한반도의 모습을 대변한다. 이러한 주인 정신으로 각자가 통일의 책임자가 될 때, 통일은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가능성과 열정이라는 호랑이를 키워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르 떨도록 포효할 수 있다.



할아버지의 한숨



별교초 6 | 최주이

예전, 할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볼 게 별로 없어 이리저리로 채널을 돌리고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뉴스를 보자고 하셔서 함께 시청하게 되었다. 뉴스 보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멍하게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러다가 국제 뉴스를 하는 앵커의 모습이 약간 흥분한 상태였다.

그 뉴스 내용은 코소보라는 곳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는데, 뉴스 내용이 끔찍하고, 그 곳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운 얼굴로 일그러진 모습이 보였다. 엄마를 잃어버린 듯한 어린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우왕좌왕 그곳에서 불안한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끄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셨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어두운 표정의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여쭙 보았다.

“아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다.”

“무슨 옛날 생각이요?”

할아버지는 무얼 떠올리고 계신 걸까? 궁금해진 난 할아버지한테 바짝 다가앉았다.



할아버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는데, 잠시 후 그 옛날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 때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늙은 몸이 아니라 젊었을 때였단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더운 여름 날 한가롭게 농사 일이나 좀 보고 친구들과 둘러 앉아 시원한 수박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을에 귀가 따가운 사이렌의 굉음이 들려왔지.”

“무슨 일이었대요?”

“그 사이렌 소리가 바로 6·25전쟁을 알리는 경보음이었던 거야.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졌다며 아주 분위기가 어수선했단다. 피난을 가야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참 두려웠단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아직도 두려운 표정이었다. 그 때로 돌아가신 것 같았다.

“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급히 피난을 가진 않았지만, 서울, 대전 각지에서 몰려드는 피난민들 때문에 마을이 북적거렸단다.”

그 뒤로 할아버지 마을에도 인민군이라 불리는 북한 군인들이 와서 밥을 빼앗아 먹고 위협을 하고, 사람들은 혹시라도 다칠까 두려움에 떨어야했다고 하셨다.

“그뿐만이 아니었지. 젊은 남자들은 전쟁에 참가하라고 많이들 끌려갔어. 난 네 할머니가 용케도 잘 숨겨줘서 군인들 올 때마다 몸을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평생을 두고 아끼던 친구놈이 끌려가 전쟁터에 간 후 지금도 소식을 모른다.”

그 친구분 말씀을 하시며 할아버지의 얼굴은 매우 슬픈 표정이셨다. 나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꼭 그 전쟁 속에 있는 듯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3년만에 전쟁은 휴전 상태로 바뀌었지.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던단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대포소리, 전투기의 굉음, 그리고 그 전쟁이 남긴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이나 모두 아주 많은 시간을 힘들게 살아야 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또 나라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와 사람

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 때는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 가족 살리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살면서 나이 들면서 그 때 전쟁터로 끌려 나간 친구 생각이 간절하구나. 통일을 해서 혹시 북한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친구 얼굴이나 봤으면 하는 게 이 할아버지 소망인데 말이다.”

할아버지께서 그 뉴스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같았다. 전쟁이 마음 속에 남긴 그 상처, 그리고 친구분에 대한 그리움이 그 뉴스 때문에 선명하게 되살아나셨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그 슬픔만은 이해할 수 있을 것같았다.

밤에 잠이 들기 전, 6·25전쟁에 대해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어떤 블로그에 ‘통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주제로 글이 작성된 것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 놓은 댓글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이 훨씬 많았다. 뭐하러 그 힘든 통일을 해서 나라 발전을 막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사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나도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함께 지내야 그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 수 있다. 북한과 우리나라도 가족과 같다. 한민족이니까 말이다. 가족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것이다. 북한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경제 발전이니, 나라 발전이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아픈 상처를 서로 치료해 주고 나서 발전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더 이상은 뉴스를 보며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조금씩 조금씩



영광염산중 1 | 강주현

나는 통일 글쓰기를 할 때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우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넘어오신 북한 사람이셨다. 원래는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나셔서 생활하다가 전쟁으로 인해 아무 가족이나 지인도 없이 남한으로 넘어오셨단다. 그 이유로 인해 남한에서 군대를 4년동안이나 근무하셔야 했으며 그 후 할머니를 만나 힘들게 사시다 약 18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다른 가족들이 항상 궁금했다. 몇 명이나 있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와 닮은 구석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 가족들 또한 할아버지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보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좋지 않다. 한동안 북한의 핵문제로 떠들석하더니 인공위성 사건으로 인해 많이 풀어졌던 북한과의 사이가 훨씬 더 긴장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통일 전에는 서독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통일 후 서독이 동독에 대한 물질적, 문화적 지원으로 성장이 잠시동안 멈춰 있던 적이 있었다. 독일의 경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러할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은 점차 서독과 동독간에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차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갈라지기 전까지 따뜻하고 평야가 넓은 중남부 지방이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식량 공급지의 역할을 담당했고, 산지가 많은 북부 지방은 임산물, 광산물 등 원료 및 동력 자원의 공급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국토가 분단되면서 이러한 조화가 깨졌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합치게 된다면 다시 예전의 조화를 이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 국가들간에 두만강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또한 우리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의 국력 또한 강해질 것이다. 영토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인구도 크게 늘어나면 제품을 생산하여 팔 수 있는 국내 시장이 늘어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 국내 시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막대한 국방비를 비효율적으로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져 국가 재정 운영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 팽배한 긴장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더 많은 외국 자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말고도 통일이 되면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통일이 되어 남한과 북한에 뿌뿌이 흩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반세기가 지나버린 분단으로 이미 많은 이산가족들이 우리 할아버지처럼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눈물 흘리며 생을 마감하고 있다. 아직도 '통일'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통일을 하루빨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에는 이산가족도 없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과 북의 모든 민족구성원은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인 통일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통일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 사회의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세계의 국가들이 남한과 북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립과 화합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국제 관계의 현실이다. 남북문제는 결코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남 북의 통일 문제는 주변국들과도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통일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화해와 나눔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된 민족의식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서로에게 총을 내미는 적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는 ‘나눔’을 통해 그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북한을 위해 정주영 회장이 소와 많은 물자를 지원해 준 것처럼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물자의 나눔을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나눔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우리들의 물자 나눔은 북한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전달되어 얼어 있던 북한의 마음을 녹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결국 화해와 평화를 전해주는 비둘기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평화적 통일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통일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조금씩 조금씩 통일이라는 결승점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멀리 보이던 그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비록 우리 할아버지는 두 나라가 결승점에 함께 들어오는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고 싶었던 우리 할머니의 소망은 꼭 이뤄져 그 결승점에서 웃음 지으셨으면 좋겠다. 나 또한 이산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통일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 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화 통일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다. 이 '꿈'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도하며.....





남과 북, 마음의 울림



신안비금고 2' 조은행

나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현실이 솔직히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는다. 분단 이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안부를 묻는 이산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주위에 북쪽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면,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주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북한과 통일이 되어야만, 우선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국방비로 들어갈 돈이 절약되며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만나면 큰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온 바다. 하지만 나는 정치적·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다.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위태했는지, 혹여나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 여러 주장이 분분하지만 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북한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심리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럴 때, 다짜고짜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을 운운하시는 분보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를 물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 잘잘못을 이야기 해 주시는 분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은가. 이처럼 아무리 주위 나라들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경계한다 하더라도 우리 남한은 우선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대화를 나누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통일에 성공한 독일을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독일의 통일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동독과 서독의 주민 모두가 모든 역경을 함께 책임졌기에, 지금의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그 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통일 초기에 서독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독 주민들의 복지까지 분담하느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통일이 국민들의 지지로 이루어낸 것이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도 성급한 통일보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분단 후 56년에 접어드는 지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거의 무감각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하여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다양한 공익 광고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의 중요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정치적·경제적으로 다



른 체제 속에 살아 왔다. 그래서 우리는 동질적인 문화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이질적인 문화도 가지고 있다. 이 이질적인 문화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어렵게 남한을 찾은 새터민들이 이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새터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은 곧 북한 주민들 또한 힘겹게 느낄 것이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달라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체육 대회를 통해 친목 도모를 하듯, 남북간의 다양한 스포츠 경기나 한 무대에 남한 가수와 북한 가수가 합동 무대를 가지고, 남한의 배우와 북한의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 등의 방영은 사람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며 점차적으로 남과 북의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로부터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민족 아니겠는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메아리'처럼 우리가 먼저 북한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선다면, 그 마음이 메아리가 되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울려서, 언젠가는 우리도 통일의 기쁨을 노래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 날을 기다리며, 나는 또 다른 우리 민족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본다.





경상북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통일의 팝콘 꽃을 피우자 _ 383
- “하느님, 이곳 북조선에도 오소서” _ 386
- 할아버지의 노래 _ 389
- 휴전선 너머의 우리 겨레 _ 392
- 통일예의 작은 꿈 _ 394
- 대동강 너머 통일의 노래는 흐르고 _ 397
- 할아버지의 소망 _ 400
- 다시 가고픈 금강산 _ 402
- ‘통일’이란 단어를 알게 된 그 때 _ 405

통일의 팝콘 꽃을 피우자



관호초 5 | 유정희

“아들아, 오늘 축구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웬 축구?”

“있잖아. 남한 북한 축구말이야. 우리나라가 꼭 이겨야 하는데…….”

“설마~ 우리나라가 꼭 이기겠지? 북한 그 놈 아~들, 축구 못한다!”

“이상하다? 남한, 북한 전부 우리나라 아닌가?”

우리 반 아이들은 남한만 우리나라이고 북한은 남의 나라처럼 말한다.

아버지께 여쭙어 보니

‘남북으로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어 그런가 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이다. 또한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전쟁을 많이 겪기도 한 시련 많은 민족이기도 하다.

1953년 휴전이 되었으니 56년동안이나 분단국가로 지내온 셈이다. 이렇게 긴 세월을 분단국가로 지내다 보니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 남한과 북한이 하는 축구 경기를 볼 때도 같은 민족인데도 남한은 우리나라이고 북한은 남의 나라같은 느낌이 들어 남한이 이기면 꼭 다른 나라를 이긴 것같아 기분이 좋다. 심지어는 “통일을 하면 뭐가 좋은데?”

하면서 이대로 살자는 사람들도 있다.

만일 가족이 헤어져 53년을 살았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까? 평생 보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해도 기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작년에 2박 3일 야영을 갔을 때 부모와 가족이 그리워서 울기도 했는데…….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은 헤어져 살 수 없으며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꼭 통일하여 한 가족처럼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며칠 전 우리 학교 뒤에 있는 과수원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 나는 복숭아꽃처럼 자그마한 흰 꽃만 보면 3학년 때 보았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의 팝콘 꽃이 생각난다. 어떤 사람의 실수로 옥수수 더미에 불이 붙어서 옥수수가 팝콘처럼 하늘 위로 터지는 광경인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스워서 배꼽을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꽃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었다.

‘웰컴 투 동막골’ 영화는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과 미국 군인이 한국전쟁을 하다가 길을 잃어 ‘동막골’이란 곳에서 만나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는 영화이다. 처음에는 싸움도 많이 하고 원수처럼 지내지만 서로서로를 알아가면서 친해진다. 결국 위험할 때 서로 힘을 합쳐 위기에 처한 동막골 마을을 구해낸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며 마음을 모아 이겨내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그 영화에서 팝콘 꽃이 그동안에 싸우고 다투었던 남한과 북한사람들이 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같아 기분이 참 좋았다. 또한 북한 사람이 정 많고 웃음도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느꼈었다.

영화에서처럼 남한과 북한도 서로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싸우기도 하고 서로 미워할 때도 있겠지만 자주 만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서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나는 어려서 자세히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북한이 여러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아 미사일 실험을 한다. 북한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신경을 건드리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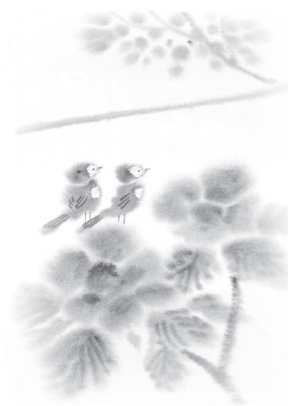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에서 친구와 싸울 때면 주먹까지 오고가지만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해도 결국은 친해진다. 북한도 우리 친구와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남북한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사이좋은 남북한이 될 것이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다.

‘웰컴 투 동막골’ 영화에서처럼 처음에는 서로 싸워도 대화를 하면서 노력하면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통일의 팝콘 꽃이 필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한 가족이다.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적인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 우리 민족이 같이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



“하느님, 이곳 북조선에도 오소서”

형곡중 2 | 강유진

얼마 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무기와 전투기, 전투함 등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내부적으로는 비참한 현실이 북한 주민과 함께 한다. 그들에게 인간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는 없다. 자기 의사대로 이동하거나 종교를 갖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의 생활을 묘사한 ‘크로싱’이라는 영화와 북한의 어느 탈북자가 직접 제작한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보았다. 모두가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묘사한 작품이었다. 국경을 넘는 것은 간첩으로 분류되어 가족들까지 모두 흩어져 끝내 모두 죽게 되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의식 없이 나라에서 시체를 수거해 공동 매장했다. 난민 수용소는 어려운 주민을 돌보고 보살피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감옥이었다. 엄청난 노동에 먹을 것은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탈출하지만 잡힌 사람들은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구별 없이 모두 맞아 죽거나 총살을 당하게 된다. 배고픈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려다 잡힌 만삭인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고 갖은 구타를 하기도 했다. 수용소에서 어느 한 사람이 탈출하다 잡히면 한 달간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벌레를 잡아 먹으며 울부짖었다. 그러한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창고의 식량을 훔쳐 먹다 걸리면 단두대로



손을 잘랐다. 이렇게 비극적이고 잔인하고 메마른 현실이 안타깝고 분노가 치솟았다.

“하느님 이곳 북조선에도 오소서, 이곳 요덕에도 오소서, 자유와 평화를 주소서” 라는 노랫말이 아직도 나의 귓가에 맴돌고 있다. 그들이 하느님을 찾는 노래를 들으며

‘하느님이 계신다면 이토록 처참한 북한의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까?’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영상이 아닌 북한의 잔혹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 고전문학 중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 석에 재물이 되어 팔려 갔듯이 오늘날 북한에는 ‘두만강 심청이’가 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의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는 것이다. 가난과 배고픔, 영양실조로 실명되고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고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적은 돈에 팔려가는 것이다. 또 돈을 벌기 위해 험한 별목공으로 일한 이들의 임금은 강제로 착취당하기 일쑤이고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시달리다 현장에서 죽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찾아 나선 많은 탈북자들 또한 순탄하지만은 않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어느 탈북자는


“노동 현장에서 주먹과 몽둥이로 노예처럼 사육되었고 탈북에 실패한 어머니와 형이 사형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며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목이 메어 증언하기도 했다. 그 증언을 들으며 내 가슴에 큰 돌이 ‘쿵’하며 떨어지듯 가슴이 아려왔다. 탈북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중국이나 태국에 숨어 지내며 갈 곳을 잃은 채 호구(戶口)가 없어 ‘유령’이 된 아이들도 많다. 교육 제도, 의료 문제 등의 혜택은 물론 제도적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사람이면서 사람이 증명되지 않은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저항하다’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 그런 감정 없이 북한 공산당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독재정치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 이 모두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같은 통치 아래 같은 이념을

가지고 함께 살아 온 한 핏줄이다. 작년까지 북한 납북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잡히면 짐승보다 못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북한동포 그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뭉둥이 찢질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다. ‘열 번 짝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꾸준히 북한 동포의 인권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어야 한다.

“하느님, 이곳 북조선에도 오소서. 자유와 평화를 주소서.” 라는 그들의 메아리치는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할아버지의 노래



김천중앙고 2¹이규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나를 귀엽게 보아주시던 한 할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이다. 어느 날, 50여 년을 강원도 삼척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내가 사는 김천에 불쑥 나타나셨다. 할아버지는 늘 혼자이셨기에 표정에서 외로움이 묻어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할아버지는 이동수라는 분이셨는데 나는 그 분을 ‘동수할아버지’라 불렀다. 어른들은 장로님이라 불렀지만, 나에게서는 할아버지란 존칭이 편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꽤 귀여워해 주셨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늘 혼자였고 가족이 없었다. 얼마 전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보았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누구든지 그 모습에서 수많은 세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 것같았다. 좀 더 그런 느낌을 솔직히 말하면, 그 사진을 건네받아 한참 들여다보시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이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 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향민이지. 6·25 전쟁중에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할머니와 세 살 먹은 아들을 찾지 못하게 되어 지금까지 불행의 길을 걷게 되셨지!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까스로 혼자 월남하셨단다.

그렇게 시작된 고통과 그리움의 세월은 반세기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그 후, 부모님은 할아버지 댁을 가끔 들르셨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반찬을 준비하고 옷을 사서 찾아가시던 모습도 생각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지셨다. 할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통일이 되면 할머니와 자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기다림 속에 다시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젊은 날을 쓸쓸하게 보내셨다고 한다. 철이 든 지금 생각하니 분단의 세월을 따라 한 많은 삶을 사시느라 머리가 유난히 하얗게 세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기다림도 접고 사실 무렵 정부에서 남북 이산가족에게 상봉의 기회를 준다는 연락이 할아버지께 왔다고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할머니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고 평생 간직해 온 할아버지의 꿈은 부서지고 말았다. 결국 할아버지는 절망 끝에 몸도 급속히 쇠약해지고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졌다. 움직이기가 불편해지신 할아버지는 힘겹게 최근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쉬시는 것을 보았다. 홀로 생활하신 할아버지가 맘에 많이 걸리셨나 보다.

이것이 바로 분단의 아픔이고 상처구나! 나는 말로만 듣던 이산가족 이야기를 근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김천에서 보았고 이러한 분단의 흔적과 아픔을 안고 살다 간 이웃이 있었으며 그 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분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특별히 할아버지는 어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분이셨는데……!

분단의 현실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생각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피를 나눈 한 민족이 서로 생사도 모른 채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방학 때, 가족과 금강산에 다녀온 일이 있다. 돌아올 때, 무뚝뚝하기만 하던 북한 군인이 여든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또 오시라요.’ 하고 인사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분단의 세월이 60년이나 흐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이산의 아픔 속에 살아가시는 할아버



지, 할머니의 나이는 늘어만 가고 견디기 버거운 분들은 꿈을 접은 채, 그렇게 훌쩍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 아픔을 잊고 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미움은 또 다른 아픔을 만들 수밖에 없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할아버지의 노래를 듣는다.

‘꽃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우리 겨레



성산초 6¹제민아

4학년 여름방학에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났다.

“와 신난다.”

“민아, 여기는 다른 관광지와는 다른 곳이란대. 그렇게 마냥 좋아하지 말고 아버지 말을 들어 보렴.”

철없이 신이 난 나를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 곳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통일전망대였던 것이다. 커다란 망원경으로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휴전선과, 북한에 있는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과 해금강도 보고 희미하지만 북한 사람들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같은 나라인데 남북으로 갈라져 멀리서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안타깝고 속상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오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며 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평화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한 핏줄 한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이다. 1990년에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어 하나의 독일을 이루었다. 이처럼 우리도 통일을 이루어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지 50여 년이 지났다.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게



된다면 서로의 생각, 말, 풍습이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져 어찌면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통일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달라지기 전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남북한에는 가족이나 친척간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이 많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가족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매우 힘든데 평생을 보고 싶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다. 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생명과도 같은 분들과 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런 경쟁은 서로에게 손해만 될 뿐이다. 경쟁심을 없애고 힘을 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평화적인 방법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폭력을 선택하면 과거처럼 우리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들고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 또한 우리의 자존심이며 뿌리인 문화유산이 파괴된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통일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남한과 북한의 우리 겨레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이다. 북한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북한을 도와주고 남북한의 언어나 풍습, 문화를 서로 나누며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평화통일은 그리 멀리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전망대 망원경으로 바라본 철조망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이 우리나라로 합쳐지길 바란다. 하루빨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 북한 친구의 손을 잡고 애국가를 함께 힘차게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통일에서의 작은 꿈



경북체육 3' 김혜빈

싱그러운 나뭇잎들은 그 푸르름을 더해만 가고, 살랑이는 바람도 더운 기운을 풍기는 5월, '별써 1년 중 거의 반이 지나갔구나' 하는 아쉬움에 달력을 넘겨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에게서는 슬픔을 간직한 6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족끼리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겨누며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온 지 거의 6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우리는 허리 잘린 채 한숨만 내쉬면서 민족의 한이 되어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인권 존중을 해 준다면 될 것 같은데, 좀처럼 다가설 듯 다가설 듯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큰 욕심으로 인하여 남북통일이란 큰 과제를 풀지 못한 채 같은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인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쯤 중단된 상태인 금강산에서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가슴이 싸해질 만큼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언제 다시 만날꼬.'

만남의 기쁨은 잠시뿐 곧 이어질 작별의 슬픔이 준비하고 있기에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분단의 현실이 가져오는 그림자가 너무 크고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60여 년이란 긴 세월동안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서로



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통일을 하기엔 우리들의 마음의 벽이 너무도 두꺼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먼저 우리들은 북한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경우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통일 후의 혼란과 통일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일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키우는 일에 보다 힘써야 합니다.

또한 화해와 협력하는 자세로 손과 손을 맞잡고 마음을 함께 하며, 나란히 대화에 참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때 통일의 그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회담을 하고 대화가 안되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지난 날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좀 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두 나무로 맞대면서 만나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을 안은 채 쓸모없는 공간 차지에 시간과 힘을 쏟느니 서로가 하나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더 사랑스럽고 의미있는 일이겠지요.

해마다 6월이 되면 6·25나 호국보훈에 대한 여러 행사를 개최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지만 정말 참혹한 전쟁 중 하나라는 것을 도덕 시간중에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동영상 수업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켜 주신 호국영령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해 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통일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이라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통일을 향한 평화

의 청사진을 차곡차곡 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그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책에 적혀 있을 때마다 우리만 이해한다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용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들도 분명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껍데기뿐인 이념과 거짓을 버리고 넓은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서로 다른 가지가 하나로 자라나는 나무의 모습처럼 서로 하나되는 그 날을 꿈꾸어 봅니다.



대동강 너머 통일의 노래는 흐르고



이서고 2¹ 박하희

‘비 갠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는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을 더하는 것을.’
정지상 시인의 ‘송인’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대동강에서 사랑하는 임을 떠나 보내면서 그리운 정을 노래로 표현했지만, 분단된 대동강의 모습은 쓸쓸함만 한층 강조되는 느낌이다. 아직도 대동강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눈바람 불어오는 곳을 보며 눈물짓고 있다. 동해 드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던 설움의 목소리들이 한반도 허리선을 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쓸쓸히 대동강 물만 더할 뿐이다.

탈카닥 탈카닥 키보드 소리, 공중을 쏘아다니는 전자파, 흐린 눈동자 속에 박힌 돈과 돈, 그리고 돈. 서러운 이들의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자기 가정, 자신 돌보기에 급급한 사회에서 정(情)은 사치가 되어버린 것일까.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경제에다, 옆 자리도 돌아보기 힘들 만큼 바쁜 세상에서 ‘통일’이란 정말 뒷전이 되어버린 것일까?

초등학교 시절,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언니의 방에서 이상한 지도를 보았다.

“언니, 이거 어느 나라 지도야?”

“이거? 우리나라 지도잖아.”

지도는 잘려 있었다. 하얗은 38선에 의한 반쪽짜리 한반도였다.

“그럼 나머지는?”

언니는 나의 물음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언니는 영어 공부를 하러 학원으로 가버렸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언니의 그 태도는 아직도 가슴 한 구석의 지울 수 없는 자국으로 남아 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정신, 우리 민족은 돌아볼 생각도 않고, 그저 사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친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세련된 사람이 되려고 바다 넘어 다른 대륙으로 허리 부러지도록 절을 해대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굳건한 통일 의식 대신 타국의 정신, 타국의 문화에 폭 빠져 있다.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관심’이다. 얼마 전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가슴을 졸인 적이 있었다. 물론 질타 받을 일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만 뜨겁게 들고 일어났을 뿐, 북한 정부의 고위층과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의 삶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북한 서민층들을 위해 진심으로 안타까워 할 줄 아는 가슴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만 통일문제를 맡겨두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눈을 막고 귀를 감고 코를 닫는 일이다.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때만 잠깐 북한을 들여다보는 냄비 근성은 이제 희미한 연기로 스러져야 할 시간이다.

“너, 성씨가 무어니?”

“밀양 박가입니다.”

“오오, 기래? 나두 박가인데, 거 참 반갑고나!”

작년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때 금강산에서 만난 한 아저씨와의 대화이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북한말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 단지 사투리를 쓰고 계실 뿐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우리에게 국경이란 없었다. 지리적으로는 38도선을 가로로 길쭉하게 품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든 철조망이든 그런 것 따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단군의 혼으로 하나하나 이어진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는 아리랑 노래의 고운 선율 아래로 함께 눈물 짓는 가족이다. 회색빛 시멘트 벽, 깨진 창문 사이로 내밀던 얼굴이 눈에 인다. 콩 우유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북한의 고아원 아이들. 마른 풀 옆의 비쭉비쭉 뼈가 드러나는 누런 소. 현실은 어두운 밤이다. 그러나 그들도 머리맡의 푸른 하늘을 굽이굽이 펼쳐 '통일'이라는 소망의 수를 놓고 있겠지?

지금도 백두대간은 굽이굽이 물결쳐 우리네 가슴 속을 흘러가고 있다. 그 물결 위로 '사랑'이라는 순수를 띄워 보낸다.





할아버지의 소망



상리초 6 | 정지현

학교에서 돌아오니 부모님께서는 들에 일하러 가셨는지 집에는 아무도 안 계셨다.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을 보기로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텔레비전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할아버지 집에 많은 새들이 몰려 오는 광경이 제보되어서 방송에 나온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 보니 할아버지는 옛날 조상 때부터 새를 키워 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새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먹이를 주면 날아갔던 새들은 다시 찾아 날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이 왠지 행복한 것보다는 쓸쓸해 보였다. 혼자 사는 모습도 그랬다. 그런 나의 생각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사연은 북에 두고 온 할머니 아니 예전에는 예쁘고 젊은 아내였을 것이다. 서로 분단이 되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 생사 확인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함께 해 온 늙은 새 한 마리와 통일전망대에 오른다고 하였다. 멀고도 가까운 북녘 땅에 생사도 모르고 세월이 흘러 얼굴도 희미해져 버린 할머니께 편지를 쓴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나는 언제 죽을 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한탄을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사랑처럼 하나 되기 전에 할아버지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나도 부모님과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걱정되고 보고 싶은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남과 북이 갈라진 지 60년이 되었는데도 한결같은 그리움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새의 다리에 묶어 북녘 땅으로 날려 보낸다고 하였다. 혹시나 할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이다.

지금의 내 생활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통일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전쟁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옛날의 젊은이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그 많은 아픔을 마음 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날려 보는 그 편지가 북녘 땅 어디에 계실 할머니에게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송을 보는 동안 두 손 모아 간절하게 60년 분단의 아픈 옛 기억은 사라지고 오직 통일이 이루어져 할아버지 가슴 속에 남아 있는 할머니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또 많은 이산가족의 눈물이 활짝 웃은 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 가고픈 금강산



신라중 1 | 강태구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아버지를 따라 금강산 여행을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혹시 두고 가는 것은 없는지 북한에 들어갈 때 꼭 챙겨야 되는 여권같은 것들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 또한 가져가면 안되는 물건도 있어서 여러 차례 가방을 확인하였다. 오후 한 시가 되어 버스를 타고 경주에서 출발했고 6시간을 달려 속초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동해를 보며 달리는 동안에 38선도 지나가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6·25 전쟁이 나기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는 곳도 지나가니 마음이 긴장이 되는 듯하였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새벽 일찍 일어나 강원도 고성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남쪽 사람들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교육도 받는 곳이 있었고 외국에 갈 때처럼 출국이나 입국을 하는 것과 같이 짐도 검사하고 여권을 가지고 얼굴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른 나라에 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절차 없이도 북한과 왕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할 가이드를 만나고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들었고,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출발했다. 비무장지대를 지나갈 때는 50년이 넘도록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냥 한적한 시골같은 느낌이었다. 새들은 남북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10분 정도를 달리자 우리 구역이 끝나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무가 거의 없는 바위산들이 보였고 군인들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총을 멘 자세로 한명씩 서 있었다. 북한 지역이라는 생각에 무섭기도 하고 긴장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곳에서 또 한 번의 검열을 거쳤다. 무표정한 북쪽 사람들을 보자 나도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얼마 후에 도착한 금강산은 정말로 크고 아름다웠다. 작은 버스로 옮겨 타고 굽이굽이 돌아갈 때 키 큰 금강송들이 멋지게 자리 잡고 있었고, 큰 계곡들을 따라 오르니 비룡폭포가 있었다. 물들은 맑았고 아주 높은 봉우리에서 중간 중간 돌에 부딪히며 쿵쿵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구룡폭포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이 굉장히 세고 그 밑에도 13미터 정도의 깊이가 파여 있다고 했다. 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풍경도 너무 멋져서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고,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금강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도 참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안내원 누나들이 작은 바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노래도 불러 주어서 북한 사람들이 무섭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용기가 없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바라보기만 했다. 산을 내려와서는 식당에 들어갔다. 엄청 유명한 식당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곳에서 함흥냉면을 시켰다. 어른들은 맛있다고 북한에서 유명한 술도 한 잔씩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한복을 곁에 입은 누나들을 바라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한 노래 가사를 따라 읽어 보곤 했다. 우리처럼 사랑 노래나 댄스곡들은 아니고 나라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은 것 같았다. 친절한 누나들이 날라 준 냉면을 먹으니 너무 매워서 냉면만큼이나 물을 많이 마셨다. 돌아오는 길에는 삼일포에 들어서 역시나 멋진 호수같이 잔잔하고 맑은 바다를 보았다. 계다가 100미터 높이에 있는 다리를 건널 때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 속에 잠기게 되었다. 남북이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군인들이 무섭지도 않을 것이고, 그 멋진 금강산 폭포도 친구들과 또 구경 갈 것이고 우리를 안내한 북한 누나들과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출입국 관리를 하는 곳에서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북한이 고향인 사람은 잠시 다니러 가도 좋지 않을까? 헤어진 후에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루를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다.

요즘 뉴스엔 금강산 여행도 개성 관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쩌면 개성공단도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비록 땅이 나누어져 있어도 사람들은 왕래가 가능하고 원수처럼 노려보지 않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이 된다면 꼭 다시 그곳에 가보고 싶다.





‘통일’이란 단어를 알게 된 그 때



고령여자종합고 3¹유차영

내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고 접하게 된 것은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의 도덕시간을 통해서였던 것 같다. 그 단어는 나에게 낯설고도 어려운 것이었다. 단어의 표면적 의미로는 어려울 것이 없었겠지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나?’ 하는 물음에 대한 답, 그 이면을 알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면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유복(有福)한 세대다. 커 가면서 인터넷, 신문, 뉴스, 영화, 드라마 등 각종 대중매체와 학교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통일도 우리에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일이라고 하면 다들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뿐, 그것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얘기하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통일이 대수냐?” “통일이 밥 먹여 주냐?” “통일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또,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피하려는 경향도 간혹 보인다.

몇 년 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6·25전쟁을 배경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전쟁의 참혹함이다. 전쟁으로 인해 북한도 우리나라도 얻은 것이 없었다. 이산의 아픔과 가족의 죽음, 형제끼리 총을 겨누어야 하는 전쟁터,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남을 죽

여야 한다는 부조리한 현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모습 등 전쟁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악’의 총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형제간의 우애를 보여 준다.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동생은 형이 전쟁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제애 역시, 전쟁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극한의 상황,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쟁은 인간을 시험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이고도 잔혹한 결단을 하게 만든다. 그 결단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형의 죽음과 동생의 몸에 남은 흉터이기도 하고, 국토의 분단이기도 하며,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없는 태도이기도 하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은 이산가족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십 년 세월동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며, 통신 수단이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도 자유롭게 그리운 부모와 형제자매의 음성조차 듣지 못한 채, 안타까운 가슴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산가족들이다. 그리고 더욱 슬프고도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세대들이 점점 역사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다.

2005년 서울 남산에서 열린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참여한, 이령 할머니는 백 살의 최고령자였다. 화면을 통해 손자 손녀를 만났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했다. 55년간 그려 온 큰아들은 8년 전에 북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큰아들의 어린시절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초점 없는 시선만 화면으로 보낼 뿐이었다. 손자와 손녀를 통해서도 큰아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없다는 듯 별다른 감정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 화상상봉장에 함께 나온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다. 가족들은 “전쟁통에 생이별을 한 큰아들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100세까지 모진 목숨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하고 눈물을 흘렸다. 만일 큰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화면을 보는 할머니의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산가족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멀리 있어서 갈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남북을 나누는 선 하나로 인해 갈수조차 없는 것이다. 매년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에 신청을 하지만 모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가족들만이 상봉이 가능하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 할머니나 그의 큰아들처럼 그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되도록 빨리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의 문은 어디쯤일까?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한때는 교류와 협력이 있는 듯 화해의 분위기였다가 또 어떤 땐 냉담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의 변화들이 통일로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나에게서는 어렵기만 하다.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 통일이란 단어를 알게 된 그때처럼, ‘표면’과 ‘이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 다시, 나는 통일에 대해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경상남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손을 마주 잡고 빛나는 미래의 길로 _ 411
- 휴전선 _ 413
- 개성 할아버지의 고향 _ 416
- 통일에 이르는 길 _ 419
- 휴전선 _ 421
- 개성을 바라보았다 _ 424
- 통일을 만드는 길 _ 427
- 휴전선 _ 429
- 초콜렛의 의미 _ 431

손을 마주 잡고 빛나는 미래의 길로

마산교동초 6학년 박해린



내가 4살 때 엄마 손을 꼭 잡고 전쟁기념관을 간 적이 있었다. 너무 어렸던 나는 전쟁을 떠올리면 무섭고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였었다.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우연히 인형 크기의 작은 조형물을 보게 되었다. 인형을 너무 좋아했던 나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조형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귀엽고 예쁜 바비 인형이 아니었다. 초록색 옷을 입고 동글동글한 헬멧을 쓴 사람들은 총을 들고 서로를 총으로 겨누고 있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 나에게서는 소름끼치고 무서웠던 인형들이었다. 그리고 보게 되었던 조형물은 하트가 반쪽으로 깨지듯 반으로 나누어진 한 조그마한 나라였다. 나라 중간에 이상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았던 나는 궁금해져서 엄마에게 물어 보았다. “엄마, 저 나라는 왜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라고 묻자 엄마께서 “전쟁을 하였는데 끝이 나지 않아서 저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지.”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의 호기심은 거품이 올라오듯 보글 보글 샘솟고 있었다.

“엄마, 저 나라 사람들은 참 속상하고 슬플거야. 그렇죠?” 내가 되묻자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대답해 주셨다. “저 나라는 지금 우리 해린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해린이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해린이의 조상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저 위에 보이는 나라 보이지? 저 나라와 싸우시

다 돌아가셨어. 정말 멋지신 분이시지?” 그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는 대답은 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 주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점 내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에는 전쟁이라고만 생각하였던 6·25 전쟁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게 되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였는데 많은 국가들이 함께 도왔다. 6·25 전쟁은 3년동안이나 계속 되어 결국은 남한과 북한은 갈라지고 말았다.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늙어서서 등이 구부정하신 할머니께서 6·25 전쟁으로 헤어진 아들과 35년만에 만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빠께서 “이산가족 때문이라도 통일을 해야지 원.” 하시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아빠가 나에게 “해린아, 지금 남한과 북한에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있단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로를 만나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는 이산가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산가족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어서 빨리 통일을 하여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빠께 귀찮은 듯이 말하자 아빠께서 “해린아, 이산가족을 보면서 어서 빨리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야.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불과 몇 십 년 전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과 함께 통일을 하려면 서로를 돕고 베풀고 이해를 하여야만 통일을 할 수 있지.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들도 가족을 만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겠지?”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귀찮게 말하였던 점이 부끄러워졌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생활 방식도 비슷한 그들과 통일이 되어 손을 마주잡고 더 밝은 미래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길 기도한다.





최우수상

휴전선



진해안골포중 3 | 강혜인

38선이 생겨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져 유지되고 있는 지도 어언 59년이 되었다. 휴전선이라는 슬픈 선을 두고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의 슬픔은 대체 누가 헤아려 준다는 말인가? 북한과의 거리는 좁아지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만 간다.

59년이라는 숫자는 그리 쉽게 여길 수 없다. 한 살이 된 갓난아기도 59년 뒤에는 노후를 바라보고 있고,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도 59년 뒤에는 살아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그 세월은 우리에게 통일의 소중함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잊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 중 과연 누가 전쟁의 참혹함과 전장의 피비린내를 알고 있겠는가. 그리고 누가 이를 악물고 가슴이 찢어질 것같은 고통을 견디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생이별을 경험해 보았겠는가. 휴전선은 우리 민족의 영토를 가른 흉터일 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흉터인 것이다. 그리고 59년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은 흉터의 아픔을 무디게 만들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지도 오래된 일이다.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다. 난 어렸을 때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 울었던 기억이 있기에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본의 아니게 선생님께서 사회자를 맡아 주시는 토론 대회가 형성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들이 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고, 나는 머리의 지식을 충동원하여 주장을 내세웠다. 언어의 차이는 서서히 극복해 나가면 될 것이고, 경제력도 군사력에 드는 무수한 돈을 이용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토론은 의견이 맞부딪혔다가 막을 내렸지만, 내 의견에 동조해 주는 친구들도 늘었던 터라, 굉장히 뿌듯했다. 지금 떠올리더라도 내 의견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남한의 휴전선이 없어지면, 전쟁의 위험도 없어질 것이고, 국방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만, 통일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까 언급했듯이 휴전선 너머의 북한이 멀게 느껴지듯,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길기 때문이니까. 대신 조금 서운했던 것은 한민족의 통일을 원치 않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저 땅에 그어진, 지도에 새겨진 휴전선이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어져 서로를 기피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 점이 서운했다.

사상에 얽매어 지배당하는 북한 국민을 동정해서가 아니다. 나라의 돈을 거의 국방에 써버리는 나라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그저 모습이 같고, 같은 말과 같은 글과 같은 역사를 지닌 단일 민족으로서 적대감과 이질감을 가지고 싶지 않아 통일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휴전선이든 마음의 장벽이든 다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언어의 형태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북한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안타깝다. 통일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 당연하고 필수적일 텐데 말이다.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허나, 우리는 통일의 가치를 결코 몰라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하게 살아가게 해준다. 지도에는 휴전선이 그어져 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새 휴전선이 그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우리 민족의 얼에는 휴전선이 없다. 남한의 국민이든지, 북한의 국민이든지 모두 하나가 된 마음으로 통일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민족의 호랑이는 흉터라는 굴레를 벗고 세계를 향해 뚝박질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 할아버지의 고향



김해중앙여고 3¹하여진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고향은 개성이었다. 유년기를 제외하고 거의 평생을 남쪽에 내려와 살지만… 정말 이렇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었지.”

그 말씀에 나는 순간 할아버지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

“내려온 건 나 혼자였어. 내 나이 그때 열일곱이었지. 어리다고 하기도, 어른이라 하기도 애매한 그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스스로를 열심히 세뇌하는 것뿐이었어… 괜찮다고. 무섭지 않다고…”

“그럼 다른 가족들은요?”

할아버지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분명 고향 땅을 어루만지셨을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형님 내외는 일본에 유학중이었고, 아버지는 외국서 들어오는 물건 가지러 동생과 함께 멀리 계셨고… 집을 지키는 건 나뿐이었다. 총성이 울리고 마을 사람 모두가 피난민 행렬이 되어 버렸을 때… 난 혼자서 벌벌 떨며 옷가지를 챙겨 그 행렬에 합류했었지…”

할아버지는 향수에 젖은 눈동자로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셨다.

“어찌나 떠나기 싫던지… 우리 형제를 잘 돌봐주셨던 옆집 아주머니가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보따리 싸라고 으박지르지 않으셨다면 난 아마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게다.”



나는 과거의 할아버지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도 이쪽, 남한 땅과 다르지 않을까? 좀 더 척박하고 무섭진 않을까?

“덕분에 죽진 않았지만 정말 죽는 게 편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지… 후에는 일본에서 제일 교포가 된 형님 내외와 극적인 재회도 했지만… 아버지와 동생의 소식은 정말 들려오지 않더구나…”

그때의 할아버지는 정말 슬픈 눈매를 하고 계셨다. 분명히 텅빈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였지만 그 속엔 꼭 찬 무언가가 오랜 기간동안 방출되지 못하고 응집되어 있었다. 그 땀 너무나 어렸던 나는 그 슬픔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그저 ‘개성’이라는 낯선 북한 땅의 이름과 그 곳에 대한 부정적인 궁금증만으로 머릿속을 그득 메우고 있었다.

그 뒤 내가 조금 더 자라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희망을 가지시는 듯했다. 남북 평화회담의 개최라든가 남북간 여러 가지 교류가 생겨나자 정말 곧 통일이라도 될 것같은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간의 기대였을까. 통일은 다시 점점 멀어지는 듯했고 그 해 할아버지는 병을 얻어 앓아 누우시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게 앓으시면서도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희망을 놓지 않는 듯했다. 언제나 통일과 관련된 뉴스를 꼭 챙겨 보셨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자라고, 어릴 때의 기억 속에서 생소한 것으로 자리 했던 ‘개성’을 다시 만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병세가 더욱 진전된 탓일까, 자율학습을 빼먹고 찾아간 할아버지는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다.

“왜 그리 호들갑이나…?”

“개성공단, 할아버지도 들으셨어요? 할아버지 고향이 개성이잖아요. 거기에 남한의 기술, 자본이랑 북한의 노동력으로 국제 무역 자유 도시를 만든다고 해요. 정말 잘됐죠? 이걸 발판으로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런 호들갑에 할아버지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실 뿐이었다.

“잘됐구나… 옛날의 개성을 다신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측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어. 정말 잘된 일이야... 내 동생이 아직 개성에 산다면 그 아들이나 손주 녀석이 그곳에 취업할지도 모르겠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것은 분명한 기쁨이었다. 그것은 작은 염원이 어느 날 눈 깜짝할 새에 이뤄진 것처럼 무척이나 이슬이슬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욱 덤덤하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자연으로 돌아가셨다. 언젠가 가실 것이라는 걸 은연중에 짐작하고 있었을 뿐 현실감있는 것은 아니어서 나는 정말 슬펐다. 무엇보다 그렇게 염원하시던 통일을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꽤 편하게 눈을 감으신 것 같다. 내게 마지막 유언으로 ‘곧 통일이 오겠지?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살포트 미소를 지으신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통일이 곧 올까? 할아버지도 떠나시고 ‘개성’에 대한 생소함과 환상도 사라진 지금, 나는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식들을 들으며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죄스런 마음이 들었다.

〈...이에 따라 북측에선 개성공단의 무효화를...〉

세상은 점점 더 꼬이고만 있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평화 회담이었고 무엇을 위해 쌀을 보낸 걸까? 6·15 선언은 무엇을 위한 선언인 걸까? 할아버지의 고향 개성 땅은 무엇을 위해 할아버지의 옛 추억을 벗겨내고 있는 걸까..... 통일에 대한 염원은 계속되는 실망과 불안함의 연속일 뿐일까...

“아버지 묘에 언제라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인사드리러 가고 싶구나...”

“통일되면, 꼭 같이 가요. 약속해요.”

“그래, 꼭 함께 가자.”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못해 마음속에 붙잡혀 있었다. 우리 모두의 의식이 순수하게 하나로 통일될 그 날을 꿈꾸며,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약속을.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만 모두들 할아버지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한 희망으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할아버지...’



통일에 이르는 길



대암초 5 | 전소연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엄마의 추천과 통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오늘도 텔레비전엔 북한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를 억류한다는 보도였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 세운 게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의견이 나와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다.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2살 소녀이다.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때 참전 용사이시고 전쟁 경험을 직접 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난 평화로운 시대의 땅에 태어나 자라서 이제까지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와 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도 막연해 노랫말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갓난아기든 나이 드신 할아버지이시든 통일에 대한 염원은 모두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전쟁의 위험이 가장 큰 나라이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에는 북한과 문화·경제 교류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은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리고 왜 꼭 통일이 되어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통일을 이루는 길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6·25와 같이 한 민족끼리의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되고, 서로 떨어져 사는 이

산가족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힘이 강해져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예부터 살아온 환경이 달라 서로의 다른 점을 맞춰 가는 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잘 극복하며 통일을 이루고 싶은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들은 예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힘들고도 어려운 문제여서 쉽지는 않다. 하루 아침에 통일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서로의 다른 부분을 조금씩 맞춰 가면서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학생들도 작고 간단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 ‘에이~ 우리같은 학생들이 나랏일에 무슨 도움이 돼.’ 하고 콧방귀를 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진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나라로 만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넌 어린이잖아?’라는 편견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난하게 살다 남한으로 온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터민을 잘 대해 주는 것도 통일에 이르는 길 중 하나일 것 같다.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졌지만 나는 아직 금강산에 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북한 관광을 주말 여행 코스로 자유롭게 가 볼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세계에서 제일인 IT 기술력을 가진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조화인가? 더 이상 군사비에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겠다.

이 글을 쓰면서 평소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통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가슴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머리로는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통일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겠다.



휴전선



대방중 3 | 마주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 국가, 한국은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를 마주 본 채로 지난 60여 년을 살아왔다.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나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통일은 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차이로 인해 서로간의 문화도 잘 몰라서 문화 교류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산가족 상봉, 집단 방문, 북한인들의 탈북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등 여러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945년 6·25 전쟁에서 같은 동족간의 비참하고 슬픈 다툼으로 인해 결국 휴전선이라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휴전선, 38선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로 언제나 우리 사이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처의 판문점 역시 선 하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엔 군인들이 서 있는 곳으로 통일이 되기까지의 장애물 중 하나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판문점 앞을 지키는 남한과 북한 군인들이 상사 몰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다가 상사에게 적발되어, 있었던 일들을 털어 놓으며 자백을 하다가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휘말려 서로간의 이념 대립

으로 인해 두 나라는 갈라지게 된 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영화에서도 각각의 이해가 맞지 않아서 단지 그 두 나라가 같이 지내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고 중죄가 되는 것이었다. 서로 빨갱이니, 뭍니 하며 서로를 욕하는 습관은 하루빨리 지워서 통일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며 지금과 같이 분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민족 의식은 아직까지도 피 속에서 흐르고 있다.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를 볼 때처럼 말이다. 우리가 먼저 상대를 배려하겠다는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상대도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다.

영화 '크로싱'에서도 북한에 사는 한 가족의 예를 보여 주며 북한의 어려움을 묘사한 영화인데 아픈 아내를 위해 약을 구하러 아내와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탈북하여 남한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남한으로 가는 길을 알려 준다는 사람에게 속아 끝내 약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못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던 아들이 탈북을 하다가 북한군에게 걸리게 된다. 생존을 둘러싼 채로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지닌 아버지와 지나치게 체계화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는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랑 많이 다르구나 저렇게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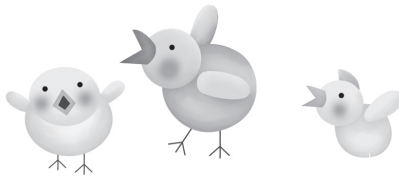
또 고정욱의 소설 중에서는 탈북해 온 새터민의 독특한 억양, 생김새 등으로 인해 학습 부진과 너무나 다른 문화에 따른 문화 충격에 더불어 왕따까지 당하는 우리 또래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남한은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겨우겨우 탈북을 했는데 그 대우가 고작 이런 것이라니 새터민들은 정말 살기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터민들은 단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청소년들은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집단에 대한 헌신성도 높고 책임감도 강하다. 또 자본주의적으로 세련된 남한에 비해 공산주의 밑에서 자란 북한 청소년들은 성격이 급하고 거친 편이다. 또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 자유·경쟁·사유·재산·자아실현 등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협동과 집단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



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새터민과 남한 청소년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새터민으로부터 북한 얘기를 듣고, 북한 문화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 양쪽 모두는 언제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마음과 공손한 태도로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귀기울여야 한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 채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방법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든 함께 살게 될 진짜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라 남북의 모든 국민들이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 같이 지내려면 그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려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린 통일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휴전선 양 끝에서 ‘아, 여기서 몇 걸음이면 바로 남한(북한)인데…….’ 하는 근심을 갖지 않게 판문점과 높은 휴전선 철조망들을 하루빨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남북한은 언제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친구들과 하루빨리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내게 빨리 현실로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개성을 바라보았다



창원문성고 1 | 김태훈

개성은 언제나 분단의 시대를 사는 나에게 신비로운 도시였다. 고려의 수도였던 송악이었고 고려의 멸망을 막으려던 정몽주의 피가 서린 선죽교가 있는 곳.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의 고향이기도 한 그 곳.

그런 개성에 몇 년 전부터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남과 북, 한민족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뉴스에서 첫 개성 관광의 모습을 비추며 선죽교를 비출 때는 한없는 기쁨을 느꼈지만 어디에선가 그 소설가가 개성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 뒤로도 몇 년이 지났지만 개성에 대한 내 관심은 계속되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도 끊임없던 개성공단의 발전을 보며 저곳만은 우리 민족이 합쳐져 공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저곳이 무너지면 통일도 힘들어진다는 불안도 동시에 느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후자로 기울어지는 것같이 불안하다. 입주 기업이 늘고 생산성도 올라간다면 공단 확장의 이야기도 나오던 것에 반하게도 북한이 갑작스레 개성의 문을 좁히려 하는 것이다.

남측의 정치적 요인도 아닌 직원 한 명을 60여 일이 넘게 억류하고 있고 공단의 노동자 임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푸르기만 하던 개성의 하늘에 갑작스레 먹구름이 겹겹이 쌓이는 것을 나는 슬픈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



는 것일까.

처음 공단을 만들 때만 해도 양측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며 서로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던가. 북한은 왜 일방적으로 이곳의 문을 좁히고 있을까.

평소 북한에 관심이 많던 내가 알기로는 북한이 개성의 관광과 공단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몇 안되는 북한의 외화 수입이다. 이곳이 무효화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손해도 있겠지만 북한의 손해는 매우 심각할 것인데 하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양측의 소통 창구이자 교류의 장이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차이를 좁히고 한민족임을 재확인시켜 줄 그곳이 바로 개성이다. 이렇게 중요한 개성의 문을 좁히는 이유는 아마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외부의 정보 유입으로부터 기반한 민심의 이반으로 인해 체제의 위협을 느껴서가 아닐까 생각하던 내 머릿속엔 문득 백여 년 전의 대원군의 상황이 스쳤다.

그 또한 주변국들에게 위협받는 조선의 자존심과 처지를 생각하며 전국에 외세를 배격한다는 척화비를 세우고는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

오랜 기간 고립된 조선은 자강할 기술과 자본이 없었다. 결국 조선은 갖은 굴욕을 당하며 주변국들에게 농락당하다 일제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던가.

지금 북한의 결정은 그때 대원군의 결정과 꽤 닮은 것 같다. 저러다 북한이 고립을 택하고 혼란 속에 자멸해 버린다면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 심각한 괴로움과 간섭을 받고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평화·자주통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아직 우리에게겐 기회가 남아 있다. 북한이 극단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개성을 더욱 지원하고 북한의 공포를 씻어 준다면 그렇게 나쁜 미래가 아니라 희망찬 한민족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유쾌한 우리의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개성을 둘러싼 남과 북 양측의 충돌을 바라보는 날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개성이 출발한 그 목표대로 정말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같은 한민족으로 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 우리는 평화 통일에 대한 준비만을 하기에다 바쁘다. 양측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 대립되는 상황을 막았으

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민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마 내가 앞으로 지켜볼 모습이 되리라 희망한다.

개성은 예나 지금이나 나에겐 꿈의 도시이다. 이 꿈의 도시는 눈앞에 닥친 이번 위기를 헤치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는 꿈의 도시가 확실하다고 믿어 본다.

개성, 참 좋은 이름이다.





통일을 만드는 길



마산석전초 6¹ 허재희

우리나라는 내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부터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나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들어간 후에야,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 민족, 한 겨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6·25 전쟁을 계기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긴 채 아름다운 한 나라를 둘로 나누어지게 한 것이다.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그 아픔과 참담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보통 친구와 때리고 싸워도 엄청난 상처와 서로에게 앙금을 남기는데, 한 민족이었던 서로를 죽여야 한다면 그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알 수 있다. 남북이 서로 나누어진 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 남북 전쟁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고 남북한이 교류가 적어졌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의 길을 만드는 건설업자가 되어야 한다. 선녀들이 무지개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남북한의 휴전선 대신 통일의 다리, 즉 통일의 길을 내어주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은 통일의 길을 걷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었다. 나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6·25 전쟁을 생각하면 아물었던 마음도 다시 아파올 것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던 북

한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롭게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냐고……. 하지만 이제 나는 통일의 길을 이루어낼 자신이 조금은 생겼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그들의 굳센 기운과 통일의 바람을 이어받아 하루빨리 꿈같은 통일의 길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휴전선을 그렇게도 잘 만들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통일의 길을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너무도 아깝지 않은가? 통일의 길은 멀지 않다. 남북이 서로 행복하던 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통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의 길을 걷는다면 국민들은 육체적인 아픔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받지 않은 채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휴전선이 있던 자리에 통일의 길이 생긴다면 우리는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흠어졌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며 우리의 발달된 문물과 기술을 전해 주면 우리나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 2008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때 나는 북한이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는 증거이다. 북한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이 같이 경기를 나갔더라면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통일의 이로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통일을 하면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 겨레, 한 민족이기에 서로에게 의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 나라가 지금까지 두 나라로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 분단국가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통일의 길을 만드는 최우선의 방법은 우리가 북한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교류를 하며 서로가 돕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 통일은 힘들지만 보람찬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만드는 건설자가 된다면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꼭 이루어져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름은 지워 버리고 통일의 다리를 놓은 국가라는 빛나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휴전선



창원대방중 3 | 지우연

평화롭기만 하던 1950년의 어느 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서로의 머리를 향한 총부리는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서로를 도와주던 품앗이의 정을 잊은 지 오래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공격은 3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지나게 했다. 오랜 전쟁으로 남은 것이라곤 메말라버린 눈물과 절망밖에 없는 많은 이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휴전선이라는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조상을 섬기며 같은 전통과 문화를 가진 우리들은 둘로 나뉘어져 휴전선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잘라 없애 버리면 그만일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이 되어 살아온 지 어언 60년. 그간 흘러가는 세월 따라 높아질대로 높아져버린 우리들의 마음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 등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제 대회에서 제각기 다른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어린 아이들의 싸움처럼 서로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라면 좋으련만, 애석하게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서로를 위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우리가 하나였다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같은 역사와 핏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 권이 아려온다.

최근 끊임없는 핵 관련 연구를 통한 미사일 발사로 우리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잃어버린 반쪽,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엄마에게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다름없지만 그래도 나의 가족이기에 모른 채하러 해도 자꾸 눈에 밟히곤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면서도 혹여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굶고 다니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식량과 같은 여러 물자들을 보내어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남한의 우리들. 그래, 역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한 가족이다.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지만 본능적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터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극히 소극적이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탈북자를 뜻한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떠나 온 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체류가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완전한 한국 국민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이나 집을 구하는 일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특성상 지역의 고유한 번호를 가지게 되기 마련인데 새터민들은 하나원이 있는 지역의 번호를 가지게 되므로, 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는 자신들이 새터민이라는 하나의 꼬리표가 되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 입으로는 우리는 한 민족이고 어서 통일이 되어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새터민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들의 태도는 마땅히 버려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2009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둘이다. 60여 년이란 세월을 하나가 아닌 둘로 살아오면서 말도, 풍습도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 이젠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같은 핏줄을 가진 한민족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비록 지금은 가느다란 선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이지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다시 일어서던 우리들이었기에 지금의 시련 또한 곧 딛고 일어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들을 갈라놓은 휴전선이지만 우리들의 마음까지 가르지는 못했으니 말이다.



초콜렛의 의미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2¹ 천이슬

내가 이곳에 억류된 지 50일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당한 판결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체 없는 두려움에 점점 나약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도 나의 이 부당한 현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분단의 비극을 잔뜩 품은 채 한반도에 드리운 이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음울한 회색빛의 벽 가운데 뚫려 있는 작은 창문을 응시했다. 창문 밖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했었던 나의 일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경제 협력 통로이자 간접적으로나마 한반도 내의 보이지 않는 유기체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그 곳이 향후에 역시 존재할지는 미지수였다.

공허한 눈동자는 어느새 다시 현실의 회색 벽 앞으로 돌아와 있었다.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고통의 경계. 그곳에 마주한 나는 현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암담한 나의 처지에 신음하고 있을 때였다. 쇠의 마찰음과 함께 평생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이 입을 굳게 다문 채 닫혀 있던 문이 열린 것은.

“남조선 청년, 날레 먹으라우”

초조한, 그러나 안쓰러움이 가득 묻어 있는 얼굴의 그는, 내가 이곳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몇 번 안면만 익힌 청소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건넨 것은 반쯤 녹은 초콜렛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나의 손에 초콜렛을 쥐어 주었다. 곧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할아버지는 녹이 스 철장과 열쇠 구멍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담당 경관이 열쇠 구멍이 녹이 스 탓에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아 신경질을 내더니 결국엔 할아버지를 부른 모양이었다.

“영감탱 빨리 하고 오라니 뭐하고 있나?”

어느새 앞까지 다가온 경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나에게 초콜렛을 건네주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 묻어 있었던 것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관이 서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리라.

연신 열쇠 구멍을 닦아대던 할아버지는 경관의 목소리에 잔뜩 주눅이 들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채 닦지도 못하고 경관의 뒤를 따랐다.

할아버지와 경관이 자리를 뜬 후 공간에는 익숙한 침묵이 찾아왔다. 손에 쥐어진 초콜렛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자니 초조함과 안쓰러움, 그 모순된 감정이 뒤섞인 채 공존하고 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쩌서 그의 얼굴이 안쓰러움으로 가득 물들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몰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어쩌다 나와 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시선을 먼저 피해버리거나 알 수 없는 감정을 담은 눈으로 힐끗 쳐다보는 게 다였고, 더군다나 내가 이곳에 갇힌 후 받아본 시선이라고는 증오와 경멸의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할아버지의 얼굴과 늘 나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던 경관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초콜렛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던 나는 초콜렛 껍질을 조심히 벗겨 내었다.

껍질을 벗기자 그 안에는 이미 반쯤 녹아버린 초콜렛이 자리하고 있었다. 녹은 초콜렛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베어 물었다는 표현보다 마신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만큼 초콜렛의 모양은 형편없었으나 맛만큼은 이제껏 내가 먹어본 초콜렛 중 최고라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초콜렛 속에서 할아버지가 나에게 늘 지어보이셨던 그 표정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내가 한민



죽이라는 증거였으며 곧 희망이었다.

어느새 나의 두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민족의 분단의 고통,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내린 그 달디 단 초콜렛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제주도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 _ 437
- 하나이기를 희망하는
내 마음속의 지우개 _ 439
- 오름 위 할아버지 _ 442
- 야, 넘어오지마! _ 444
- 선택 _ 447
- 할머니의 슬픔 _ 449
- 금강산에 매화나무를 심을래요 _ 451
-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_ 454
- 호랑이는 살아 있다 _ 45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



제주삼성초 6¹ 오지수

메마르고 갈라져 있던 내 마음속에 통일의 싹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작년 뜨겁던 여름이었다. 청소년 단체 국토순례에 참가하게 된 나의 관심은 온통 파주 영어마을과 롯데월드에 가 있었다. 그런 나에게 일정 중에 있었던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것은 통일을 향해 내딛게 된 첫 발걸음이었다. 처음으로 보게 된 북한의 모습은 남한의 모습과는 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모습을 보니 쿵쾅거리는 내 심장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이곳에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이산가족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다 통곡으로 변하는 모습의 내 눈시울을 아프게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제2땅굴을 통과하며, 이 땅굴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이 통과할 수 있다는 설명에 처음으로 전쟁의 실체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공포가 느껴졌다. 그리고 평화 바로 곁에는 전쟁도 있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북단 월정리역에 가 보게 되었다. 현재, 열차는 달리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내 마음은 안타까움에 어쩔줄을 몰랐다. 이 역에서 열차를 타고 저기 보이는 평양에서 밀대, 대동문을 구경하고 시원한 냉면을 먹고 나서 묘향산을 지나 개마고원을 넘어 백두산 천지까지 가다가 남한을 구경하는 북한 청소년 단체에게 손을 흔드는 내 모습이 저 창 너머로 지나가고 있었다.

국토순례를 마친 나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짐을 정리하자마자 우리나라 지도를 펴고 꼼꼼이 짚어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도의 아픈 허리를 매만지며 내가 다녀온 곳을 다시 한 번 찾아 보았다.

그러면서 지도의 아픈 허리를 고칠 수 있는 통일의 두 번째 발걸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꼼꼼이 생각해 보았다.

첫째, 초등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통일의 날을 정하여 1시간동안 통일 관련 비디오 자료를 보며 북한의 생활에 관하여 알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이 통일의 날에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곱밥, 얼음보숭이, 차마당같은 말들을 써 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만 사용한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 남한사람, 북한사람, 조선족,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모이면, 유독 우리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 많은 외래어들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셋째, 이 통일의 날에는 급식 시간에도 북한 친구들이 주로 먹는 옥수수과 감자, 수제비같은 음식들을 먹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 친구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어려운 북한 친구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다. 사랑의 빵 모금함처럼 통일 저금통을 마련하여 항상 “북한 친구들은 어려운 내 짝꿍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 우체통도 마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친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통일을 향한 세 번째 발걸음을 당당하고 힘차게 내딛을 때, 우리나라의 허리를 아프게 했던 군사분계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통일의 나무가 무성히 자라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계를 향해 달려 나가려는 호랑이의 완벽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준비된 통일은 아픔 없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 통일호는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하나이기를 희망하는 내 마음속의 지우개



서귀중앙여중 2' 고유나

지난 토요일 우리 학교 학생 모두 서귀포외국문화학습센터에 다녀왔다. 그 곳에서는 6·25 관련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학교 밖 외출이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아닌 까닭에 아이들 모두 '왜요?' 라는 투정을 하면서 즐겁지 않은 발걸음을 옮겼다. 6·25 관련 사진을 보는 것이 처음도 아닐뿐더러 재미없는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단지 학교 안 수업이 아니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별 생각 없이 사진전 장소에 들어섰다. 하지만 사진들을 하나 하나 보는 순간 아침 등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TV 뉴스 내용이 생각났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법규와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과 앞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 이런 내용들이 내 머릿속을 스치면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초조함이 나를 긴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고 있는 사진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진을 바라보는 내 눈에 힘이 들어감을 느꼈다. 얼마 없으면 매해 거리를 걸으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아주 오래 전 1950년 6월 한창 싱그러움이 넘치고 꽃 향기 나무 향기가 가득해야 될 한반도에는 피 향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 소리 대신에는 형제끼리 죽이고 때리는 총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

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휴전선이란 선이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버렸고 북한과 남한은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가장 가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현실이 만들어졌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고 희망을 앗아갔고 행복을 앗아갔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들었다.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감시하게 하는 불신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과 슬픔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의 숙제를 남겨줬다. 언제 해결하게 될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평화통일’이라는 크고 어려운 숙제를 남겨줬다.

나는 종종 텔레비전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본다. 그들은 주르륵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몇 십 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고향을 몇 십 년이 지나도 못가고 평생을 못 갈 수도 있는 슬픔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아픔 역시 그들의 눈물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산가족의 모습을 보는 그 한 시간동안 정말 휴전선이 야속하고 분단이라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그들은 단지 가족들과 잠 한 번 같이 자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그게 행복인데 휴전선이 그 작은 행복마저 빼앗아 간 것 같아서 너무 알뜰고 선을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 옥의 티처럼 그어진 작은 선 하나를 지우개로 쓱쓱삭삭 지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릴적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통일에 대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젠 나를 비롯하여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때가 온 것 같다.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인 아니라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통일’은 더더욱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간직하고 ‘통일’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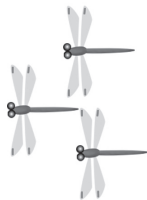


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다. 이것이 이산가족과 가족들을 북한에 남긴 채 살아가는 새터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과 선물이 아닐까 싶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지난 과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로를 감싸주는 강과 바다처럼 우리도 북한 친구들을 감싸주고 눈꽃이 따뜻한 햇살에 스르르 녹는 것처럼 서로에게 있는 서운함, 미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 가며 통일이란 높은 산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분단이란 현실로 인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을 사람들의 눈물을 '평화'라는 손수건으로 닦아주어야 되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 속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통일'이라는 약으로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미운 휴전선을 '평화통일'이라는 지우개로 쓱쓱삭삭 지워야 할 것이다.

내 노트에 지우개를 사용할 때가 생각난다. 지우개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지워야 할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노트가 찢어져 버렸다. 또 지우개가 꺾어져 버리기도 해 황당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내가 지우개를 사용할 때의 조심스런 마음처럼 서로의 마음이 찢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두 동강이 나지 않도록 더 큰 세심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하늘에 요즘과 같은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서로의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파란 하늘이 멀리 있지 않음을 기대해 본다.



오름 위 할아버지

대정고 2¹차수만

어느 날부터인지 아침 새벽에 오름을 올라가 보면 한 할아버지께서 멍 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 마을은 작아서 누가 누구인지 서로 다 알고 지내는데 오름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는 처음 본 할아버지였다. 평소에 관광객이 많은 우리 마을이기에 나는 “관광객분이 잠깐 쉬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또 다음날에도 오름을 올라가 보면 그 할아버지께서는 먼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오름에 올라가 보면 요즘에 한 할아버지께서 오름에 올라 먼 하늘을 멍 하니 바라보고만 계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께서는 “아 혹시 이번에 이사 온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한 할아버지께서 이사 오셨다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났다. “그 할아버지의 가족은 모두 북쪽에 계신단다. 그래서 홀로 지내시지, 그 할아버지를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따뜻하게 잘 해 드려라.” 나는 다음날에도 오름에 올라와 계신 할아버지께 먼저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이른 아침 오름을 오르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보시며 “이 오름을 오르는 게 뭐가 힘드냐. 이 오름을 100번 올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쉬지도 않고 100번 아니 1,000번도 오르겠어.” 할아버지께서는 씩씩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우익 활동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다. 그



후 수십 년 간 고향 땅을 밟아 보지 못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 아내와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오신 걸 한스럽게 여긴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시며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기였을 때 함께 찍은 모습이 더욱 가족들이 그리워져, 남들은 가족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난 우리 아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느라 애 없는 아이로 만들었어! 할아버지의 눈가는 어느새 빨개져 있었고 나 또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6차례 이루어 졌고 1만 6,369명의 가족들의 서로 부둥켜안았다. 하지만 올해는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이산가족의 상봉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알지 못한 채 수십 년동안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은 크나큰 마음의 아픔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이산가족에게 필요한건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친구들도 할아버지의 사정을 듣고는 많이 안타까워하였다. 친구들은 다음날 나와 함께 오름에 올라갔고 그 날도 여전히 할아버지께서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고 계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오늘은 내 친구들과 함께 왔다고 하였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사람이 북적거리니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나와 친구들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두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어 드릴게요. 저희를 친손자처럼 생각하세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지내온 수십 년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아버지를 웃게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할아버지를 만난 후부터 나는 이산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산가족은 정부만이 나서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지만 잘못된 생각이었다. 나 자신부터 이산가족들에게 손을 내밀면 이산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오름 위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산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야, 넘어오지마!



남광초 6' 임나리

“야, 넘어오지 말라고!”, “알았거든, 치사해서!” 도덕시간 우리 반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 덕에 ‘분단 체험’이란 걸 하게 되었다. 교실 가운데에 긴 줄을 붙이고 그 줄을 기준으로 남한, 북한으로 갈리놓은 체험이었다. 북한이나 남한에 함부로 넘어가면 안되고, 서로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원하는 물건이 다른 쪽에 있을 때는 복도를 통해 빙~ 돌아서 가야 했다. 처음에는 분단 체험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척 즐거웠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가운데에 선을 붙이셨다.

나와 내 친구는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서운했지만 난 곧 분단 체험에 빠져 버렸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시간 열심히 내가 그린 그림을 색칠하고 있었는데 내 짝이 장난을 치다가 내 손에 물감을 ‘찍’ 하고 그어 버렸다.

“아, 진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한창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 짜증이 났다. 더군다나 남한 어린이였던 나는 싱크대가 있는 북쪽으로 가야 했다. 손이 찢뜩찢뜩한걸 꼭! 참고 복도를 통해서 손을 씻으러 갔다.

‘자,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 볼까?’ 다시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미술 도구들이 다 남쪽에 있었던지라 북한 아이들이 앞에서 왔다갔다거려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손을 뺐으면 닿을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쓰레기통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도를 통해 쓰레기를 버려야 했다.

자꾸 왔다갔다하다 보니 짜증이 났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양쪽 아이들도 짜증이 나 있었다. 친구끼리 쉬는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손 씻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책을 읽으려고 할 때도 빙 돌아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짜증이 났던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양쪽 대표 어린이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 그냥 통일해!” “돌아다니는 거 귀찮다고!” “야, 야, 그냥 우리가 쳐부수러 가자.” “아님, 서로 대화로 풀던가.”

양쪽에서 통일하라고 하니 귀가 무척이나 아팠다. 결국 각 대표 어린이들은 통일하기로 하고 화해를 했다.

통일 후 다시 편해지자 통일하기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언론이 떠들썩하다. 난 개성공단도 6·25전쟁도 잘 모른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공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밖에는 모른다. 6·25 때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도 총알에 맞으셔서 다리에 흉터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짓기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사람들도 잘 모를 것이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학교에서 체험했던 분단 체험처럼 지금 무척이나 많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

나도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을 때 먼저 가서 대화로 사과를 한다. 정말 미안하다고 나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한다고 우리가 친구와 싸우고 난 뒤 사과할 때 때리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화로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 한다.

‘먼저 가 사과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통일을 향해 한걸음 다가간다면 통일의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단 체험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무력보단 대화! 아름다운 대화라는 것이다.

이제 곧 하나가 될 우리 한반도의 이란성 쌍둥이 남한과 북한! 명심해야 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선택



효돈중 2 | 임선경

영경귀야 영경귀야
철원평야 영경귀야
난리통에 서방없고
홀로사는 영경귀야

위 시는 민영 선생의 ‘영경귀 꽃’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서로를 무력으로 상대방을 누르려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우리인데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 전쟁에서는 과연 어떠했을까? 이 전쟁은 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이므로 전쟁의 불안감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휴전으로 인한 전쟁의 불안감은 물론이고, 국방비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사라짐과 동시에 전쟁으로 생겨났던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력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전과 같이 전쟁으로 통일을 시도한다면 지난 과거의 잘못을 반

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서로를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또한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을 회복하느라 나라를 합치는 데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 싶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무력적인 방법으로 통일한다면 겉으로는 쉽게 통일이 되지만 안으로 통일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통일을 좀 더 빠르게 위해서 힘을 이용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밖에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 통일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다른 점들을 수용하고 이해했을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을 한다면 적어도 통일이 되었을 때 생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과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통일 관련 여러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쓰기, 통일퀴즈대회, 통일관련 동영상 관람과 같은 일들을 말이다. 또한 TV를 보면 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언어, 사회, 정치, 경제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북한의 다양한 모습들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려주는 등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북간의 교류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남북 사이가 좋지 않은 요즘같은 때일수록 만남을 자주 갖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한 민족임을 기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는 홍익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느 것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슬픔



제주한림고 2'강지민

“그땐 그랬었지...”

오늘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워서 듣기 시작했다. 직접 겪어보지 못한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6·25 전쟁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는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언니와 이별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꼭 내가 찾으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살아만 있어...”라는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언니는 지난 60년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내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남한과 북한, 둘 중 어느 편도 들지 않으셨다. 내가 누가 잘못했냐고 물어 보면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항상 말씀하셨다. “한 가족인 우리가 등지고 살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며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셨다.

나는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6·25전쟁이 낳은 참혹한 현실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할머니가 꿈속에서 언니를 만났다고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가슴이 찡해져 왔다. 할머니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른다면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때리셨다. 나는 학교에서 야영을 갔을 때도 가족이 그리웠는데 몇 십 년 동안 얼굴을 못 본 채 살아온 이산가족들은 오죽할까 싶었다. 3.8선이라는 이름으로 휴전선은 가족들의 이별을 만들었고,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리움의 피멍을 남겼다. 우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이산가족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의 아픔의 크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통일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경제 정책이나 언어 사용의 문제 등 감수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기 전에 남과 북,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산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통일에 성공한 국가로 변화시키자는 마음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을 흥얼거리기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입만 움직일 때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라’는 언행일치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하나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도 남한과 북한, 두 팀이 나와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 내지 않고, 함께 응원하고 소리 높여 애국가를 부르는 날이 오도록 힘써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피할 수 없는 숙제인 ‘통일’을 찾고 풀어나가야 할 때, 바로 지금이다. 유명한 시인 류시화의 시 중엔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가슴을 울리는 시구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비록 6·25전쟁이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이 빨리 없어져서 할머니가 꿈에서가 아닌 실제로 언니를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오늘도 난 할머니의 곁에서 호기심이 가득찬 눈빛으로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 통일이 된 후의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상상하면서 말이다.



금강산에 매화나무를 심을래요



노형초 6 | 문석영

“에이, 그럼 이제는 금강산에 나무 심으러 못 가겠네.”

“글쎄-,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지?”

엄마는 고집쟁이에다 변덕쟁이인 북한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올해도 금강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적십자 단원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매년 식목일을 전후해서 각 시도에서 뽑힌 적십자 단원들과 북한 청소년들이 하나가 되어 금강산에서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정의 나무 심기는 햇빛은 북한 땅에 나무를 심어 울창하게 만들고, 정기적으로 남북의 청소년들이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행사이다.

2년 전에 우리학교 선배 언니가 도 대표로 뽑혀서 금강산에 우정의 나무를 심으러 갔다 왔다.

“북한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우리들보다도 남을 더 배려해 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더라.”

“피꼬리같은 목소리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나도 배워 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

선배 언니는 침이 마르도록 북한 아이들 자랑을 했다. 선배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적십자 활동을 열심히 해서 꼭 금강산에 우정의 나무를 심으러 가지!’

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다짐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작년부터 북한은 놀부 심보가 터졌는지 우정의 나무 심기 행사를 중단해 버린 것이다. 나는 맥이 탁 풀려 버렸다.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금강호’라는 금강산 관광선을 타고 금강산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을 본 적이 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북한이 고향인 반백의 실향민들이었다. 그 중에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밟을 수 없는 고향땅을 향해 남한에서 가지고 간 음식으로 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50년 넘어 어머니 보러 왔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할아버지를 보니 나도 눈물이 났다. 옆에 계신 엄마는 훌쩍훌쩍 소리까지 내며 우셨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보고 싶으셨을까?

나는 하루만 엄마를 보지 않아도 엄마가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는데 50년 넘게 어머니를 보지 못했으니 보고픈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통일이 되었으면 나처럼 매일매일 엄마를 볼 수 있을 텐데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가엾고 측은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바람이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조금만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 나간다면 통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너 때문이야’ 하고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모두가 ‘내 탓이다’ 하며 평화롭고 온건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은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올해에는 금강산에 우정의 나무를 심으러 가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남과 북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정의 나무 심기 행사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일 년에 한 번이 아니라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금강산에 가서 마음껏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때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매화나무를 금강산에 잔뜩 심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이른 봄 사랑의 상징으로 으뜸인 새하얀



매화꽃의 향기가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의 미소를 안겨 주겠지?
내 눈엔 벌써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금강산이 떠나갈 듯 남북의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표선중 3 | 김동우

내 꿈은 소설가이다. 글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다. ‘소설가’라는 직업을 꿈꾸며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본다. “소설가 김동우씨의 소설 ‘추억의 나날들’이 평양에서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 이래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서 깎 때마다 피식 웃음을 지으며 ‘이런 일이 있으려구...’ 라고 다시 내 뇌리에 못을 박아 놓는다. 그러나 내 뇌리에 있던 생각은 얼마 전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확 바뀌어 버렸다. 뉴스 중에 ‘전국노래자랑’의 MC를 30~40년 가까이 해 오신 송해 선생님의 뉴스를 접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이야기지만 송해 선생님께선 특별 기획 평양 노래자랑으로 평양을 다녀오셨었다. 그때는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인 실로폰과 등수를 매길순 없었지만 송해 선생님이 평양 주민들과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어렵사리 영상으로 보았는데 정말 감동스러웠다. 대화 내용엔 별게 없었지만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감동스러웠다. 송해 선생님께선 기억에 가장 남는 분이 자신보다 한 살 위였던 이춘봉씨라고 하였다. 자신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것을 알자 “내 동생이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송해 선생님은 평양뿐만 아니라 고향인 재령 등 여러 곳에서도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6년 전 뉴스였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게 되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



있으면 한다.

솔직히 난 1~2년 전만해도 ‘통일을 하나하나 내 알 바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뉴스를 접하고 2학년 때 수업을 받으며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헤어진 가족들을 이산가족 상봉에서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 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모습,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혈투는 모습이 내 눈에 선히 비춰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그것 중 하나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통일글짓기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통일 작품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역할은 할 수 없어도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 전에 쓴 ‘추억의 나날들’이란 소설의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 떠오른다. 동생과 어머니의 납골단지를 들고 백두산 천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 형의 모습, 이 장면으로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눈물은 민족의 비극 등 통일이 되기 전 여러 문제들이고 웃음은 이산가족들의 기쁨 한민족이 다시 뭉친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난 마지막 부분을 쓰다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웃는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있다가 나는 엉뚱한 질문을 친구들에게 해 보았다. “너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어?” 라고 물으면 모두들 자신의 장래 희망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이나 새터민들은 어떨까? 그들은 대부분 통일을 외칠 것이다. 왜 대답이 다른가? 단순히 가치관,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민족의 한 목소리로 통일을 염원한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호랑이는 살아 있다



신성여고 2¹박건희

“굳센 나라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굳게 뭉쳐야 하는 것이요, 마지막 셋째는 민족의 성품을 지켜 장점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학자 북애가 《규원사화》에서 언급한 강국의 요건 세 가지이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대외적 위상과,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가 한 국가의 권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것이다. 한국은 20세기 중반 남북으로 갈라져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해 왔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길로 나아가니 이는 마치 호랑이의 앞발과 뒷발이 방향을 잃어 우두망찰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형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호랑이가 여우보다 약한 존재로 전락하듯,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제대로 뽐어내지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몇 년 전부터 신문, 방송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봤다. 동북공정이란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중국의 동북공정 계획은 더욱 치밀해지고 실질화되어 마침내 고구려 호태왕비와 장군총을 중국의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등, 막



연하게만 보였던 그 계획이 직접 우리 눈에 보여져 온 국민의 가슴을 섬찟하게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남한의 민간 외교단체에서 국제사회에 항의 문서를 보내고 우리의 주장을 소리쳐 보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펼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비해 너무나도 미약한 비명 소리일 뿐이다. 만일 남한의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 관계에 차질이 생겨 '더욱'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바심을 내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한계점은 중국이 차지하려는 역사, 즉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남한이 간섭할 수 없는 북한과 중국의 영토를 주무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학자들이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한이 생겨 우리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사실 남한보다도 더욱 깊은 관계를 중국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남한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또한 대내적 문제 - 기아, 자연재해 복구, 체제 안정 - 와 여타 외교 문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어찌 문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을까? 비단 동북공정 프로젝트에만 얽힌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서, 호랑이의 앞발과 뒷발이 영커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과 방어력에 큰 손실이 생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 지구촌 사회에서 이대로 멀뚱히 서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이 가진 역량이 너무나 아깝다. 숨겨진 한반도의 빛이 너무나 슬프고 호랑이의 우렁찬 소리가 울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 언젠가 열렸던 '고구려사 국제 학술 심포지엄' 행사에 북측 학자가 논문을 보내 남측 학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적이 있다. 이처럼 남북한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 받을 내딛는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국가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북애가 말했던 강국의 요건이 기억나는가?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야 한다.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굳게 뭉쳐야 한다. 민족의 성풍을 지켜 장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에 한반도라는 호랑이의 위엄 있고 강한 소리가 널리 퍼지는 날을
오늘도 나는 기다려 본다.



2009 제14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초 판 인 쇄 일 2009년 10월 24일

초 판 발 행 일 2009년 10월 28일

발 행 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수유동)

전화 02) 901-7122

홈페이지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현프린트

전화 02) 2273-7142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44-10

